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Winter 2000 겨울호

2000



젊은 이론

IMF해결한 신자유주의, 교육도 구할 것인가
21C 인간관계는 개인 아닌 연대 - 공동체주의

재밋는 교실 Classroom

혼자 하는 과학수업은 없다 - 과학수업에서의 협동학습



Millennium 특별기획

21C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바꿔야 할 5가지, 찾아야 할 5가지
새로운 세기, 한국교육에 바란다

기획 르포 -임시 앞에 온국민이 무릎 꿇은 나라, 대한민국

아시아 밀레니엄 교육

일본 - 21C 일본교사들은 어떻게 21C 학생의 멘토가 되어야 할까?

중국 - 21C 중국, 교육은 바로 아시아 최강국 꿈꾼다

인도 - 거대한 인구가 있는 인도, 그 역설의 힘에 21C 인도의 희망이 있다

태국 - 21C 교육 개혁부터 태국의 21C 교육은 시작된다

Information

Research Findings - 최근 발표된 해외연구결과와 5가지
중등학교 생물, 물리, 일반사회 임용시험 출제방향 및 시험문제
'98-'99 외국학위논문 리스트

21세기에는 창조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변화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이 예고되는 21세기에 있어서, 상황을 주도할 수 없는 공동체에 미래는 난폭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는 이미 20세기에 이민족 식민지배와 남북분단, 그리고 최근의 IMF 사태를 통해서 이를 경험하였다. 상황주도력을 갖춘 공동체는 자율적 생존력을 발휘하는 사회이다. 그런 사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현명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깨어 있고, 각성된 의식과 창조적 에너지로 주어진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불행히도 우리의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상황주도력을 갖추게 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교육이 창조적 인간을 기르기보다 수용적 인간을 길러왔기 때문이다. 교육내용이 내생적인 것보다 외래적인 것이었고, 인재 선발방식이 독자적 발상을 격려하기보다 기성 질서에 대한 답습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과거(科擧)제도가 그랬고, 오늘날의 대입수능이나 각종 고시(考試)제도가 그렇다. 이런 제도에서는 암기식 교육이 자리잡고, 질수 경쟁이 조정되며, 공정성 제일주의로 사유(思惟)의 균일화가 초래된다. 고득점 요령 이외의 교육방법은 실 땅이 없어진다. 실험실에 있어야 할 과학고 학생들이 자퇴하여 사설학원으로 몰려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파행적 암기교육으로는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결코 길러낼 수 없다.

창조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철벽 같은 암기교육의 벽을 깨야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의 혁명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재의 기준을 바꾸어야 하고, 사유체계의 경직화를 가져오는 제도와 자율을 얽매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교육계를 위시한 전 사회가 함께 거들어야 하는 과업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고시(考試)공화국 틀을 깨야 한다. 필답 시험에 의존하는 인재선발방식을 철폐해 실적과 경험위주의 선발로 바꾸어야 한다. 지원자의 학업실적과 경험에 관한 학교기록, 자격증, 실무능력 등을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삼아야 한다. 학교기록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는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하고, 사회에 대해서 응분의 책무를 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교사들이 세계 수준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별 학교가 자율·창의·다양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인사권·재정운영권이 학교에 부여되어야 하며,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자율책정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립형 학교들이 여기 저기 설립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체제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는 지식수용교육에서 지식생성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성의 기초를 튼튼히 하되, 학업성취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기존 지식 자체에 대한 학습보다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도록 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컴퓨터 정보검색, 토론, 실험, 관찰, 봉사활동과 같은 체험이 학습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그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부합하는 학습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시급한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하로 줄어 들어가야 한다.

창조적 인간 양성은 평생을 두고 수행되어야 한다. 변화의 주역으로서, 보다 격조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자기개발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는 재교육기관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조기교육·사회교육·기업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질 높게 제공되어야 한다.

곽병선(한국교육개발원장)

CONTENTS

34 아시아 밀레니엄 교육



- 34 일본 - 21C 일본교사들은 일정기간 호텔의 벨보이로 일해야 한다?
- 38 중국 - 21C 중국, 교육발전으로 아시아 최강국 꿈꾼다
- 42 인도 - 거대한 역설의 나라인도, 그역설의 힘에 21C 인도의 희망이 있다
- 48 태국 - 영·유아 에서부터 태국의 21C 교육은 시작된다
- 113 Global Message - 통신원 소식

20 Millennium 특별기획

- 20 21C 한국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버려야 할 5가지, 찾아야 할 5가지
- 102 새로운 세기, 한국교육에 바란다
- 138 기획 르포 - 입시앞에 온국민이 무릎꿇는 나라, 대한민국

16 사상, 사상가

- 16 토정 이지함
토정 이지함이 이이, 이황을 비웃은 이유는?



126 재밌는 교실 Classroom

126 혼자하는 과학수업은 없다 - 과학수업에서의 협동학습

66 튀는 학교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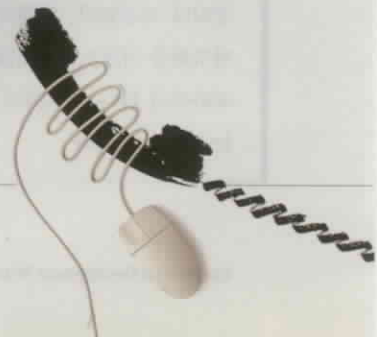
66 고양 백신중학교 - 튀쳐진 어른들, 학교 빈교실에서 세상 따라 잡는다



8 이런 강의 - 체험 수학, 기본원리 터득엔 시간걸리나 응용문제엔 막힘이 없다

62 Information

- 62 Research Findings -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결과 5가지
- 64 KEDI 연구보고서
- 152 학점은행정보 Q&A
- 154 학점은행 운영기관 탐방 - 한국항공기술학원, 호남직업전문학교
- 156 중등학교 일반사회, 생물, 물리, 윤리 임용시험 출제방향 및 시험문제
- 182 '98~'99 외국학위논문 리스트
- 94 BOOK '카오스의 날갯짓'의 5권
- 133 다시 생각해보자 -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수행평가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 148 통계로 보는 교육 - 우리의 교육환경
- 32 독자의 소리



82 Let's go out!



- 82 Travel - 세계는 이렇게 신세기 2000년을 맞이했다
- 86 Movie - <그림 속의 나의마을>의 3편
- 89 Food - 녹차먹은 돈가네
- 92 Quiz - 당신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97 Web site

- 97 수업에 도움을 주는 추천 웹사이트- 수학

<http://www.salesio-gh.ed.kwangju.kr/~jyjang>
<http://home.daeyu.co.kr/~root2>
<http://mathnet.kaist.ac.kr/index.html>
<http://www.mathlove.co.kr>
<http://www.mathland.pe.kr>
<http://members.iWorld.net/lee9501/>
<http://www.c3.lanl.gov/mega-math/menu.html>
<http://math.kongju.ac.kr/math/>
<http://www-groups.dcs.st-and.ac.uk/~history/>

53 젊은이론

- 53 MF해결한 '신자유주의', 교육도 구할 것인가
- 56 21C 인간관계는 개인 아닌 연대-공동체주의

70 Media Story



- 70 「주유소 습격사건」의 '그냥' 이란 이유와 「폴몬티」의 워선 벗어 던지기
- 77 10대중심의 TV프로그램, 어른들은 뉴스시간의 돼서야 위로 받는다

- 60 색다른 생각-같이 가르칩시다

13 포커스인터뷰

- 13 '왜 있는 자가 더 베풀지 않는가?'
이것이 왕따해결의 뛰어난 동기였다



- 5 권두언 - 21C에는 창조적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체험수학, 기본원리 터득엔 시간 걸리나 응용문제엔 막힘이 없다

방학초등학교 윤은정 선생님의 수업을 찾아서

금희정(자유기고가, GOJO1@hitel.net)

수학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숫자? 공식? 아마도 골치아픈일 것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란 기본적인 원리에서 출발해 한 순간 재미를 맛보지만,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공식들에 맞닥뜨려서는 그만 골치아픈 학문, 없었으면 좋은 과목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수학을 공식이 아닌 체험으로, 숫자가 아닌 그림으로 이해하고 느끼면서 수학의 재미를 알아가는 곳이 있다. 방학초등학교 6학년 7반 윤은정 선생님의 교실이다.

이 곳에는 우선 교과서가 필요없다. 곱셈공식을 터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직접 만든 30센티미터 가량의 색종이 띠 몇 개뿐이다. 빨강, 파랑, 초록색의 띠지를 한 움큼씩 권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앉아 있다.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이들'이 설명한다

오늘의 과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곱셈공식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이해하는 것, 이름하여 '문살 곱셈법'이다. 학생들과 같은 모양의 띠지를 쥐고 윤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한다.

"오늘은 그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곱셈공식에 대해 배



우짚어요. 우선 31 곱하기 21을 누가 한 번 나와서 해 볼까?"

한 학생이 나와 칠판에 기존의 곱셈공식을 이용해 651이란 답을 써넣는다.

"자, 그럼 이 651이란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볼까?"

"일의 자리는 일의 자리끼리 곱하고, 일의 자리와 십의 자리, 십의 자리와 십의 자리를 곱한 값을 자릿수

를 맞추어 더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라도 되는 듯 능숙하게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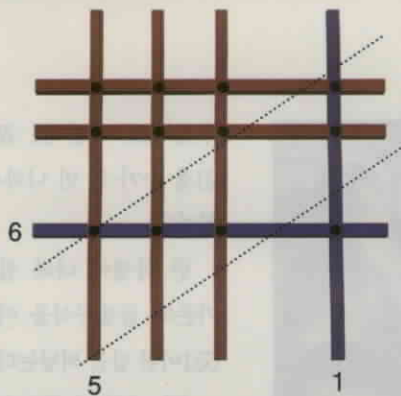
"네, 잘했어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곱셈이 가능한지, 또 이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과제를 제시한 후 간단한 배경 설명에 들어간다.

"지금 소개하려는 새로운 방식은 1950년에 중국의 목공수가 문살 만드는 일을 반복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우리는 문살 대신 색종이 띠를 이용해 한번 해보겠어요."

우선 파란색 띠를 일의 자리로, 빨간색 띠를 십의 자리로 정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문살의 모양처럼 가로, 세로로 늘어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31 곱하기 21을 한다면 빨간색 띠 세 개를 세로로 놓은 다음, 조금 띄워서 파란색 띠 한 개를 역시 세로로



〈그림 1〉

놓는다. 그런 다음 이 네 개의 살 위에 빨간색 살 두 개를 가로질러 놓고 약간 띄어서 파란색 살 한 개를 역시 가로질러 놓는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로와 세로 살의 교차점이 생기게 된다. 이들 점을 세어서 비스듬히 더하면 651이란 답이 나오는 것이다(그림 1 참조).

선생님이 칠판에 빨간색과 파란색 살을 붙이면서 시범을 보이는 대로 학생들은 각자의 책상 위에서 색종이 문살을 만들어 본다. 그리고는 교차점을 찾아 비스듬히 더해 651이란 숫자를 찾아내고는 신기한 표정이 된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첫째, 왜 교차점들을 비스듬히 더해야 하는가? 둘째, 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세어야 하는가?”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공감한다. 정말 가로로 혹은 세로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꼭 비스듬히 더해야 할까? 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더해야 답이 나오는 것일까?

“결국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곱셈이 가능했을까를 알아내는 것인데, 지금부터 모둠별로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힌트를 준다면, 탐정들도 사건 현장에 있어야 단서를 찾을 수 있듯이 내 손으로 직접 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근

접한 이유를 찾아내는 모둠에게 공책을 상으로 주겠어요.”

토론을 시켜보면 아이들은 항상 근사치의 답을 찾아낸다

상이 탐나서가 아니라 정말 이유가 궁금한 학생들은 제각기 가지고 있는 띠지를 이리저리 놓아보며 골똘히 생각한다. 한 아이가 색종이 문살을 평행선으로 놓으면, 옆의 아이가 X자로 겹쳐놓았다가 포갠다가 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본다. 그런가 하면 잘 안 풀리는지, 한 움큼 포개 켜 띠지로 자신의 머리를 두드리는 아이도 있다. 왜 일의 자리와 십의 자리를 색깔을 구분해 정했을까, 두 문살이 만나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리저리 고민하는 사이 한 십 분이나 지났을까. 드디어 7모둠에서 답을 알아냈다. 스스로 답을 찾아낸 기쁨에 아이들의 표정이 환해진다.

“여기 7모둠 학생들은 답을 찾아냈어요. 다른 모둠에서도 더 생각해 볼까, 아니면 이쯤에서 친구들의 발표를 들어 볼까?”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수업을 진행한다.

“빨리 발표해요.”

그러는 사이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이 울린다. 하지만 수업은 계속된다.

답을 찾아낸 친구의 발표를 듣게 되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스스로 답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곧바로 발표에 들어가기로 한다.

1모둠이 앞에 나와 발표를 한다. 하지만 1번과 2번 답 중 하나도 알아내지 못했다. 축스럽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들어간다.

2모둠.

“저희는 1번에 대한 답밖에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비스듬히 더해야 하나면 목수가 일을 할 때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대답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웃었지만, 나름대로 그럴싸한 이유다.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근거를 찾은 답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있네. 그렇다면 이 목수는 태양이 정남쪽에 있는 정오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의 설명에 발표한 학생이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굽적인다.

3모둠도 엉뚱한 대답을 한다.

“기존의 곱셈 방식이 비스듬히 곱하니까 여기서도 비스듬히 더해야 합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이지만 선생님은 편잔을 주는 법이 없다.

“틀린 대답인 거 알지? 좀더 생각해 보세요.”

4모둠에서는 1번 답을 알아냈다.

“애초에 색깔로 자릿수를 구별했기 때문에 일의 자리와 일의 자리, 즉 파란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점은 일의 자리이고, 일의 자리와 십의 자리, 즉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점은 십의 자리이며, 십의 자리와 십의 자리, 즉 빨간색과 빨간색이 만나는 점은 백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비스듬히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답을 알아낸 것만으로도 가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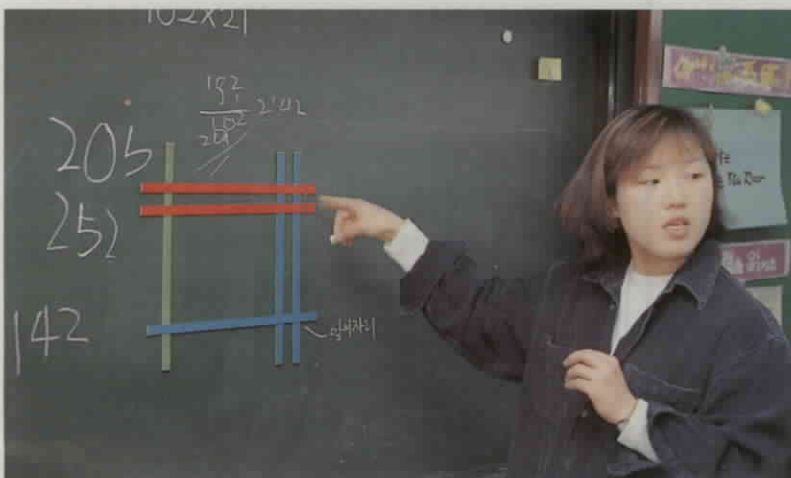
5모둠과 6모둠 역시 타당한 답을 구해내지 못했다.

드디어 7모둠.

“1번의 답은 4모둠에서 발표한 것과 같고, 2번의 답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 문살 2개를 세로로 놓고 그 위에 문살을 가로로 놓으니까 하나를 놓으면 만나는 점이 둘, 두 개를 놓으면 넷, 세 개를 놓으면 여섯, 이렇게 2의 배수가 됩니다. 다시 문살 3개를 세로로 놓고 시작하면 3의 배수가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문제를 던져 주고 토론을 시켜 보면 항상 학생들이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알아낸다는 것이다.

“참 잘 찾아냈어요. 차, 모두들 색깔을 달리해서 알아본 것처럼, 자리 값을 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더해야 하는 이유는 깨달았지요. 나머지 색깔, 즉 초록색을 백의 자리로 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놓으면 만의 자리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답은 다소 어렵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은 또 다른 예를 든다.

“내가 지금 가래떡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한 번 자르면 몇 개가 되죠? 네, 네 개죠. 두 번 자르면? 네, 여섯 개가 됩니다. 이렇게 자르면 자를수록 양은 줄어들지만 수는 늘게 되죠? 하지만 무질서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배수의 개념에 자릿수를 맞추면 곱셈공식과 같아지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비로소 기존에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이 왜 배수의 개념에 자릿수를 맞추어 자리 값을 구하는 것인지 납득하게 된다.

당연한 사실에 '왜?' 라는 질문, 수학적 사고 훈련

‘수학적 사고’란 바로 이런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을 뒤집고, 먼저 연구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공식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했던 것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체험을 통해 결국 그 공식이 옳았음을 발견하고 터득하는 것이다.

수학의 모든 기호와 공식은 사람들간의 약속으로 이루어 졌다는 설명에 학생들은 때때로 “왜 내 허락도 없이 약속을 했지?” 혹은 “왜 그런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 이럴 때면 윤 선생님은 아이들의 생각을 수학적 초기 상태로 보내버린다. 문명화된 수학이 성립되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다면? 이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형태의 숫자를 이리저리 궁리해 봅니다. 쉼기문자, 로마문자 등 별별 모양을 다 생각해 보죠. 하지만 이것들은 자릿수가 높아질 때마다 자리 값을 다 써줘야 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결국 아라비아 숫자가 제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윤 선생님은 수학에서 하나의 개념을 가르칠 때마다 우선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즉 분수를 계산할 때 더하기는 왜 통분을 해야 하고, 곱하기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서 나눌 때는 왜 또 갑자기 뒤 수를 뒤집고 곱하는지 등등 이전에 우리들이 당연한 것으로 외우고 받아들였던 것



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씩 풀어 나간다.

때문에 분수 사칙연산 단원을 공부할 때 도입부에만도 꽤 많은 시간이 든다. 하지만 이미 기본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응용 문제에 막힘이 없다. 결국 보다 효과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셈이다.

학생들에게 기본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구가 이용된다. 어떤 것은 그림으로, 어떤 것은 도표로, 심지어 만화를 이용해 수학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국내외 수학서적과 잡지, 외국의 교구 카탈로그 등을 참고하여 윤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재·교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분수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호루스의 눈과 변신 달력, 폐곡선의 성질을 가르칠 때는 미로의 전설이 담긴 만화를 보여주며 미로는 정녕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지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여 주고, 나선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턴테이블과 번데기 판 등을 들고 나오는 등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 교구로 채택한다.

정사각형을 일곱 조각으로 나누어 수백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TANGRAM은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아예 학생들 책상에 함석판을 부착시켰다. 그리고 고무판으로 조각을 만들어 수업시간에도 답을 먼저 찾았거나 과제가 끝난 학생들이 만지고 놀 수 있게 했다.

기본원리 터득엔 시간 걸리나 응용문제엔 막힘이 없다

윤선생님이 이처럼 체험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4년 전 교육방송의 '선생님, 질문 있어요' (금요일 오후 5시 50분 방송)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부터.

“당시 방송에서는 칠판에 문제를 푸는 수학보다는 비디오

적인 자료를 원하더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역시 재미있게 보고 만지고 싶어하더군요. 또 다른 이유는 초등학교 수학 수업이 10년 전 제가 배웠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무엇이든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고 느끼게 했다. 경험이 최고의 선생이라고 학생들은 점차 수학에 재미를 느끼고 좋아하게 됐다.

문살 곱셈법을 직접 체험한 이라영 학생은 “내 손으로 만든 색종이를 이용해 곱셈법을 알고 나니까 참 재미있어요. 나는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설명을 들을 때는 속상했지만, 자주 이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들이 이런 방식의 수업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교구를 직접 만드는 게 귀찮기 때문이다. 또 진도를 제때에 못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항의 전화를 걸어오는 학부모도 있다. 그럴 때면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듣는다. 주어진 것이나 열심히 하고, 검증된 것만 가르치라고.

하지만 윤선생님은 자신의 수업 방식을 확신한다. 단순 기능을 가르쳐 문제를 빨리 푸는 학생이 현실에 대한 적응은 빠를지 몰라도 응용력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지금의 시도가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섰지만 해를 거듭하다 보니 점점 자신이 생기더군요. 초등학교는 수학과와 첫 경험인 만큼 ‘뜨거운 첫사랑’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라며 자신을 다진다.

마음 한 편에서는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검증을 받아보고 싶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교육자료전”이란 공개된 장에 참가해 평가를 받아볼 계획이다. 또 금년중으로 초등학교를 위한 ‘재미있는 수학책’을 만들어 출판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1999년 9월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수학사랑’ 모임에서는 뜻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는 교구도 개발해 볼 생각이다.

“우리가 가르치기 편한 방법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른의 생각으로는 빠르고 깨끗한 길로 안내하고 싶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복잡한 길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벼랑 끝에 서 보고 싶어하기도 하거든요”라는 것이 윤선생님의 신념이다.

아직은 시도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효과를 인정받은 방식은 아니지만 자신의 수업시간에 눈빛을 빛내고 흥미로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윤선생님은 끊임없이 체험수학·경험수학의 현장에서 있을 것이다. [20]

‘왜 있는 자가 더 베풀지 않는가?’

이것이 왕따해결에 뛰어난 동기였다

(주)가우디 배삼준 회장

구지역(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장, jogu@ns.kedi.re.kr)



문 왕따 해결방안 현상공모, 훌륭한 선생님상 제정 등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경영자로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동기는 무엇인가요?

답 한 마디로 가난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며 여러 의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에는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기준, 이상이 바뀌더군요. '사회 부조리, 부정부패 등 왜 있는 자가 더 많이 배풀지 않는가? 과연 나는 무얼 위해 살아야 하나? 잘 살아야 80년인데...' 하는 자각이 들더군요. 그러면서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우선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민운동을 생각했고, 시민은 소비자이므로 결국은 마케팅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 점점 강도를 높였습니다.

왕따 문제에 대해 연일 피해사례가 보도되고, 텔레비전 대담 프로도 많이 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방안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살하고, 정신이상이 되고, 이민을 떠나는 등 문제는 심각한데 해결될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현상 공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아 왕따 해결 방안 공모에 그치지 않고 '훌륭한 선생님상'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생님'을 찾기 위해 신문 전면 광고까지 할애하고, 교육방송에 100회 정도 광고까지 내보냈으나 26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왕따 문제는 작년 한해 한국교육의 커다란 쟁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왕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으셨나요?

답 2천여 명이 응모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해결방안이 나왔으나 궁극적으로는 선생님 하기에 달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자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막아보겠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이 문제의 80%는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응모내용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 본

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생활까지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심사위원들의 심사에서 뽑힌 당선자 1, 2등보다 진짜 제가 1등을 주고 싶었던 것은 장려상을 받은 분의 해결방안이었습니다. 그 분의 해결방안은 실제로 거창하진 않습니다. 민순이라는 제자를 둔 반 선생님이 계속 아이를 관찰하고 아이 입장이 되어서, 1년 뒤에도 따돌림을 계속받자, 자청해서 담임을 계속 맡으면서 일어난 일을 적은 수기인데, 저도 보고 울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문 기업을 위해 학교교육은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지, 또 기업가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시험만을 위한 공부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어려운 수학공부를 했어도 회사에서 업무하는 데 필요한 계산은 매일 틀리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영어시험을 쳐서 틀린 것이 있으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경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손질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교교육은 실제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적분을 사회에서 써먹을 데가 있나? 응용면에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회에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발력이 가장 빠른 직장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택시기사입니다. 불편하고 꽉 막힌 도로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도 머릿속에 인프라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플라스틱 원료가 물건이 되어 나오는 것도 이론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작업현장을 보고 그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서삼경도 중요하지만 빌 게이츠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빌 게이츠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신문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 교과서만 암기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 적용이 가능한 교육, 신문중심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정도는 노트와 기방을 놓고 신문만 들고 학교에 가는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 한국신지식인연합의 상임대표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이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요?

답 한 마디로 신지식인끼리의 NGO 같은 것입니다. 저도 정부가 선정한 지식인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식인으로 멈추어 있지 말고 지식을 활성화하여 가치를 창조하고, 고정관념을 깨고 계속 발전하여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일까지 의욕을 느끼게 하고, 자극하는 모델의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 경기공전을 2학년에 중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5년제였던 경기공전을 2학년에 그만둔 주된 이유는 학벌중시 사회의 정서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사회의 벽으로 인하여 임원으로 승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하면 초급대학 졸업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실력, 생산성 이런 것을 중시하면 이 제도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2학년때 한계를 깨닫고 30여 명이 결국 무더기 자퇴를 했습니다.

문 1남1녀를 두셨는데, 자녀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요?

답 이번에 딸이 수능시험을 봤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자란식으로 아주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디 가서 예의바르다는 소리는 듣는 편입니다. 또 공부만 하라고 채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등도 한 번은 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잘된 사람의 모델을 자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세상을 넓게 볼 줄 알고 사회는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세 천년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일과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답 왕따 해결 방안 공모를 할 정도로 왕따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과연 교육부는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는 선생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선생님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은 아이들이 고생 안 하고도 대학 갈 수 있는 교육제도, 실력 있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토정 이지함이 이이, 이황을 비웃은 이유는?

-과거(科擧)만을 위한 교육은 유교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뜻을 위배한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 사용되는 지식은 국가사회의 독(毒)일 뿐이다-

토정(土亭) 이지함의 교육사상

권인호 (대전대학교 교수, upyeong@road.daejin.ac.kr)

土亭



충남 아산시 영인면사무소에 있는 토정의 동상. 토정이 흰감으로 부임해 길인칭을 세우고, 길인들에게 지림의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을 기념해 세웠다.

창조적 상상력이 고시·영어 열풍에 죽어가고 있다

최근 서울대 학생 중 40% 정도가 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고시에 매달려 우수한 두뇌를 썩히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사회의 '고시망국론'을 이제 교육계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때라고 본다. 권력·출세 지향적 인생목표는 흔히 부정부패나 쉽게 살려는 풍조와 연결되어 있다. 우수한 젊은이들의 창조력·상상력이 앞뒤 가리지 않는 고시·영어 열풍 등에 의해 고사되고, 또 그런 만큼 대한민국 망국론은 현실적인 힘을 얻어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은 기초학문의 붕괴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가까운 장래를 불안하게 한다. 과연 우리의 교육은 이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양성에 그 뜻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통한 효도의 마감이나 개인적 출세의 도구에 머무는 것인가? 근본적인 교육사상적 반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어쩌면 우리는 근세 조선의 중앙집권시대에 과거를 출세수단으로 삼던 세상에서 한 치도 발전하지 못한 낡은 교육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 땅위에 만연한 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 행태들이 바로 그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 때문에 지금부터 4백여 년 전 조선 중기를 살았던 토정(土亭) 이지함(중종 12년[1517년] 정축 9월 20일~선

조 11년(1578년) 무인 7월 17일)이란 인물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는 것은 꼭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가 한 인간으로서, 또한 재야학자(유학자)나 과거를 치르지 않은 관리로서 과연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학문적 사상과 교육관을 성취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새롭고 올바른 교육관의 정립이 필요한 오늘날 교육현실에 온 고이지신의 교훈을 얻어볼까 한다.

영의정 27명보다 선생1명이 더 영광스럽던 우리의 옛날

옛날에는 '영의정' 3명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1명의 '대제학(大提學)' 이고, 3명의 대제학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1명의 '처사(處士:왕의 소명이 있어도 나아가지 않은 재야의 선비)'이며, 3명의 처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1명의 '선생(先生:진정한 학문사상과 출처에 있어, 그리고 많은 제자를 올바르게 길러 후세에 모범이 되는 인물)'이라는 말이 있었다. 오늘날도 훌륭한 학자 스승(선생) 한 분을 대학총장(대제학) 9명보다도, 총리 27명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느낄 때 올바른 사회와 정치윤리, 그리고 학교교육이 확립될 것이다.

당시 조선의 정국과 사회풍조는 훈척파(勳戚派)의 비리 및 사화와 당쟁으로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따라서 뛰어난 학문과 뜻을 지닌 선비는 벼슬하는 것과 벼슬하기 위해 과거를 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과거공부에 매달리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 라는, 학문과 사상을 만개시킨 그 주인공들이라는 점은 오늘날 우리 지식인 학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이지함은 정국의 혼란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과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혼탁하고 부패한 명종시대가 거한 뒤, 정국이 쇠신되고 사림파가 서서히 중앙정계에 등장하던 시기인 선조 6년(1573) 5월에 명경행수(明經行修:유교경전에 해박하고 행동이 빼어남)의 '탁행지사(卓行之士:탁월한 행동의 선비)'로 추천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그가 학문사상과 그 인품에 있어 당대에 한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지함은 선조 7년 8월, 55세의 나이로 포천현감으로 나아가, 선조 11년 7월, 아산현감을 지내다가 59세의 나이로 병에 걸려 죽었다. 조

현(趙憲)이 선조에게 고하기를 '자신의 선생은 세 사람 있으니 이지함·이이(李瑀)·성혼(成渾)이라 고 하였다. 이지함의 제자로는 조헌을 비롯하여, 그의 조카로서 신동으로 불리었던 당대의 명필이자 당쟁에서 북인의 영수였던 영의정 이산해(李山海), 판서를 역임한 이산보(李山甫), 서기(徐起), 그리고 박지화(朴枝華) 등 선조와 광해군 당시 개혁적·진보적 사상을 피력했던 조정·재야의 뛰어난 학문사상가들이 많다.

이지함의 풍모는 신장이 보통 사람보다 크고 골격이 건장하였으며, 얼굴이 검고 둥글며 풍만하였다. 패랭이(蔽陽子)와 쇠갓을 쓰고, 짚신에 죽장을 짚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다. 보령에서 서울까지 가는 데 1~2일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당시 민중들은 그가 축지법을 쓰는 것으로 여겼다 한다. 식사 때는 한꺼번에 말밥을 먹고 길양식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 여러 가지 점에서 그는 이인(異人)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토정은 고관대작이 있거나 말거나 언행동작이 전혀 거리낌이 없었으며, 해학·기지·패러독스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우습게 하였다고 한다.

토정 이지함이 이이, 이황을 바꾼 이유는

유학(儒學)의 선비는 '수기치인(修己治人)' 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열심히 학문을 닦아 세상에 나아가 민중을 구제하고 올바른 정치를 펴는 것을 뜻한다. 원래 유학을 공부한 자가 '출처(出處)'에 분명하지 않으면 선비로서는 치명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정통성이 미약한 왕과 조정에 학자의 양심과 명예를 팔아먹기 십상이고, 나아가 민중과 세상을 외면한 체 비리와 악의 무리에 동조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조정일수록 지조 있는 학자를 끌어내어 그들의 정권에 참여시키려 애를 썼다. 그것은 학자를 우대한다는 미명하에 그 학자의 재야적 명망을 퇴색시켜 버리고 끝내는 올바른 비판세력마저 잠재를 목적에서였다. 요즈음도 이를 모르는 학자출신 관료들이 쉽게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정치비리를 부추기는 꼴이 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이른바 '선생'과 '학자'라는 이들의 학문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소재의 화암서원 토정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원래는 청천저수지 수몰지에 있었으나 저수지 밖으로 옮겨 지었다.

경향성과 그들의 실천, 즉 언행일치(言行一致)를 문제삼는 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누구를 위한 학문이며 무엇을 하자는 학문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짚어보아야 하는 것이다. 율곡 이이가 당쟁으로 조정이 시끄러운 가운데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낙향하려 하자, 이를 본 토정이 율곡에게 “옛 성현의 소위가 후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하였다. 율곡이 “무슨 기담(奇談)이십니까? 나는 존장께서 책을 하나 지어 장자(莊子)에 대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 토정은 웃으면서 “공자가 (병이 없으면서) 병을 칭탁하고 유비(劉裒)를 보지 않았으며 맹자도 병을 핑계로 제선왕(齊宣王)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세의 선비들이 흔히 병이 없으면서 병이 있다고 칭탁하게 된 것이니, 대저 병을 핑계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은 사람의 집에 게으른 종이나 말 안 듣는 머슴의 행위와 같은 것인데, 선비된 자가 차마 이런 짓을 하면서 이것을 공자·맹자에게다 칭탁하니 성현의 소위가 뒷사람의 폐단을 지은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였다.

당시 조야(朝野)에서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널리 명성이 자자했던 이황과 이이가 온전히 조정의 신하 노릇도, 재야의 선비 노릇도 아니면서 미묘한 때나 난처한 때를 당하면 병을 핑계로 낙향하고, 다음에 임금이 부르면 나아가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토정이 이를 비웃으면서 병을 핑계하고 그것이 성현(聖賢)이 하던 바라 하면서 성현을 가탁하는 행위의 가소로움과 이중성을 타매한 것이다.

퇴계 당시 조정에는 이준경(李俊慶)이나 권철(權徹) 등이 명재상으로 있어 명종 말년에서 선조 초년의 개혁정국을 주도하였고, 서경덕(徐敬德)과 조식(曹植) 등이 온전히 재야에 몰려 학문교육과 청의(淸議)를 지도하던 것에 비추어볼 때, 이지함의 말은 촌철살인의 명언이라 할 수 있다.

당시기장 천대받던 장사 시작해 민중 가난 구했다

이지함의 학문사상은 그 폭이 넓어 유학사상에 더하여 노장(老莊)적인 도가를 비롯한 제자백가 사상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지함은 “자신은 요성(妖星)을 오히려 서성(瑞星)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로 인해 인심과 세상의 도리가 쇠신되고 조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준 때문이라고 하였다.

토정 이지함은 당당한 명문가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반 민중(四民:士農工商) 가운데 가장 천시받던 상인의 직업을 취해 장사를 하면서 “나라도 못 구한다”는 민중들의 가난을 구제하고자 애썼던 인물이다. 그는 먹을거리 양식과 관련하여 상소문에서 “임금된 이는 민중으로써 하늘을 삼고 민중은 먹는 것(밥)으로써 하늘을 삼는다”고 하는 『서경 書經』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서경』의 “민중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말 그대로를 상소문에 인용하면서 “밖으로 강적이 있고 안으로 원통한 민중이 많으니, 후시나 위급한 일이 있게 된다면 능히 구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어쩌면 임진왜란의 예고처럼 들려진다.

일찍이 공자가 말한 “도(道)가 있는 세상에서 빈천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도가 없는 세상에서 부귀한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지함은 “의리(義)와 이익(利)은 사람에 따라 판단된다. 만약 흉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법을 지키게 한다면 이른바 예법이란 것도 다 이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산현감 재직시 고을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양어장을 매운 다음 이를 폐해 버렸다. 당시 각 고을에는 토산품을 바치는 공물의 폐해가 심하였는데, 그는 이러한 문제를 백성의 입장에서 과단성 있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고을 백성들이 이지함의 선정비를 세우고 그가 죽었을 때에는 부모가 죽은 것처럼 애통해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지함의 인간됨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일화가 있다. 그가 신흠 때 처가에서 밖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저고릿바람이었다. 신랑의 도포가 없어진 것을 안 집안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길 “거지아이 셋이 추위에 얼어 병든 것을 보고, 뜯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천성적으로 효성과 우애가 깊어 형제간에 가난과 부유함을 서로 같이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유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했으며, 남의 급한 일을 보면 힘써 구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토정의 성품에서 유교의 이상향인 대동(大同)사회를 회구하고 실천한 애민정신을 짐작할 수 있다. 이지함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였는데, 서해의 고향 앞 바다에서 10여 년 동안 고기와 소금을 굽고(魚鹽), 손수 재배한 박으로 바가지지를 만들어 팔아 마포강변의 민중을 구제했다.

교육이란 적자생존의 법칙을 가르치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다

토정 이지함은 김시습·정려과 함께 조선조 3대 기인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의 사상 속에는 유가·도가·농가·묵가의 모습이 엿보인다. 공자도 은자(隱者)에 대해 말하였고 맹자 또한 여러 은자들과 함께 사회혼란의 원인과 현실구제에 대해 토론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직접 선비나 지식인이 생산경제적 행위에 참가하는 이지함의 실천행위는 농가(農家)의 허행(許行)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이지함이 몸으로 실천한 생산행위와 민중구제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에서 6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문화대혁명’에서 ‘하방(下放)’이라고 하여 도시의 지식분자와 정신노동자들로 하여금 일정기간 농촌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정신개조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은, 그 혁명에 대한 호오찬반(好惡讚反)과 역사적 공과의 논의를 떠나 그 자체로 일정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본다. 인간은

육체노동이 주는 의미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아이들의 생활·교육 현장에서 ‘일’과 ‘실천’ 혹은 ‘실습’ 부분이 소홀히 취급되거나 배제되어 있는 현실은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지함의 학문과 교육사상,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탁한 『토정비결』은 민중적 토대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이바지한 우리의 중요한 전통사상이자 문화유산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학교의 교과과정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온통 서양 것(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왔고, ‘우리 것을 안다’는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거나 고리타분하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기 십상이다. IMF 체제하에서 정부가 표방한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자본주의의 모순만 극대화시킬지 모른다. 재벌의 시장·금융 독점, 정치권력이 동물의 왕국과 같은 힘의 논리를 빌어 강행하는 거친 구조조정, 그리고 조직에서 방출되고 가정마저 유리된 홈리스들이 배회하는 역 주변의 차가운 밤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과 평화는 없다. 자본의 밤이 어둡고 깊을수록, 토정의 애민과 출민(恤民), 청빈과욕(淸貧寡慾)의 실천적 자세, 그리고 차원 높은 교육사상과 민본적 실학사상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해지는 것은 과연 무슨 까닭이겠는가!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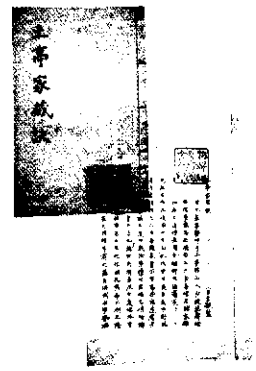
土亭

『토정비결』의 저자는 토정 이지함이 아니다?

『토정비결』과 이지함을 연결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토정의 학문사상이 그 폭이 넓고, 특히 당대 성리학자들이 힘쓰지 않거나 오히려 이단으로 여겨 경원사하던 복서(卜筮)·신방(神方)·비결(秘訣)에 능통하였다는 점이 일종의 단서가 되었다고 본다. 그가 마포강변 토정에 거거할 때 주위의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혼사택일이나, 신수, 처방 등 세상사의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지함이 죽은 지 오래지 않아 그 고손에 의해 편찬된 토정유교(土亭遺稿)에 『토정비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다 평소 그가 저작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는 까닭에, 당시 그가 주역(周易)을 이용한 신수나 사주, 점복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정비결』을 저작하였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학문사상과 행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혀 『토정비결』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도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토정비결』은 ‘삼라만상은 모두 변화한다(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주역의 근본이치와 그 책의 형성구조를 본떠, 음양의 효(爻)를 겹쳐 만든 괘(卦)를 144개의 경우의 수로 나눈 다음, 사주에서 연·월·일만 참고하여 해마다 바뀌는 신수의 풀이를 전체 패사풀이와 월별 상·중·하순단위의 패사로 풀이한 것인데 비유적인 표현이 많다.



21세기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버려야 할 5가지, 찾아야 할 5가지



21세기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버려야 할 5가지

이성호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장)

세기말의 한국교육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천 년, 새로운 세기를 목전에 두고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욕구와 희망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교육 부문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심히 흔들리는 교육이 새로운 세기에는 그야말로 '삼풍백화점'처럼 통째로 붕괴되거나 앓을까 하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교육은 그렇게 쉽게 붕괴될 만큼 그 기반이 약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해방 이후 50여 년 동

안에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교육은 어떤 든 그 동안 국가발전의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온 저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난 15년 동안 지속되어온 교육개혁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리멸렬하였다 하더라도, 몇 줌의 양금이 되어 한국 교육발전의 온상을 이루고 있다. 더욱이 희망적인 것은, 우리 사회에는 그래도 교육을 걱정하고 교육에 온갖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 세우려면,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요인들이 작용하는 힘을 더욱 강화시키고, 반면에 그것을 억제시키는 요인들이 작용하는 힘을 아주 약화시키거나 완벽하게 척결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또는 교육에 열정을 쏟으려 하지만 지꾸만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슴 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억제 요인들은 무엇 일까?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이토록 흔들리고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여기는 것일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출하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그 동안 개인적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듯하다.

가라! 타성적 졸속 행정이어

각급 학교 교실에서부터 국가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의 교육정책 수립의 타성적 졸속을 제거해야만 한다.

사회의 다른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교육의 경우처럼 백년대계라는 용어가 동서고금을 통해 자주 사용되어온 부문도 드물 성싶다. 하기가 요즘처럼 시대변화의 속도가 사람들의 미래 예측을 매우 어렵게 할 만큼 빠른 시대에 문자 그대로 백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몇 달도 채 안되어 바꿀 수밖에 없는 치졸한 교육계획이나 교육정책이 계속 수립된

우리의 교육계획이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비계획적·비과학적인 양태는 비단 오늘의 경우에만 드러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방 이후 줄곧 그래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그런 줄속이 국가수준의 교육계획이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만 나타난 것도 아니다. 개개 단위 학교기관이나 개개 교실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면, 새로운 세기의 한국교육은 지금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계획이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비계획적·비과학적인 양태는 비단 오늘의 경우에만 드러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해방 이후 줄곧 그래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그런 줄속이 국가수준의 교육계획이나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서만 나타난 것도 아니다. 개개 단위 학교기관이나 개개 교실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공간을 초월한 타성적 줄속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매우 급하게 단기간 내에 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된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그것을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짧은 재임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업적을 내보이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해, 전신효과를 노리는 계획이나 정책수립 따위가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다. 또는 국내외의 유행의 물결을 타고, 그 유행에 뒤지지 않으려는 조바심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밀어붙이려는 사람들, 이름하여 급진적 개혁세력이 등장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강제로 어떤 일을 추진하려는 데서도 줄속은 나타나고 있다. 지난날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었던 교원정년 단축정책은 비록 그 취지가 합당하다 하더라도, 줄속으로 수립된 정책의 가장 표본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비계획적이고 치졸한 교육계획이나 교육정책 수립은 대체로 밀실에서 소수의 몇 사람에게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또 매우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속사정은 그와 다른 경우가 많다. 흔히 무슨 무슨 위원회니, 공청회니 하고 여러 가지 치장을 달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인 경우가 다수였다. 위원회를 만들

어 놓고는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위원들조차도 수립된 계획이나 정책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진상을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또한 공청회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정작 공청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지하게 경청되었으며, 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되었던 말인가?

셋째로, 교육계획이나 정책수립의 줄속은 교육을 모르는 비전문가가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칼자루를 마구 휘두를 때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어떤 대학에서 대학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총장이나 또는 관련 행정보직을 맡아서는 독선적으로 개혁을 서둘러 추진할 때, 줄속은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 식의 줄속은 국가수준에서도 자주 있어 왔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었다. 교육의 '교'자도 제대로 모를 만큼 교육과 행정에 문외한이었던 사람이 정치적 연줄을 타고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나 할까, 당시 그가 무턱대고 휘둘렀던 교육개혁의 파장이 오늘날에도 큰 후유증으로 남아 있음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라! 정치적 간섭과 개입이여

교육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 등 모든 유형의 교육 과정에 정치적 간섭과 개입이 불식되어야 한다. 인간은 본래 정치적 동물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모든 부문이나 과정에 정치성이 필연적으로 개재됨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치성이 어떤 부당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계략으로 발휘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정치적 계략이 어떤 일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과 개입이 될 때, 문제는 더욱 커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방 이후 지난날의 한국교육은 그러한 정치적 간섭과 개입으로 전문성을 유린당하였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 교육의 위기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교육의 전문성이 정치적 간섭과 개입으

로 유린당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는, 모든 조직 수준에서 집권층이 집권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비전문가를 임용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일이나, 대학총장이 교무처장 등 주요 행정보직자를 임명하는 일에서나, 교장이 학교의 주요 부서장을 임명하는 일에서나, 그것은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인맥·학맥·지연 등에 연연하여 임용하는 데서부터 교육의 전문성은 정치적 놀음에 놓락당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표를 의식해서, 혹은 인기를 염두에 두고 어떤 교육정책을 내걸거나 또는 기존의 정책을 바꿀 때, 교육의 정치적 간섭은 매우 심각해진다. 대표적인 예가 선거공약으로 대두되었던 지역 내 대학설립, 또는 의과대학 설립과 같은 일이 그렇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도 정치적 계산에 의해 논의되었던 때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정치적 개입은 대학총장 선거과정에서도 비밀비재하였다.

셋째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교육의 전문성은 언제나 희생양이 되었다. 예컨대, 어떤 교육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들 중에 직접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시험 방법을 선정하거나 여러 전형자료들의 성적 배분비를 결정하는 일에 대학입학 자녀를 둔 사람 자신이 그 일에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그렇다. 심지어는 이런 사례 등도 전해지고 있다. 어느 대학의 총장이 자신의 자녀가 그 대학의 어느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그 학과의 교수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바, 이 역시 힘을 사용한 정치적 간섭과 개입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넷째는, 통제를 일삼는 전형적 관료주의 역시 교육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간섭이나 개입을 가져오는 한 가지 유형을 이룬다. 돈을 쥐고 있는 예산 부처의 사람들이 관료주

의적 자세로 교육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계도하려 드는 것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흔히 교육에서는 자율을 생명선으로 여긴다. 사실 자율은 교육에서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 교육정책 당국에서는 항상 자율을 모든 정책발표에서 빼놓지 않고 내건다. 예컨대, 대학의 학부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언제나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그것을 채택하고 안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금을 줄 때, 그런 학부제와 같은 정부의 의도된 개혁안을 실시하느냐 안하느냐를 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대학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모두가 그것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치적 개입이다.

끝으로,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학교 밖의 사람들이 학교에 대하여 이런저런 부당한 주문과 압력을 가함으로써 일어나기도 한다. 예컨대, 어느 초등학교에서 소풍과 관련해 학부모 중 힘있는 한 사람이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요즈음, 팬스레 아이들 끌고 다니다 사고 나면 어쩔 셈이냐?" 하고 한마디 호통(?)을 치면, 그런 계획이 출발 당일 아침에 불현듯 취소되는 경우가 그렇다. 왜 아이들을 운동장에 나와서 떠들게 하느냐고 학교에 항의 전화하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전화공세는 학교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간섭이고 개입이다.

가라! 무조건적 외제선호사상이여

각종 교육정책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무조건적 외국사례 선호현상이 척결되어야 한다. 흔히 비꼬며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처럼 외제선호 사상이 높은 민족도 드물 거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제선호 사상이 해방 이후 한국교육의 발전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면이 있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쳤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누구나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즉, 외국

우리는 언제나 외국이론을 수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왔고, 심지어는 누가 그것을 빨리 끌어들이어 오느냐를 놓고 경쟁해 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진외국의 것이라면 무조건 우리의 것보다 좋고 잘된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사회에 이식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얼굴을 더욱 뜨겁게 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는 실패한 이론을 마치 새로 개발된 신약이라도 되는 듯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탓에, 그 동안 한국교육에 많은 폐해가 있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의 경험이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 학자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주장을 펼 때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 이롭도 모르는 외국사람들의 주장을 들먹거리는 것이다.

물론 외국의 사례나 경험, 외국의 이론을 찾고 따져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엔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직수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 외국의 경험이나 사례, 이론 등은 우리의 경험·사례·이론 등을 보충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참고적 준거가 될 뿐,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외국이론을 수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왔고, 심지어는 누가 그것을 빨리 끌어들이어 오느냐를 놓고 경쟁해 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진외국의 것이라면 무조건 우리의 것보다 좋고 잘된 것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한국 사회에 이식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이론이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그저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들이려 하였던 점 역시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얼굴을 더욱 뜨겁게 하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는 실패한 이론을 마치 새로 개발된 신약이라도 되는 듯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탓에, 그 동안 한국교육에 많은 폐해가 있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외제선호사상은 교수들의 학위와 관련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국내 명문 대학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보다는 해외의 어느 수준미달의 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선호하는 것이 그렇다. 논문발표도 그렇다. 국제화·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외국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것보다 언제나 높이 평가되어 왔다. 즉 그 논문의 내용상의 질적 수준보다는, 그것이 한글이 아니라 외국어로 쓰여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논문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제선호사상이 해방 이후 한국 교육에 줄기차게 배태됨으로써 한국교육은 한국 특유의 또는 고유의 정체성

을 확립하지 못한 채, 오늘날 이처럼 교실이 붕괴되는 현상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외국에서 유행하였던 열린교육을 수입한 경우도 그렇다. 정말 무엇이 “열린”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열고 닫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피상적으로 열린교육이 좋은 것이다 싶어 채택하여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교육의 풍토에서 열린교육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정말 생각해 보았는가? 그것은 마치 침대 생활이 좋다길래 그것을 본떠 온돌방에서도 최대한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다가 큰코 다치는 경우와 무엇이 다를까? 우리 주변에서 횡행하는 무조건적·무비판적 외제선호사상이나 행동은 이 밖에도 허다하다. 비슷한 예를 한두 가지 더 들자면 수행평가가 그렇고, 대학의 학부제 실시도 그렇다.

가라! 교사 경시 풍토어

선생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토가 조속히 사라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육이 흔들리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교권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교권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데에는 물론 교원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우선 선생님들 스스로 전문성을 더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그러한 노력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것은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학교에 대한 사회의 태도,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학부모 등의 태도가 은연중 교직의 가치를 폄훼하고 경시하는 쪽으로 흘러왔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교육은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절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시설이 제 아무리 좋고, 제 아무리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참다운 교육은 불가능하다. 질병치료도 그렇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는 한 병은 고치기 어렵다. 신자가 목사님이나 스님을 존경하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심을 키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도록 만든 장본인인 어른들이 지금에 와서 학교가 왜 이 모양이 되었냐고 선생님들을 성토했고 나섰다는 데 있다. 교원이 늙어 환갑을 넘기면 마치 실력도 그에 비례해 떨어지는 듯이 몰아붙였던 교원정년 단축정책이나, 교문에 “우리학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써붙이게 했던 웃지 못할 일이나, 체벌은 교장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 지침 등이 얼마나 교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으며, 또 교사를 바라보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로 하여금 교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는가!

학생을 좀 혼냈다고 해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선생님을 구타하거나 교장실을 때려부수는가 하면, 또 학생이 112에 신고했다고 해서 경찰이 교사를 잡으러 학교에까지 들어오고, 교사가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텔레비전 저녁 종합 뉴스에서 크게 부각시키며 이런 교직자가 있다고 전국에 홍보(?)하는 식의 태도가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의 위상을 얼마나 깎아 내렸는지 참으로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시시때때로 정부에서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 또는 사기 앙양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과수당을 몇천 원 더 올려 준다고 생색을 내기도 했다. 또 공공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교장선생님을 지역 행사 때 상석에 앉히려는 우스운 일도 그 옛날엔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대책만으로 교사들의 내면적 자긍심이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초등교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얼마간의 교육을 시켜 그들을 초등교사로 임용하려는 일, 또는 중등교과에서 어느 과목의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과목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얼마간의 교육을 시켜 전공도 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게 한다든가 하는 등, 참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많은 졸속정책들이 교사들의 가슴을 옥죄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러다가 나중엔 교육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었을까?

자식에게 공부를 직접 가르쳐본 부모는 안다. 가르치다 보면 열통이 터지게 되는 것을. 실은 선생님들이 내 자식 가르치듯 교실에서 열통을 터뜨리며 학생을 가르치는 열성을

내보여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은 강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이다. 가슴 속 깊은 데서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선생님들의 열정이 다시 샘솟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온갖 비합리적 정책, 사회의 인습적 태도나 타성, 학부모의 천박한 우월주의 의식 등이 조속히 척결되어야 한다.

가라!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며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편법이 사라져야 한다. 예외가 많고 편법이 많고 곧바로 가는 길보다는 중간으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편리함을 가져다줄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법이다.

옛날 대학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자주 할 때다.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거부를 하면, 결국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졸업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때 흔히 대학에서 사용한 편법이 방학중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여 며칠 동안에 부족한 수업시간 수를 충족시키는 방법이었다. 결국 이러한 편법은 교육의 본질과 과정을 통째로 무시한 반교육적·비교육적 행위이며, 이것이 얼마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는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 건국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면에서 기본을 바로세우자는 내용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참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의 적절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을 바로세움으로써 나라를 바로세우려는 제2 건국 운동은 교육에서도 매우 시급하다.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기본을 바로세움으로써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나 정도가 지켜지지 않고 절묘한 편법이 동원되는 경우는 그 외에도 허다하다. 수업을 실제로 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는 '현장수업'을 했다는 식으로 기록해 놓는다든가, 제때에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편법으로 대체 보고서를 써오면 인정해 주겠다고 한다든가, 대학에서 논문심사를 실제로는 한 번밖에 안 하고도 몇 번 한 것으로 기록한다든가... 참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편법이 오늘 이 시간에도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사는 안 되었지만, 어떤 대학에서 유명 골프 선수를 특기생으로 입학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때 신문 보도에는 그 선수가 입시일자에 응시하기 어려우니까, 그 학생만 예외적으로 화상면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참으로 절묘한 편법을 구사한 것이다. 요즘은 대학사회에서는 겸임교수 붐이 일고 있다. 인건비를 줄일 요량으로, 전임교수를 채용하지 않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을 겸임교수 형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겸임교수들의 담당 시간 수를 합쳐 9시간이 되면 전임교수 1명을 확보한 것으로 계산해준다고 하니, 값싼 겸임교수를 마구 채용하고 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정말 대학교수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 코미디를 하나 소개하면, 어느 대학의 코미디학과와 학과 주임교수로 현직 코미디언을 겸임교수로 채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대학의 학과 주임교수가 도대체 어떤 역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일을 위해서는 그가 어떤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를 알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참으로 코미디학과다운 코미디를 보여 주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제2 건국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면에서 기본을 바로 세우자는 내용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참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의

적절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을 바로 세움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제2 건국 운동은 교육에서도 매우 시급하다. 교육의 모든 과정에서 기본을 바로 세움으로써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 5가지를 버리면 진정한 새 세기가 올 것이다

이상까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한국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 따져 보았다. 필자 나름대로 평소 매우 중요하다 생각했던 사항들을 적어보았다. 물론 읽는 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내용에 관해서, 또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 의견들이 개진될 수도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도 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 배어 그저 무의식중에 저질러왔던 그릇된 사고·태도·행동 등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각을 벗어 던지고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가운데, 새로운 세기에는 이 땅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이 글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폐단부터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재삼 다짐해 보는 뜻에서, 그 다섯 가지 사안을 적어 보는 것으로 이 글의 끝맺음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하나, 우리는 줄속적으로 교육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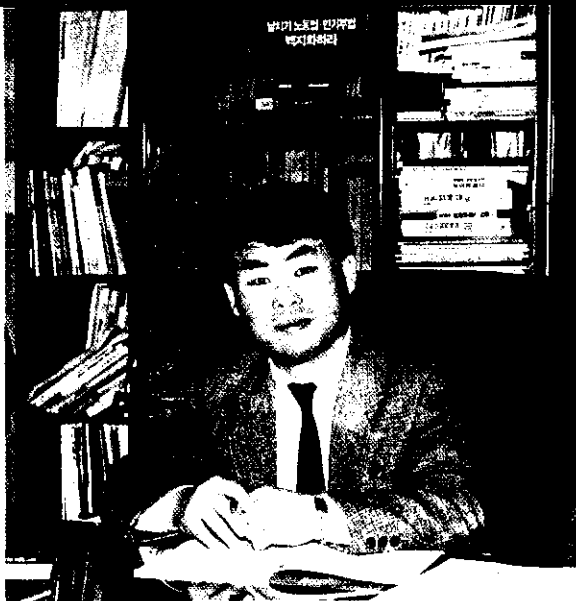
둘, 우리는 교육의 전문성을 그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셋,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외국이론이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넷, 우리는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다.

다섯,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1세기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버려야 할 5가지, 찾아야 할 5가지



21세기 한국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찾아야 할 5가지

엄기형 (교육학박사 · 새정치국민회의 인권위원회, eumkh7@ncnp.or.kr)

이제 또 새해를 맞고 있다. 이번에 맞은 새해는 어느 새 해와 다를 수밖에 없다. 세기를 넘기고 천년이 바뀌는 21세기 '새 천년(New Millennium)'이다. 새 천년 맞이 해돋이를 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과 기대를 마음 깊이 새겨볼 요량으로 너도나도 고생길로 나설 채비를 하느라 야단법석이다. 유난히 떠오르는 해, 해돋이에 민감한 자연친화적인 한국적 정서 탓이리라. 세밀이면 우리는 늘 '시간의 의미'를 묻는다. 하물며, 세기를 넘기고 화년(禧年)의 의미까지 담긴 새 천년을 맞는 이 시간에는 오죽하랴?

우리는 세기의 갈목, 새 천년의 앞자리에서 한국교육의

시간을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한국교육의 '시간'은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

오래! 교육이 주도권을 잡을 새 천년의 새 시간이어

인류는 농업혁명-산업혁명-정보혁명을 거치며, 전통사회(농업사회)-산업사회-정보사회로 진보·발전해 왔다. 우리 한국사회도 구한말 일본에 개항, 서구에 개방한 이래 서구의 발전사(發展史)를 숨기쁘게 뒤쫓으며 나름대로 변화·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지체(time lag)와 시행착오를 거치고, 선진국을 뒤따르는 후발효과(後發效果)도 제대로 못 누린 상태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당겨진 '시간'을 두고 우리는 이를 '압축성장'이라고 부르면서 한때는 '한강의 기적', 혹은 제3세계의 모범적 성공사례를 뽑았던 적도 있지 아니한가?

그러나 변화와 발전이 숨기뻐던 만큼 그 매듭이나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엉키고 겹쳐지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 그리고 역기능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의 '시간'을 특징짓는 평가 가운데 비동시성(非同時性)의 동시성(同時性)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것은 전통사회-산업사회-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겹쳐지고 '엇물리면서' 전근대성(前近代性)-근대성(近代性)-탈근대성(脫近代性)[또는 후기근대성(後期近代性)]이 중층복합(重層複合)적으로 혼재하는 전근대-근대-탈근대(현대)의 복합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이점이 바로 오늘의 한국사회를 서구사회와 다르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특별한 '시간' 위에서 우리 사회가 21세기 새 천년의 '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한국사회의 특성과 그 '시간'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의 '시간'도 전근대-근대-탈근대의 복합적인 '시간'이며, 그 시대적 특성 또한 전근대성·근대성·탈근대성이 중층·복합적으로 혼재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교육의 특성의 하나가 전통사회-산

세말이면 우리는 늘 '시간의 의미'를 묻는다. 허물며, 세기를 넘기고 회년(週年)의 의미까지 담긴 새 천년을 맞는 이 시간에는 오죽하라? 우리는 세기의 길목, 새 천년의 앞자리에서 한국교육의 시간을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한국교육의 '시간'은 어떻게 어디에 있는가?

업사회-정보사회적 특성의 복합이며, 이는 곧 비동시성의 동시적 존재'인 셈이다.

이를 반영하여, 흔히 교육계에서는 "19세기의 (학교)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주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을 우리는 학교 건물 등 시설의 상대적 낙후성이나 학교 현실의 열악성 등을 빗대어 비아냥거리는 뜻으로 써왔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지적은 학교 또는 학교(교육)제도라는 '근대(近代)의 기획(企劃)'이자 산업시대 대량생산-대량소비' 자본축적방식에 대응하는 대중교육이라는 교육 양식의 (기능적) 적합성 상실 내지는 저하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본래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학생들과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사, 아이들의 정서와 욕구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선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육은 진정 미래의 아이들의 삶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아무튼 이 말은 오늘의 학교교육 현실에서 무엇인가 안 맞고 어긋나 있는 특징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자, 이제 21세기 새 천년을 맞았다. 한국교육은 이제 어떤 '시간'을 살아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교육은 일제의 식민지 잔재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시대의 유산, 세계냉전체제와 산업사회적 후유증 등 미처 청산하지 못한 '시간', 그래서 더욱 극복해야 할 '시간', 지향해야 할 '시간'을 갖고 있다. 그 '시간' 속에 담긴 것들을 뒤적여 보자. 억압적 학교의 모습, 과도한 통제와 규율, 입시 위주의 교육과 그에 따른 암주식(暗注式: 암기와 주입 위주)의 교육방식, 획일적 통제 위주의 권위주의 교육행정, 반공교육, 국민교육헌장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찬 지경이다. 게다가, 과도한 학력(學歷)사회적 요소와 (계층이동과 지위상승의) 수단주의적인 과잉교육열, 교육부의 학교 교육 위주의 기능과 직제도 예외일 수는 없으리라(사실, 우리나라 교육부는 '학교교육부'라 불려도 변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먼저, 국민교육헌장만 하더라도 그 당시 한 나라의 교육의 지향성을 집약해 놓은 것인 바, 군사정권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공식적으로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사실 그 기능은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아직 폐기되지는 않았다). 이미 문민정부에서 '교육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사회의 변화와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지향을 담아 새로이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박정희 유신통치의 억압적 현실에서도 '우리 교육의 지표'를 만들어 국민교육헌장을 대체하고자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뜻 있는 사람들, 송기숙·성내운 교수 등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지 않았는가? 그제 문민정부 교육개혁의 한계의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8·15해방 후 최초의 야당(야당 연합)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제법 시간이 흘렀다. 국민의 정부가 새 천년에 무엇보다 우선하여 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이러한 일이다. 즉, 한국교육의 방향과 지표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로써, 국민교육헌장을 대체해야 한다. 벌써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정권교체의 의미는 나라의 '미래'인 교육을, 그것도 21세기와 새 천년을 맞이하여 다시 세우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 다만, 정권교체와 동시에 맞물린 이른바 IMF 체제의 국가적 위기에서 '나라(의 현재) 살리기'가 급했던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제 IMF 체제도 사실상 극복해 나가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나라의 미래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게 '교육'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더군다나 이제는 지식기반사회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도 국정기초(國政基調)의 하나로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천년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꼽히는 것 가운데 3위가 비행기이고 2위는 전기이며, 그리고 1위는 특권계급이 독점해 온 '지식'을 대중에게로 넓힌 공적을 높이 평가받은 인쇄기와 인쇄기술이라지 않는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넷 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식기반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33.6%에서 201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50.9%에 근접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 천년(가까이는 21세기)은 정보혁명·미디어혁명·디지털혁명을 통해 지식이 권력이 되는 시대, 그리고 정보자본의 경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이다. 이제는 지식의 생명주기가 이리도 짧고 정보의 갱신(renewal)주기가 저리도 급해서, 상품의 순환주기가마저도 하루가 다르게 이토록 빨라진 시대가 아닌가?

이제는 '교육'이 주도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육이 중심에 설 수밖에 없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제 지식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사회이고, 지식의 전이효과(轉移效果)가 중심이 되어 인적 자원(人的資源)을 넘어서 지식자본(知識資本)이 골간이 되는 경제이므로, 무엇보다 교육이 먼저 앞서서 이를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정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그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켜 가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혁명'



은 교육을 통하여 '지식혁명'으로 연계되어 적극 추진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정보혁명은 컴퓨터, 복합미디어, 정보인프라, 인터넷 등 과학기술과 하드웨어가 가져다 주었지만, 지식혁명의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재구성·전환되어질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 면에서 교육은 지식혁명의 내포(內包)이자 외연(外延)이다.

진정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이 중심이 되어 정치·경제·문화·청소년 등 사회의 각 측면과 자원(資源)들을 동원하고 재조직하고 재결합해 내야 한다. 때로는 교육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문의 교육적·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상대적 중요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책적·투자적 우선 순위도 더욱 강화·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이 학교교육을 넘어서 평생학습·생애교육이 되고, 학교·교사조직·(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s)이 그 기반이 되는 평생학습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가도 학습국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과 잠재력은 학습력과 교육력(educability)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학교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져야 하고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며, 역설적으로 거듭나서 그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에 적절한 교육체제에서는 학교·교사·학생 등 거의 모든 개념들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의미와 역할이 재정의(再定義)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자세도, 나아가서는 교육관(教育觀)도 달라져야 한다.

학생-교사-학교, 학교체제-사회는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적(interactive) 기술을 통하여 기존의 학교의 '공간'을 넘어 상호간,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쌍방향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이 담고 있는 전통적 논리의 오만함도 극복되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개혁은 일상화되고 상시화(常時化)되어야 한다.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21세기에도 교육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교육과정(curriculum)개혁도 이러한 차원에서 더 이상 차수(次數)를 높여 가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5~6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상시개편-수시개정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방향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교육개혁방식이다.

교육의 질과 교육에서의 성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유일·베타적 요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새 천년 미래의 교육에 있어서는 교사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교사부터 진정한 '학습인'으로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존재로서 솔선하여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교사가 먼저 자기주도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모범을 보여, 또 학생들과 함께 학습자의 지적·정의적·사회적 '성장'을 이끄는, 본래적 의미에서 배움에 '먼저 나선' (先生) 존재이어야 한다. '학습혁명'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육의 '시간'은 또 어떠한가? 세기말의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아울러 학교교육의 누적적·지속적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책임한 기초차 한 학교붕괴·학급붕괴 등의 담론이 감각주의적 언론의 진지하지 못한 접근 아래 횡행하고 있다. 교육입국(教育立國)이라도 시원치 않을 터에 교육난국(教育亂國)이 외쳐지는 이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일 지경이다.

오라! 교육개혁이어

새 천년의 화두(話頭)도 교육개혁이다. 최근('99년 11월 초) 뉴스위크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내가 (다시) 대통령 후보라면, 노령화대책과 더불어 교육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삼겠다"며, 21세기에도 시대적 화두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전히 교육개혁일 수밖에 없음을 밝혔고,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영국의 21세기 핵심 과제는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를 제대로 새겨야 한다.

교육개혁은 일상화되고 상시화(常時化)되어야 한다.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21세기에도 교육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과제의 하나인 교육과정(curriculum)개혁도 이러한 차원에서 더 이상 차수(次數)를 높여 가며 막대한 비용

을 들여 5~6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상시개편-수시개정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방향이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교육개혁방식이다.

국민의 정부도 (상향식)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점을 제15대 대선공약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정치·사회적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공약상의 '교육개혁추진단'을 '새교육공동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새 교육공동체를 지향하겠다는 이 위원회(새교위)의 역할과 기능이 국민의 정부 초기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대로 활성화되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새교위'의 위상이 저하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21세기 새 천년에 대비한 한국교육의 기본방향의 새로운 정립과 지속적 교육개혁에 관한 기반 마련과 원동력 구축이 필요한 바, 이 기회에 '새교위'를 개편해 보면 어떨까? 이에 상설법정기구(常設法定機構)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점은 이미 제15대 대선공약 교육부문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교육개혁추진단'에서는 교육개혁의 장기·중기·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해나갈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1-(3)].

새 천년을 바라보며 이름도 '새천년교육개혁추진위원회'(새교추)로 하고 「새천년교육개혁추진위원회설치에관한법(안)」에 의거, 대통령 자문기구로 삼아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협의기능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임기나 정권에 관계없이, 그리고 교육개혁기구의 이름도 바꿀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개혁을 지속해 나갈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미 이러한 내용은 지난 대선 직후 첫 조각(組閣)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된 바 있었다. '새교위'가 지속적 교육개혁을 위한 기반과 추동력으로서 '새교육공동체'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다

면, 이 세기의 길목에서 새 천년을 위해서도, 또 '교육위기'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과감히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라! 교육정책에 대한 믿음이어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적 효과가 실현되기 어렵고, 부분적·잠재적으로 염려했던 부작용과 역기능이 정책의 의도적 효과를 압도하여서 정책의도나 결과를 변질·왜곡시켜 버리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애초에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을 '비판적으로' 승계하고자 방향을 잡았다. 왜냐하면, 지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검토될 수 있는 교육개혁안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교개위'의 교육개혁안들의 일부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체화되어 가고 있었던 현실을 중시하여 이를 존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관을 앞세워 교육부 주도로 사실상 김영삼 정권의 교육개혁을 무비판적으로 승계하다시피 하였다.

특히, 장관이 바뀌면서 최근까지 이루어지는 교육부 정책을 보면서 정책의 안정성·신뢰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내용과 추진방법이 때로는 분리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의 '추진방법의 문제'를 '내용의 문제'로 환치(換置)시켜 버린 듯하다.

교육개혁의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스타일과 추진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하게 정책의 내용을 바꾸어 버림으로써 교육개혁의 본질인 개혁성을 후퇴시켜서야 되겠는가? 이렇고서는 교육개혁은 고사하고 '신뢰성의 위기'처럼 교육정책의 근본적 존립기반마저 허물게 될 수 있으니, 이 아니 염려스러우랴?

오라!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여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우리가 21세기에 꼭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정책과 제도의 신뢰성·안정성(一貫性)·계속성을 확보해 나가는 신중하고도 진지한 노력일 것이다. 그 동안 교육정책이 하도 많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학생·교사·학부모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제시되고 그 방안이 바람직하더라도 불신부터 한다. 이른바, '늑대소년'의 효과, 즉 '신뢰성의 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무릇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라서 '열려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참여자의 역할과 교육계-시민사회-정부를 유기적으로 잇는 연계(連繫)구조가 중요하다. 즉, 교육정책에 관한 한 정부(교육부)가 배타적 공급자일 수만은 없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옳은 방향과 적절한 정책내용을 제시하더라도,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등 교육참여자들의 필요와 요구(needs) 및 이해관계, 교육관, 그리고 현실적 역할관계 등이 연계되어 교육참여자들의 주체적·능동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dynamic process)에 의해서, 교육정책이 완성(정책의 본래적 의도 실현)되어 간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교육정책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점은 별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형성과정 결정, 나아가 정책의 홍보와 실행과정과 관련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우리가 21세기에 꼭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정책과 제도의 신뢰성·안정성(一貫性)·계속성을 확보해 나가는 신중하고도 진지한 노력일 것이다. 그동안 교육정책이 하도 많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학생·교사·학부모들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제시되고 그 방안이 바람직하더라도 불신부터 먼저 한다. 이른바, '늑대소년'의 효과, 즉 신뢰성의 위기가 나타난 것이다.

육참여자들과, 교육계-언론계-청소년계-학계,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교육정책·교육개혁과 관련된 연계망(networks)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교육문제를 다루는 데 커다란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정책은 잘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잘 팔기(sales)도 해야 한다. 정책의 홍보와 설득 과정을 통하여 학부모들을 비롯한 교육참여자들의 왜곡된 교육관과 바람직스럽지 않은 교육행태를 바로잡아 주는 등 계몽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주체로서 울곧게 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다(主體化過程). 따라서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는 점과 관련하여 신뢰성, 어떻게 만드느냐는 점(과정적·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비배타성 또는 참여적 쌍방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흔히 이 점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신뢰관계를 형성해 놓지 못하면,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정작 필요할 때) 유기적 협조를 얻지 못하거나 설득하기 어렵게 되는 등 정책수단의 선택과 관련 자원(資源)의 동원(動員)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일방적 언론 플레이나 한두 번의 형식적 공청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덧나기 쉽다.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오라!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교육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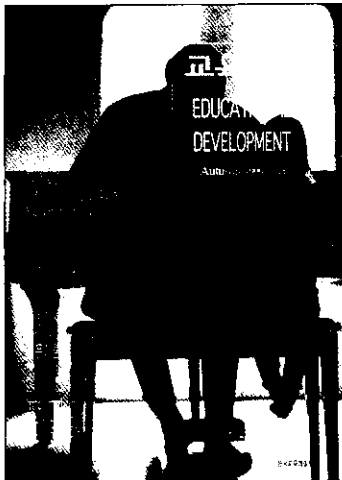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적 가치와 관련하여 강조하여야 할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분단극복 통일지향과 생태주의적 공동체(주의)', '능력중심사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반공교육, 국방비로 인한 교육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 우리 교육이 분단현실 속에서 제약받아 온 것들을 열거하기에는 한이 없으리라. 이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나라의 세계화는 물론 교육의 세계화도 진정코 달성하기 어렵다. 이 분단현실의 극복은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넘어 범지구적으로 열려 있는 생태주의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해서도 사실상 교육이 모태가 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친화적 지식

기반사회의 생태윤리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육에서 많은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이른바 학력사회(學歷社會)의 속성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지적해왔다.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만큼은 이 학력중심사회를 능력사회(Meritocracy)로 바꾸어 가는 기반만이라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새 천년에 풀어보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이 5가지를 찾으면 진정한 새 세기가 올 것이다

자, 이제 새 천년이 밝았다. 새 천년은 희망의 '시간'이다.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에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새로운 '시작점'이고 한국교육을 위한 '거듭남'을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읽고 있다. '시간'과 공간은 만날 뿐만 아니라 융합(融合)되는 것이다. 비록 '25시'가 게오르규에게는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시간'과 공간의 융합이었지만, 우리에게 새 천년이 희망의 시간과 새로운 실천의 장(場)의 융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희망의 '시간'은 교육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범지구화의 세계적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교육에 대한 긍정적 자기암시(자기충족적 예언의 효과: self-fulfilling prophecy)가 그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진정으로 '교육'인 것은 그것이 '삶의 희망찾기'이며,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사실을 체험해 왔고, 우리의 '오늘'을 일구어 왔지 않은가? [30]



편집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창간호부터는 보는 재미도 쓸쓸해졌습니다. 골라 읽는 재미도 생겼고요. 그래서 넓어졌다는 장점이 생긴 반면 분석 기사나 특집 기사 등 깊이를 제대로 보여 주는 부분이 덜해진 듯합니다. 매호마다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철저히 파헤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 쟁점을 잡아서 다양한 입장에서 감론을박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고요. 가을호에서는 <젊은 이론>과 <재밌는 교실>에 관심이 가더군요. 다만 수학과 영어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글은 정말 소개에 그친 듯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고,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그 정도 소개로는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내용으로 여겨졌습니다. 차라리 교실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7차 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한 특집을 다루면 어떨까요? <세계의 교육>이나 <튀는 학교>처럼 교육 현장의 새로운 시도들이 담긴 기사들은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 기사가 곳곳에 담겨 있어 좋더군요. 하지만 단순한 소개보다는 입장을 갖고 소개해 주는 정보 기사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영화를 소개하는 부분은 다른 영화 잡지나 신문을 통해 더 빨리 더 자세히 알 수 있거든요. <수업에 도움을 주는 추천 웹사이트>는 더 많이 더 자세히 소개해 주면 좋겠고요. 계속 발전하는 '교육개발'을 기대합니다.

김재광 ((주)디딤돌 교과서개발부)

'교육개발'을 처음 접했던 때는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였다. '교육'과 관련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교육개발'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한참 열기왕성했던 대학시절 '교육개발'의 내용은 별로 내게 자극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교육개발'에 대한 관심은 적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잊고 살았다. 그런데 우연히 학교에서 '교육개발' 여름호를 보았는데 겉표지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구독하게 되었다.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니 대학 때의 느낌과 달랐다. 학교현장에서 겪고 있는 나의 교육적 고뇌를 대신해 주는 내용도 있었고 학교교육 밖의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교육적 시각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내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제 나는 교육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교육개발'을 본다. 정말 교육개발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번 가을호는 세계의 교육과 우리 나라

의 교육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어 좋았다. 제도권 밖에서 행해지는 교육 소개도 좋았고 교육이론에 대한 소개도 좋았다. 그러나 좀더 교사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도 담을 수 있는 작은 지면을 할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계정 (지평중학교 교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 중에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실령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는 좋은 것을 소개하고 싶고,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다. 몇 년 전 처음 학교에서 도서관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접하게 되었다. 그 후 가끔 펼쳐보곤 했는데, 올해부터 한층 내실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 나 혼자만 보기엔 아까운 생각에 개별신청을 했다. 우리 가족(특히 남편)을 위해. 내가 근무하는 곳은 강원도 읍 소재지의 종합고등학교라 지역특성상 정보교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교육개발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여름호에서의 홈 스쿨링을 통해 학교가 긴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생각, 가을호에선 김지하 시인의 특별 강연 내용과 담당교사인 영어와 관련된 내용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교육을 소개받음으로 우리 나라 교육 현실을 좀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고 나와 같은 도움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다고 확신한다. 이런 우리의 관심의 무게를 느끼고 좀더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 담당자들은 혈안(?)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내용에 좀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를 보낸다면, 그것이 그 붉어진 눈을 낮게 하는 인약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장은영 (석정여자종합고등학교 교사)

'교육개발'은 우선 다양한 테마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처음 접해본 나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세계의 교육, 튀는 학교, 드라마 학교2 등의 이야기를 통해 지나친 학력경쟁의 교육현장 속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교육을 비판하고 고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공감했고, 이와 더불어 교육에 대한 인터뷰와 강연, 교육을 주제로 한 영화 소개, 다양한 정보거리 등은 대중적인 잡지라도 손색 없을 만큼 주제가 다채롭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교육개발'은 교육열 하면 들켜가라면 서러울 정도이면서 정작 교육 문제에는 수동적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작은 계기나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교육정책에 대해 무조건 비판을 가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잡지가 될 것 같다.

홍민익 (대학생)

'교육개발'은 충고와 격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하신 분께는 도서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방법은, 뒷면의 우편엽서를 이용하시거나,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하이텔: kedcoms, 천리안: coms, 이메일: keditor@ms.kedi.re.kr), 혹은 전화나 팩스(전화: 02-3460-0234, 0235 팩스: 02-577-5117)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日本



21C 일본, 교사들은 일정 기간 호텔의 '벨보이' 로 일해야 한다?

박성우 (일본poole 學院大學 교수)

Millennium Frontier

아시아 - 미래교육의 전경



자처한 경제대국, 오히려 발전의 걸림 돌로 드러나

한 나라의 교육 과제를 인식하는 데는 그 나라의 사회병리와 바람직한 성취목표가 우선 밝혀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새 천년의 과제를 전망하는 발판으로 오늘의 일본사회의 병리의 일단을 살핀 다음 교육의 지향하는 바를 개관하기로 한다.

1980년대 초반에 '경제대국'을 자처하던 일본은 변영의 주된 성공요인으로 '일본식 경영 방식'과 '관료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꼼꼼한 장인기질'을 곧잘 거론하곤 했다. 이는 첫째 기업사회 운영에서 일본 고유의 전통적 관행을 높이 평가한 것이고, 둘째 명치유신 이래의 교육제도가 국가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강한 '자부'이며, 셋째 질 높고 철저한 인교육성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다. 그러한 '평가'나 '자부'와 '신뢰'는 일본인의 뇌리에 신화

처럼 뿌리박혀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기세 등등하던 일본경제가 폭삭 가라앉았다. 이른바 '버블(거품)붕괴'였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평가'와 '자부'와 '신뢰'의 대상이었던 앞서의 일반적인 특징은 더 이상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세계 최

트들이 핵심을 이룬 대장성이 악수만을 거듭해 국민의 혈세를 부질없이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이 조직의 인사들이 은행이나 허부기관으로부터 과잉집대를 받는 등의 오직(汚職) 혐의가 들끓으면서, 사상 최초로 대장성에 대한 사직(司直)의 입검 조사와 서류 압류 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청렴하고 유능한 '엘리트 신화'가 환상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대형 천재지변이 속출했다. 1997년에는 오사카·고베 지



강을 자랑하던 명문기업이 흔들리고 금융기관이 연달아 도산하면서 일본의 산업을 떠받치던 중소기업도 줄줄이 문을 닫게 되었다.

그 와중에 '일본식 경영'의 대표주자들인 금융기관의 몇몇 수뇌부들이 쇠망의 찻다. 그들의 일본식 경영이란 '충성경쟁'을 조장하는 파벌인사, 기업간의 '담합'에 의한 경쟁의 회피, 어두운 뒷거래로 인한 거액의 부정대출 등, 전근대적 행태를 포장한 허울 좋은 '현상유지'방편 임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국가적 경제 위기 앞에 사실상의 경제 사령탑이요, 일본 최고 명문 동경대 출신의 엘리

역, 아와지 대지진으로 순식간에 고베시가 허물어져 6,425명이 사망했다. 이때 국가의 위기관리체제의 허술함이 들어났으며, 일본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담보하는 '꼼꼼한 장인 기질'의 신화도 허구임이 밝혀졌다.

또 세기말의 황색이라고 보기에 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괴이한 '옴진리교' 사건이 일어났다. 옴진리교라는 이름의 광신도 집단이 교단의 비행을 고발하려는 변호사 일가족을 몰살하고 극악 '사린'을 제조, 지하철에다 살포하여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는 등 끔찍한 만행을 자행했다. 놀라운 것은 극악을 함성·제조하고 뿌린 젊은이들 중에는 일류대학을 나온



엘리트 의사나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의사나 과학자가 집단살인을 주도하고 또 하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과연 그들이 받은 교육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997년에는 당시 14살의 중학생이 초등학교 학생을 둘이나 살해하고 그 중 한 명의 머리를 절단해 자기가 다니는 중학교 교문 앞에 던져놓은 뒤, 신문사에 투서하여 경찰을 농락하는 엽기적인 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음습한 '이지메(bullying)'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중학교 여교사가 1학년 남학생이 휘두른 주머니 칼에 찔려 사망하는 비참한 사건도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일부이긴 하나 '교실 붕괴', '학교 붕괴' 현상이 퍼지고 있어 공교육의 거점인 '학교'와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들추어 본 몇몇 병리현상에서 우리는 일본사회 전체에 있어 기성 가치

관이나 규범의식이 녹슬기 시작하고 사회기강과 질서의 이완이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또 가정·사회·학교를 잇는 인간교육의 장치인 교육제도나 운영체제가 부분적이거나 이미 '적응부진'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다.

국립교육연구소가 99년 9월에 중간 보고서를 낸 '학급경영의 충실화에 관한 조사연구'는 '학급 붕괴'에 직면한 소학교의 102학급을 대상으로 그 실태와 원인을 밝힌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학급 붕괴'의 원인을 10개의 유형으로 집약했는데, 해당되는 학급을 높은 빈도순(복수선택·상위 3유형)으로 보면, ① 교사의 학급경영이 유연성이 없는 경우(74학급), ②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불만을 갖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65학급), ③ '이지메' 등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늦어진 경우(38학급)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대체로 '학급 붕괴'는 학생의 '(넓은 의미에서의)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사의 대응 행위의 결함 내

지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결과는 학교의 뚜렷한 '적응부진'의 실상을 보여 준다.

21C에는 교사들이 일정 기간 호텔의 '벨보이'로 일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가 발전의 장기 전망이나 지향, 또는 정책 중심의 체제는 주로 경제기획청이나 그 산하의 경제심의회가 매년 백서 형식으로 정리·제시하고, 문교 정책은 문부성이 위촉한 인사로 구성되는 중앙교육

심의회가 문부대신에 대한 답신서 형식으로 작성·제시한다. 문부성 산하의 심의회는 그 밖에 교육과정심의회·대학심의회·학술심의회·교육직원양성심의회·생애학습심의회 등이 각각의 분야에서 답신서를 작성·제시하게 된다. 여기서는 각 심의회가 새 세기를 지향하는 정책 중점으로 제기한 '키워드'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1999년 7월에 경제심의회는 '새로운 시대로의 역사적 조류'로서, 최적 공업사회를 넘어선 '다양한 지혜의 시대'로의 이행을 주창하면서 '인터넷'의 실용화로 글로벌 정보 경제 사회의 구현을 제안하고 있다. 학술심의회는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 등 20세기형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문명을 지양하고, 새로운 문명 구축의 공헌이 가능한 '지적 존재감이 있는 나라'를 지향하며,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② 21세기 새 학문의 창조, ③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의 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심의회에서는 99년 1월 '21세기



의 대학상과 급후의 개혁 방책에 대하여 라는 제하의 답신에서, '21세기는 대학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로서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관이나 문명관의 제시가 요구되며' 따라서, 대학은 '폭넓은 시점에서 지(知)를 재구축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청이나 기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교육심의회는 '21세기를 전망한 우리 나라 교육의 모습'이란 제하의 답신에서 ① 여유 있는' 교육환경의 부여와 '삶의 힘'의 배양을 기본지표로 삼고 ② 개별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③ 고등학교·대학의 입학자 선발의 개선에 의한 입시 경쟁의 완화, ④ 중등·고등 일반교육, ⑤ 우수한 사회인의 교직 등용, ⑥ '이지메', '등교거부'에 대한 가

정·지역과의 협력, ⑦ 주 5일제 교육의 실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육 과정 기준 개선'의 답신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과외를 넘어 횡단적·종합적 학습을 각 학교의 창의를 살려서 실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학습시간'의 창설이다. 이것은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여 문제 해결이나 탐구 활동에 주체적·창조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와 바람직한 삶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하는 학습시간을 의미한다.

21세기를 향해 가장 뚜렷한 개혁 성향을 보인 것이 교육직원양성심의회는 답신인 '새 시대를 향한 교원양성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이다. 현재의 '교육 위기'에 대처하는 교육 체제 개혁의 중핵이 교원의 질적 향상임을 강조하면서, 교

원의 '양성-채용-연수'의 전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획기적이라 할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교직 과목의 확충과 다양화, ② 채용 전형의 인물 분위로의 전환, ③ 일반 사회로부터의 유능한 인재 도입, ④ 교직 사회 이외의 다양한 직장에서의 실습을 통한 연수 등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선도적 시도로 중년 교사를 만 년 내지 일 년간 백화점의 매점 판매원이나, 호텔의 '벨보이'로 파견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위원회가 나타날 정도로 관심이 크다. 바야흐로 격심한 국제화·정보화의 조류와 급속한 '小子高齡' 사회로의 전환이 초래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처럼 일본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5]



21C 중국, 교육발전으로 아시아 최강국 꿈꾼다

이훈근 (전 연변과학기술대학 부총장)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키는 전략이 국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동의하며, 이 전략이 실현된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21세기 강자, 중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30여 년 전, 중국은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는 사건을 겪었다. 바로 문화대혁명이다. 10여 년간 계속된 혁명으로 대학의 수업이 중단되고 중등교육이 황폐해지며, 교권이 무너지고 수많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다. 교육무용론이 널리 퍼져 학부모들이 지식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상처로 지금까지도 세대간에 깊은 반목이 남아 있고, 모든 영역에서 40~50대의 고급 전문인력이 부족해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교육이 국가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라고 한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지식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는 곧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21세기에는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전체 사회에서 성공하

고, 교육에 성공한 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나라마다 21세기를 앞두고 교육 문제를 돌아보고 이의 개혁에 몰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과학기술교육을 국정의 제1

지표로 천명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산아 제한으로 한 자녀밖에 두지 못한 학부모들과 교육무용론에서 벗어난 학생들도 과거를 교훈 삼아 심기일전하여 더욱 학업에 몰두하고 있다.

21C 중국 교육, 이렇게 펼쳐진다

미래의 중국 교육 21세기 중국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 될까? 중국 교육부에서 내세우는 미래의 모습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9년제 의무교육의 완성과 내실화이다.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9년제 의무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 연해주 지역을 완성하고 점차 내륙지방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재정부족과 지역간 격차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예산에서 초·중등교육비를 증가하고 지방정부의 교육비 투자를 독려하며, 취약지구에 대한 교육비 보조도 늘려가고 있다. 2010년경에는 중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 9년제 의무교육이 보급될 전망이다.

둘째, 직업기술 교육의 정착이다. 9년제 의무교육의 완성으로 중등교육의 대

과거에서 미래로 12억 인구의 중국 대륙에도 대망의 21세기가 다가왔다.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도 중국을 넘어뜨리지 못했고, 과거사의 치욕이었던 홍콩과 마카오도 귀속되었다.

이제 중국인들은 곧 아시아 최강의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대가 교차하는 시기에 행정부를 이끌게 된 주룽지 총리는 국정의 제일 지표로 "과교흥국(科教興國)"을 내세웠다. 중국인들은 과학기술





규모 팽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의 중국 대학 규모로 볼 때 단시일 내에 이들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중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직업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적은 재원으로 이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 기술 교육에서의 사립학교 설립을 크게 장려하고 있다.

중서부 내륙지방에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직업기술교육의 성공 여부가 21세기 중국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만큼 중국 교육부의 성취 의욕도

높다.

셋째,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것이다. 초·중등교육의 확대로 고등교육 역시 대규모 확장이 불가피하고, 국민 소득과 의식 수준이 높은 연해주지방은 특히 그 압력이 심하다.

현재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는 성인교육을 합쳐도 학령인구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학 당 평균학생수가 3,100여명, 교수 대 학생비가 11:1 정도로 상당히 확장할 여지가 있다. 1,000여 개의 성인대학을 양성화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대학생 규모를 학령인구의 15% 이

상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열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학비를 올리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넷째, 몇 개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대학은 단과 대학 중심이고 관리권이 분산되어 중복 투자가 심하다. 따라서 중국 최고의 대학도 한해 SCI 논문이 600여 개에 불과해 세계 수준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교육부는 21세기를 대비해 100개 대학을 중점 육성한다는 "211공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세계 수준으로 양성하는 북경

대학과 청화대학에는 각각 1억 달러가 넘는 경비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 수년 내에 이 두 대학을 포함한 몇 개 대학이 21세기의 강자, 중국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섯째, 인성교육의 실현이다. 21세기는 다윈화된 사회로서 개인의 창의력과 종합적인 대처 능력이 필요한 사회이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사회주의 교육은 집단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개성을 억제한다는 비평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좁은 대학문과 학부모들의 교육열로 입시교육의 병폐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교육부는 초,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해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에서도 단과대학을 통합하고 중국식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양과목과 선택과목을 크게 확장하여 날로 다양해지는 사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난제 많으나 중국인에겐 이겨낼 큰 지혜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의 모습을 실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하며, 이를 극복할 중국인의 지혜가 필요하다.

첫째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다윈 사회로의 진입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최근의 "파룬궁" 사건이나 티베트 사태에서 보듯이, 종교문제와 세대 교체 문제, 민족문제도 큰 갈등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에 민감한 대학생들을 크게 확장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학자들은 5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대학 규모 확장이 정권 교체로 이어졌

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인재유출이다. 매년 수만 명의 우수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떠나지만 돌아오는 학생은 이 중의 1/3에 머물고 있다. 고급인재의 대량 유출은 중국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국내에 남아 있는 졸업생들도 높은 보수의 외국기업이나 안정적 직장인 국유기업을 선호해 일반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대학생 통일 직장배치제도 폐지로 인력의 지역별, 산업별 안배 기능이 무너지게 되었다.



정부조직 축소와 국유기업 개혁으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졸업생들이 국가적 수요에 민감하지 않게 된 것도 큰 문제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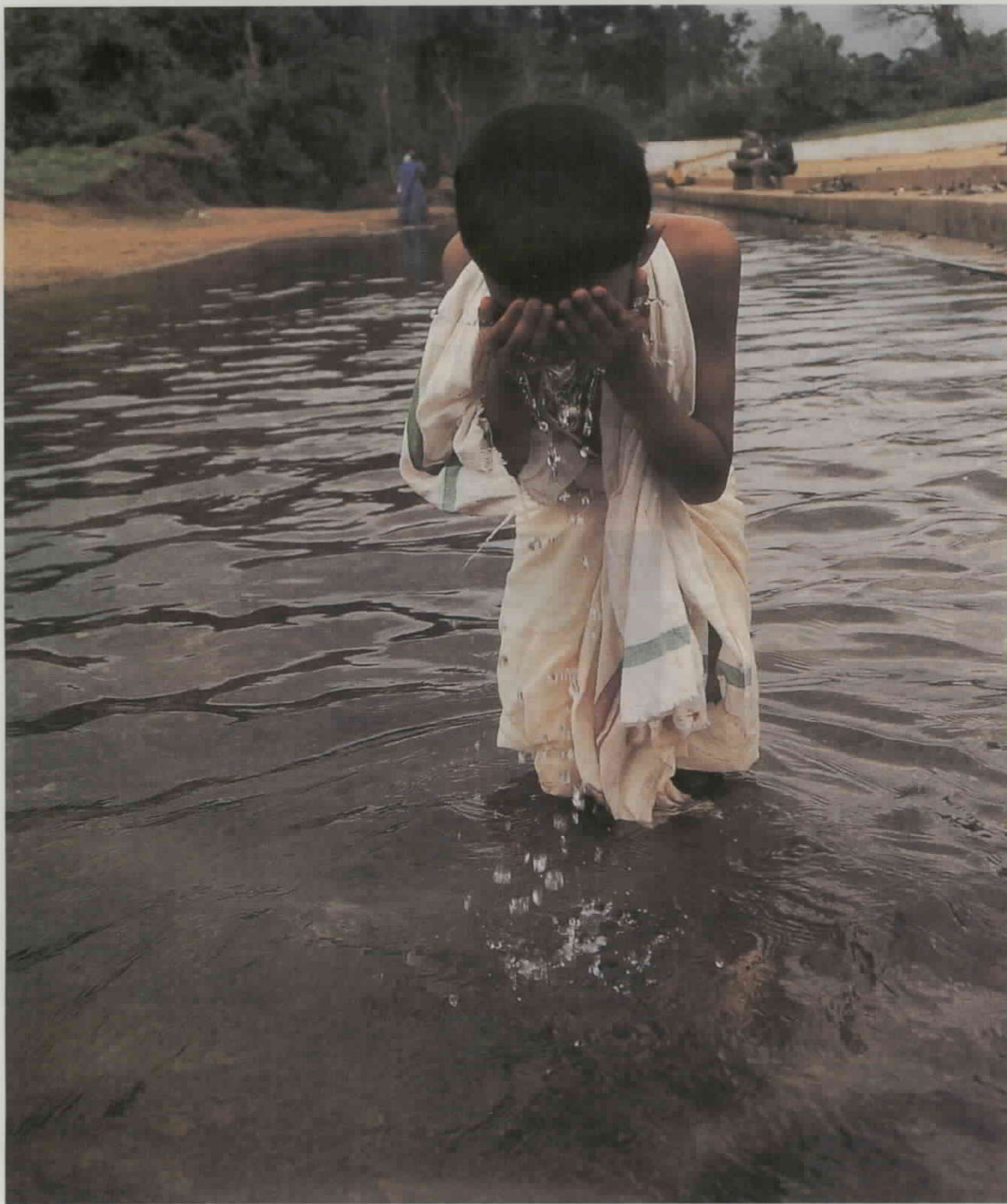
셋째, 지역간 격차의 심화이다. 중국 정부의 차등 발전 전략으로, 연해주 발달 지역과 중서부 미발달 지역과의 경제력 차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역간의 경제력 차이는 교육과 인재의 차이로 이어진다. 우수한 교육을 받고 발달 지역에 연고를 구축하려는 학생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졸업생의 자유

취업으로 고급 인재들이 대도시로 집중하고, 정작 긴급한 수요가 있는 중서부 내륙 지방에는 가지 않으려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의 취업을 저하로 고향으로 복귀하는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곧 하향 취업을 해서라도 대도시로 진출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에는 변함이 없다. 중국에는 바른 예측과 합리적인 대안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미래의 지도자

가 있다.

또한 중국에는 실리에 밝고 검소하며, 어려울 때 가족과 국가를 위해 단결할 줄 아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들은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힘을 합쳐 난제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들이 함께 추구하는 21세기 중국은 확실히 지금보다 훨씬 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중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필자]



거대한 역설의 나라, 인도 그 역설의 힘에 21C 인도의 희망이 있다

Dr.S.K.Gandhe(인도 교육연구소장, iepune@giaspn01.vsnl.net.in)

한석훈 (한국교육개발원 국제협력팀) 옮김



전세계 문맹의 절반이 인도에 살고 있다

오늘날 인도 교육의 시나리오에는 거대한 역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그 크기에 있어서 미국 다음가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 하부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특별히 고등교육(대학교) 수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40년 동안 인도는 인문 과학에서부터 극도로 정교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야까지 통틀어서, 인간 활동과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도로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전 세계에 공급해 왔다. 비록 외부 세계에는 그러한 인력의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느껴질지는 모르나, 이들은 실상 인도 인구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대표할 뿐이다. 즉, 인도 교육의 다른 한 면이란,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맹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잘 알려진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 문맹인의 거의 반 정도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읽고 쓸 줄 아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1961년의 38%에서 1991년에는 52%로 증가), 문맹자들의 실제 숫자 역시 동시에 증가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구증가율, 특히 농촌의 인구증가율이 읽고 쓸 줄 아는 인구의 증가율을 뛰어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읽고 쓸 줄 아는 인구의 증가를 전체 인구 증가와 일치시키지 못한 것이 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체 근로자(15~60세 연령군)의 거의 절반이 문맹이고, 기술을 체득하지 못하여 아주 낮은 급여의 일자리밖에 얻지 못하는 인력이라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위장 실업은 농촌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며, 특히 밭농사 (관개 시설 부재의) 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더 이상 감춰진 일도 아니다.

이렇게 문맹이며 기술도 없기 때문에 극도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빈곤층 이하의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인도 인구의 40%에 달한다. 불균형 인도는 50년 전에 영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했다. 그간의 50년이라는 세월 도중에 일종의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는 새로이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이 경험한 기대감의 폭발이었지만, 단지 도시 엘리트와 부유 산업 계층과 정치 세력 등만이 당당히 제기한 기대감이었다. 그 결과, 승고한 이상과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결실은 거의 다 인도 사회의 기득 계층의 몫으로만 돌아가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고등교육이 엄청난 발전을 겪게 되었다. 4년제 대학의 수는 20개에서 250개로 치솟았으며, 단과 또는 전문대학은 650개에서 9,000개로, 그리고 학생수는 20만 명 이하에서 5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역시 급격하게

진행된 결과,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교과과정이라도 인도에 없는 것은 없을 만큼 많은 과정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도의 고등교육은 언제나 중·상층 인구, 즉 부유 계층의 소유물이었다. 이러한 "성장"은 인도의 도시 엘리트층과 농촌대중 사이에 상존하고 있던 교육적 지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주로 농촌 지역(인도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50만 개 이상의 "마을(villages)"이 있고, 이중 많은 곳에는 여러 개의 작은 마을이 딸려있기도 함)에서 일어난 인구 폭발로 인하여, 교육적인 성장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발전의 자원 기반이 축소되었다.

인도 인구의 소외 계층 중 많은 수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확인된 소외 계층은 지정(指定) 카스트계층(Scheduled Castes), 지정 씨족(Scheduled Tribes), 소작농, 소규모 소외층 농부들, 농촌 여성, 승려, 절인, 탁발승, 장애인, 빈민굴 거주자, 인력거꾼 등이 있음. 이러한 인구 폭발은 인도 인구의 거의 70%가 살고 있는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읽기, 쓰기 보급과 교육에 영향을 끼쳤다. 전반적인 자원의 감소와 발전 기로에 있는 여타 경쟁 분야에서의 수요 등 때문에 GDP의 3.5% 이상이 교육에 투자될 수 없는 실정이나, 최소한의 교육 소요 비용은 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촌 교육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투자는 거의 전무하다. 농촌 교육 하부구조의 빈곤화가 그 당연한 귀결이다. 수천 개의 농촌 교육 기관은 전혀 학교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방 하나만 있는 학교일 뿐이기 일쑤다. 적절한 교수 학습 재료가 없고,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심지어 많은 학교들에는 마실





물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놀이터도 당연히 없으며, 실험실이나 도서관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교사의 부재이다. 교사들 중 특히 여 교사들은 마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도 갖출 수가 없는 형편이며, 학교로 오가는 도중에 산재한 위험을 감수하고 매일 통근할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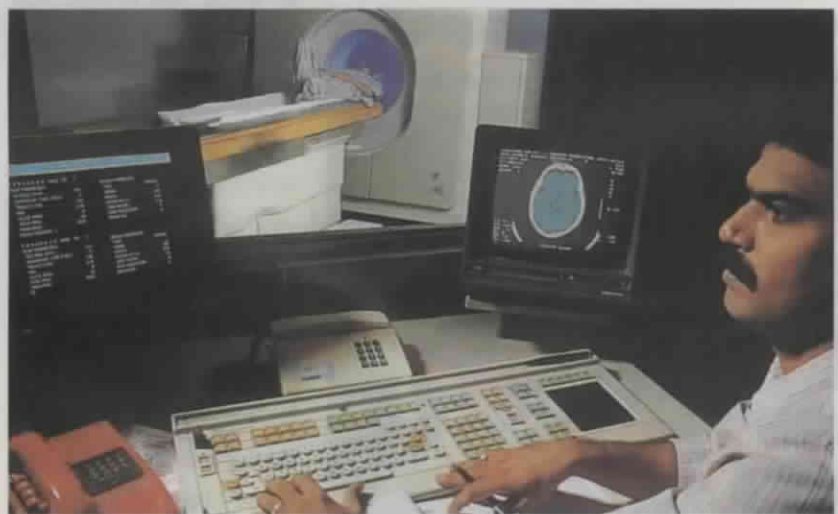
학생들의 높은 중도 탈락률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의 분위기는 최악이며 불쾌감을 주기까지 한다. 황폐함과 침체함이 만연되어 있다. 거의 35~40%의 아동들이 초등학교 기간을 끝내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다. 여기에 아예 학교에 등록조차 해본 적 없는 20~30%의 아동들을 더해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맹의 농촌 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어 줄 수가 없다. 50년 전의 독립은 인도의

교육체제에 불균형을 만들어 버렸고, 도시와 농촌 인구 사이의 분단을 초래하였다.

21세기엔 대중들간의 거대한 불균형 깨어져야

우리가 21세기로 진입한다는 것은 사

회적이거나 경제적인 것보다는 통계적인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 기후나 날씨 조건 등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역사와 지리도 변한 것은 없다. 모든 것들이 변한 것이 없다. 새로운 세기(그리고 세 천년)가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면, 그 변화는 태도의 변화



를 통하여서만 찾아올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인간적인 접근, 인간적인 탐욕의 절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깊은 관심 등이 이 새 세기에 필요한 태도의 변화 중 몇 가지이다. 인도의 상황에서는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인 취급과 수탈이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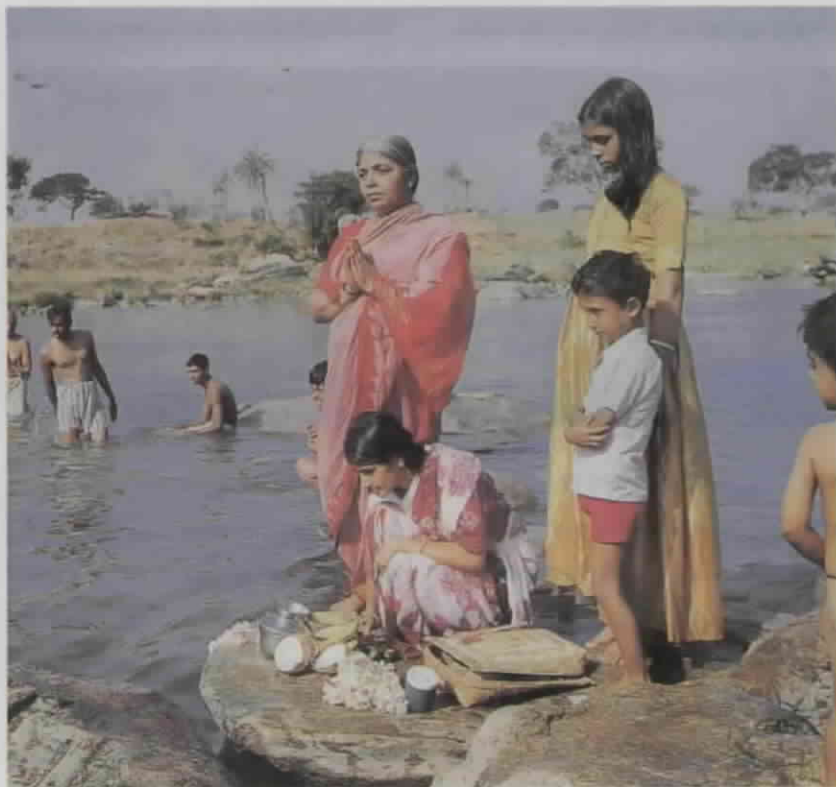
인도의 교육적 시나리오라는 맥락에서 필자는 지난 4~50년의 세월 동안 창조된 거대한 불균형이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의 농촌 대중은 경제적 상품과 서비스의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생산자, 제공자가 되어야만 한

도시의 엘리트층이 21세기가 제공하는 최상의 것들을 향유하리라고 믿는다. 전 세계의 교육체계에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인도의 교육도 휩쓸 것이다. 컴퓨터, 인터넷, 텔레비전, 인공위성 통신 등 여러 가지 최근의 발명에 기초를 둔 정보 기술이 기득권층과 혜택받고 있는 계층의 이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인도 인구의 이 작은 부분(10%)이 결국 이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맹이며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대중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농촌 여성과 지정 카스트와 지정 씨족과 빈민촌 거주자와 또 다른 극빈자들은

위하여 일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에 대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들은 다음과 같다. ① 6~14세 연령의 모든 아동을 위해 양질의 의무 초등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장벽이 도사리고 있으나, 결단력과 정치적 의지가 있으면 이 목적은 달성 가능하다. ② 학교 중도 탈퇴자와 학교 연령을 초과할 때까지 전혀 학교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읽기, 쓰기 능력 확보를 위하여 비정형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 및 원격 교육 등의 방법을 다각도로 이용한다. ③ 마을 기관과 공동체가 교육 계획 및 그 수행에 직접적으로 간여한다. 이는 교육 체제의 탈관료제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④ 초등교육의 직업교육화이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초등교육을 보편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세기의 1/4분기를 위한 지정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한 프로그램은 정부의 활동으로써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으로써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기술은 교육의 보급뿐만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위생, 농업, 농촌 기술, 또 심지어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서도 완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안전으로는, 인구 성장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도의 인구 성장률은 21세기의 첫 20년 동안에 1% 아래로 떨어져야만 할 것이다.



다. 이는 읽기, 쓰기 능력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창출될 수 있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또 교육에 있어서도 공평성을 갖춘 성장이 지도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인도는 자신의 선택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 한 새로운 세기도 새로운 천년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사상가, 기획자, 행정가, 교육학자, 정치가, 산업 및 상업계의 신흥 지도자들 모두가 힘을 모아 소외 계층을

Indian Education : Paradoxes and Imbalances

The Great Paradox

India today presents a seemingly great paradox in its educational scenario. On

the one hand, India can claim to possess the second largest educational infrastructure in the world, next only to the U.S.A. It has several pockets of excellence in education, especially at the tertiary level (collegiate and University levels). Over the last four decades India has supplied highly qualified and well-trained manpower all over the world, representing almost all the disciplines of human activity, from liberal arts to extremely sophisticat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workfare. Though to the outside world the number of such personnel may seem to be pretty large, they in fact represent a very small fraction of Indian popul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an acknowledged fact that India has the largest number of

work-force (age group 15-60) comprises of illiterate, unskilled labour who are perforce, doomed to accept extremely lowly paid jobs. Disguised unemployment is prevalent in rural economy, and spells of clear unemployment are common in dry-agricultural (unirrigated) areas in the country-side. Almost 40 percent of Indians population lives below the poverty-line mainly because of the extremely low earning capacity of the illiterate unskilledlabour.

The Imbalance

India attained independence (from the British colonial rule) five decades ago. These last five decades have witnessed certain explosions. There was the explo-

million. There has been tremendous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in the courses of study so much so that there may not be any course of study not available in India which is available anywhere else in the world. Unfortunately, higher education in India has always been the prerogative of the, higher-middle and the richer sections of population. This growth has only accentuated the imbalance that has always persisted in the educational status of urban elite and the rural masses in India. The population explosion, which has mainly taken place in the rural areas (India has more than half a million officially identified villages, many having several hamlets attached to them,) has narrowed down the resource-base of



illiterates : almost half of the worlds illiterates are housed in this country. What is more worrying is the fact that inspite of a steady rise in the literacy rate (from 38 % in 1961 to 52 % in 1991), the actual number of illiterates is simultaneously increasing. This clearly shows that the rate of growth of population rural population in particular has outstripped the rate of growth of literacy. This failure of matching literacy growth to population growth has had its direct effect on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This is not surprising in that almost half the

sion of expectations which the newly liberated people experienced, but was effectively articulated only by the urban elite, the industrial rich and the political heavy-weights. Result was, despite lofty ideas and well meaning intentions, the cake of development was taken away, largely if not wholly, by the vantage sections of the Indian Society.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tertiary sector witnessed tremendous development. The number of universities went up from 20 to 250, colleges from 650 to 9000, students from less than 0.2 million to more than 5.00

socio-economic development including educational growth. A large part of the disadvantaged section of Indian population lives in rural area. (The identified disadvantaged groups are the Scheduled Castes, Scheduled Tribes, landless agricultural labour, small & marginal farmers, rural women, monks, beggars, mendicants, the handicapped, slum-dwellers, rickshaw-pullers, etc.) This explosion has thus affected spread of literacy and education in the rural areas where almost 70 percent of Indias population lives. Because of the general resource crunch

and competing demands from other sectors of development, not more than 3.5 percent of the G.D.P. could ever be devoted to education though the minimum requirement is estimated to be 6 percent. Private investment in rural education is next to nil. Impoverishment of the rural educational infrastructure has been the net result. Thousands of rural institutions have either no schools or only single - room schools. Adequate teaching-learning materials are wanting, toilet facilities are absent, even drinking water is not available in many schools. Playgrounds are conspicuous by their absence, labs/libraries cannot be thought of in rural schools.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eacher-absentism. Teachers, especially lady-teachers, do not find the minimum necessary facilities to live in the villages, nor are they motivated, enough to commute daily by suffering travel hazards. The school atmosphere is most uninviting, almost repulsive with the result that drop out rates are high. Wastage and stagnation are rampant. Almost, 35 to 40 percent children drop out before clearing the primary-level of schooling. Add to this the 20 to 30 percent children who never enroll, and one gets an inkling into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The Future 21st Century

Our entry into the 21st Century has more of a statistical significance than social or economic. Neither history nor geography has changed much less climate or weather conditions. Things are almost the same. If the new century (and the millennium) has to bring a change in

our lives, it must come through a change in attitudes. More care and concern for the people around, more humane approach to problems, less of human greed and more concern for the future generations, are some of the attitudinal changes necessary in the new century. In the Indian context female harassment and exploitation need to be stopped. In the context of Indian educational scenario, I would emphasize that the great imbalances created in the last 4/5 decades must be removed. The Indian rural masses must become much better producers of economic goods & services. This can be brought about by literacy, education and training. Growth with equity must be the guiding principle whether in the field of economic development or education. India must set its priorities aright. There is of course no doubt in my mind that the urban elite will manage to get the best of the 21st century. The sweeping changes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in the educational system will be imbibed in the India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ies based on the computers, inter-netting, television, satellite based tele-communication system and several other recent inventions will be used to sub-serve the interests of the vantage sections and the favored groups. This small (less than 10 %) proportion of Indian population will stand to derive all the benefits. But what about the illiterate and socio-economically backward masses? In particular the rural women, the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the slum-dwellers, and other core-poor? Neither the new century nor the new millennium will mean anything for them

unless the quality of their lives is improved. The thinkers, planners, administrators, educationists, politicians and the neo-rich industrial/commercial sector must come together and work for their betterment. The least that can and should be done for the masses in the new century will be :

1) Compulsory quality primary education for all the children in the age group 6-14. There are various hurdles in the way, but given determination and political will, this is attainable.

2) Extensive use of informal, non-formal and distance education modes to attain cent percent literacy amongst the drop-outs and those who never enrolled and are past the school-entrance age.

3) Direct involvement of village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in educational planning and implementation. This may necessitate debureaucrat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4) Vocationalisation of elementary education. In short, universalisation of quality primary education must be the set-goal for the first quarter of the new country. The programme must be run as a mission rather than government activity. The information technology should be fully used not only for the spread of education but also for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health, hygiene, agriculture, rural-technologies, and even on legal and political matters for the humanity living in the villages. Last but certainly not the least, a frontal attack must be made on the population growth.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in India must come down to less than one percent in the first two decades of the 21st century. ☐



‘영·유아’ 에서부터 태국의 21C 교육은 시작된다

김영애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 yoalkim@mutnec.hufs.ac.kr)

사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옛 태국교육

타이족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태국의 역사는 800년이 채 안 된다. 타이족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현재의 위치에 정착하여 쑤코타이 왕국을 세운 때가 13세기 초였고, 일반적으로 이 왕국을 최초의 태국왕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국가이자 남방불교국가인 태국은 1932년 6월까지만 해도 정치적으로는 왕을 정점으로 한 전제군주국가였고 신분사회였으므로 태국인들은 사회적으로 '사농공상'의 맨 앞에 있는 '관료'라는 직책을 최우선의 직업으로 여기에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관료가 되는 시험제도는 없었으나, 고등교육이 관료의 필수요건이었기 때문이었다.

태국인들은, 특히 왕족이나 양반가문에서는 자녀들을 5~6세가 될 때까지 가정에서 엄격히 교육시켰다. 사회적으로 수직적인 상하구조 속에서 부모와 가족들은 모두가 스승이 되어 예의를 중심으로 윤리교육을 하였다. 남아선호사상이 거의 없는 태국인들은 자녀들에게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를 갖추며, 분수를 지키고,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처신하지 않을 것 등을, 다시 말해 양반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처신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아들이 5~6세가 되면 사미승으로 출가시켜 사원에서 불경(종교교육)을 비롯하여 윤리교육과 태국어 읽기, 쓰기, 문장 짓기 등과 함께 간단한 산수를 공부하도록 하였다. 승려가 스승이고 사원이 학교가 되어 5~6년간 공부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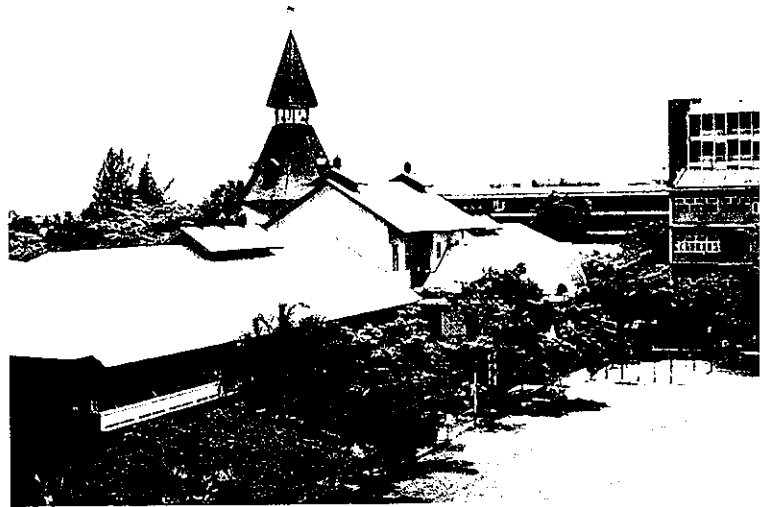
부모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출가하는 사원이 다르기는 했으나 평민의 자녀들도 같은 사원에서 공부하였다. 그러므로 사원은 남자 어린애들에게 있어서 지식 습득의 장소이자 사회화를 배우는 중요한 장소였다. 상류층의 부모들은 12~13세가 되어 환속한 아들을 능력에 따라 관료의 집으로 보내 관료로서 교육 받게 했다.

그후 20세를 전후하여 다시 출가하였다가 환속한 남성은 사회적으로 완전한 성인으로 대우받으며 각자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관직에 오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특수한 기술공들도 공장이나 장인에게 보내어져 숙식을 하며 교육받았다. 그러나, 딸에게는 문자 교육을 거의 시키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딸에게 집안 살림과 바느질, 요리와 꽃꽂이 등의 집 장식, 웃어른 섬기기, 부모와 남편 혹은 집안의 남자(오빠 등)에 대한 수발 등등 윤리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상류가문의 부모는 집에서 예의범절에 대한

기초교육을 시킨 후에 8~10세만 되면 왕궁이나 왕족의 내전으로 보내 다른 양가집 규수들과 함께 서로 친분을 쌓고 왕실의 법도를 익히도록 하였다. 상류가문의 전통은 이러한 여성에 의해 유지·계승되었다. 왕궁을 중심으로 한 왕족의 내전이 상류층 여성의 학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초 라마 4세의 신식교육 실시 이후

19세기초부터 몇몇 왕족을 중심으로 서양의 신학문과 신사상을 공부한 결과 태국은 서양의 제국주의 팽창 속에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신세대의 선두주자였던 몽곳 왕자가 즉



위한(라마 4세, 1851~1868년) 후부터 이러한 경향은 왕 주도 하에서 체계화되었고 정책화되었다. 라마 4세는 영국인 교사를 직접 외국에서 초빙하여 왕족들에게 서양식 신식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신식교육은 라마 5세(1868~1910년)에게 이어져 사회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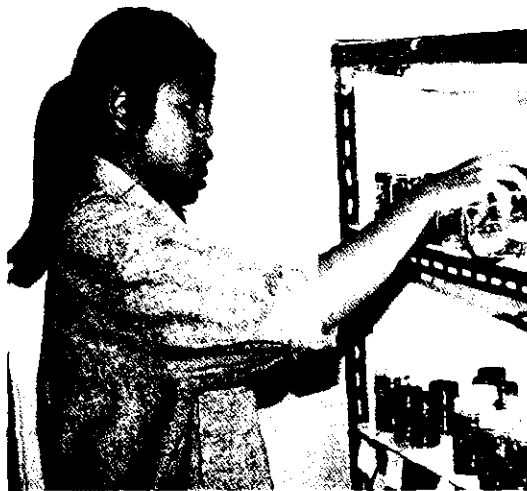
신식학교가 세워졌으며, 교육수혜자의 범위도 왕족에서 귀족 자제(1871년)로, 평민(1884년)으로 확대·보급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라마 5세에 이어 라마 6세(1910~1925년)로 계승되었다. 태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쫘라롱껀대학교가 설립되었으며(1917년), 7세의 어린이에게는 7년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1921년).

1932년에 정치체제가 입헌군주국으로 바뀐 이후 정부는 민주주의의 초석은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고 5~11세의 어린이에

게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문맹률을 낮추는 데(1937년 68.90%, 1947년 46.30%, 1980년 10.5%, 1998년 6.2%) 전력을 다하였다. 그후 태국의 군사정부와 문민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혜택을 전국민이 고루 받도록 하였다. 1936년에는 의무교육이 4년으로 축소되고 대신 성인교육과 고등교육, 특수교육이 정책화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전후복구와 근대화라는 명제를 내건 정부는 교육에 더욱 관심을 쏟으며 교육 과정과 교육 부서를 전국적 규모로 확대하였다. 1960년부터 시작된 태국의 경제사회개발계획은 태국의 산업 및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개발과 인력수급의 차원에서 3차에 걸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3차)을 수립하여 태국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대에 맞는 교과과정을 개발하였다. 이어 1977년부터 시작된 3차에 걸친 교육발전 5개년 계획(4~6차)은 당시 태국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농촌에 많은 학교를 만들어 농촌인구에게 좀더 넓은 교육기회를 갖게 한 외에 과학과 기술, 그리고 비정규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사립교육도 장려되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급속히 진행된 산업발전과 아울러 많은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우선적으로 대학부

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람캄행대학교(개방대, 1971년)와 쑤코타이탐파티랏대학교(방송통신대, 1980년)를 설립하였고, 지방교육의 육성과 지방거주 국민의 교육향상을 위하여 치앙마이대학교(북부), 칸깐대학교(동북부), 그리고 쑹길라대학교(남부)의 입시제도를 개선

하여 지방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정원의 40%)하게 함으로써 지방거주 국민에게 교육기회를 갖게 했다. 사립대학교설립법을 재조정하여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대학교를 인가했으며(29개의 사립대학교가 있음, 1995년), 국립대학교의 지방캠퍼스도 대학교로 승격시켜(국립대학교가 22개 있음, 1995년) 특성화시켰다. 국립대학교들은 독립채산제를 채



택하여 재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대학교수(교육공무원)들도 임용방법과 조건 및 처우 면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수용해야만 되는 등 태국의 대학교육계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7차 교육발전계획(1992~1996년)은 학습체계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전 교육과정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켰다. 농촌과 도시간의 교육적 격차를 좁히는 것은 물론 지진아와 지체장애자, 종교인 및 영재에 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상호 유기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목표 아래서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3~5세), 초등교육(6~11세), 중등교육(12~14, 15~17), 그리고 고등교육(18세 이상, 교육대학)의 4단계로 재조정하고 지역과 학생의 형편에 따라 단기직업교육과정도 설치하였다. 정규적인 학교교육 외에 비정규교육과 평생교육과정을 두어

국민의 욕구와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였다. 21세기를 겨냥하여 수립된 8차 교육발전계획(1997~2001년)은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현재는 1996년의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내외적으로 태국 최악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청소년층에 급속히 만연된 물질만능이라는 풍조는 상대적 빈곤의식과 가정의 붕괴에서 비롯된 고아문제, 청소년의 노동문제, 매춘문제, 마약문제를 대두시켰다.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 고조와 시민사회의 성장 속에서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한 갖가지 불균형 현상들—태국 사회내 각 단체의 역할과 조직의 약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부정부 부패문제, 심리적 혼란과 갈등, 교통과 불만족의 심화, 그리고 중급 및 고급인력의 부족에 당면해 있다. 국외적으로도 시간을 다투며 변화하는 세계의 과학과 기술 및 정보 통신의 발달에 지혜롭게 대응·경쟁하며 발전해야만 하는 난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하에서 태국은 태국이 거둬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개인의 발전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발전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이 교육발전을 기초로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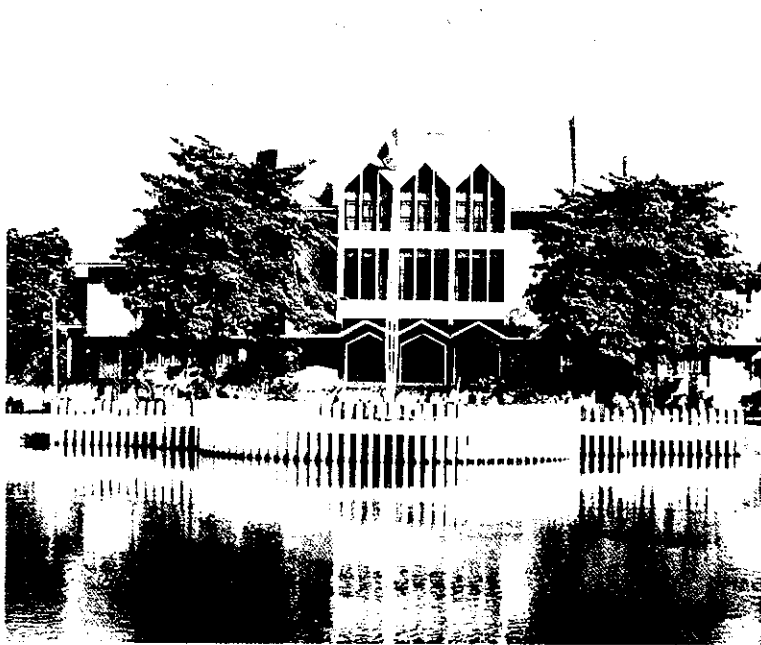
이러한 목적 하에 태국은 1997년 헌법에서 교육부분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12년간의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제정하여 태국인 모두에게 교육균등의 폭과 질을 넓히고 향상 시킴으로써 국민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성인교육과 다양한 비정규 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와 균형을 도모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태국인의 교육향상을 이룩할 수 있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 향상을 강조한 태국교육법이 태국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한 모든 조치가 2002년까지는 끝나도록 계획이 세워졌다. 수상처 직속기구인 태국교육위원회(ONEC)에 의해 초안된 태국교육법(1999년)은 교육자원의 개발, 교과과정과 교육체계에 대한 개혁은 물론 훌륭한 교사양성과 교육 및 적절한 처우개선, 교육경영과 교육행정의 합리화, 교육의 내용과 질의 개혁, 교육과정의 개혁 등등에 중점을 두어 태국의 교육을 수혜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하여 감독기관과 평가 기관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태국의 인구는 6,000만 명을 넘고 있으나 고등교육수혜자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의 수는 80만 명 정도(개방대학 약 30만 명, 방송대학 약 20만 명 포함, 졸업률 약 20%)밖에 안 되는 것을 볼 때 태국이 기타 자원에 비하여 인적자원, 특히 중급과 고급인력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 1991년도 통계에 의하면 13세 이상의 노동인구의 약 53%가 초등학교, 약 39%가 중등학교, 그리고 8% 정도가 고등교육학력이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가시적인 능력은 물론 잠재력까지 개발하여 세계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차적인 단계로 유아교육을 강조하고 의무교육을 12년으로 연장하였다.

21세기 태국교육, 0~5세 영·유아교육에 중점을 둔다

1998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학생수가 약 589만 명(이중 유아원 출신은 277만 명 가량)인데 비해, 중학생수가 약 242만 명, 고등학생수가 170만 명으로, 1997년보다 1.04% 감소하였으며, 비정규학교 학생의 수는 약 420만(승려 60만 명 포함)으로 전년도에 비해 20% 가량 감소되었다. 두뇌성장에 중요한 시기인 0~3세 유아에 대한 교육은 78%, 3~5세 교육은 48%가 감소되었다. 통계에 의하면(1998년) 교육대상연령인구(3~17세)의 23%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15~17세 청소년의 49.3% 정도만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태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인 동북부지역의 청소년들은 17.1%만이 중학교에 진학한다. 학업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원인조사에서 학생당사자는 경제적인 어려움(60%)과 학생 스스로의 포기(관심 없거나 학업의 필요성을 못 느낌, 13%), 또는 집안일 도움, 부모 이혼, 불합격, 마약 등등을 주장하나 부모들은 경제적인





이유(40%), 자녀가 스스로 포기(28%), 퇴학(8%), 마약(6%) 등을 들고 있다. 방콕을 위시한 도시거주자들은 교육열이 높아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주로 농민)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데다가 경제적으로도 빈곤하여 자녀를 상급학교에 진학시키지 않는다. 경제적인 이유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진학의 기회를 주고,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마약 등으로 부모와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더 많이 학교로 보내어, 교육받은 교사의 정상적인 보살핌 속에서 교육받게 하기 위해 농촌에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하여 고등과정까지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것이다.

특히 0~5세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의 두뇌는 거의 이 시기에 성장, 발달하기 때문이다. 핵가족 도시인들은 대부분이 맞벌이부부이다. 특히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들을 맡아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영아센터와 유아센터(0~3세와 3~5세)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교육개혁법에서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출산한 여성에게 9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 6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으며, 출근하는 어머니를 위해 특수교육을 받은 보모를 둔 영아센터 및 유아센터를 직장이나 직장 근처에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교육과 보살핌, 양면에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또 조기교육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도 더 나은 혜택과

보살핌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는 집으로 보모를 부를 수도 있으나 어린이들의 사회성 함양과 공동체 교육을 위하여 부모들은 공공기관을 선호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경우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주입식 암기 교육을 탈피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결정하여 공부하고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학습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생이 자신의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보고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새로운 학습주제를 선택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 경우에 교사는 학생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연령에 맞는 학습을 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율학습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학과 외에 언어(외국어 포함)교육과 컴퓨터 교육, 그리고 자연사랑과 연계하여 새로운 교사법과 학습방법이 개발, 연구되고 있다. 실업교육의 경우도 역시 소홀히 하지 않았다. 태국 교육위원회는 처음부터 외국(12개국)의 사례를 연구·검토한 후에 정부와 개인단체,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 새 시대에 적합한 기술교육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질적으로 우수한 실업교육을 통하여 고도의 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함으로써 21세기에 평화적인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인력을 갖추고자 한다.

21세기에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 모두 종래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방법을 버리고 인간평등과 자유민주적 사고 속에서 진실하고 창조적이며 정의로운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그리고 인간 모두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교육과 인간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새로운 학습방법과 교육에 대한 개혁적인 시도들은 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함께 새로운 세계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태국 교육개혁의 핵심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은 교육부나 대학부 이외의 여러 정부 부서가 상호 협력하며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정부의 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관심 있고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을 비롯하여 사설단체 및 국제기구의 도움이 요구된다. 특히 기술개발과 교과과정 개발 면에서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20]

점근 이론

IMF 해결한 신자유주의, 교육도 구할 것인가?

양동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dongahny@aks.ac.kr)

여러 개의 자유주의가 생겨난 이유는
 우리말로 신자유주의로 번역되고 있는 사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New Liberalism(이 글에서는 편의상 신자유주의 I로 호칭)이고, 다른 하나는 Neoliberalism(편의상 신자유주의 II로 호칭)이다. 전자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에 영국에서 강하게 주장되었고 1960년대까지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상이고, 후자는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상이다. 두 사상은 명칭도 비슷하고 모두 다 자유주의(Liberalism)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상반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두 개의 신자유주의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고 명칭까지 비슷하면서도 상반된 내용을 갖게 된 까닭을 쉽게 이해하려면 자유주의 사상의 변천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통치권의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유주의는 17세기 후반 영국의 정치사상가 존 로크에 의해 최초로 체계적으로 주장되었다. 1688년 영국에서 절대군주제를 철폐하고 입헌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한 명예혁명이 성공하자, 그 혁명을 주도한 정치세력의 추종자인 로크는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고 그 이념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 1689년에 『통치에 관한 두 개의 논문』이란 저서를 출판했다. 이 저서에서 로크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 즉 천부의 권리이며, 개인들은 이러한 자연권을 보다 잘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국가의 권한은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정치이론적 측면에서 제시된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1세기 후 영국의 도덕철학자이자 경제이론가인 애덤 스미



스에 의해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보완되었다.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영국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활동욕구와 가치관을 대변하는 지식인이었던 스미스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인 1776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 시장을 개방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고 그러한 시장에서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활동을 자유롭게 행하도록 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활동들은 개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인도되어 사회전체의 이익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로크가 주장한 인간의 자연권보장 및 통치권제한의 이론과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경쟁시장이론은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다. 18세기 말 이후 압헌군주제적 대의민주주의와 산업혁명과 자유경쟁시장이 결합하여 영국은 세계최고의 부국으로 발전했으며, 그에 따라 자유주의는 영국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고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말부터 영국경제가 장기불황에 처하고 그 여파로 기업 도산과 실업자 급증, 빈곤과 질병의 확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자유주의 사상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지식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자유주의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자유주의의 이론적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려는 지식인들이 출현했다. 그들은 개인은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므로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는 사회전체의 노력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것인데, 기왕의 자유주의가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 개인의 자연권보장 및 경제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배제를 과도하게 주장해왔다고 비판하면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되,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켜 그들의 실질적 자유

와 권리의 보장 수준을 높이고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인들은 이러한 사상을 과거의 자유주의와 다른 새로운 자유주의라는 뜻에서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라고 호칭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불경기가 1920년대부터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곧 신자유주의 I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여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자유주의국가들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I을 '신자유주의'로 부르지 않고 '자유주의'로 부르고, 대신 과거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로 바꾸어 호칭했다. 미국인들의 이러한 비논리적인 호칭으로 인해 훗날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가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 I에 입각한 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국가경제의 활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반성을 토대로 로크와 스미스의 자유주의 특히 스미스의 경제이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골자로 한 사상을 미국의 언론계와 학계는 1980년부터 또 하나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곧 신자유주의 II)로 호칭해왔다. 미국인들은 신자유주의 I을 '자유주의'로 호칭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유주의를 수정하는 사상을 새로운 자유주의 곧 '신자유주의'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 상론하게 될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II, 곧 Neoliberalism이다.

우리의 IMF 처방도,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입각한 것

신자유주의 II에 해당하는 이론들은 80

년부터 주장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20년대부터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들인 루드비히 폰 미세스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예크에 의해, 그리고 1930년대 이후 미국의 시카고학과 경제학자들(그 대표는 밀튼 프리드먼과 제임스 부캐넌이다)에 의해 줄기차게 주장되어 왔다. 그들의 주장은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인해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신자유주의 I의 노선에 대한 반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 노선에 따른 정책에 의해 영국과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면서 신자유주의 II는 더욱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취하고 있으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신자유주의 II를 경제회생의 기본처방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에 뒤이은 경제난을 겪으면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외환위기에 대한 IMF의 처방이 신자유주의 II에 입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 그 사상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경제분야에서 이처럼 영향력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신자유주의 II는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차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의 원리와 사회의 다른 분야의 원리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II는 주로 경제에 관해 많은 주장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의 다른 분야에 관한 주장도 한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는 자유경쟁적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때만 최대로 효율적이다. 자유경쟁적 시장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경제체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난에 직면한다. 경제불황이나 대량실업은 자유경쟁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자유경쟁

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부의 경제영역에 대한 간섭은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만 약화시키고 정부가 간섭하게 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실패한다. 따라서 자본주의경제에서 정부는 자유경쟁적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는 장애들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경제생활에 일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가 경제에 일단 개입하게 되면 개입의 규모가 필연적으로 계속 확대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장점을 살리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지 않으려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도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 수혜계층의 확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경쟁을 극대화해야 한다. 경쟁은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도록 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경쟁이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합리적인 사고와 행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의 진화가 초래된다. 온정주의는 경쟁의 효율성을 방해하고 따라서 사회진화를 방해한다.

다섯째, 사회정의란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 이성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인간은 무엇에 대해서든지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 것처럼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하는 인간들이 피차 타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정의란 극히 주관적이고 공허한 개념이므로 그것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나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

여섯째,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을 극소화하고 이제까지 정부가 책임을 맡아 왔던 많은 부분들을 민간에게 넘겨야 한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제공해왔던 서비스를 민간기업 혹은 민간인들에게 넘기면 그 서비스가 보다 적은 비용에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된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한국교육도 구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가진 신자유주의 II를 교육정책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피교육자의 자아개발 혹은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이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비판하면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율성, 나아가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이 주장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재의 선택, 교육방식, 평가방식, 피교육자 선정방법, 교육비 요구 등에 대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고 교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선택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다.

둘째, 우수한(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과 우수한 교육자에 의한 우수한 피교육자의 양성이 강조될 것이며, 그를 위해 교육현장에서의 경쟁확대가 주장될 것이다. 경쟁의 확대는 피교육자 사이에서만 요구되지 않고, 교육자들간 및 교육기관들간에도 경쟁의 도입과 확대가 주장될 것이다. 교육기관들은 보다 좋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하도록 요구될 것이고, 교육자들은 동일 교육기관 내에서도 자신의 교육능력을 놓고 경쟁할 것이다. 피교육자는 물론 교육자들도 경쟁에서 패배하면 도태를 강요받게 될 것이고, 교육자들의 '공무원적'

신분보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영)화 확대가 주장될 것이다. 교육서비스를 국공립 교육기관 중심으로 제공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를 공무원이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주장될 것이며,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교육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민간화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교육재정부담 축소육구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고 자율성을 가능한 한 확대하려는 사립 교육기관들의 육구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교육정책의 기본원리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I에 입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한국의 교육정책에 신자유주의 II에 입각한 교육정책 아이디어가 도입되면 그 도입의 규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II에 입각한 교육정책 아이디어의 도입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교육행정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교육의 피해가 감소될 것이고,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의 타성에 젖은 교육활동이 개선될 것이며, 교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피교육자의 잠재력 개발 극대화에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II에 입각한 아이디어가 교육정책에 과도하게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선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자의 권위가 약화될 것이고,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피교육자들의 윤리관 및 공동체정신이 약화될 것이다. 끝으로 피교육자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빈곤가정 자녀의 교육수혜가 빈약해질 것이다. [圖]

우리의 교육개혁에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그 전형을 신자유주의·공동체주의·포스트모더니즘이 대표한다. 이 중 사회 변화를 실증적으로 설명할 뿐 아니라 규범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은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개혁에는 이 두 이론 중 신자유주의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을 경험적·규범적 측면에서 비판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공동체주의를 소개하고 공동체주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알고보면 허실 많다

여기서 논의하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사상적으로는 보수주의이며, 현실적으로는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사회에 확산하려는 이론이다. 이에 기반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 부문에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정책이 지향하는 교육을 요약하면 경쟁력과 효율성이 높은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노동력의 창의성·자율성·유연성을 신장하는 교육이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교육이 개인에게 자아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진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1980년대 이후부터 영미권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우리 교육개혁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이 정책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 교육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규범적 기반은 인간과 교육에 대한 해석에서 결정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인간을 '수요자'와 동일시하여 '소비 수요', 즉 '교육을 소비할 경제적·사회적 능력'이 없는 인간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교육도 효율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 논리와 경제 논리를 동일시하는 '범주 오류'를 범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참여를 경제참여로 축소하며, 각 영역이 각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을 무시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이론의 경험적 문제를 이미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를 참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개인의 개성, 창의성과 자율성을 장려하지만 실제로는 무한경쟁의 시장체제에 적합한 한도까지만 허용하여 오히려 시장체제에 순응적 인간을 양산한다. 둘째, 자기개발과 자아존중을 강조하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기회가 제한되어 자아존중감이 손상되고 있다. 셋째, 자아실현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들은 경쟁 체제 속에서 고립되고 단자화

이기범(숙명여자대학교 교수, leegibm@sookmyung.ac.kr)

21세기 인간관계는 개인 아닌 연대, 공동체주의

점진적 이론

되어 자아의 분절화와 상실 현상이 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스스로의 주장과는 반대로 개인적 삶의 의미를 축소하고 자아를 왜곡·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부각되고 있다.

21C 인간관계는 개인 아닌 연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공동체주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특정한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특정한 삶의 형태를 보이는 특정한 집단이나 장소를 가리키는 경험적 개념이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구성하는 정서·가치·의미를 나타내는 규범적 개념이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지역공동체라는 표현은 특정 지역 사람들의 특정한 삶의 형태를 기술하지만, 또 그 특정한 삶을 구성하는 규범을 뜻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규범적 개념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혼돈되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복원할 수 있는 이상(ideal)으로 사용되었다. 서구사회와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도 21세기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바람직한 공동체 재형성이 절실한 입장이다. 과거 이 땅에 자리잡고 있던 공동체의 전통은 근대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정책과 군사독재에 의하여 적잖이 왜곡·손상되었다. 미국 문화와 함께 유입된 개인주의·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눈을 뜨게 해주었지만, 연대의식을 구성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더욱더 단절시켰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조직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과제를 함께 공동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서·능력·인간관계가 대단히 부족하다.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마련하고 추구할 수 있는 공



동체의 형성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요구이다.

공동체의 재형성은 어떤 정초적인 가치를 복원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 전체의 구성원리로 삼고자 하는 시도여서 곧란하다. 그러한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필연코 억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각종 소외와 불평등을 생산하는 현대의 왜곡된 정치·경제·기술·교육·도덕 등에 대항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주체'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주창하고 좀더 바람직한 삶의 형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재형성된다. 공동체주의 교육은 학생과 교사들이 주체로서 함께 바람직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구성하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대한 탐구심·참여도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 복원에 기여한다.

개방성이 공동체주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이 글에서 논의하는 서구 전통의 공동

체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되어 헤겔에 의하여 계승되고, 앨러스테어 맥인타이어, 찰스 테일러, 마이클 샌델, 마이클 월저와 같은 학자들이 발전시키고 있다.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바람직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며 연대의식을 공유한다.

둘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가치가 그 공동체의 문화적 전통을 역사적으로 구성한다.

셋째, 전통 그리고 그것에 각인된 공유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입장·세계관·도덕관·정체성·자아 등이 형성된다.

넷째,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더 합리적인 것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다른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구성원들간에, 그리고 다른

공동체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다섯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삶의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민주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정체성은 사회화된 개체성이다.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선하고 가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하고 어떤 것을 반대·찬성할지를 결정하는 틀을 제공하는 동일시와 현신이다. 사회와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의미와 가치체계가 이러한 동일시와 현신으로서의 정체성의 토대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개인은 그의 정체성을 특정한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유지하므로, 항상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의미와 가치체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는 각 공동체의 삶의 양식과 문화를 규정하는 의미와 가치가 그 구성원의 정체성의 형성기반이라고 주장한다.

전체주의 사회를 예외로 했을 때, 모든 사회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고 다양한 가치와 의미의 틀이 존재한다. 다양한 가치와 의미는 도덕적 행위의 근본인 '도덕적 출발점'이 되므로 존중해야 한다. 또한 각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의미 없이는 각자의 입장과 관점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공동체를 지지하는 입장은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의 틀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토대를 실제로 상실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근거에서 공동체주의는 다양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합리성과 도덕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고, 더 넓은 사회에서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의미와 가치의 틀을 만드는 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냐하면 공동체의 성원들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공동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공공의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고립된 공동체만 있을 뿐 공동체의 존립과 그 구성원들의 존재를 보장하여줄 사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공동관심사를 토의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그것보다는 확대된 해석과 평가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러한 개방성과 확대의 가능성이다.

공동체주의는 각 공동체가 상대주의나 독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른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보다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사회의 공동선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가능성은 공동체의 개방성에 달려 있다. 공동체주의에는 그 개방성이 현실이고 이상이다. 각 공동체가 특정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의문시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평가하고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기의 가치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가치에 대하여 성찰하고 제3의 가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찰의 순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공동체가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을 때,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의미가 나타났을 때 등의 경우에 일어난다. 개방성이 있는 만큼 각 공동체는 특정한 형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제시되는 합리성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해석과 판단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공동체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틀을 성찰하고 계속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각 공동체는 인식론적·규범적 도전에 대해 부적절성을 치유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계획된 재구성 과 재평가, 그리고 새로운 구성과 평가를 통하여 응전한다. 각 공동체가 나름대로 발달시켜온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공동체가 함께 적용하는 진보성과 일관성이라는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다양한 공동체간에 의사소통이 지속될 수 있다.

공동체는 개방성을 유지하여 사회 변화와 세대 변화에 따른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합리성과 규범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 개방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질적·경쟁적 틀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동체와 공공의 장애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정치적·윤리적 사안들을 토의하거나, 또는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는 개방성, 부정성, 자기성찰과 자기수정, 의사소통, 합리성, 그리고 공공선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재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공동체주의에는 4가지의 확실한 유익이 있다

공동체주의를 준거로 공동체주의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정책, 목적, 문화, 그리고 교육과정 부분에서 제시하여 보자.

첫째, 교육정책은 교육을 선(good)과 복지로 인정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교육은 자아형성을 위하여 필수조건이고, 공동체 안에서 참여자로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공동체의 모든 성원

들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도 중요한 선이다.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구성원들의 자격에 특혜가 없으므로 모든 성원에게 평등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원들에게 각자의 필요만큼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의 분배 과정에 다른 사회영역의 분배방식, 즉 부에 의한 분배나 정치 권력에 의한 분배방식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육은 부나 정치와 같은 필요성과는 다른 독립된 필요성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실제 분배는 가용 자원에 따라 제한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필요성 그 자체 이외의 다른 모든 범주는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개인의 능력·성별·종교·사회배경·지역배경 등은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개념과 분배 방식은 공동체주의 교육정책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근본적 차이를 잘 드러낸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육의 목적이 그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노력에 의하여 '공동선'으로 설정되고, 이에 대한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높은 불만이나 요즈음 불거지는 '교실 붕괴' 혹은 '학교 해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입시위주 교육 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상적 원인에 불과하다. 그 근본적 원인은 현 교육의 목적이란 것이 더 이상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 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학습의 기회가(학교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 교유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목적이 공동선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사회 변화의 동인들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학교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충족해야 하는 학습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교육의 목적을 그 구성원들이 함께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 문화는 참여와 의사소통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 교육은 인간이 의사소통 등의 상호작용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발견하는 자기 해석적 존재라고 믿는다. 또한 세계를 발견하고 해석하고 구성하는 존재로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상호작용할 뿐 아니라, 사회와 자연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그 변화를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덕의식·책임감·사명감을 갖도록 생태주의를 지향한다. 그래서 교육은 학생과 교사가 창의성·자율성·책임감이 있는 주체로서 자신과 세계를,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지속적으로(재)해석하고(재)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활발한 참여를 장려한다.

공동체적 교육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학교교회·학급교회·종례 같은 일방적 집회는 지양하고, 모든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제로 수렴될 수 있는 각종 소집단 모임으로 의사소통의 그물코를 구성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공동체주의 교육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사회에 관한 선택과 의사결정에도 참여하도록 장려하여, 현재 그리고 미래에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노력한다.

넷째, 교육과정은 돌봄의 윤리를 장려해야 하고, 협업적 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도덕의 측면에서 보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를 긍정

하며 돌보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돌봄의 윤리'를 강조한다. 성별·능력·생각·사회배경의 차이를 넘어서 지역·사회·지구촌이 공동으로 맞게 되는 위기를 협업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의 윤리는 더욱 필요하다. 협업적 관계는 학습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가진다. 공동체주의는 학습이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에, 협업적 관계에 의하여 강화된다고 주장한다. 요즘은 부각되고 있는 프로젝트 접근방법도 협업학습의 유용성에 기초하고 있다. 협업학습으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해, 개방성, 부정성, 자기성찰이 촉진되며, 이를 통하여 합리성이 증진된다.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은 특정 전통이나 집단의 의미와 가치를 단일한 구성원리로 사용하려는 충동이다. 이러한 충동은 공동체주의의 주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억압적인 경향이다. 공동체주의가 공동체 내, 그리고 공동체간의 공통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단일한 의미와 가치만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모두의 동의를 요구하는 획일화를 지향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선 추구를 위한 구성원들의 연대가 획일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공동체주의 교육의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원리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리이며, 실제 교육공동체는 그 교육정책과 활동이 구성원들의 변화하는 욕구와 필요성을 사회 변화에 적합하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성장한다. [圖]

같이 가르칩시다

팀 티칭(Team Teaching) 학습 방식

백영욱(문필가, luck56@unitel.co.kr)

이제 대망의 2000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새로운 시간을 자신 있게 맞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비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만큼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의욕적인 민족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자신이 지닌 이 내적인 힘을 적절하게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확신은 지난 22년간의 교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적 자산이다.

나는 조국 근대화의 기치가 거세게 사회를 휩쓸었던 지난 78년에 중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십여 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의 조국이 가난을 벗어나 외형적인 삶의 풍요를 이루는 것을 지켜보았다. 앞서 말한 내적인 신념이 빚어낸 쾌거였다. 그러나 늘 아쉽게 느낀 것은 우리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내적 가치가 빈곤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총체적 곤란은 여기서 비롯된 필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적 가치의 모색과 방안의 확립을 기다려 새로운 교육, 새로운 생활을 지향해 나가기에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이 지닌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람직한 변화와 새로운 대안을 적용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단에 있을 때부터 나는 늘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해왔다. 그만큼 학생들을 열심히 잘 가르쳐 보려는 욕구를 갖고 있었는데 고백이다. 물론 이와 같은 나의 고민과 갈등은 모든 선생님들의 고민과 갈등이기도 했다. 비록 지금은 교단을 떠나 있지만 조

국의 바람직한 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염려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향해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바람직한 기풍이 형성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구상해 왔던 수업 방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는 우리 나라의 선생님만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깨어 있는 지적 집단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한 탓에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런 성향을 조금만 바꾼다면 지적 자원을 집단의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내가 알기로는 현행 중등 과정의 모든 교과는 학년 단위로 최소한 두 명 이상의 교사가 학생들을 반별로 분담하여 가르치는 교사 담당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수업의 주제와 객체를 자연스럽게 뒤바꿔 가며 흥미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수업의 모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최소 두 사람 혹은 네 사람의 교사가 일정한 역할을 맡아 수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한다. 교과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단원 혹은 소단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첫 단계에서는 강의식 수업,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의식 수업을 통해 습득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한 세미나식 수업,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토론식 혹은 발표 수업,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업에 대한 종합 정리 및 형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장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을 맡아 책임지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단 모든 학습은 학습 조 형식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이때 강의식 수업에 자신이 있는 교사는 단원 전체의 윤곽을 학생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세미나 학습의 교사는 앞의 학습 과정에서 익힌 지식을 학생들이 상호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조별로 세미나 학습을 행하는 것을 돕는다. 이때 토론 수업 진행 교사는 교과 수업을 통해 형성된 쟁점 사항을 토대로 학생 상호간에 토론 학습 혹은 발표 학습이 되도록 종합적 식견을 갖고 수업을 이끌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수업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업의 의미와 형성 과정을 평가하는 작업을 교과 평가에 관심이 깊은 교사가 담당한다면, 성공적인 교과 수업의 전개가 될 것으로 믿는다.

내 경험으로는 발표 학습을 많이 시킬수록 학생들의 사고력도 커지고 창의력 또한 커졌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과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선생님 혼자서 이 모든 방식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진행하기에는 벅하다. 그런 점에서 교사 상호간의 합의와 창조 정신만 있으면 팀 티칭(Team Teaching) 방식만큼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업 방식은 없으리라 본다.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과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길도 된다. 왜냐하면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용과 형식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교사와 학생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학습 방법은 교사와 학생 간의 믿음과 존경, 상호 협력의 민주 시민 정신을 키워 나가는 산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모든 교과를 이런 방식으로

경험한 학생들은 종합적 인문 지식과 적용력을 키우게 됨으로써,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선도적 지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거창한 교육 이론의 실험보다는 소박하지만 인간적 유대에 바탕을 둔 실천 가능한 교육 방식이 실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논리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더 큰 것을 잃을 지도 모른다. 우리 자신이 처한 모든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은 이미 그 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차츰 보완되고 고쳐질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 요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약간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곧 가르침의 영역이 아닐까 한다.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학교 단위별로 교과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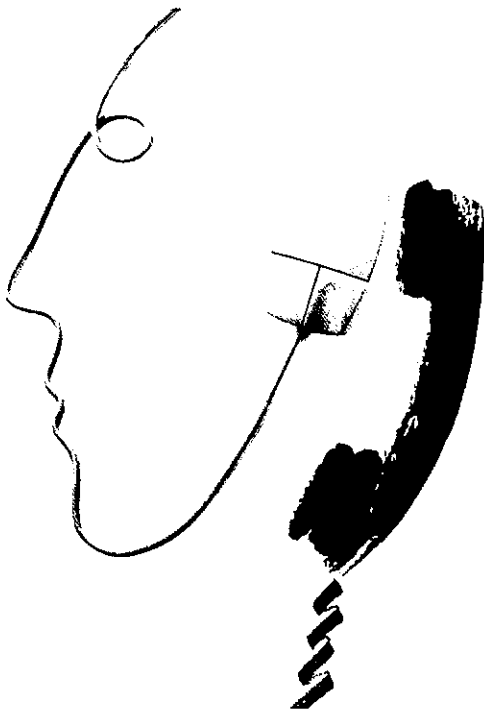
우리는 왜 사는가? 행복과 보람을 위해서가 아닌가! 그 삶의 행복과 보람은 우리의 수고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웠던 그 옛날, 조국의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기백과 애국심을 되살려 있는 힘껏 교단을 일으켜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젊은 실험 정신을 지니고 작은 것부터 다시 시도하고 성공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국가를 키우고 일으키는 힘은 우리 선생님들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들이 교육의 주체적 힘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Research Findings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결과 5가지

김정자(한국교육개발원 도서실운영팀장, kza@ns.kedi.re.kr)



10세 이하 아동의 역사학습

○ 연구결과 :

- 10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은 놀이와 드라마 형태로 구성했을 때 학습효과가 높다. 10세 이하 아동은 시간을 연대순으로 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드라마로, 혹은 놀이로 엮어서 제시하면 쉽게 아이들에게 역사를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이다.

○ 연구과제명 : The Transition from Play to Learning: A study of historical learning

○ 연구자 : Qunilla Lindqvist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s, University of Karistad, 스웨덴)

○ 출처 : The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Oct. 22, 1999.

교사와 학습과제

○ 연구결과 :

- 교사가 부여하는 학습과제가 보다 도전적인 성격과 내용을 가질 때, 예를 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게 함으로써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제일 때, 학생들은 우수한 과제 수행 결과를 내는 경향이 있다.

○ 연구과제명 : The Quality of Intellectual Work in Chicago Schools: A Baseline Report

○ 연구자 : Fred M. Newman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nthony S. Bryk, Gudelia Lopez

○ 연구 데이터와 연구방법 :

- 12개 초등학교 교사들이 부여한 학습과제와 이를 수행한 학생들의 과제결과(총 1,400건)를 수집하여 분석함.

- 12개 학교의 3, 6, 8 각 학년에서 2명의 교사에게 스스로 판단하여 도전적인 과제라고 여겨지는 실제적인 예를 요청하여 수집함(수학과

국어 교과).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을 연수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교사들이 부여한 학습과제와 학생들의 과제 수행물 에 대해 지적 활력의 수준에 따라 평가하게 함.

o 출처 : www.consortium-chicago.org

국가통제와 사학

사학이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 사학은 어떠 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미국은 유럽 국가 를 중심으로 한 22개국의 사학 관련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o 연구결과 :

-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 국가의 사학은 국가 통제를 심하게 받고 있다. 즉 교육과정, 입시정책, 등록금 책 정, 교사임용과 봉급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 다방면에서 심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비해서, 국가표준 교육과정 운영, 국 가고시제도 실시 등 중앙집중적이고 정부통제가 심한 교육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이 모호하다.

- 미국에서는 사학정책이 주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거 의 사립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학 지원 형태의 예를 들어보면, 학교 버스에 대한 지원, 교과서지 원, 예방접종, 건강진단,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의 지원 등이 있다.

o 연구과제명 :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about private school aid

o 연구자 : Nancy Kober

o 연구기관 : Center on Education Policy(미국)

o 출처 : www.ctredpol.org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과

'Statistics Canada' 에 수록된 세 가지 연구의 결과를 소개한 다. 각각의 연구테마는 ①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과, ② 아동 의 조기교육의 효과, ③ 부모의 관심과 학교생활이다.

o 연구결과 :

- 세 가지 유형의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들의 학업성과를 비교 하였다.

① 부모의 양육방식이 보다 엄격하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융 통성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는 환경에서 양육된 아동, ② 부모

가 권위주의적인 아동, ③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양육된 아동 등 세 가지 유형의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동들을 비교했을 때, 첫 번째 환경의 아동이 학업성과에서 학급의 상 위권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 3~5세의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이 아동의 학업성과를 올린 다. 즉 3~5세에 조기교육을 받은 아동은 집에서 부모와 지낸 아동과 비교했을 때, 수학교과와 학업성과가 학급에서 상위 권을 차지하는 확률이 높았다.

- 남자 아동은 여자 아동에 비해서 부모 의존적이다. 부모의 지원 여부가 여아보다 남아의 경우에 더 영향력을 행사한다. 남이는 부모의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학교생활에 서 성공 여부가 크게 차이를 나타낸다.

o 연구 데이터 :

- 2~11세의 캐나다 아동 22,000명의 데이터를 이용함.

- 캐나다의 19,000개 가정을 표본 데이터로 이용함.

o 출처 : The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Oct. 29, 1999.

중등교사와 팀워크(teamwork)

o 연구결과 :

- 효과적인 교사 협력활동이 학교 개선에 중심 역할을 한 다.

- 학교 근무시간 중에 공식적인 협력활동 시간이 정규시간표 로 짜여져 있는 경우, 협력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 교사들의 협력활동의 유형은 학생과의 교수·학습에 관한 대화이고, 수업안을 협력하여 작성하는 일과 관찰, 연구와 평 가 활동은 매우 드물었다.

- 교사들의 협력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시간과 업무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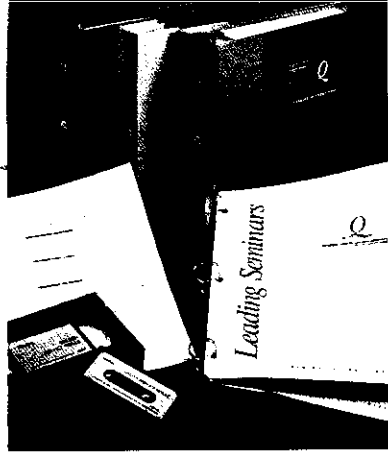
- 학교 현장에서 관료적인 지위 체계에 대한 관심이 협력적인 분위기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o 연구과제명 : Teachers Meeting the Challenge of Collab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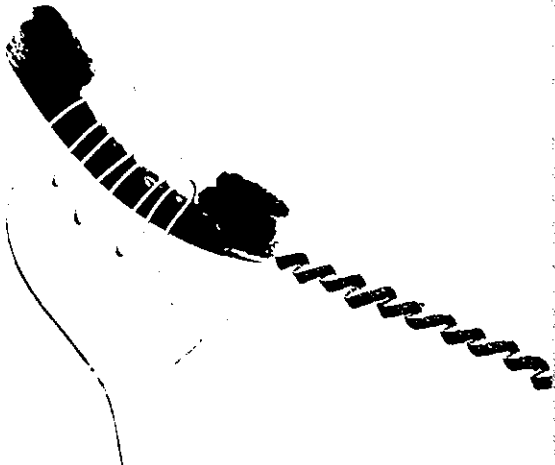
o 연구자 : Jane McGregor(Lucy Cavencish College, 영국)

o 연구 데이터 : 4개 중등학교의 교사 105명으로부터 협동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o 출처 : The Times Educational Supplement, Nov. 5, 1999. [20]



[99 KEDI 연구보고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이 연구는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한국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체제의 변화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회의 구조와 특징 분석,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 및 요구되는 인간상 규명,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교육 준비도 및 주요국들의 전략 분석, 전문가들의 미래 교육 전망 등을 토대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출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확충과 창출된 지식을 상업화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의 양성이 비교 우위의 유일한 원천으로 공식화되고 있다. 이 점에서 교육체제는 개인 수준이든, 국가 수준이든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정당화되어진다. 따라서 OECD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전략의 모색에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

교육의 준비도를 보면 국제 수준과는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의 산출이 투입에 비하여 저조하여 교육체제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지식의 생성·활용·확산을 저해하는 당면 교육 과제를 보면, 초등·중등 교육의 경우는 지식생성 경험과는 거리가 있는 지식수용 위주의 교육, 평균인 양성에 치중한 경쟁 부재의 교육, 공교육의 비효율과 과도한 사교육 의존, 집권적 행정으로 수동적인 학교, 영재교육의 비효율화, 지식확산을 위한 교사의 동기 및 전문성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의 경우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대학의 지식창출력 저조, 지식경영과 거리가 먼 대학운영, 학사관리의 부실, 지식확산을 위한 네트워크의 빈약, 학문인프라로서의 기초학문 취약 등의 문제가 분석되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 기회가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으며, 그것도 고학력·남성·전문직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단과 관련 분야 전문가 50인의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한 전망을 토대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한국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추출하였다. 지식기반사회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1)지식창출력 증대를 위한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 가능한 교육체제의 구축과 2)보통 사람의 생존을 위한 교육 접근 기회의 확대, 그리고 3)삶의 실제와 연계되는 교육 훈련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정책과제를 과제 구현의 장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은 초등·중등 교육의 과제와 대학교육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평생교육 과제, 직업교육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중등 교육의 과제로는 1)창의적 인재의 양성이 가능한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체제의 구축, 2)지식생성의 경험을 가능케 하는 교육 및 평가 방법의 도입, 3)삶을 위한 교육내용 설정 및 교육과정 운영, 4)지식확산의 핵심적인 고리로서의 교사 전문성 제고 및 동기 강화, 5)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 6)분권적 교육행정체제의 구축 등의 과제별로 구체적인 하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대학 교육의 과제로는 1)대학의 연구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2)산학협동 체제의 강화, 3)기초학문의 전략적 육성, 4)사회적 요구 및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대학교육 운영, 5)교수인사체제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6)대학 교육의 국제화 등의 과제별로 하위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평생교육의 과제로는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제공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열린 학습망 구축, 사이버 평생교육 체제의 강화, 학점은행제의 활성화, 교육계좌제의 도입·운영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위한 과제로는 직업기술교육의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방안과 직업능력을 공신력 있는 국가 평가 및 자격제도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직업교육의 효율화 도모를 위한 사회적 파트너십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책임자 : 유현숙 · 연구자 : 김동석, 이만희, 김이경〉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용 읽기 자료 개발 연구

새 천년을 시작한 지금, 과학과 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빠른 변화와 발전은 우리의 직업 세계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각광받아 온 직업이 있는 반면에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유망직종 역시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직업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장차 직업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미리 개인의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진로 지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로 지도자, 또는 안내자로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진로 지도의 중요성을 주시킴과 동시에 자녀의 진로 지도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흥미 있고 유익한 읽기 자료를 개발한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읽기 자료의 개발 방향에 더해 부모용 진로 지도 읽기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각 영역과 영역별 주제로 구분 · 구성하였다.

- 1) 진로 지도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 진로 지도란 무엇인가?
 - 진로 지도는 왜 필요한가?
 - 진로 지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은가?
 - 진로 지도를 위한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은?
- 2) 자녀지도를 위한 올바른 교육관 · 직업관이란?
 - 올바른 자녀 교육관이란?
 - 자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 자녀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 3) 자녀 이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 진로 지도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 자녀의 특성,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 4) 미래의 직업 세계 어떻게 변화나?
 - 미래의 세계, 어떻게 변할까?
 - 21세기 직업 환경 어떻게 변할까?
 - 미래 사회는 직업인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 미리 알아보는 직업별 전망은?
- 5) 진로 선택의 여러 가지 사례
 - 내 인생 내가 만든다 : '조건외 백' 을 넘는다.
 -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다양한 개인적 모범 사례 여덟 가지를 소개하였다. 이들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길을 꾸준히 일구어 간 삶의 승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 온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 부모나 자녀들이 흥미 있게 읽는 가운데 일의 의미와 진로 선택의 과정, 그리고 그 노력의 과정들을 직접 느끼도록 하였다.

- 신체의 장벽을 넘는다 : 맹인 교수 이익섭
 - 남안 가는 길 내가 간다 : 옥수수 박사 김순권, 닭고기 사장 김홍국
 - 큰 꿈에 도전한다 : 노벨 의학상에 도전하는 송명근
 - 타고난 재능, 한 우물을 판다 : 바둑 기사 조훈현, 명창 안숙선, 만화가 김수정
 - 성역할의 고정 관념을 깬다 : 남성 헤어디자이너 박준
- 6) 진로 정보, 어떻게 알아보다?
 - 진로 정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어떤 진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나?
 - 진로 정보는 어떻게 탐색 · 수집할 수 있을까?

7) 21세기 유망 직업을 알아보다.
부모가 자녀 진로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1세기 유망 직업 분야에서 25개의 직업을 선정하여 각 직업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직접 소개하게 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다양성과 생생함을 맛보도록 구성하였다.

직업 특성 자료는 다음의 각 직업별로 여섯 가지 항목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 직업 분야
 - 기술 과학 분야 : 동물 사육사, 뇌공학 연구원, 애니메이션 터 외 7개 직업
 - 예술 분야 : 방송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외 5개 직업
 - 사회 분야 : 이벤트 전문가, 카피라이터 외 2개 직업
 - 사업 분야 : 외환 딜러, 큐레이터 외 2개 직업
- * 각 직업별 구성 항목
 - ①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
 - ② 이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능력이나 적성, 또는 신체적 조건이 요구 되는가?
 - ③ 이 직업에 종사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력과 자격 요건 (자격증 등)이 요구되는가?
 - ④ 이 직업에서 일을 잘해 나가려면 능력 이외에 어떤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 직한가?
 - ⑤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자부심,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 ⑥ 장래의 전망은?

〈연구책임자 : 박효정 · 연구자 : 현주, 정광희〉

뒤쳐진 어른들,

학교 빈교실에서 세상 따라 잡는다
고양 백신중학교

김성실(교육마당 21, 기자. delma6@hanmail.net)

복거일 씨의 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경성(京城), 쇼우와 62년》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다는 가정아래, 한 기업체의 과장이자 시인인 '반도인' 주인공이 자신의 뿌리를 캐다 가해진 핏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 망명을 떠난다는 내용을 그기둥 줄거리로 삼고 있다. 게이조우 데이고꾸(京城帝國)대학을 나온 주인공은 졸업한 지 14년이 지난 어느 날, 조선의 역사책을 찾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 들른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와 언어에 관한 서적들은 모두 내지, 즉 일본 본토로 옮겨진 지 오래. 낙담한 주인공은 발길을 돌리는데, 그때 사서가 그를 불러 세워 조불사전(朝佛辭典)을 건네준다. 표지마저 떨어진 이 낡은 사전을 통해 그는 잊혀진 조선어를 복원해낸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엉뚱하게 뻘어나간 생각 한 자락. '졸업한 지 14년이나 지났는데도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다니...!' 녹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서 대학 캠퍼스 주변에 사는 걸 늘 행운

으로 여겨왔던 기자

가 소설을 읽기

며칠 전, S대

학 교정을 산

책 하려 다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탓일까?

몇 해 전의 일이지만 그때 이 대학에 대해 품게 된 나쁜 인상은 소설 속의 대학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지금까지 남아 있다.

다행히 근년 들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S대학과 같은 곳은 많이 줄었다. 특히 작년 8월 31일 제정된 평생교육법은 각급 학교가 교육환경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설을 운영하고, 학교를 신축할 때에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community centre)'으로 세우려는 노력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학 위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초·중등학교의 담장은 아직도 높기만 하다.



수강료 싸지만 제대로 가르쳐 준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백신중학교(교장 김문중)는 이런 점에서 매우 선구적인 학교로 손꼽힐 만하다. 이 학교는 교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지난 97년부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성인교실'을 운영, 지난해 말까지 모두 680여 명에 달하는 수료자를 배출했다. 97년 1기 성인교실이 개설됐을 때만 해도 강좌 수는 컴퓨터·한문·종이공예 등 3개에 불과했고 수강생도 34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해 개설된 6기 강좌는 컴퓨터, 쿼트, 메이킹업, 생활영어, 서예, 한지공예, 제과제빵, 주택 인테리어 등 모두 8개였고 등록한 수강생도 240여 명에 달할 만큼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컴퓨터반의 경우 지원자가 몰려 애초에 1개 반만 모집하려던 것을 3개 반으로 늘렸을 만큼 인기가 높다.

성인교실 강좌가 이처럼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우선 저렴한 수강료 때문이다. 재료비가 많이 드는 제과제빵반(수강료 10만원)을 제외하곤 모든 강좌의 수강료가 3개월 24시간 과정에 3만원이다.

쿼트반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 임은진(40)씨는 "공방에서 쿼트를 배우려면 한 달에 족히 10~12만원은 든다"며 "저렴한 수강료에 재료비만 조금 보태면 쿼트를 익힐 수 있어, 알뜰주부들이 많이 찾는다"고 전한다.

성인교실 담당교사인 박현숙씨는 "학교는 문화 센터나 학원 같은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처음에 3만 5천원이었던 수강료를 IMF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 3만원으로 내렸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수강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성인교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백신중학교는 인근 문화 센터나 시설학원에 못지 않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강사 선별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서예를 가르치는 김희성씨는 한국미전 16회 입선에 이어 17회 동상을 수상한 판록 있는 이진숙씨는 한국종이접기협회 등록사범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종이공예 모임인 동송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강사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주택 인테리어 강좌를 들은 학부모 소신희씨는 매주 강의주제가 바뀔 때마다, 현업에 종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인테리어의 새로운 경향을 접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 특히 "풍수전문가인 이재석 씨로부터 직접 수맥 찾는 법을 배웠던 것이 가장 흥미로웠다"는 소신희씨. 그녀는 지난해에 이어 올 1학기에도 강좌를 들을 계획이다.

쿼트반을 수료한 주부 정상안씨는 "사

실 처음에는 수강료가 싸서 제대로 가르쳐 줄까 반신반의했었다"며 "강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성의를 갖고 지도해 줘서 쉽고 재미있게 쿼트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빈 교실 이용, 성인교육 취지에 우수 강사들 감동

박현숙 교사는 "수준 높은 강사를 유치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매기 강좌가 끝날 때마다 수강생들의 반응을 조사해 다음 회 강사 선발에 반영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1주일에 한 번 두 시간씩 속강을 한 대가로 강사들이 손에 쥐는 수고비는 월 40~45만 원 선. 강사료가 이렇게 낮은 데도 훌륭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가를 묻자, 박현숙 교사는 "학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사실 자체를 강사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여긴다"며, "성인교실의 개설 취지에

공감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귀뜸한다.

'평생교육 성인교실'을 운영하면서 백신중학교에 대한 지역주민의 평판은 크게 달라졌다.

76세의 연로한 나이로 컴퓨터반에 등록해 주위를 놀라게 했던 은제로 였은 "나이 많은 나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며 초급강

좌를 수료하고 난 뒤 작성한 소감문에 "우리 백신 만세"라고 적어 넣기도 했다.

작년 1학기에 개설된 5기 성인교실에서 메이크업과 컴퓨터 강좌를 들은 학부모 강미라씨는 "백신중학교 1학년인 아들의 격려에 힘입어 끝까지 다닐 수 있었다"며 "성인교실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시했던 엄마, 이제는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

성인교실은 학생들의 학습태도 형성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0~40대 주부에서 70대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늦깎이 수강생들이 학교를 오가면서 뭔가를 배운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들에게 배움의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지적 자극을 유발하는 것 같다고 교사들은 풀이한다.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무시하게 됐다는 한 3학년 학생은 "엄마가 성인교실에서 컴퓨터를 배워 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 내 대신 학습자료를 찾아주신다"며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박현숙 교사는 백신중학교 성인교실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의지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즉 교사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잡무로 여겨질 수 있는 성인교실 업무를 학교교육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각종 시설과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출선하는 학교장의 모습은 담당교사는 물론 다른 교사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원동력이 됐다 는 것이다. 김문중(61세) 교장은 "지역사회 문화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성인교실을 중점사업으로 선정·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일반 문화센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백신중학교는 지난 98년 7월, 교육부가 실시한 평생교육 평가에서 중등부문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컴맹 탈출에 구슬땀 흘리는 76세 정보검색, 문서편집도 이젠 거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강촌마을에 사는 은제로(76·사진)용. 그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만 어김없이 집을 나선다. 이웃한 백신중학교에서 개설한 컴퓨터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다. 은제로용에게도 '이 나이에 컴퓨터는 배워서 뭘 하겠는가 하는 체념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생활필수품이 되고 컴퓨터를 몰라선 세상에 적응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나날이 커지면서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백신중

학교로 향했다. "운전을 못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기사를 고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를 내 머리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제2의 두뇌가 되어줄 컴퓨터를 배우자고 결심했지요." 그러나 76세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운다는 게 순쉬운 일은 아니었다. 강의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일쑤였고 키보드를 익히는 데도 남보다 갑절 이상 시간이 걸렸다. 때때로 '그만 둘까 하는 회의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지만, 더딘 손놀림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일이 개별지도해주는 강사들과 급우들의 격려 덕분에 그는 포기 유혹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한다. 강의를 맡고 있는 송철호(28)씨는 "초급과정에 이어 중급과정에 등록해서도 단 한 차례도 결석하신 적이 없다"며 "할아버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다른 수강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한다. 은제로용은 목회일을 보며 서울장로회신학대학에서 21년간 강의를 한 종교학자이기도 하다. 구약과 신약 원전을 연구하면서 알파벳에는 없는 헤브라이어 특유의 문자와 부호를 일일이 필사하느라 애플 먹었던 경험이 있는 그에게 컴퓨터는 보배로운 존재다. 인터넷을 통해 헤브라이어 문자를 다운 받아 학습자료를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마치 초만원 버스에 막무가내로 올라 탄 느낌이였지요. 그러나 제 이름처럼 제로 상태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끝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 배움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섣뜻 나서지 못한 목자들이 있다면, 새해엔 은제로용처럼 용기 백배할 일이다.

평생교육을 평생 실시하려면 결국 재정지원이 따라줘야 한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평생교육이 아직 태동기에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열악한 재정구조 해결이 급선무다. 성인교실은 전적으로 수강생들의 수강료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고 강사 수급에도 애로가 따르게 마련이다. 박현숙 교사는 "시설 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시설 지원이 절실하

다"고 강조한다.

또 각급 학교가 동일한 강좌를 경쟁적으로 개설하기보다는 학교별로 강좌를 특화시키는 한편, 연합강좌를 개설하는 등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활발히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얼마 전 백신중학교 황진석 교감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학교를 방문한 한 초라한 노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되는 이 편지의 발신인은 놀랍게도 만화를 즐겨보는 70대 전직교사. 학교측에 따르면 문제의 70대 노인은 얼마 전 백신중

학교를 찾아와 애니메이션 테이프를 하나 복사해 갔다고 한다. 만화를 통해 동심의 세계를 엿보는 것으로 하루를 소일한다는 이 전직교사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시내 비디오 가게를 여러 곳 다니다가 결국 학교를 찾게 됐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몸담았던 학교들을 가까이 두고서..."

새 천년, 우리 교육에 또 하나의 화두가 떠올랐다. [2]

빈 교실이 성인 배움터로 가장 좋은 이유

현대는 학창시절에만 공부하고 학부모가 되어서는 공부와 담을 쌓고 지내도 괜찮은 시대가 아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살기도 어렵거나, 취직과 무관하다 싶은 주부들의 경우에도 집안일에 매달려 책을 놓다보면 어느새 나 혼자만이 뒤처진다, 삶이 무의미하다 라는 심리적 공황에 빠지기 쉽다. 때문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라 여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어머니들에게 있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은 자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학부모, 특히 주부들이 배우고 싶은 욕구를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장소로는 문화 센터, 복지관, 구청, 구민회관, 학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장소들은 다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성인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인들을 위한 학습장소로 빼 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나와 이웃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다. 학교는 대개가 거주지에서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까닭에, 다니는 데 그다지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배우고 싶은 강좌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어머니들끼리, 혹은 아버지들끼리 모여 공통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학습할 수 있다면 썩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신중학교는 성인교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성인교실이 활성화되면 학습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많은 부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좁혀짐으로써, 자녀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환경적·심리적 고충들을 아해하게 될 뿐더러 부모가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진소리꾼이 아니라 더불어 배우는 동료이자 친구라는 심리적 동질감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

이런 성인교실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학교, 그리고 학부모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당국은 성인교실 운영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학교측의 경우는 적극적인 교실 개방을 통해 학습 시설과 공간을 지역사회와 같이 공유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수강지역을 학부모뿐만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에 제공하는 열린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성인교실의 수강생들은 학교의 시설과 살비를 소중히 다루고, 특히 무엇보다 열심히 배우려는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덧붙여 외부 강사의 수강을 듣는 것 외에도 수강생 자체적으로 한 번씩 강사가 되어 강의내용을 직접 준비해 보거나,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하여 자녀·학교·지역사회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창구로서 성인교실을 활용하는 등, 그 운용의 묘를 살려가야 할 것이다.

성인교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백신중학교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에 지역사회 시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학교에 성인교실이 설치되어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백은순(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esbaik@ns.kedi.re.kr)

「주유소습격사건」의 ‘그냥’ 이란 이유와 「폴 몬티」의 위선 벗어던지기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오는 건달들과 이 영화를 반긴 청소년은 꼬치꼬치 이유를 따지는 위선에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 서로 통한다. ‘그냥’이라는 이유가 겨냥하는 과녁도 위선이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굳이 말하자면 청소년이 어른의 위선을 얼마나 역겨워하는지 되돌아보라는 점이다. 남의 인생을 전면적으로 제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김성환 (대전대학교 교수, keylee@nownuri.net)





‘그냥’은 이유를 따지는 데 반발하는 태도다

청소년의 모방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영화가 있다. 건달 네 명이 어느 주유소를 털면서 하룻밤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주유소 습격 사건」이다.

건달들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다 말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주유소를 털러 나선다. 치사한 사장과 잔머리를 잘 굴리는 주유원과 가깝게 일전을 치르고 주유소를 점령한 건달들은 스쳐 지나가는 손님, 경찰, 중국집 배달원, 강패 학생과 예상치 못한 소동을 벌인다. 마침내 경찰과 동네 건달이 떼지어 주유소에 들이닥치자 네 명의 건달은 얼기설기 뒤엉킨 경찰과 동네 건달에게 휘발유를 퍼붓고 라이터 불로 위협하면서 돈을 챙겨 유유히 빠져나간다.

간단한 스토리지만 1분마다 한 번쯤 웃기는 이 영화가 관객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한 철학적 비결은 ‘그냥’이라는 이유에 있다. 수많은 관객 중 몇몇 청소년은 주인공들의 행동을 그냥 따라 했다.

‘그냥’은 ‘왜?’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대답이다. 오죽하면 몇 년 전에는 이런 가사의 노래가 인기를 얻었겠는가. “전화 왜 했어?”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나는 강의 시간에 ‘왜?’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자주 던진다. 내 직업이 이유와 근거를 따지는 게 생명인 철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학생들이 ‘그냥’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원천 봉쇄한다. ‘그냥’은 이유의 자격이 없다고 설명한다. 왜?

노랫말에서 ‘그냥’은 “전화 왜 했어?”에 대한 대답이다. 하지만 만일 비오는 날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다음에 여자 친구가 “그날 전화 왜 안 했어?”라고 따지더라도 똑같은 말로 대답할 수 있다. “그냥 안 걸었어.” 네 명의 건달은 그냥 주유소를 털지만 다른 건달들은 그냥 주유소를 털지 않을 수도 있다. 정반대의 두 질문에 똑같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이유나 근거의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런 원천 봉쇄는 강의 시간이나 가능한 일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사사건건 이유를 따질 수 없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 “왜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나?” “왜 하필 이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나?” 이유를 따질 시간도 없고 일일이 따지다가는 노이로제에 걸리고 만다. 일상 생활에서는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일일이 따지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냥’은 이유를 따지는 데 반발하는 태도다. 일상 생활에서 되풀이하는 시시한 일뿐 아니라 잘못하다간 감옥에 갈 수 있는 심각한 일도 앞뒤 따지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런 태도를 보여 주는 영화가 거의 백만에 가까운 관객들의 공감을 얻었다. 영화 제작자와 감독도 의미 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통쾌하게 웃기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코믹 통쾌극’이라고 스스로 장르 이름도 만들어 붙였다.

그러나 과연 ‘그냥’ 말고는 정말 이유가 없을까? 네 명의 건달이 주유소를 정말 그냥 털었을까? 제작자와 감독이 이



영화를 그냥 만들었을까? 백만의 관객이 이 영화를 그냥 보았을까?

‘그냥’ 이라고 외치면서 위선에서 벗어나

주유소를 습격한 네 명의 건달은 비록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별명으로 나온다.

고등학교 시절 야구 선수인 노마크(이성재)는 밀어줄 부모나 백이 없어 2군을 돌아다닌 아픔이 있고 습격 4인조 중 리

더가 될 만한 카리스마의 눈빛이 특징이다. 여학생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려다 험악한 얼굴 때문에 깡패로 오해받은 적이 있는 무대포(유오성)는 싸움질할 때 여러 명에게 집단으로 맞더라도 그 중 한 명만 찍어서 끝까지 패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음악 없이는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는 판따라(강성진)는 욕을 입에 달고 다니며 로커가 꿈이다. 권위적인 아버지 때문에 그림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펼

치지 못한 빼인트(유지태)는 세상을 곱게 볼 수 없고 힘들여 완성한 그림에 “다 그렸다”고 외치며 페인트를 부어 버리는 전위 예술가 지망생이다.

네 명의 건달이 주유소를 터는 이유는 굳이 따지면 ‘심심해서’다. 물론 돈을 얻으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러나 돈은 이들의 행동을 설명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유소 사장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사하게 행동한다. 건달





들의 충분한 행동 동기는 돈 말고도 재미를 얻으려는 것이다. 남들은 사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 건달들은 무엇이 왜 그토록 심심할까?

건달들의 행동은 자기들처럼 사는 삼류 인생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사회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거창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행동의 결과가 설사 이런 도전의 뜻을 가질 수는 있어도 행동의 동기가 그렇다고 평가해 주면 건달들은 평론가도 꽤 것이다.

건달들은 이유를 따지는 걸 싫어한다. 이유를 따지는 일은 재미없고 구차하고 심심하기 때문이다. 그냥 살면 그만이지 이유를 만들어 붙이는 일은 위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나 감독의 일차

적인 목표는 물론 상업적 성공일 것이다. 게다가 우리 나라 영화계가 외국 영화 자본에 밀려 가뜩이나 힘든 판에 예술성과 상업성을 함께 겨냥하는 태도는 사치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작자는 이에 한 쪽을 포기하고 1분마다 한 번씩 관객의 폭소가 터지는 사나리오를 작가에게 요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제작자와 감독의 눈으로 보면 예술성을 추구하는 영화인의 모습은 할리우드 영화에 밀리는 전쟁터에서 다 떨어진 품위를 지키려는 위선일 뿐이다. 제작자나 감독이 그냥 웃기려고 만든 영화 뒤에도 근엄한 체하는 동업자들의 위선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다.

나는 지금 영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영화에 관한 글을 쓰려면 무슨 말을

어떤 영화로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내가 내 멋대로 영화 이야기를 해석하면 감탄하는 학생도 있지만 영화를 뭐 하러 그리 어렵고 심각하게 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 영화는 메시지를 얻는 수단 이전에 심심풀이 수단이다.

공부터와 일터에서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모습이 판을 치는데 심심풀이 놀이터조차 이유와 해석이 지배하는 것은 피곤해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네명의 건달의 모습은 이유를 따지지 않아서 피곤하지 않다. 게다가 네명이 제각기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제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청소년 에겐 인생의 모델들이다. 반대로 개성 없고 정당화에 골몰하는 어른의 모습은 위선의 전형일 뿐이다.

THE FULL MONTY

「풀 몬티」의 팬티 벗어던지기는 위선 벗어던지기, 그래서 아하지 않고 통과하다

위선을 걷어치우는 일은 말이 쉽지 몸으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려면 학생이든 선생이든 단 몇 퍼센트라도 위선을 벗어 던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위선을 조금이나마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옷을 훌러덩 몽땅 벗는다는 뜻을 가진 「풀 몬티 The Full Monty」는 영국에서 대처 정부 시절에 일어난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다. 철강 공장에서 실직한 남성 노동자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자 스트립쇼를 계획한다.

오랜 친구 사이인 가즈(로버트 카알라일)와 데이브(마크 애디)는 해고되기 전 작업 반장이던 제럴드(톰 윌킨스)를 춤 선생으로 끌어들이고 실직으로 자살하려던 롬퍼(스티븐 휴이슨), 늙은 흑인 호스(폴 베리어), 화장실 수리공 출신인 가이(휴고 스피어)와 함께 스트립쇼를 준비한다. 탄탄하고 섹시한 근육질 몸매 대신 말라 비틀어지고 배 나오고 가슴 처지고 늙은 몸매를 누가 보려 오겠냐는 어느 여성의 비웃음에 가즈는 옷을 몽땅 벗겠다고 영겁결에 약속한다. 리허설 하다가 경찰에게 들키는 바람에 “철강 스트리퍼들이 나타났다”고 신문에 보도되자 클럽에는 수백 명의 관객이 꽂들어차고 남성 노동자들은 마침내 아랫도리를 가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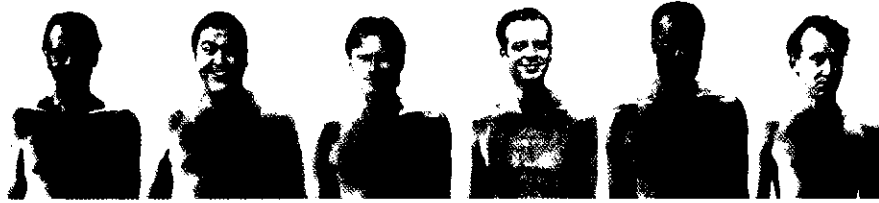
있던 모자를 던진다.

이 영화는 비록 코미디지만 독특한 웃음을 선사한다. 풀 몬티 쇼에 참가한 남성들이 단순히 몸에 걸친 옷을 벗어 던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리고 있던 위선을 벗어 던지기 때문이다.

가즈는 이혼한 아내에게 아들의 양육비를 대기 위해 스트립쇼를 이끌지만 정작 클럽에 남성 손님들도 들어온 것을 보고 남자 앞에선 죽어도 옷을 벗지 못하겠다고 버틴다. 그러니까 가즈는 여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은 덜 꺼리는 셈이고 이는 가즈가 여자에 대한 지배욕과 과시욕을 가리는 위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즈는 앞장서 시작한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라는 아들의 따끔



**THE FULL
MONTY**



한 충고에 스트립쇼에 합류한다.

데이브는 뚱뚱한 몸매를 드러내는 걸 매우 창피해 한다. 그러나 자기 몸매를 숨기고 싶어하는 데이브의 위선은 그 몸매를 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깨끗이 사라진다. 제럴드는 예쁜 여자만 보면 아랫도리가 텐트를 치는 버릇이 있어서 쇼를 하는 동안 여성 관객들 앞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제럴드는 쇼를 하기 전에 일자리도 다시 구했지만 함께 연습한 동료들과 우정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노출하기로 결심한다.

호스는 이름대로라면 성기가 크다고 남들이 상상하겠지만 실은 기구를 사용하여 크게 키우려고 애 쓸 만큼 대단하지 않은 게 고민이다. 톰퍼와 가이는 동성애자라는 걸 숨기고 있다가 서로 눈이 맞는다.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은 주인공들이 제각기 위선을 노출하고 벗어던지는 모습을 엿보면서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팬티 벗어던지기가 곧 위선 벗어던지기도.

별 불일 없는 몸매들을 노출하는 장면이 성욕을 자극하는 대신 웃음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까닭도 주인공들이 몸매보다 마음씨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속마음을 들켜버리는 것도 위선 벗어던

지기의 좋은 방법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사기치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자신 있게 떠들어야 할 때, 잘 아는 내용을 신나게 떠들어도 즐기게 조는 학생이 눈에 띈다. 몸 대신 머리를 팔아먹는 게 역겨울 때, 그래도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내 눈에 맺힐 때 나는 사기꾼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직 포기할 나이는 아니어서 가끔 다짐한다. 위선을 버리자고.

이유를 따지는 작업은 우리 마음의 능력 가운데 이성이 하는 일이므로 또 다른 능력인 감성 또는 느낌의 기능과 대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을 외치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또 다른 말이 있다. "느낌대로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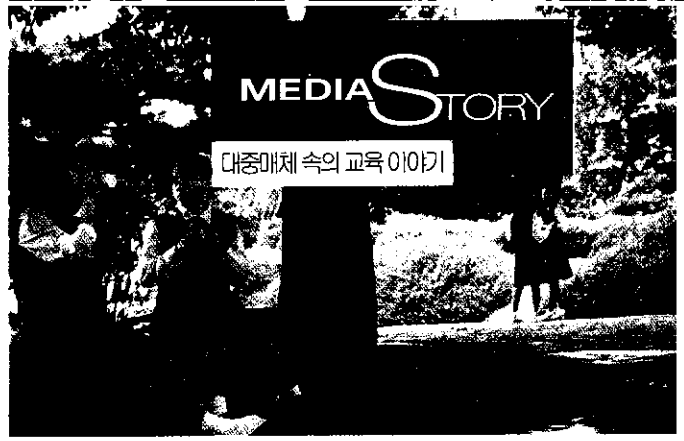
위선은 느낌을 이성으로 가리고 속이는 일이다. 공부터나 일터에서 등급을 매길 때 심사 대상은 이성이고 느낌은 이성에게 가려 빛을 잃는다. 「주유소 습격 사건」에 공감하는 관객은 그냥 재미있어 본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위선을 견어쳐우고 이성에 가린 느낌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무의식 속에 깔려 있다.

위선을 벗어내려면 「풀 몬티」가 보여 주듯이 노출이 필요하다. 옷을 벗는 것도 노출이고 관객에게 속마음을 들키는 것도 노출이다. 노출은 보는 사람에겐 즐거운 일일지 몰라도 보여 주는 사람에겐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제대로 나를 노출하고 위선을 버리려는지는 뒤따라오는 자존심 훼손과 부끄러움의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

위선을 버리려는 정직한 노출은 웃음 뒤에 감동을 낳는다. 남성 노동자들의 「풀 몬티」가 영화 안에서 보는 여성 손님에게 열광을 지아내고 영화 밖에서 보는 우리에게 웃음과 심지어 눈물까지 곁들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은 벌거벗은 몸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속마음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위선을 버리려는 내 말이 착한 체하는 위선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위선을 조금이나마 버리려는 노력이 교육과 삶의 현장을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나도 강의 시간에 "왜?" 라는 질문을 풀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20]



10대 중심 텔레비전 프로그램 어른들은 뉴스시간이 돼서야 위로받는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helio@sookmyung.ac.kr)

우리 나라 텔레비전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비추는 방식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텔레비전이 세대간 문화적 단절을 조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텔레비전이 청소년들에 대한 확실적인 모습만을 보여줘 고정관념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어른들을 갈라놓는 텔레비전의 이중성

우선,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이중적이고 이 이중성이 세대간 문화적 단절을 불러일으킨다.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스타들의 완벽한 이미지를 추앙한다. 항상 즐겁고 밝은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가 밝고
즐거울 것만 같다.

그러나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180도 방향을 틀

어 청소년들의

모습을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그려낸다.

본드를 흡입

하고 원조교제

에 나서고 유

명 연예인의

일거수 일투족에 흥분하며 쓰러

져 실려가고, 도포자락 같은

이상한 옷과 형형색색의

빨래줄 같은 머리카락을

하고 다니는 것이 '보도 프로

그램에 나타난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듯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없는 것 같다.

오락 프로그램에 나오는 청소년들은 한결같이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개그면 개그 어느 하나도 못하는 것이 없다. 다른 청소년들은 그들의 모습에 환호하고 열광한다. 이런 문화는 어른들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10대 소년·소녀로 이루어진 몇몇 그룹은 전문 기획자에 의해 기획돼 요정이나 초인의 이미지를 가진 만화 주인공처럼 다른 10대 소년·소녀를 사로잡는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제한된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알게 된다. 특히, 경험의 폭이 좁아서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방송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방식을 구성해 나간다.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제한돼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와 집 사이만을 오고 갈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등학생만 돼도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선생님의 '감독' 하에 '차울' 학습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텔레비전이 청소년들에게 주는 경험의 분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것이다.

텔레비전은 각자가 처한 현실과는 상관없이 공통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모방심리를 자극해서 행위를 유도하고 공통된 가치관과 규범을 제시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텔레비전은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아닌, 유형화된 가치관을 주입해 문화를 획일화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실의 경험은 아주 제한돼 있는 반면에 텔레비전의 세계는 무한하다. 그런 현실의 세계와 텔레비전의 세계는 혼재되어, 흔히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가상의 세계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현실과 혼동되는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10대 연예인의 모습은 항상 바람직한 이상화의 대상이 된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드라마에서는 착한 역할을 맡고 재력과 능력이 있는 완벽한 인간형은 이상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지는 중요한 사실은 텔레비전에서 제공하는 연예인들은 한번에 모든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살고 있는 곳이 다르고 가정환경이 다르고 경제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적 차이가 나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대상이 바로 연예인들이다.

이렇듯 완벽한 인간형에 무소불위로 모두가 동시에 경험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바로 신(神)이다. 텔레비전 스타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진한 청소년들은 이런 신을 충실히 믿고 복종하게 된다. 10대 소녀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좋아하다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프로듀서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잘 구현해 줄 출연자를 찾아 참여시키는 것으로 제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검증된' 스타를 일단 섭외한 뒤에 그 스타와 함께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것인지 고민한다고 한다. 스타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이 이른바 10대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시청률에 도움이 된다. 우선, 10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성의 문화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신기하다. 텔레비전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롭고 신기한 것이다.

기성 문화는 새로울 것이 없다. 두 번째는 10대의 적극성이다. 10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다. 녹화현장을 찾아가고 편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제작진들이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

그러다 보니 10대들 위주의 프로그램이 양산된다. 결국 다른 세대들의 취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른바 기성 세대들도 텔레비전을 즐기지만 그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10대 위주의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오락 프로그램은 10대들 위주로, 또한 '10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 구성하면서 다른 세대의 접근을 막는다.

기성 세대는 뉴스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보면서 10대들의 문화를 이상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고 이들을 더욱 혼육해 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10대 위주의 프로그램에 소외되고 분개하던 어른들은 뉴스 시간에 카타르시스를 맞는다. 이러한 공분(公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을 교실에 가둬두는, 또는 숨겨두는 무서운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지도 모른다.

텔레비전의 바람직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통합기능이라고 볼 때, 적어도 청소년에 관한 한 텔레비전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기능이란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한데 묶어 주는 기능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텔레비전은 통합이 아니라 세대간·문화간 단절을 조장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어른들은 뉴스를 시청하면서 청소년 문화를 개탄한다. 뉴스를 보면서 자신들은 접근하기 힘든, 또는 접근하기 싫은 오락 프로그램이 바로 그러한 청소년 문화의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HOT를 '핫'이라고 발음하는 어른들을 조롱하며 그들만의 비어(秘語)를 즐긴다.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드는 텔레비전 문화적 단절의 역기능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텔레비전 속에 나타난 청소년의 모습이 한결같다는 사실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텔레비전에 나타나는 청소년은 오락에서든 뉴스에서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획일화된 모습으로 비쳐진다. 모든 존재는 다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지금 텔레비전에 그려지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 가운데 한두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텔레비전에는 그 한두 가지 모습이 강조될 뿐이다.

모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원조교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취재진은 "이렇게 원조교제가 성행하면서 10대 여학생들 사이에

서는 돈만 주면 못할 게 없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과연 한국의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돈만 주면 못할 게 없다"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것일까? 원조교제는 아마도 몇몇 특별한 학생들의 경우이고 학생들 대부분은 오히려 그 보도를 통해 원조교제에 대해 몰랐던 정보들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보도는 원조교제를 아주 만연한 현상으로 취급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텔레비전이 청소년들의 이미지를 고착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어린아이가 되기에는 너무 커버렸고 어른이 되기에는 미숙한 청소년들은 사이에 "갸" 존재다. 사람의 인식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중간 입장을 배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단지 두 가지의 가능성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흑과 백', '참과 거짓'이라는 이분법에는 익숙하지만 흑과 백 사이에 있는 회색과 참과 거짓 사이에 있는 그 무엇에는 생소하다(참과 거짓 사이를 표현하는 단어조차 없다). 청소년들의 위치는 바로 우리가 참으로 불편해 하는 그 중간지점에 놓여 있다.

이런 중간자적 성격 때문에 청소년들은 우리의 인식에서 멀어지기가 쉽다. 중간자는 인지구조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애써 피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 이외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 그나마 있는 오락과 뉴스 프로그램에서 기피한 복장을 하고 무대위를 콩콩 뛰어 다니는 모습만이, 환락가를 배회하는 모습만이 오늘 우리 청소년



들의 모습일까? 텔레비전은 그렇다고 말한다.

일부 언론학자들은 텔레비전이 우리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텔레비전이 한결같이 특정한 측면만을 강조할 때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 가운데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고 강조한 측면만을 기억하고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어 강조하고 간직된 것이 바로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다.

한 사회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제대로 보여지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텔레비전이 왜곡된 상을 보여주고 강화하는 것은 여성, 특정 직업, 특정 지역 등에 대한 것 등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은 특히 고정된 시각 이외에는 존재자체가 무시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텔레비전은 청소년들을 주 시청층으로 삼고 그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청소년들은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이지 텔레비전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이들의 시청행위에만 주목하여 청소년들이 좋아한다고 '가정'하는, 이른바 청소년 취향의 프

로그램을 편성해 놓고 10대 텔런트와 가수 등 비전형적인 10대의 모습을 마구 쏟아낸다. 10대들의 주중 시청시간은 하루 2시간 정도이지만 주말이 되면 4~5시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으로 도배가 된다.

요즘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며 이들의 즐거움은 무엇일까? 나중에 이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이들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즐거움이자 고민의 대상일까?

혹시 이들이 부모가 되어서도 자식들 앞에서 고개를 좌우로 반복해 흔들면서 춤을 출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모들에게만 맡겨두면 되는 것일까? 부모들은 과연 자신들의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까? 아니면 부모들도 다른 아이들은 모두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이고 자신들의 아이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텔레비전은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을 끌어내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청소년 대상 드라마도 더 만들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대담 프로그램도 만들고

퀴즈 프로그램도 더 만들어야 한다.

드라마를 만들면서 다시금 고정된 상을 보여주거나 퀴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학생들을 개그맨화 하지 말고 진짜 그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없앨 필요는 없다.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도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받는 하나의 문화이며 청소년들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개의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여러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이 야기다.

예를 들어, KBS2에서 방영하고 있는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는 드라마나 쇼, 또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는 개인화하고 아무 생각 없는 청소년들의 모습과 다른, 자신이 속한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진지한 탐구력을 가진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이때 시청자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보여주는 청소년의 상과 불일치를 발견하며 다른 프로그램의 사실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게 된다. 텔레비전 영상의 사실성이 인간의 사고력과 만날 때 큰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진실을 알면 그 진실이, 우리를 편견이 주는 속박에서 자유롭게 한다. [20]



세계는 이렇게 신세기 2000년을 맞이했다

영국 England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그리니치 2000년 행사'를 두고 전세계의 밀레니엄 행사 중 가장 광복할 만한 축제라고 선언했다. 그리니치는 세계의 표준시를 나타내는 장소인 동시에 밀레니엄 시간도 정해주는 곳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이 영국인들의 생각이다. 카운트다운 2000'에서 실 시한 밀레니엄 여론조사에서도 밀레니엄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로 영국 런던이 1순위로 뽑혔다.



역사적인 '밀레니엄 돔 (Millennium Dome)'

표준시의 기점인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그리니치의 템즈 강변을 따라 높이 50미터, 직경 1킬로미터의 세계 최대 규모인 밀레니엄 돔이 건설되었다. 총 공사비만도 1



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된 이 밀레니엄 돔 안에는 지구상의 인류탄생에서부터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또다시 1000년 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장과 놀이터가 마련되었다. 한 마디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유락시설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을 조화시킨 미래형 세계관인 것이다. 1999년 12월 31일에 완공 기념식을 가졌다.

밀레니엄 휠(Millennium wheel)

영국항공이 스폰서가 돼 템즈강 남쪽 기슭에 건설한 세계 최대의 관람차 밀레니엄 휠이 1999년 12월 31일에 문을 열었다. 런던의 스카이 라인을 바꿔놓은, 런던에서 네번째로 큰 구조물이 된 이 밀레니엄 휠은 성 베드로 성당, 영국 국회의사당의 시계탑보다 더 높게 지어졌다. 각기 25명씩 태울 수 있는 32개의 캡슐로 구성되어 있으며 런던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1회 탑승시간은 30분이며 한꺼번에 960명이 탑승할 수 있다. 한편 영국항공과 에어프랑스는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를 이용, 1999년 12월 24일 뉴욕을 출발해 하와이, 시드니, 홍콩, 델리, 카이로 등 전세계를 일주



하는 '시간여행 상품'도 인기를 끌었다.

프랑스 France

2000년을 여는 세기의 마지막 불빛



1999년 12월 31일, 수많은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에펠탑으로 모여 들었다. 이날, 에펠탑에 마련된 전망판에는 날짜뿐만 아니라

시각 및 분, 초까지도 표시되어 새 천년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었다. 5, 4, 3, 2, 1, Zero! 환호의 순간, 에펠탑을 에워싸고 있는 2만여 개의 전기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면서 2000년은 시작됐는데, 이 장면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월 1일 자정까지 계속되었다.



프랑스 밀레니엄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2000년으로 들어가는 문' 통과 행사. 새로운 시대의 통로를 상징하는 '2000년을 여는 문'을 프랑스 전역의 각 지역마다 의미 깊은 장소에 설치, 1999년 12월 31일,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통과하였다.

파리에서는 루브르에서 에펠탑 광장에 이르는 거리에 여러 명의 유명 현대 작가들에 의해 약 12개의 문이 설치됐는데, 완공된 12개의 문들 사이에는 붉은 양탄자가 길게 깔리고 자정에는 이 길을 따라 화려한 불빛과 함께 흥겨운 축제 무대가 펼쳐졌다.

2000년을 여는 문은 프랑스 국민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찾는 이들 모두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었으며, 문 사이를 통과하는 행렬들 속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다.

왕정 무도회(Le Bal Roy)

루이 14가 개최했던 유서 깊은 축제 중 하나인 왕정무도회가 20세기의 마지막 날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여왕의 방'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거울의 방, 그리



고 전시되어 있는 수많은 미술 작품들은 17세기 왕궁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었는데, 특히 전면이 투명한 거울의 방에서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을 바라보며 즐기게 될 저녁 만찬은 프랑스 요리의 진수를 맛보게 해주었다.

자정에는 성 전체가 웅장한 불꽃놀이로 화려하게 장식되었으며, 샴페인과 더불어 무르익어가는 무도회의 분위기는 2000년 1월 1일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태국 Thailand

이미 1999년 11월부터 시작된 밀레니엄 이벤트

태국정부 관광청은 20세기의 마지막해인 1999년 11월부터 21세기의 첫해 2000년 1월까지의 3개월을 골든먼스 기간으로 지

정, 각종행사를 펼쳐왔다. 우선 11월에는 왕실 유람선 행렬, 비어/푸드 페스티벌, 로이 크라 등, 파퓰러 카니발, 수란 코끼리 물이 축제 등이 펼쳐졌으며 12월에는 실크 페어, 국기 분열식, 국왕탄신일 축제, 태국 2000등의 행사가 거행되었다.

태국정부관광청은 푸미폰

국왕의 72회 탄신

일과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인 2000년도의 개막을 경축하는 의미로 '2000년의 새벽을 맞이하며'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31일 저녁부터 2000년 1월 1일 아침 사이에 여러 행사가 집중적으로 펼쳐졌는데 태국정부관광청은 특히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일몰과 일출광경을 즐기며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을 축하할 수 있는 관광지의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특별 투어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곳에서는 특히 환경관광과 관련된 활동들,



예를 들어 자전거타기, 캠핑, 조류/동물관찰, 트래킹 등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홍보활동 외에도 크루즈, 건강치료요법, 볼고, 골프, 항공사, 모험관광 등 6개의 새로운 타깃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밀레니엄 커플 행사

태국정부 관광청은 웨딩 비즈니스 컨설턴트사와 공동 주최로 오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타일랜드 어메이징 러브 2000' 축제를 개최했다.

각종 결혼 관련 행사가 진행될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31일 오전 9시 19분부터 2000년 1월 1일 오전 1시 19분까지 태국인 부부 1,000쌍과 외국인 신혼부부 1,000쌍이 참가하는 가운데 거행된 대규모 합동 결혼식이다. 태국을 세계 최고의 신혼여행지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신혼부부 한 쌍당 9,999바트였으며, 참가하는 커플들에게는 결혼식 사진, 기념품, 신부의상, 간식의 혜택이 제공되었다.



피지 Fiji

2000년의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남태평양 피지

180° 자오선에 의해 정의되는 지구상의 천문학적 날짜변경선에 따라, 시베리아 반도의 끝과 피지의 바누아레부, 람비, 타베우



니섬이 2000년 새시대의 첫 새벽을 밝힐 장소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가든 아일랜드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타베우니 섬에서 한밤은 2000년의 첫날에, 다른 한밤은 1900년대의 마지막 날에 디던 채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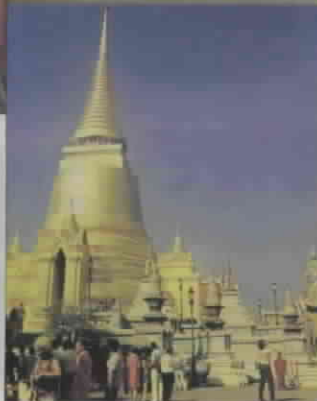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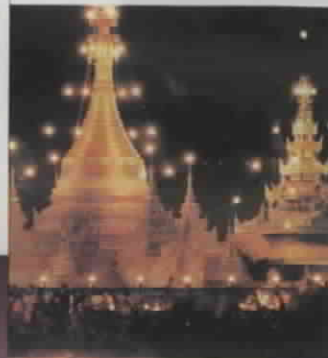
교차하는 절호의 기회를 만끽할 수 있었다.

또한 방문한 각국별 관광객의 이름들은 리스트에 올려져 타임캡슐에 넣어졌으며 이것은 180도 자오선상에 묻혀 다음 1000년, 즉 3000년에 개봉될 예정이다.

피지의 밀레니엄 축제의 절정은 1999년 12월 말부터 시작돼 2000년 1월 초까지 열린 일주일간의 '밀레니엄 2000년 피지 아일랜드 페스티벌'로서,

각국 명사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인터뷰와 전통과 현대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축하공연을 방영한 밀레니엄 전야 TV특별방송, 피지의 최고 추장들이 밀레니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지구의 4개 코너를 방문하여 각국 명사들을 초

청했던 '밀레니엄 초청행사', 영국의 그리니치에서 벌어졌던 하이테크 댄스 공연의 위성중계행사, 이외에 12월 31일 자정에 거행되어 피지의 수백개 섬 봉우리마다 햇물을 밝혀 피지 섬 전체를 붉게 물들였던 '한밤의 햇불의식', 남태평양 바다에서의 2000년 해돋이를 맞이하여 벌어졌던 '전통 카누 진수식'이 그것이다. 피지는 2000년 1월 1일 경축행사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2일까지 이를 계속할 것이며 이 1년간을 '밀레니엄의 해'라고 선포했다.



홍콩 HongKong

'아시아 이벤트의 중심지'인 홍콩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환영하는 '밀레니엄 이벤트'가 이미 11월부터 시작돼 2000년 2월까지 음식, 쇼핑, 문화유산, 관광, 축제 등 다채로운 주제별로 흥겹게 펼쳐진다.

세기의 세일

아시아에서 최고급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쇼핑의 도시' 홍콩에서는 '홍콩 VIP카드'를 소지한 관광객에 한하여, 2000년 3월까지 약 820여개의 멋진 상점에서 일년 내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2월부터 시작한, 최고 70%까지의 파격적인 할인폭을 자랑하는 홍콩 겨울 세일이 2000년 2월 구정까지 계속된다. 특히 홍콩의 대형 백화점에서 펼쳐지는 한해의 패션유행을 알리는 화려한 패션쇼도 볼거리로 꼽히고 있다.

밀레니엄 음식 축제요리의 천국 홍콩에서는 1999년 12월부터 시작한 홍콩 밀레니엄 음식축제가 2000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홍콩 밀레니엄 음식축제는 최상의 해산물요리에서부터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사천요리 및 세계 각지의 요리와 미래의



건강과 번영을 상징하는 새해 특별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맛과 향을 선사하는 절호의 기회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주요 레스토랑들이 특별히 개발하여 창조해 낸 밀레니엄 메뉴는 일인당 HK\$200(2인 이상)이면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의 구미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또한 2000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홍콩 최고의 만

찬'에서는 다섯 가지의 주제로 홍콩의 천 가지 맛을 안내할 계획이다.

홍콩음식의 근원이 바다임을 알리는 '어촌만찬', 서민들이 즐기는 음식을 통해 홍콩 생활 양식을 알아보는 '인민만찬', 지난 시대의 고유요리를 맛보면서 홍콩이 왜 아시아의 요리수도가 되었는지 느껴보는 '고풍만찬' 그외 '귀족만찬', '전중국만찬' 이 그 다섯 가지 주제이다.



언더 더 선 under the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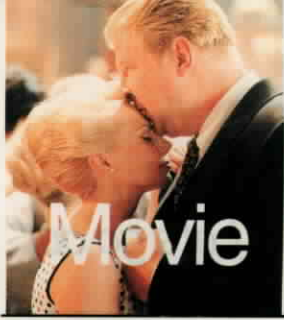
숙식 보장 / 가정부 경험없어도 가능 / 할 일 힘들지 않음 / 사치첨부 무망

● 세상에서 가장 하기 편한 운동 - 모세혈관운동



그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흔들기만 하면 된다. 다리를 든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지도 모르겠다.

다리에 힘은 빼되 아랫배에는 힘을 주고 흔들면 되는데,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손발, 장부위를 따뜻하게 만든다. 건강하다'는 것의 기본을 이뤄주는 이 운동은 모세혈관운동이라 부르며, 매일 약 5~10분 정도 하되 무리는 하지 말며, 배개는 없이 자기 전에 하면 잠도 쉽게 들 수 있다. 익숙해지면 팔도 같이 들어올려 흔들다. 귀찮다구요? 아하!, 당신의 이름은 게으름뱅이군요~!



첫사랑을 노래한 영화는 많어도 서른아홉의 첫사랑을 그린 영화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전원에서 9년째 혼자 살아온 올로프는 글을 읽지 못하며 여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전혀 없다. 더없이 단순했던 그의 삶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정부 엘렌으로 인해 난생 처음 격동한다. 한편 올로프의 유일한 동반자 역할을 해온 27살의 에릭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올로프와 엘렌 사이를 방해한다. 어느 날 올로프는 엘렌에게 결혼을 신청하고 어머니의 반지를 끼워준다. 다음날, 그녀는 편지 한통을 남긴 채 사라지고 올로프는 에릭이 읽어주는 편지의 사연을 듣고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에릭마저 떠나고 홀로 된 올로프, 몇 달 후 다시 그녀는 그 앞에 나타나고, 그는 그녀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새 천년을 맞아 세계 영화계는 '좀더 세기말적인 소재'를 찾는 데 반해 콜린 너틀리 감독은 오히려 정통 영화로의 복귀를 추구한다. <자전거 도둑>, <금지된 장난>, <길>...등을 보고 감독을 꿈꾸고 있는 앞으로도 더 인간적인 것에 집착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화 <언더 더 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연을 닮은 남자가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 속에는 섹스, 질투, 배신이 있



오래 기다린 끝에



호풍이 영웅도 설계어는



빛사들이 찾아왔다.



지만 이 남자는 오로지 사랑의 힘을 믿는다. 나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었다." 영화 <언더 더 선>은 특히 빛과 색깔에 의한 촬영이 돋보인다. 오프닝의 첫 장면이 '파랗고 청명한 하늘'에서 시작되는데 파란색은 황금빛 색과 함께 이 영화의 주조를 이루는 색이다.

처음으로 올로프와 만나던 날, 엘렌은 하늘색 옷을 입고 나타난다. 파란색은 주인공 올로프에게 '희망'을, 황금빛과 갈색톤은 올로프의 '순수성'을 상징한다. 룡샷으로 담은 북유럽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은 촬영 상의 의도적인 필터효과로 영화<엘비라 마디간>에서 본 벌꿀빛 풍광을 연상시킨다.

스웨덴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올로프 역의 롭프 라스가르드와 제2의 잉그리드 버그만으로 불리는 엘렌역의 헬레나 베르스트롬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000년 상반기 개봉 예정. 2000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 롭프 라스가르드·헬레나 베르스트롬 주연, 콜린 너틀리 감독. 드라마.

그림 속 나의 마음
絵の中のほくの村

"저리 좀 가란 말야. 너 때문에 고기가 안 잡히잖아"



일본 학부모 연대가 뽑은 최고의 영화

1950년대 일본의 고치현이라는 시골마을. 여름 날 낚시를 하던 쌍둥이 유키히코와 세이쵸. 다른 친구들은 벌써 물고기를 여러 마리 잡아 집에 가지만

쌍둥이에게는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다. 서로 심통이 난 쌍둥이는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싸움을



한다. 그러나 곧 바위 뒤에 숨은 말하는 망둥이를 함께 잡은 후 저절로 화해가 되고 둘은 장대비를 맞으며 메기가 든 양동이와 낚시대를 들고 집으로 달려간다. 한편 그림솜씨가 뛰어난 쌍둥이는 담임선생님인 어머니가 이들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해 상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교장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아들들 그림만 출품했다는 비난을 받고 어머니는 학교를 옮기게 되는데...

지금은 둘 다 유명한 화가로 성장한 실존인물 세이쵸와 유키히코의 자전적 에세이를 영화로 옮기면서, 하가시 요이치 감독은 원작에는 없는 세 명의 노파를 설정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서 쌍둥이들을 지켜보며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해방을 놓기도 하는, <맥

베드>의 마녀들 혹은 삼신할머니 같은 이 노파들을 등장시킨 의도에 대해 하가시 감독은 이렇게 대답한다. "익



명성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비가시적인 존재들, 즉 타자의 시선을 다시금 상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 누구도 쉽게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할 테니까." 극중 세이쵸와 유키



히코로 나오는 두 형제는 고치현 현지의 초등학교 2학년생들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실제 일란성 쌍둥이들이다.

두 형제가 싸우는 장면은 기본적으로 연출된 것이지만 일상이 싸움의 연속이었던 이 형제에게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컷'하는 사인이 떨어진 후에도 이 쌍둥이 형제는 계속 싸우고 있었고 스탭들이 아이들을 간신히 떼어놓고 '촬영이 끝났다'고 하니, 세이쵸가 울면서 '이번엔 OK예요?' 라고 물어 전 스탭들을 잠시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후문.

이 쌍둥이 형제가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트로피를 들

고 좋아하는 장면은 역대 여러 수상식 장면 중 가장 귀엽고도 신나는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2000년 2월 19일 개봉 예정. 베를린 국제영화제 은곰상 수상. 마츠야마 케이고·마츠야마 쇼고 주연. 히가시 요이치 감독. 드라마.

원 트루 씽 One True Thing



아버지 : 엄마는 입원했다.
 딸 : 암인가요?
 아버지 : 그래... 엄마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네가 와서 엄마를 돌봐주면 좋겠다.

딸 : 집으로 오라구요? 직장은 어떡하구요!



아버지 : 여기서 프리랜서로 뛰면 되잖아. 낮동안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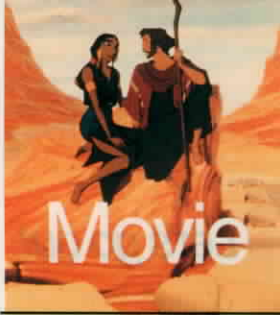
딸 : 아빠, 전 뉴욕에 있어야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해요. 지금 그만 둘 순 없어요. 그럼 다시 그자리에 갈 수 없대구요. 간호원을 쓰세

요 주말마다 제가 올게요.

아버지 : 간호원? 네가 아팠을 때 엄마가 간호원을 불렀니? 엄마 집에 남이 있는 걸 싫어해! 암만 네가 필요하다. 엘렌. 허버트까지 나는 애가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소장용으로 많이 팔리는 비디오 중의 하나이다

활발하고 생기있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주부 케이트 굴덴은 장성한 두 자녀의 어머니이며 대학교수로 재직중인 조지 굴덴의 아내이다. 평온한 생활 속에서 행복하기만 했던 케이트의 인생은 병원을 방문한 뒤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케이트의 진단결과는 악성 종양. 조지는 뉴욕에서 잡지사 기자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딸 엘렌을 불러 어머니를 간호하라고 한다.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온 엘렌은 그 동안 이루어 놓은 사회경력과 사생활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달갑지 않다. 하지만 엘렌은 결국 아버지의 의견을 따



르기로 한다. 이런 엘렌의 심정을 아는 케이트도 딸이 자신을 원망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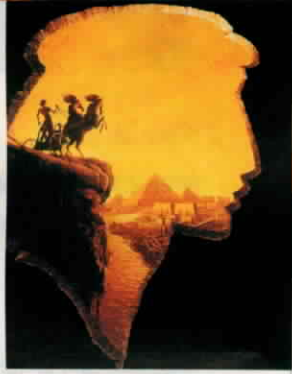
〈원 트루 씽〉을 보면 누구나 공통된 두 가지 상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언제나 그들을 한없이 이해하고 조건없이 사랑한다는 사실과 자녀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에게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가정주부 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엄마와 딸의 대사 중에 이런 장면이 있다. 서로 책에 대해 얘기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말한다. "제인 오스틴은 맘에 안 들어. 상냥하고 순종적인 제인을 보는 시각이 말이야. 말 잘하고 똑똑한 여자를 더 우월한 것처럼 썼어. 대학에서도 그러더라. 살림만 하세요? 그것 참 신기하네요?" 딸이

뭐라고 항변을 하려 하자 엄마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런 책이 또 있어. 작은아씨들.



작가 언니 있지? 임신한 자매를 나 무라잖아."

〈원 트루 씽〉에는 가정을 숨서 있게 꾸러가는 엄마라는 존재로 인해 얻은 것들과 그 엄마가 죽어감으로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아 가는 딸이 감



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메릴 스트립 · 윌리엄 허트 · 르네 젤위거 주연, 칼 플랭클린 감독. 드라마.

이집트 왕자 The Prince Of Egypt

총 1,192 장면 중 1,180 장면이 특수효과된 장면의 특수효과 투입시간은 〈쥬라기 공원〉의 총 작업시간을 초과

「디즈니」가 아닌 「드림웍스」의 첫 만화영화

〈이집트 왕자〉의 중심에는 서로를 위하지만 더 이상 형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제의 갈등이 있다. 각자의 민족을 대표하여 서로에게 원수가 되어야 하지만 또한 마음속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멈추지 않는, 태어나면서부터 엇갈린 운명을 가진 두 사나이에 대한 서사적 드라마다. 히브리인이 모두 이집트의 노예로 소유되었던 시대, 히브리인의 반란과 예언자의 출현을 두려워한 이집트 왕 세티는 히브리 신생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아기 모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기를 광주리에 담아 강물에 띄워 보내고 왕비에게 발견된 모세는 람세스와 함께 진정한 이집트 왕



자로 성장하는데... 「드림웍스」를 창립한 제프리 카젠버그는 자신의 영화사가 「디즈니」와 비교되는 데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디

즈니만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즈니와 구별되는 드림웍스 만화영화의 아주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의 영화스타일을 정립해갈 것입니다." 카젠버그 감독은 디즈니사에 있을 때에 이미 황금을 물어오는 사랑개 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다.

〈컬러 오브 머니〉, 〈세 남자와 아기 비구니〉, 〈프리티 우먼〉, 〈미녀와 야수〉 등 극영화와 만화영화를 넘나들며 대항쟁들을 잇달아 만들어 냈다. 〈이집트 왕자〉는 총 1,192 장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1,180 장면이 특수효과로 처리되었고 한 장면의 특수효과 시간 투입은 영화 〈쥬라기공원〉의 총 작업시간을 초과하였다. 이 영화의 핵심장면이라 할 수 있는 홍해의 갈라지는 장면은 우선 시각적 개발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예를 들어 물이 갈라지는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단순하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방법보다는 회오리같이 원을 그리며 물이 걷혀지는 장면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다. 제작진은 이 장면을 시각적 개발 작업을 기초로 하면서



도 엄청난 스케일의 장면으로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우선 손으로 그려진 장면에 물튀김의 변화를 약간씩 주어가면서 스케일의 극대화를 꾀했는데 이 물의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전통적 방법에서부터 3D효과 그리고 2D 컴퓨터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온갖 묘사를 동원하였으며 이 결과 흥해의 물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 같이 화면에 담겨졌다. 또한 인물들을 맡은 디자이너들은 이집트 벽화와 조각에서 히브리인들의 개성을 연구했다. 그들은 캐릭터들의 안면을 디자인할 때 다른 애니메이션과의 차별화를 위해 다른 분할구조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이마에서 눈, 코에서 뺨, 입에서 턱까지 33-33-33%씩 정분할을 했으나 <이집트 왕자>는 30-40-30%로 중간부분을 다소 길게 표현함으로써 좀더 현실감을 주고 호소력 있는 외모를 만들어내었을 뿐 아니라 애니메이션터들에게 풍부한 표정연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목소리 캐스팅 발 킬버, 산드라 블럭, 랄프 파낸스, 대니 글로버, 제프 골드블럼, 스티브 마틴, 헬렌 미렌, 미셸 파이퍼, 제프리 카젠버그 제작총지휘. 애니메이션.

이 광고를 보라!



아무도 이 광고를 보지 않고 신문을 접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덴쯔사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에 우수광고상을 수여했다. 사실상 이 광고가 차지한 지면은 아주 작다. 그저 펍시 캔이 하나 놓일 만큼

만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캔의 위치이다. 신문을 가로질러 정중앙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그 오른쪽 맨 끝에 자그마한 카피가 있는데 설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칼로리 표시 설명을 했다. 이 카피 또한 차지한 자리는 아주 작지만 발자국 같은 그림이 시선을 끌여 결국은 맨 귀퉁이에 있는 이 카피를 읽게 만든다. 결국 이 신문을 펼친 사람들은 소경이 아닌 바에야 다 이 광고를 보게 된다. 주목률100%! 모든 광고맨과 광고주가 바라는 것을 이룬 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의성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닐까?

추운 겨울, 화초를 집안에 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물주기 - 기온이 하강함에 따라 물주기는 평소보다 2~3일 정도 늦추되 될 수 있는 한 아침 물주기를 한다. 특히 실내기온보다 찬물은 잎을 누렇게 변색시키고 잎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물은 찬 기운이 없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 햇볕쬐기 - 잎이 큰 관엽식물일수록 햇볕의 요구도가 적으므로 창가에서 멀리, 잎이 작은 관엽식물일수록 햇볕의 요구도가 많으므로 창가 가까이 둔다.

· 싱고니움 - 응달에서도 잘 자라는 싱고니움은 흙이 아닌 물 속에서도 잘 자란다. 싱고니움을 한줄기 따서 예쁜 유리잔에 넣어 주방 창가에 놓아둔다.

· 포인세티아 - 잎이 꽃처럼 빨간색이어서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쓰이는 화초다. 물을 적게 주며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빨간 꽃을 계속 보고 싶으면 별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기를.

· 미니 피키라 - 물만 흠뻑 주면 온도가 조금 낮아도 잘 자라고, 모아 심기에도 좋다.



맛있는 잡- 녹차 먹은 돈가네

맛 '녹돈'이란 말 그대로 녹차를 먹은 돼지고기이다. '돈가네'의 녹돈은 녹차산지로 유명한 전남보성에서 직송돼 온다. 사람 몸의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주는 녹차성분덕에 전남보성의 녹돈 역시 다른 돼지보다 속이 깨끗하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 맛과 영양이 탁월한데 우선, 누린내가 다른 것에 비해 40% 정도 적게 나고, 저지방이어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다. 따라서 지방층이 17~18% 정도 얇게 형성돼 다른 돼지들처럼 껌질을 깎아낼 필요가 없다. 물론 생



고기이고, 이 모든 사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옛날 고유의 돼지맛이 난다' 이다. 물론 '녹차먹은 보성녹돈'이란 체인점이 있다. 그런데 그곳의 녹돈은 웬지 억지로 먹어 스트레스가 살 속속이 박혀있을 것 같은... 그래서 스스로 먹은 '녹차먹은 돈가네'의 고기가 더 양질일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돈가네의 아저씨도 그런 생각에서 지금의 이름을 지었다 하니 '스스로' 녹차를 먹은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인가 싶다.



서비스

사실 '서비스'란 단어를 쓰는 것이 부끄럽다. 아주머니의 손길에서 손님들은 엄마의 마음과 누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이다.

주운한 것 외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먹을 것을 그때그때 챙겨준다. 물론 이뿐으로 감히 엄마의 마음을 운운할 수는 없으리라.

돈가네에는 한가지 사건이 있다. 감자탕 사건! 자기가족 먹으려고 감자탕을 끓이는 날이면 이렇게 말한다. "저, 오늘 늦게까지 일하세요? 저희 오늘 감자탕 먹으려고 하는데 꼭 오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돈가네에는 단골이 많다.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손님이 다 단골이다. 길을 가다가 좀 낮이 익다 싶어 고개를 가웃거리고 있으면 '아침, 돈가네에서 봤었지' 하게 되는 해프닝도 가끔 벌어진다고 한다. 정성이 깃들어야 음식이 제맛을 낸다는 말이 실감나는 곳, 바로 이 '녹차먹은 돈가네' 이다.

Tel (02) 3443-9292



보약, 싸게 만들 수도 있다

늘 피곤할 때 - 산약+천궁+감초

산약 500g 1만8천원선+천궁 8천원선+감초 상품 4천원선=약 3만원. 마 라고도 불리는 산약은 정력을 높이는 약재로, 콩팥의 기능부전으로 허리가 아프고 하체에 힘이 없고 몸이 허약하며 정신력이 나약해져 자주 건망증을 나타낼 때, 산약을 오래 복용하면 그 증세가 치유되면서 근육과 골격에 힘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윤택해지고 눈이 밝아지며 귀가 총명해진다. 천궁은 오장육부에 축적된 불순물을 제거해 몸을 가볍게 하고 피로물질을 내보내 주는 약재로, 심근염,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치료에 널리 사용되며 이와같은 질환으로 심장이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올 때 천궁을 쓰면 4~6주 후 증세가 호전된다. 여기에 음식물을 통해 쌓여온 몸 속의 독을 제거해 주는 감초를 넣는다면 술이나 담배에 찌든 남성들의 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



만성변비로 피부가 거칠

어질 때 -당귀+호마+울무

당귀 상품 500g 보통 9천원선+호마 상품 7000원선+울무 상품 5000원선=약 2만원. 당귀는 여성

의 만병통치약이다. 혈액장애로 인한 일체의 대사질환을 개선시키는 효능이 뛰어나 피의 흐름을 빠르게 유도, 피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준다. 또한 피부재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피부가 거칠고 윤기가 없는 사람이 복용하면 부드럽고 윤택한 피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100g정도의 당귀를 항균에 싼 뒤 뜨거운 물에 담갔다 약의 성분이 잘 우려난 뒤 몸을 담그면 혈액

순환이 잘되고 다리가 따뜻해진다. 호마는 들깨와 같은 씨인데 기름기가 있어 장을 축축하게 함으로써 변비를 막아준다.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주문을 허거나 소자, 살구씨로 대체해도 좋다.

머리를 맑게 해 영특하게 키우고 싶은 아이 -오미자



오미자 상품 500g 1만 8천원선=약 2만원. 오미자를 놓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오미자를 먹은 집단과 먹지 않은 집단에게 복잡한 계산을 시켰을 때, 먹

은 집단이 훨씬 계산 착오가 덜했다. 이것은 중추신경을 기분 좋게 흥분시켜주는 오미자의 특성 때문인데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면 지혜로움과 기억력이 높아지고 판단력이 강화된다. 물에 살짝 흔들어 씻은 오미자를 체에 받쳐 물기를 뺀 뒤 작은 손가락으로 넷 정도 되는 오미자에 물 네 컵을 붓고 끓인 뒤, 여기에 물을 조금 타서 하루에 서너 번 마시면 된다. 약을 다릴 시간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약방에 주문하면 팩으로 만들어 택배 처리해준다.

또다른 외국어, 북한말

북한	남한	북한	남한
가락지빵	도넛	색쌈	계란말이
가슴띠	브래지어	소리관	음반
가시집	처가	손기척	노크
건능길	횡단보도	얼음보숭이	아이스크림
고기떡	어묵	위생실	화장실
과일단물	쥬스	입쓰리	입덧
곽밥(밥곽)	도시락	증발머리	단발머리
기름사탕	캐러멜	직승기	헬리콥터
꿀신	슬리퍼	쪽잠	잠깐 자는 잠
달린옷	원피스	차미당	주차장
말밥	구설수	창문보	커튼
부루	상추	해방처녀	미혼모
사자고추	피망	헛말	거짓말

신세대들의 은어, 비난 이전에 우선은 알아야 될 것 아닌가?

· 은어 - 까리하다(괜찮게 생겼다), 날범생(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학생), 빵(기념식), 새근하다(예쁘다), 생까다(무시하다), 쏘다(한턱낸다), 얼큰이(얼굴 큰 아이), 짱(최고, 대장), 전따(전체로부터 따돌림받는 아이), 총잡이(주유원)...

· 통신언어 - 글쿠나(그렇구나), 안냐세요(안녕하세요), 멜(메일), 일케(이렇게), 방가(반가워요), 자찰(지하철), 샘(선생님), 셴(시험), 시로(싫어), 중고당방(중고등학생 대화방), 설사는 여고당만(서울에 사는 여자 고등학생만).... 쫓쫓쫓하는가?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도 "요즘 녀석들은... 쫓쫓"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X, Y, Z에 이어 나타난 N세대, 그들에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들은 우선, · 간섭을 싫어하는 강한 독립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그저 주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으려는 적극성에서 나온다.

· 이들은 사회적으로 배타적이 아닌 포용성을 갖고 있다. 이들의 작품과 인터넷 가상사회의 국제적 참여는 그들의 정보 추구나 활동, 커뮤니케이션이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 N세대는 자신들의 생각이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고 생각한다. N세대는 그들이 생각과 행동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의문시되는 것에 분개한다. · 그들은 선택에 있어서 항상 근거를 갖고 있다. 심지어 전구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환경/에너지 문제, 조도, 와트수, 그리고 상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한다.

· N세대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테스트 사용을 원한다. 그들은 전문가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를 거부한다.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이 되어 있는 회사제품을 선호한다.

Net Generation, N세대. 그들은 디지털 기술, 특히 인터넷을 아무런 불편없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이 구성하는 가상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는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세대이다.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어린아이에게서부터 20대에 막 접어든 청년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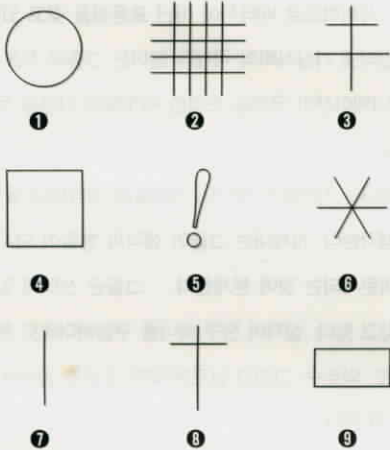


당신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여기 9개의 그림이 있다. 그림을 보는 순간 떠오른 느낌을 적으면 되는데 반드시 '형용사'로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예쁜, 재밌는, 심심한 등등.

이 9개의 그림을 놓고 가볍게 해치우는(?)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이 넘도록 찢쩍대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자아상이 불투명한 사람일수록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풀이>

① 세계관 ② 이성관계 ③ 자아관 ④ 이성이 자기를 보는 눈
 ⑤ 어떤사람과 친구하고 싶은가 ⑥ 성 ⑦ 미래관 ⑧ 죽음 ⑨ 초야
 만약 ⑤번 그림에 '명쾌한' 이라고 썼다면 당신은 명쾌한 사람과 친구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⑦번 그림에 '답답한' 이라고 썼다면 당신은 자신의 미래에 답답해 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문제1. 당신이 만약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게 되었을 경우 가슴에 몇 번을 달고 출전을 하겠습니까?

- (1)0번 (2)1번 (3)2번 (4)3번 (5)7번 (6)99번 (7)100번

문제2. 당신과 남자친구가 만나서 걸을 때 다음 중 어떤 모습으로 잘 걷는가?

- (1)팔짱을 끼고 걷는다.
- (2)서로 손 깍지를 끼고 걷는다.
- (3)그의 손가락 한 개를 꼭 잡고 걷는다.
- (4)그가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걷는다.

문제3. 갑자기 여유가 생겨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애인은 지금 집에 없다는 자동응답기의 대답이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까?

- (1)생각할 것도 없이 메시지를 남긴다.
- (2)여유가 있기 때문에 노래 한 곡을 메시지로 남긴다.
- (3)시를 한 소절 읊는다.
- (4)그냥 전화를 내려 놓는다.



<풀이>

문제1.

(1) '0번' 이라고 대답한 당신은 여성적이며 조금은 남다른 점이 있는 사람. 독창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을 남 앞에 내세우지 않으며 소극적이고 욕심이 별로 없는 타입이다.

(2)당신은 무엇이든 '일등' 또는 '첫 번째' 가 되고 싶어한다. 남성적인 성격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것은 서투르지만 건강미 넘치는 스포츠맨이 타입.

(3)협조적이며 의족적인 사람. 자동차 경주와 같은 경쟁의 상황에서 처음부터 2번에 만족하는 것은 본래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그보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4)당신은 결속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는 속담도 있듯이 3이라는 숫자는 세

사람의 결속을 의미하기 때문.

(5)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 '럭키세븐' 을 연상하면서 행운의 여신이 언제나 미소지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6)항상 무언가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지? 99는 하나가 모자라는 100! 무엇이든 한 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다.

(7) '100번' 은 백점 또는 만점을 연상케 한다. 이 번호를 선택한 당신은 경주에서 이기든 지든 이미 자기만족을 하고 있다.



문제2.

(1)만약 그가 어깨에 팔을 올리고 "무엇을 먹을까?" 라고 물어 온다면, 당신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었어도 당신에게 맞추기 위해 말하지 않는 사람. 만약 당신이 그런 그에게 쯤대가 없거나 개성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2)그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꽤 생기가 있고 자신감에 넘치지만 일단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연상의 사람이나 여자친구에게 울면서 안기는 타입이다. 그와 잘 사귀려면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다' 는 의지를 명확하게 해둘 것.

(3)데이트 상대로는 그다지 좋은 파트너가 아닐 확률이 크다. 특히 그가 꾸뻑꾸뻑 눈치나 살피는 사람이라면 문제는 심각. 어느 손가락을 잡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집게손가락은 리더십. 약손가락은 치료. 새끼손가락은 영감(靈感)을 의미하며,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은 성적의미를 가진다.

이 다섯 개의 손가락 중에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그러나 손가락 한 개만을 쥐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상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4)그는 의존형. 연애하기에 가장 골치 아픈 상대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친밀감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남자라면 바로 헤어지는 편이 좋다. 그와 만나면서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남자로부터 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가' 를 생각하게 한다. 만약 정말 헤어질 수 없다면 그의 장점에 눈을 돌려보도록. 세상에 완벽한 파트너는 없다.



문제3.

(1)그는 장래성이 충분히 보인다. 그러나 이 장래성은 출세, 거물 등등처럼 거창한 것은 아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가정은 걱정없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다.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당신이라면 남편감으로 무난.

(2)여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집을 비운 것을 야단치며 부르는 노래이다. 사회적으로 무난하게 생활하고 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당장 걱정은 없다. 하지만 그는 결점 투성이의 남자다. 심리학적으로는 욕구불만이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의 성격을 잘 이해해 주고 이끌어준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다.

(3)이 타입은 욕구불만을 잘 견뎌내지 못한다. 그는 어린시절 응석받이였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막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부모를 앞세우거나 친구를 앞세우려 한다. 그의 출세를 원한다면 우선 그를 사교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도록 한다.

(4)고집스러운 남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바로 성질을 부린다. 그가 전화를 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집에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 질투심 또한 매우 강하다. 당신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면 '집에 몇시에 들어왔어?', "누구와 만났어?" 등 꼬치꼬치 캐묻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이하영 (자유기고가, 12h98@moya.net)



카오스의 날개짓

그 동안 서구 이성은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 이라는 신앙과도 같은 미신을 받아들여 왔다. 과학자들은 충분한 자료만 있다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다. 심지어 이 세계에는 애매모호한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미래의 일도 과거의 일과 마찬가지로 분명해질 것이라는 믿음도 품고 있었다. 예를 들어 라플라스(P. S. Laplace)는 '모든 운동체의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하였다.

『카오스의 날개짓』은 이러한 서구 과학의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근본적으로 완전합리성에 대한 미신을 거부하는 지식의 흐름인 복잡계 과학을 쉽고 명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다. 오늘 서울의 거리를 날아다녔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내일 뉴욕에 폭풍우를 야기할 수도 있다(나비효과)는 것처럼 단순한 모델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우리 주변의 무수히 많은 복잡한 관계의 연결망이 복잡계이며, 이런 복잡한 대상에서 일정한 패턴을 감지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복잡계 과학이다.

새롭게 등장한 과학이론인 복잡계 이론은 단순히 자연과학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완전합리성에 근간을 두었던 모든 인문학의 영역에까지 해석의 범주를 넓혀, 지금까지 절대적으로만 여겨져 왔던 서구의 과학·철학·종교·역사관 등의 한계를 지적한다. 단순 모델로 복잡한 현실을 재단하려 했던 과학은 그것이 자연과학이건 인문학이건 해석의 기초에서부터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복잡계의 눈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운(김영사, 1만2900원)

조직의 창의성

21세기 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창의성이 필수적임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자신의 잠재력만큼 창의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조직의 창의성』은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다루어 지지 않았던 '기업 창의성' 또는 '창의성 경영'이라는 주제를 풍부한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기업 창의성의 본질을 밝히고 있다.

저자 알란 로빈슨과 샘 스티븐은 전 세계의 기업들을 상대로 수집한 자료와 생생한 실례를 토대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창의성에 대한 선입견과 신화의 베일을 벗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다 창의적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를 여섯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영국항공, 아메리칸항공, 듀폰, GM, 홀마크, 휴렛팩커드, IBM, 코닥, 제록스, 3M, 유니버설영화사, 일본의 동일본철도회사, 유기자루시유업, 후지쯔, 이데미쯔 코산, 그리고 소련 기업의 상세한 실제 사례를 통해 개선과 혁신이 실제로 조직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창의성이 어떻게 경영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알란 로빈슨·샘 스티븐 (장재윤 외 옮김, 지식공작소,

9500원)

중국 교육사

우리 교육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창조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이웃의 교육발전 자취를 탐구하고 분석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발견하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통하여 현재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탐구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문제에 대한 지혜의 눈을 뜰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술할 때, 바로 중국역사가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역사의 발전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한국 역사의 올바른 이해와 역사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거 중국교육의 발전사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사를 탐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지역 (책사랑, 1만2000원)

저 아이에겐 뭔가 특별한 논리가 있다

저 아이에겐 뭔가 특별한 논술이 있다

초등학생 아이들의 논리, 논술 실력 향상을 위한 논리학습서 2권.

『저 아이에겐 뭔가 특별한 논리가 있다』는 생활 속에서 논리를 찾아내는 방법, 즉 무엇이든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안에서 논리를 찾아보는 버릇을 길러 주는 책이다.



바로 곁에 있는 논리들에서부터 생각을 키워 주는 논리들, 기령 연역법, 귀납법, 앞뒤 맞추어 증명해 보기, 짐작해 보기, 미루어 생각해 보기, 찾아보기, 꼼꼼하게 생각하고 건너기, 정확하게 뒤집기, 고쳐보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도와준다. 한편, 『저 아이에겐 뭔가 특별한 논술이 있다』는 즐겁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실전 논술에 관한 책으로 위인전이나 동화 속에서, 생활문이나 전래 내려오는 옛이야기 속에서 숨은 뜻을 찾아내고 나름대로의 오류를 발견해 내는 일을 통해 내가 작가라면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 주며, 널리 알려진 동화를 내 식대로 개작해 보는 등, 정돈된 사고를 정돈된 글로 써내려 가는 일은 이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최지숙 (두산동아, 6000원)

책 읽어 주는 엄마가 자녀를 성공시킨다

어린이 독서 지도서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큰 차별점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엄마의 적극적인 독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독서지도의 가장 특별

한 방법이 바로 책을 읽어 주는 것인데, 흔히 책을 읽어 준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림책 정도를 읽어 준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책을 읽어 주는 것은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 독서지도의 실재는 아이로 하여금 독서를 하나의 생활로 인식하게 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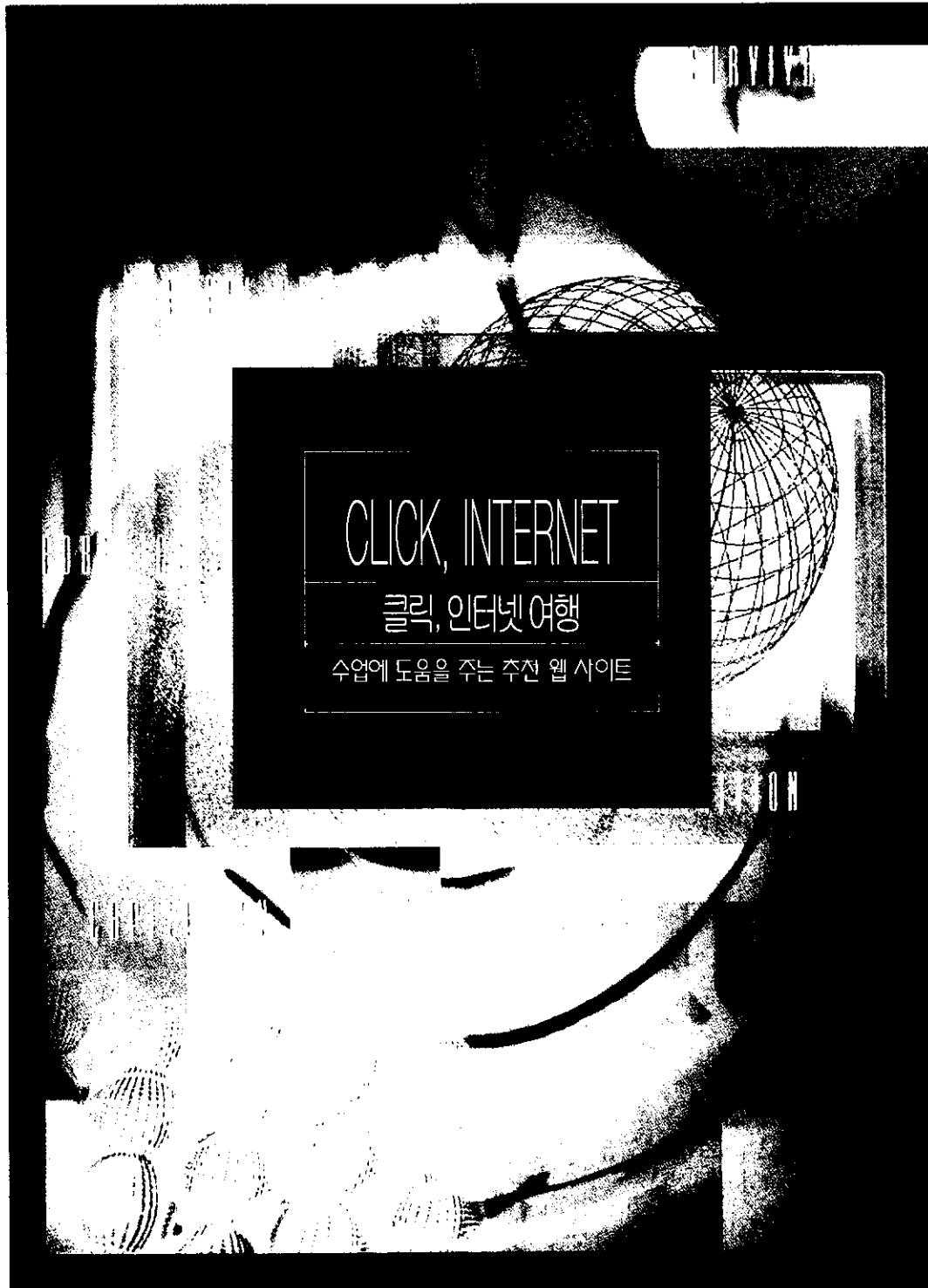
기존의 독서 지도서가 일반적이고 개론적인 지도서였다면, 이 책은 실제로 아이들 나이에 따른 워크북의 개념으로 실생활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독서와 관련지어서, 보다 실천적이고 쉽게 자녀의 책 읽기를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독서 지도서라는 개념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저자 버니스 E. 켈리언 박사의 새로운 독서지도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한 독서 지도서의 구체적 방법론이 바로 책 읽어 주는 엄마에서 출발한다는 주장이 이 책의 핵심인 것이다.

버니스 E. 켈리언 (최진 옮김, 대교출판,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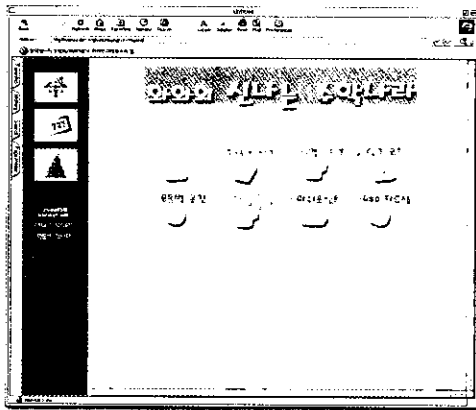
Click, Inter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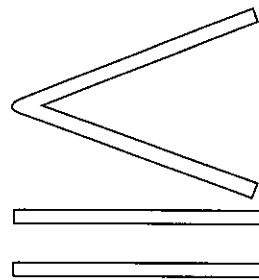
외와의 신나는 수학나라

<http://www.salesio-gh.ed.kwangju.kr/~jyjang>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만들어 가는 홈페이지로 학습자료실에는 각 단원별 요점 정리 및 다양한 유형의 수능 문제가 가득하다. 수학의 기초개념들을 이야기 형태로 재미있게 꾸며놓아 쉽고 흥미가 있다. 또, 수학경시 대회 및 올림피아드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 수준 높은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모듈별 학습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웹상서 모듈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학습과정안이 준비되어 있어 멀티미디어를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교사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Click, Inter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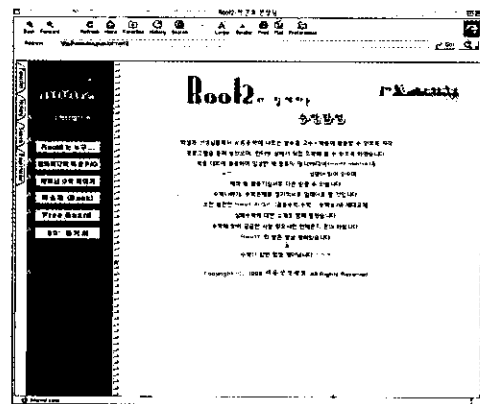
이근호의 수학탐험

<http://home.daeyu.co.kr/~root2>

"수학!! 알면 엄청 재미납니다."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공통수학에 나오는 함수를 교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작 프로그램을 올려놓았으며, 인터넷 상에서 직접 조작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세 종류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고, 제작 및 활용지침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다양한 수학이야기, 수학문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어 딱딱딱한 내용들을 만날 수 있고, 출판한 Root 시리즈(공통수학, 수학 I, 수학 II)와 세대교체 수학에 대한 소개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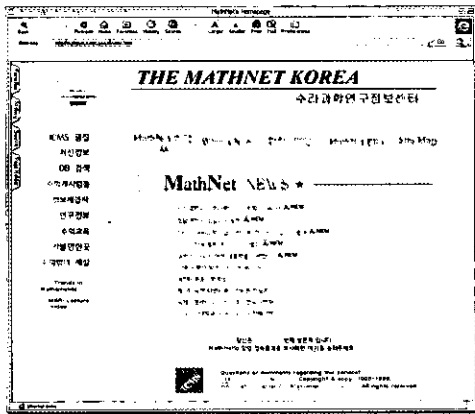
Click, Internet

mathnet

<http://mathnet.kaist.ac.kr/index.html>

한국과학기술원 수리과학연구정보센터(ICMS)에서 제공하는 수학관련 인터넷 서비스로서 수학과 관련된 사이트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는 곳이다. 수학백과사전, 수학교육, 수학경시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백과사전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수학 관련 사이트들의 소개가 훌륭하여 수학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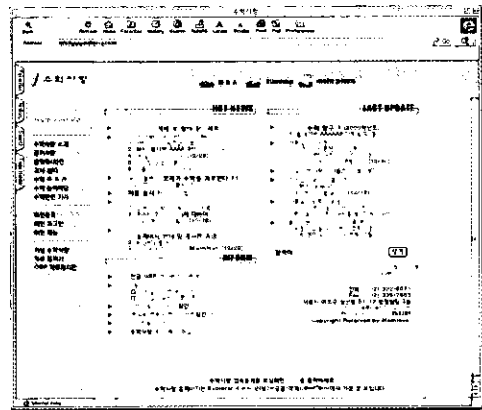


수학사랑

<http://www.mathlove.co.kr>

수학의 대중화와 수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현직 교사들이 모여 활동하는 모임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수학을 좋아하면 누구나 환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는 좁게는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나 교구에서, 넓게는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쓸 만한 자료나 교구 개발에 대한 안내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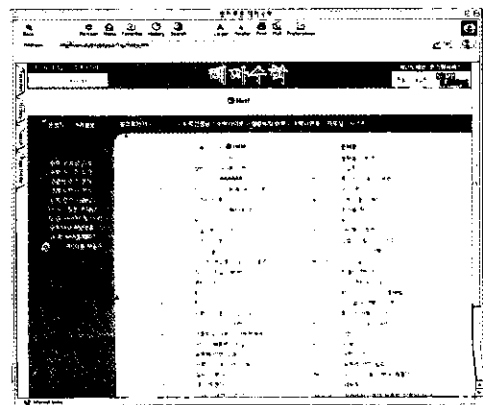
자료실에는 '수학사의 미스터리'나 '마방진' 등의 수학 읽을 거리, '편견을 이겨내고 재능을 빛낸 여류 수학자' 등의 수학사 읽을 거리가 담겨져 있다. 또 GSP 자료 게시판에는 시험문제에 사용되는 도형 그림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크립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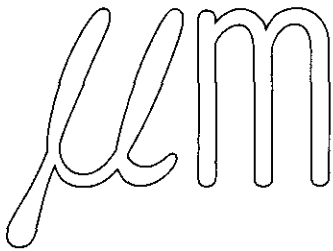


테마가 있는 수학나라

<http://www.mathland.p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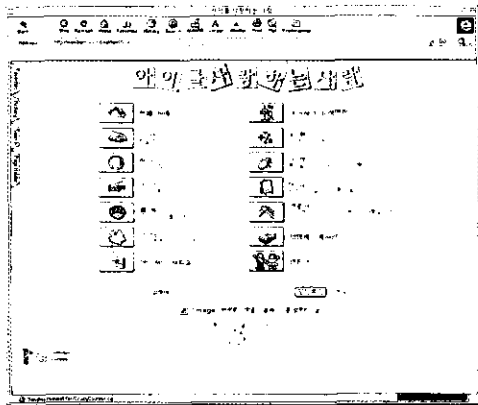
수학나라를 다녀간 많은 사람들이 강력 추천 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홈페이지이다. 테마가 있는 수학, 수학 선생님 소개, 수학 사이트 소개, 생활 속 수학문제, 세계 수학사 연표, 수학 관련 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마가 있는 수학 코너에서는 '철학과 수' 등의 흥미로운 테마를 선정하고, 그와 관련된 수학 역사 속의 일화나 읽을 거리를 엮어 놓았다. 수학은 계산이라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코너이다. 수학 선생님 소개에서는 일선 수학 교사들의 알차고 짜임새 있는 홈페이지를 많이 소개하고 있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이용호 김선영 사이트
<http://members.iWorld.net/lee9501/>

초등학교 부부교사인 이용호 선생님과 김선영 선생님의 홈페이지로 인터넷 교육을 위하여 어린이(초등학생)들을 위한 사이트 목록들을 모아 꾸민 웹페이지이다. 수학뿐만 아니라 교과목 별로 나누어 한글 사이트만을 모아 놓았는데, 어린이들이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수학 문제 은행에서는 초등 전학년의 문제가 수록되어 있다. 또 이야기 속의 숫자 나라, 재미있는 수학, 조이넷 수학, 즐거운 수학 등의 사이트 등이 링크되어 있다. 가나다 순서로 자료 찾기가 가능하도록 훌륭하게 꾸며져 있으니 꼭 방문하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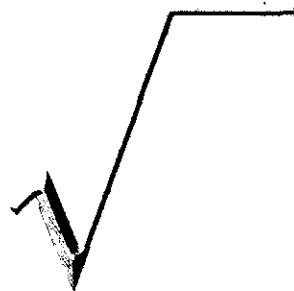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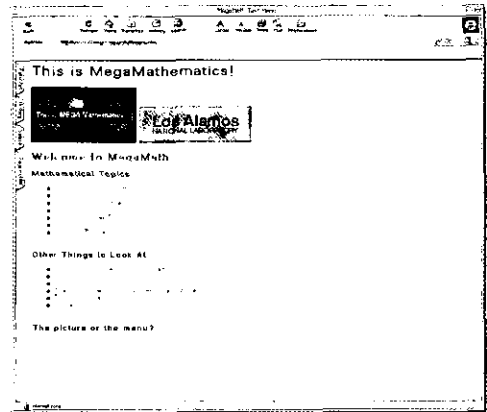
MegaM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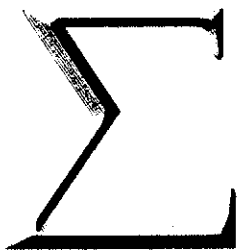
<http://www.c3.lanl.gov/mega-math/menu.html>

수학 최첨단 분야의 독특하고 중요한 개념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색깔 채우기나 매듭풀기, 일상생활 속의 수학 등 흥미로운 코너들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코너는 어린아이들도 재미있게 쫓아다 보면 수학적 개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색깔 채우기에서는 나뉘어진 도형들의 색을 칠해가면서 수개념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그래프 게임에서는 그래프 개념과 그래프의 이용 등에 대해 게임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코너는 "커다란 그림(Big Picture)"이라는 선택그림이 있으며, 해당 부분을 클릭하면 활동 안내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경험해볼 수 있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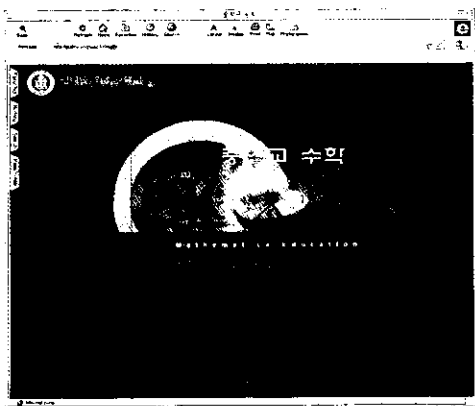


중학교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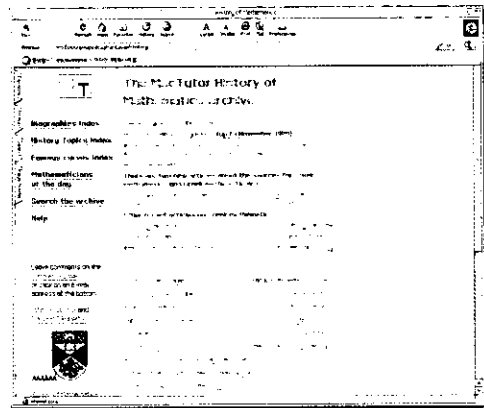
<http://math.kongju.ac.kr/math/>

중학교 수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전자교과서를 활용한 사이버 중학교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 학습내용, 평가문제, 용어사전, 정보검색, 수학 이야기, 자바학습자료 등의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집합,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등의 중학교 교과서와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코너에서는 각 단원별로 기본문제, 실력문제, 도전문제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이를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어, 수준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바학습자료 코너에서는 자바로 만든 애플릿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웹 상에서 직접 학생들이 구현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이버 학습이 가능하다. 수학 이야기 코너에서는 수학자, 단원, 수학사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Click, Inter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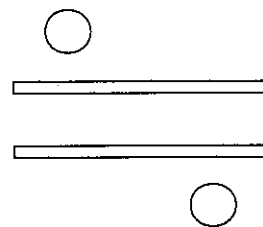


MacTutor History of Mathematics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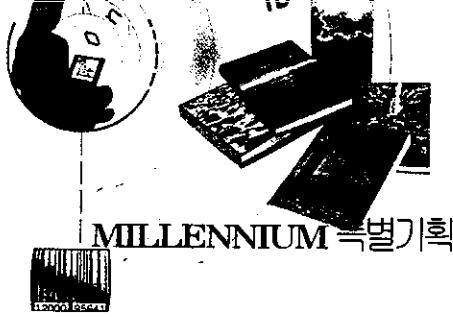
<http://www-groups.dcs.st-and.ac.uk/~history/>

수학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꼭 한 번쯤 방문해볼 만한 사이트이다. 수학자 1,000여 명의 전기를 담고 있으며, 지도에 나타나는 각 출생지를 통해서도 수학자를 찾을 수 있다.

특정 날짜에 출생하거나 죽은 수학자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그의 일생·업적들을 담고 있어 수업에서 날짜별로 수학자를 소개하거나, '학년 수학 신문' 만들기 등에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수학교육에 관한 상을 여러 개 받았다. 대표적인 함수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바로 제작되어 사용자와 상호작용 학습이 가능하다. [34]



정용재(서울 투산초등학교 연구부장, pjyjpj@netsgo.com)



새 세기에 바라는 한국 교육, 각계 인사로부터 듣는다



교육도 '상품' 이다

공병호 ((재)자유기업센터 소장, www.gong.co.kr)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 분야를 개척한 노학자가 있다. 그는 최근작 『21세기의 지식경영』에서 지식근로자의 시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바가 있다.

"20세기에 경영이 기여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진실로 고유한 것은 제조 분야에서 '육체노동자의 생산성'을 50배나 증가시킨 사실이다. 21세기에 경영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식작업(knowledgework)과 지식근로자(knowledgeworker)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0세기의 회사가 보유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그 회사의 생산시설이었다. 그러나 기업이든 비기업이든 간에, 21세기의 기관들이 보유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그 기관의 '지식근로자'와 그들의 '생산성'이 될 것이다."

과연 학교는 경제와 무관한 집단인가

사람이란 인적자원은 앞으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특히 인적자원은 현장 경험과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도 그 질이 향상되지만, 애초에 그 기초를 만들어 주는 곳은 정규 교육기관들이다. 이런 면에서 한 사회가 어떤 교육 체제를 갖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교육제도는 몇 년 간격으로 부분적인 변화를 계속해 왔지만, 예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비교적 외국을 둘러볼 기회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현재와 같은 교육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떠났다. 아마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와 중·고교 유학이 자율화되면, 더욱 많은 아이들이 미국·캐나다·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로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간의 시스템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경제와 디지털 혁명에 힘입어 지구촌의 유목민(遊牧民)화는 더욱 촉진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계 각국이 금융 및 인적자원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보다 치열한 경쟁 체제 속으로 휘말려들게 분명하다. 얼마 전 뉴스위크지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개혁이란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다.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사례들을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그 중 흥미로웠던 것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각각 자국에 시카고 경영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홍콩을 누르고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 유치라는 쾌거를 기록하였다.

얼마 전 싱가포르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들 수 있었다. 시카고 경영대학원, 프랑스 명문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AD),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경영대학원, 그리고 하버드와 MIT의 분교까지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 나라도 이제 글로벌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만일 초·중·고교 및 대학 등을 경제적 개념과 무관한 신성개념, 혹은 경제 외에 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지닌 예외적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큰 곤란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입증하는 충분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 예로,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미국 명문대학을 나온 젊은이와 한국어에 익숙하고 치열한 입시 관문을 통과해서 한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학생들 사이의 초입은 대개 3~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확연히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학부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옛날에 우리네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이들을 서울로 보냈던 것처럼, 이제는 미국·영국 등으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할 게 분명하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의 경고를 새겨들을 만하다.

"모든 조직은 국제경쟁력(global competitiveness)을 전

략적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또는 병원이든 간에, 어떤 조직도 해당 산업의 세계적 지도자들이 설정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를 수 없다면, 세계 어디에서 사업을 하건 간에 성공은 커녕 생존조차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교육 문제 푸는 지름길, '학교도 상품'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교육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게 될까? 교육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교육 역시 하나의 상품이자 서비스라고 생각해야 한다. 질 좋고 값싼 상품은 언제 나오게 되는가? 생산자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상품을 고를 수 있을 때,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 교육도 그러한 시장경제원리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가격이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있고 학생 수로부터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교육부란 거대한 관료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곳에선 어떤 실험도 일어날 수가 없다. 모든 혁신과 개선은 실험정신과 청년정신이 일어나고 발휘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본래 시장경제의 장점은 좋은 것을 향해서 한발 한발 찾아가는 일련의 '발견적 절차(discovery procedure)'에 있다 할 것이다. 획일적인 규제가 작동되는 곳에서는 발전이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불행히도 우리의 교육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주의화·관료주의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똑같은 상품이 소비자의 기호에 관계없이 제공되며, 소비자인 학생들에겐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똑같은 상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새로운 상품을 공급할 인센티브가 없다. 소비자들은 몇십 년 전의 교육방식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저항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만난 모 대학의 대학원장은 "적어도 대학교육은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시장 수요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명씩 대학원에 신규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한탄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가 있는 팔로알토의 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냈던 어느 분은 같은 학년 내 학급 사이에도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유능하고 열성적인 선생님이 지도하는 반에는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기부나 기증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학생들 사이에 선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경쟁 체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교육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지는 주장은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심히 불경스러운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교수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때로는 교육관료를 위해서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그런 교육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교육소비자들은 처음에는 항의(voice)하겠지만,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탈출(exit)해 버릴 수도 있다. 이미 이런 조짐들이 우리를 주변에서 쉬쉬하는 사이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의 교육문제를 푸는 지름길은 '교육도 상품이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출발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교육에도 '소비자 주권'이란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어느 중학교 선생님께서 계시는 분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열린 교육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열린교육이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폭을 넓혀서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혁 운동이다. 열린교육의 바탕에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 오늘날 교육은 과거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소비자 중심의 교육이 바람직하다 하여 현실이 모두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교육에서 소비자주권의 회복은 다양한 교육 상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관(官)의 지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실질적인 의미의 사립학교가 생겨나야 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사학의 재

정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같은 전제조건이 만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으로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완전히 영어로만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기숙학교(boarding school)가 생겨나야 한다. 이런 학교들이 국내의 여러 곳에도 생겨난다면 멀리 외지까지 굳이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의 수는 한층 줄어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 책정과 인허가 등 학교운영과 설립에 있어 학교측에 충분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소비자주권과 선택의 자유는 당분간 큰 힘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시민 다수가 교육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주장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신성한 그 무엇이란 생각을 고수하는 한, 한국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점차로 교육의 경쟁력을 상실해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인재란 선택가능한 교육에서 나온다. 선택가능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치열한 경쟁압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미루어 볼 때, 최근 들어 교육개혁이란 이름하에 실시되고 있는 각종 개혁들이 과연 제대로 된 올바른 개혁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변수는 교원노조의 탄생이다

본래 노조는 이익단체이다. 누구의 이익인가? 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다.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른 많은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이익이란 이름하에 일부 노조지도부를 위한 단체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사의 이익은 때로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익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 나라에서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노조는 기존 질서

의 유지를 바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연공서열을 중시하고, 다양화를 방지하고, 교직 사회에 원활한 신진대사의 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더더욱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타계한 일본 재계의 전설적 인물, 소년의 모리타 회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일본에 교원노조(일교조)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그는 일본에서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들을 외국으로 보내 공부시켰다. 물론 이 아이들은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였다. 필자는 한국의 전교조 탄생을 보면서 외국으로 아이들을 보내 버리는 학부모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의 경쟁력 향상은 시장경제원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할 때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만이 예외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교육에 집착할 때, 우리의 아이들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먼 미래를 보고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한다.

정치도 교육도 결국 '사람'이 관건이다

이상희 (국회의원, theeshph@chollian.net)

유독 정치만 변하지 않고 있다

한 국가의 나아갈 방향과 함께 이를 실현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정치계에서 담당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를 잘해야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고 정치를 잘못하면 국가가 한없이 곤두박질할 것이 예측된다. 물론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얽혀 유기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



에 어느 한 가지만으로 국가라고 하는 큰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보다도 국가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가 발전해야 국가와 사회도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세기의 문을 닫을 즈음인 때에 한국의 정치 현실은 어떤가?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에도 힘이 벅거울 지경이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새 천년인 21세기를 대비하는 데 소홀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환경 등 다른 분야는 그나마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경쟁 체제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계만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쟁점에 파묻혀 있는 것이다. 정치계의 이러한 현상은 다르게 본다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정치 지도자를 교육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실패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 사회와는 달리 새 천년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할 조짐을 그 전부터 보이고 있다. 국제 사회가 이념보

다는 경제가 우선인 세계화로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급속하게 정보화 사회로 틀을 이미 바꾸었으며, 지구 환경에 대한 인류공동체적인 관심과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의 확대 등이 21세기인 새 천년에 일고 있는 거대한 변화이다.

21세기 새로운 사회의 지도자는 이러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희망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해 제시한 비전이 실천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현 정치계나 경제계에서 나서야 되지만, 미래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미래에 활동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사회인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밀어줄 줄 아는 대중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교육을 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 교육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 전망에 따라 펼쳐질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재 양성의 방향도 현재 필요한 인력보다는 21세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80)나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1984, 1990) 등이 예측했듯이 정보 사회가 될 조짐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제3의 물결인 정보 혁명은 컴퓨터와 전기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의 가치가 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 혁명에 의해 사회, 경제, 교육 등 생활 양식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새로운 단계의 사회로 전환될 것이다. 정보 혁명에 의해 전환된 사회는 집중화보다는 분산화가,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권이 더 보편화되어 다원적이며 작은 규모의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비자 위주의 생산 활동과 노동자 위주의 직업 및 작업 환경이 특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화된 직능 집단이 급속하게 분화

되고 직종의 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되어 직업의 전문화와 다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전문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력, 조직력, 정보 탐색 능력, 표현 능력을 갖춘 다수의 전문적 엘리트가 창의적 생산을 상호 보완하는 인력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공통적인 교과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각자의 적성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더욱 커져야 할 것이며, 일정한 연령이 되면 배우기 시작해서 똑같이 끝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지식과 직업에 대한 교육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라는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사이버공간 속에서도 학교에서의 교육과 같이 정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인재양성이 교육발전의 핵심이다

위와 같은 미래를 대비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교육의 모습 중에서 변화되거나 버려져야 할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교육 환경의 문제이다. 해방 후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교육 환경으로 과밀학급과 교실 등의 교육시설 부족과 함께 IMF로 시작된 교사 수의 부족이 21세기에도 계속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학교교육의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질 높은 교육을 바랄 수 없지 않겠는가?

둘째는 교육 환경을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국가의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가 교육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총생산액의 6% 정도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셋째, 경직된 교육제도에 의한 교육 정책의 방향과 교육

행정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국가가 계획하고 관리하는 국가주도형 교육 제도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났으며 드러나고 있다. 교육 과정의 결정과 운영, 입시제도, 수업 연한, 수업일수, 입학 및 졸업 자격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학교의 재량보다는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교육청 차원에서 지시되고 관리되는 경직성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유효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들을 수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학력의 질을 낮추고 창의성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평준화 정책이었음을 알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 빨리 영재교육진흥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영재육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교육 내용과 방법의 문제를 개선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교육은 입시 교육의 영향으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것으로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대학의 물리학과 입학생이 고등학교에서는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현재의 입시 제도 문제이다. 쉬워진 대학수학능력 시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은 오로지 암기 위주의 학습에 매달리고 있어, 고급사고력이나 창의적인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현 한국 교육에 자리잡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이는 현 문제점들이 기존의 기득권자들이나 기성 세대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안만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 해결책은 다른 시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교육의 방향은 21세기의 사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20세기의 정책이나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사회가 서

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정보화 사회라면 그 사회에 걸맞는 인력을 기르는 것이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방면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사람을 길러야 되는 것이다.

21세기의 사회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생명중심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면 그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교육의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수하고 도덕적인 지도급 인재의 양성은 개방적이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다.

21세기의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라 한다면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 국민으로서 바라는 바 미래의 유일한 희망은 미래 사회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교육을 행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0]

“강남의 굴나무를 강북에 옮겨 심으면 굴이 열리지 않고 탕자가 열린다”

이규태 (조선일보 논설교문)

한국의 인재 교육 방향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의 좌표 위에서 화살표가 놓여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21세기에 전개될 새 세상을 전망하는 데 문화인류학자 마카릿 미드의 문화발전 3단계론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서고금의 어떤 문명의 문화이건 전통문화단계에서 외래문화단계로 발전하고 다시 외래문화가 동일성 문화로 발전해왔고 발전해간다는 설이다.



우리 문화사에 적용시키면 19세기 개화기 이전 문화가 전통문화단계로 조상이 누렸던 모든 의식주 도덕 가치관을 고스란히 전승해야 인정받고 안정되는 단계다. 20세기에 들면서 쇠국정책에서 벗어나니 유럽 쪽에 우세한 과학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문명은 우세한 쪽에서 열세한 쪽으로 흘러든다는 원리에 좇아 서서히 외래화가 진행, 20세기말인 지금은 외래문화만이 절대적이라는 황금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의 굴나무를 강북에 옮겨 심으면 굴이 열리지 않고 탕자가 열린다는 중국의 격언이 있다. 같은 씨알인데 열매가 달라지는 것은 그 풍토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후 풍토뿐 아니라 의식주와 종교관과 윤리관, 그리고 가치관 등 전혀 다른 문화풍토에 외국 것을 고스란히 들여놓는다 해서 뿌리내릴 리가 없다.

꼭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질, 곧 특성을 그 나라 그 민족의 동일성이라 한다. 우리 한국인이나 한국문화에는 나름대로의 엄청나게 많은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 동일성을 추리고 가려 그에 해당된 외래문화를 절충 융합시켜 일구는 제3의 문화가 동일성 문화인 것이다.

19세기가 전통문화단계였다면 20세기는 외래 문화단계요, 21세기는 동일성 문화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도기에서 우리가 동일성화하는 과정에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면 문화식민지로 타락하고 말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바로 이 중대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문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거의가 겉이 노랑고 속이 흰 바나나 인간들이라는 데는 예외가 없다. 피부는 황색인종으로 노랑고 속에 든 것은 서양정신, 서양풍조를 선망하고 지향하는 백색 지향이다. 그리고 자신이 황색 인종인 것을 열등시하여 머리를 노랑게 물들이고 파란 콘택트 렌즈를 끼며 얼굴 피부를 하얗게 하는 데 온 정신을 쏟는다. 하지만 무섭게 좁아져가는 글로벌 사회에서 몇몇이 존재가치를 과시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거나 우리에게 특유한 자질이나 문화 문물인 것이다. 곧 겉도 노랑고 속도 노란 모과 여야 한다.

곧 21세기의 인재 육성은 바나나 인간들을 벗고 모과 인간들을 새로 짜야 한다. 동일성 교육을 자칫 외국문물을 배척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왕성하게 국제사회에 진출할 자질을 육성함으로써만이 동일성화가 가능해진다. 곧 글로벌 사회에 부화뇌동하여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동일성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요, 21세기 교육의 기본철학이 이에 있다고 본다.

이민 간 한국 어머니들의 말 못할 가장 크고 공통된 고충이 백인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놀아주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왕따당하고 있는 어느 한 한국소녀가 한국 아이들만이 가능한 공가놀이를 했더니 그 날로 백인 아이들이 앞다투어 놀려하고 스쿨버스에서 옆에 앉으려 했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곧 한국적인 것일수록 국제적이라 교훈의 구현인 것이다.

곧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길러주고 한국인, 한국문화의 국제적 과시와 진출에 자부하는 인성을 길러주며 평범한 어느 수준의 평균인간을 육성해온 여태까지의 교육을 탈피 개성에 맞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애니버디(Anybody) 아닌 썬버디(Somebody) 지향의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20]

끝까지 '영재'로 남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용수 (한림대학교 교수 · 과학독서아카데미 회장, thomas@ivi.org)



과학기술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강대국이라는 데도 이의가 없다. 과학기술력을 가진 나라들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나라들이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고 있지만 그들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보지 않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지식이 기반이 되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까지는 사회발전이나 경제성장이 천연자원이나 노동력 등 물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지식 · 과학기술 정보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물질과 에너지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보나 아이디어는 무한정이다. 무한정한 자원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사회를 우리는 지식사회라고 일컫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회의 문턱에 와 있다.

지식사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서고 있음을 실감케 해 주는 여러 가지 조짐이 나타나 있다. 최근의 지식의 양은 5년 단위로 거의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삼시간에 세계의 구석구석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이룩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및 이를 이용하는 것들이다. 산업혁명으로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 혁명은 물질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시켜 사회변화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정보통신혁명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머잖아 생명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큰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은 뻔하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과학기술도 과학기술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 사회 패러다임의 변혁을 주도하면서 국가혁신과 경쟁력 제고라는 최우선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영재가 필요한 이유는 자명하다.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분야의 기술이나 실력은 그 나라 평균값 비교가 아니다. 어떤 기술이나 제품 분야에서 국가간의 경쟁은 그 나라에 있는 그 분야 최고 실력자간의 경쟁에 의해 결판난다. 이를 위한 교육이 바로 영재교육이다.

천재리는 말보다 영재리는 말을 더 쓰는 이유는

우리는 사람을 흔히 재목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그래서 천재는 하늘이 내려준 재목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천재도 주위 환경이 나쁘고 타고난 재능을 잘 갈고 닦지 못하면 빛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차라리 영재란 말을 더 많이 쓴다. 영재는 하늘이 준 영성이다 주위에 의해, 자기의 노력에 의해 길러진 재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목도 타고

난 재질이 나쁠 경우 좋은 재목으로 자라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영재란 천부적 재능에다 이를 갈고 닦기 위한 주위의 좋은 환경과 자신의 분별 있는 도전정신의 합작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 천재성으로 양육되는가. 이 질문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심한 논란이 일고 있는 주제이다. 월슨 박사가 출간한 사회생물학이란 책에서 기원한 이 주제는 인간의 천재성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 인간이 영재로 크는가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서도 우수한 재능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또 동급내기보다 뛰어난 지적활동을 하는 어린이도 있다. 그들은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우수한 지능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반면 교육환경이 좋아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학교에서의 선두그룹에 드는 학생도 많다. 한때 서울의 강남학군이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것은 좋은 교육환경이란 평가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학생들은 다른 지역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었다.

“인간의 지능이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가, 문화의 지배를 받는가”라는 문제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유전자부호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기능까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논쟁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영재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반면 사회학자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영재성을 일찍 발굴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무엇인가를 성취코자 하는 본인의 의욕 등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제대로 된 영재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영재인가, 영재를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영재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재들은 비범하다. 이들은 대개 학업 성취의 진도가 빠른 사람, 학업성적이 좋고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탐구정신이 강한 사람, 어려운 문제나 퀴즈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또한 자발성이 강하며 창의적인 일에 관심을 쏟고 지적로나 정서적으로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긴다고 분석돼 있다. 또 비판적이거나 도전적이고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며 자긍심이 강해 때로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병적인 현상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들은 학교와 공부를 좋아하며 선천적인 열광스런 독서가였다. 특별활동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공하며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교사야말로 가장 귀중한 존재다. 부모가 아니라 교사에 의해 그 영재성이 발굴되고 육성되는 것이다.

영재를 찾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하늘이 내려준 영성을 잘 갈고 닦는 일이다. 교사, 부모, 형제, 이웃 등 주위의 사람은 물론 교육제도, 사회환경 등 후천적인 요소는 많다. 여기에는 교육적인 모든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동원되어야 한다. 교육의 전형적인 패턴이지만 보통교육과 차별화된 영재를 위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영재라고 인정받은 많은 과학자들은 비권위적인 교사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교사의 지도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성취목표에 대한 본인의 의식이 중요하다. 성취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교사나 부모는 성취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핵심적인 경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영재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에게 격려와 후원이 집중될 때 창의성은 훨씬 싹트기 쉽다. 그래서 영재는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경쟁이 있는 곳에 영재가 있다. 능력에 따른 상이한 학습코스와 경쟁이 있는 제도가 영재를 기른다. 속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실제로 영재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특수목적고를 만들고 진학반을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영재를 위한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일반교육을 성실히 시키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특수교육, 영재교육일 수 있다. 보편성교육이 빠져거리고 인성이 메마른 현실에서 영재들의 역할이 온전할 수 없다. 인간이 사는 사회가 천재들이 사는 사회가 아닌 이상, 그리고 그 사회구성원들 대부분이 모두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보통 사람이라는 사실에서 보편성 교육은 중요하다. 그것은 오늘날 절망스런 사회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참신한 교육으로 끊고 풀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뀔 수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교육이 받아들여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일반교육을 충실히 해야 그 위에서 영재성을 발굴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 많은 학자들은 합일하고 있는 점이다. 일부 외국에서도 한때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던 별난 영재교육은 보편성교육의 내실화, 충실화로 바뀌면서 그 속에서 영재를 기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된 인성 위에 영재가 있다

우선 10년 교육계획을 마련하자. 이것은 우선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다. 그 10년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을 하는 10년이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고 봉사정신을 배우는 기간이다. 주위를 깨끗이 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인사, 잘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인성에 교육의 중점을 두는 기간이다.

전인교육의 기간이며 또한 영재성의 발굴기간이기도 하다. 이는 교사의 책임이 크게 강조되는 교육이며 이들에게는 최고의 물질적인 보수와 사회적 대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권을 확립하며 그래서 미

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인성이 황폐한 위에 직업교육이, 대학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고등학교 교육은 소양교육을 기초로 자신의 장래의 진로를 모색하는 전문성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여러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을 얻고 이를 개념으로 이해하여 그 분야의 흥미를 돋워 줄 수 있는 기본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간이다. 대학교육은 고교보다 넓은 지식체계와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일할 전문분야를 통해 세상을 투영해 보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오늘 하루 먹을 빵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내일도 모래도 빵을 가질 희망이 없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은 오늘이 아닌 내일의 빵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를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미래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

미래는 그냥 예정되어 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바람직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영재를 찾아 키울 때 평안하고 부강한 사회는 훨씬 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미봉책이 아닌 과감한 교육개혁—인성을 먼저 키우는 10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영재교육이 필요할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현재의 불안, 불만, 불건강한 오늘의 현실을 치유하려는 노력에만 매달려 있는 한, 그리고 그 해결의 방안이 모호한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미래는 없다. 훌륭한 미래는 지금 만들어야 한다. 지금 마련하지 못하는 미래는 항상 현재 상태로 남는다.

현재는 미래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면서도 다시 올 수 없는 절대적 시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을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이기도 하다. ☐

『교육개발』은 한국교육의 명쾌한 해답서임

불투명한 오늘의 한국교육, 세계의 교육현장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쾌한 해결책을 찾아냈고 『교육개발』은
그 사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당신의 열려늘,
『교육개발』을 읽는 중에 사라질것입니다.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Winter 2000 겨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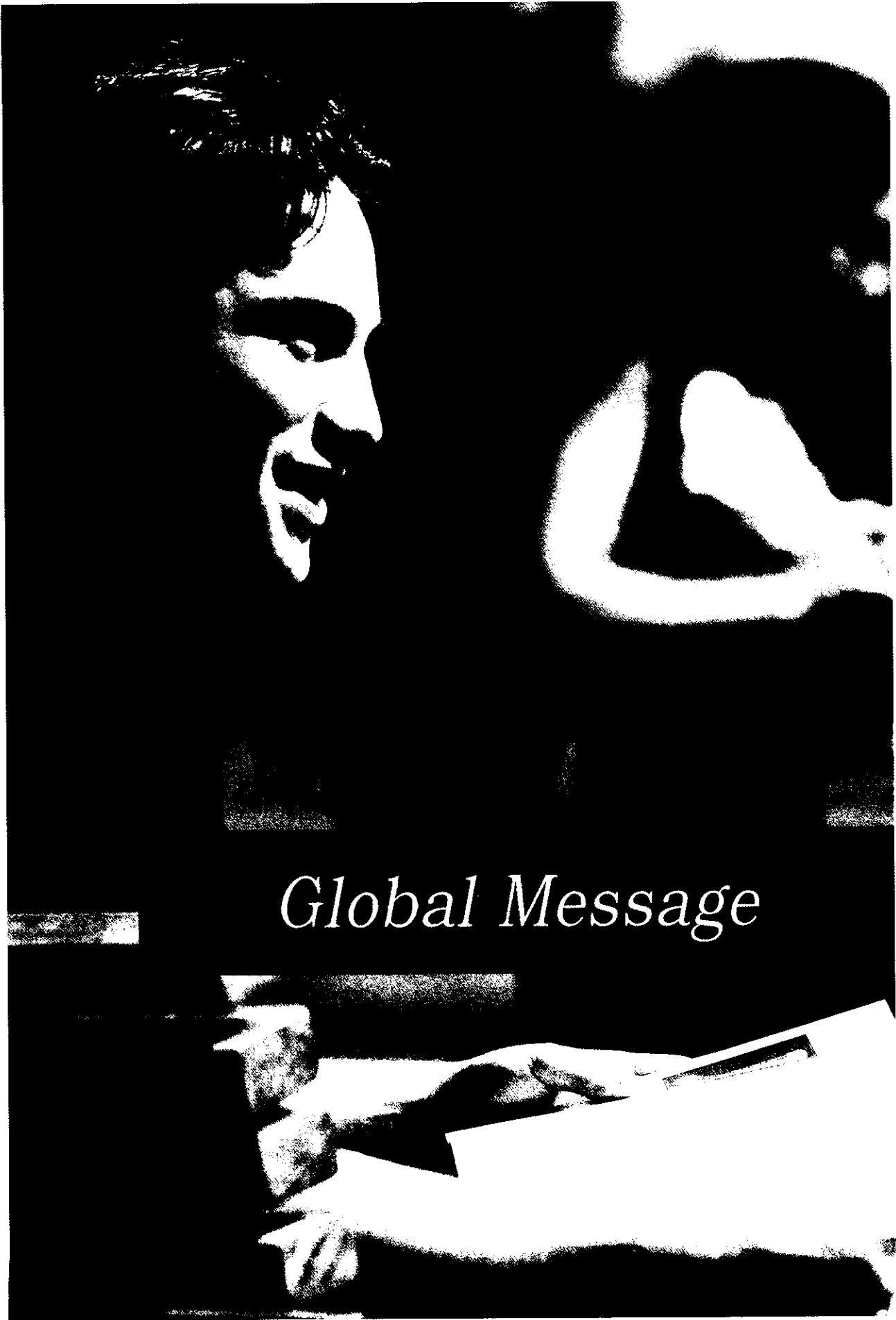
젊은이론
1999년 신교육의 교육정책
21C 21세기 교육의 미래
21C 21세기 교육의 미래
21C 21세기 교육의 미래

Millennium 특별
21C 한국교육의 비전(서기) 문제
새로운 사기 한국교육의 비전
기초교육 21C 교육의 비전

아시아 필레나
일본 21C 교육의 비전
중국 21C 교육의 비전
인도 21C 교육의 비전
미국 21C 교육의 비전

Information
Research Findings - 젊은이론의 비전(서기) 문제
중국어 및 영어의 비전
중국어 및 영어의 비전

한국교육개발원



Global Message

U.S.A.



1999년 이야기, 학교 폭력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부각된 우리 나라의 학교 폭력은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사, 학부모들에게 학생들 인전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함과 동시에 심적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를 근심 속에 몰아 넣는 학교 폭력은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특히 미국은 학교 폭력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가장 애를 먹이는 문제 중의 하나로 이미 레이건 행정부에서부터 큰 과제로 떠올랐고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말 그대로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했다. 물론 일부 학교 폭력 연구가들은 일반인들이 학교 폭력의 실제 상황보다 부풀려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어찌되었건 미국의 학교 폭력은 교육 문제,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라면 약방의 감초처럼 단골로 등장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을 근절하려는 학교와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1999년 한 해를 길게는 한 세기, 한 천 년을 달는 이슈(issue)로, 1999년 한 해만 해도 벌써 두 번째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가 전국을 온통 들쭉서 놓았다.

첫째로 지난 봄 콜로라도주에서 평상시 소위 왕따로 다른 학생들의 따돌림을 받아오던 고등학생 두 명이 총기를 가지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 난사하는 바람에 많은 총 15명의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 사회가 경악한 바 있다. 이는 간간히 일어나는 학교 내의 총기 사건과 학교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보여 주면서 학교가 더 이상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각성과 비난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교사, 학부모, 행정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학교 폭력을 막을 것인가 하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했다.

U.S.A.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어야 할 학교가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일부 교육자들의 한탄 섞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은 학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를 포함하여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출입을 허락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학교들은 학교 내 곳곳에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일부 주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실내 출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여 방문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학생들이 등교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할 것을 의무화하여 총이나 칼과 같은 물건을 학교 내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자녀의 안전이 의심스러운 학부모들은 홈 스쿨링을 택하게 되었다. 각 지역구 교육 위원회와 학교들은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으며 아무리 미미한 폭력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제로 톨러런스(Zero-Tolerance) 정책 실천 의지를 한층 강화했다.

미국 전역의 학교들로 하여금 한 차례 큰 흥역을 치르게 한 쉽지 않은 문제인 학교 폭력은 잠시 잠잠하다 싶더니 1999년 가을 터진 고등 학생들의 주먹 싸움과 이에 대한 처벌로 인해 또다시 전국적인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콜로라도주의 총기 난사 사건과는 사뭇 다른 방향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콜로라도주 사건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학교와 교육 행정 관계자들을 강력한 폭력 추방을 의지 표방을 위해 부산을 떨게 했다면 일리노이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싸움은 학교 폭력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Zero-Tolerance)이 과연 폭력을 해결하는 옳은 방법인가 하는 것



과 처벌에 있어 공정성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9월 일리노이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여러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하던 도중 주먹질이 오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자 지역 교육위원회는 학교에서 주먹 싸움을 벌인 학생들에게 관중들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2년 동안의 퇴교라는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퇴교 조치를 받은 학생은 7명으로, 모두 흑인이었다. 많은 교육 구에서는 학생들의 단순한 주먹싸움에는 5~10일 정도의 정학 처벌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2년 동안의 퇴교 결정은 과중해 보이는데 대해, 관련자들은 바로 제로 톨러런스라는 정책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로 톨러런스 정책은 원래 1980년대 미국의 강력한 마약 퇴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던 것이다. 환경 오염, 인종 차별, 성 폭력, 오갈 곳이 없어 거리에서 밤을 세우는 홈리스 피플 등 사회 전반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마침내 1989년부터 학생들의 마약 소지나 폭력 집단의 연루를 추방하기 위한 방책으로 학교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마약, 무기, 폭력, 그밖에 학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처벌하기 위한 정책으로 미 전 지역의 교육 위원회가 이 정책을 채택했고,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이 총 없는 학교를 만들자는 법(Gun-free School Act)에 서명함으로써 공식적인 법률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미 교육부는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전체 공립학교 중 79 퍼센트가 단순한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94퍼센트가 총이나 폭탄과 같은 화기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에 대한 처벌을 위해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1년 동안의 퇴교에 처하도록 하되 각 사건에 따라 지역 교육 위원회의 교육장에게 처벌의 결정권이 주어진다.

이 사건이 제로 톨러런스 정책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지만 2년 동안의 퇴교 조치가 적정한가 하는 것과 또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체로 학생들의 싸움 빈도가 잦은 도시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처벌해다가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학생의 절반도 학교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과중한 처벌을 인종

차별적 차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싸웠다는 이유로 백인 학생들에게 2년 동안 퇴교를 시켰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과연 학생들이 백인이었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렸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축구 경기 도중의 주먹 싸움으로 2년 동안의 퇴교에 처한 학생들은 모두 흑인인 반면 이 결정을 내린 교육위원회의 구



성원 대다수가 백인이었기 때문이다. 2년 동안의 퇴교를 완전 철회하라는 극심한 반대가 만만치 않게 일자 지역 교육 위원회는 강경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모두 현영하면서 막상 정책을 실행에 옮길 때에는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2년의 퇴교 처벌을 1년으로 단축하고 그 기간 동안 이들 학생들을 일반 학교로부터 비슷한 처벌을 받은 학생들을 맡아 교육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협상안을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성직자이자 시민 운동가인 제시 잭슨은 학교 폭력에 대해 제로 톨러런스로 응하기에 앞서 사회적 불평등, 인종 차별, 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에 관한 편견 등에 대한 제로 톨러런스가 먼저 발휘되어야 할 것이라고 교육위원회의 해명에 반박하였으며,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는 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의 인격적 대우를 촉구함과 동시에 학생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것이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책의 제고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한 동안 이 사건의 여파와 학교 폭력에 대한 논의는 한동안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영주, 시카고〉

FRANCE



프랑스 고교생들의 거리시위

많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남달리 개인의 자유를 구가하는 나라, 그래서 크고 작은 시위와 파업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라가 프랑스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유명한 파업병이 어린 청소년에게까지 전염되어 이젠 고교생들마저 교실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를 하는 유일무이한 나라도 프랑스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월 30일 신학년 개학 이후 3주째 되는 날 목요일에 프랑스 전역에 걸쳐 약 15만 6천명에 달하는 고교생들이 길고 지루한 한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리운동도 할 겸 교육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일차 시위를 벌이고, 이어 10월 7일에는 전국 140여 개 도시의 고교생 10만여 명이 2차 시위를 벌여 일주일 간격으로 25만여 명의 고교생이 시위에 가담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시위는 꼭 1년 전인 98년 10월에 있었던 시위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1년 전 일어난 고교생들의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 알레그르 현 교육부 장관은 "교육현장 결점제로"를 외치면서 3천명에 달하는 교사증원과 두 배의 교실증설을 약속하고 시위학생들은 1년의 집행기간을 주면서 해산한 일이 있었는데 그 후 교육부가 개정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장관을 문책하기 위한 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시위의 주체는 1986년 최초의 고교생 시위 위기 이후 결성된 민주독립교연합(FDL)과 전국 고교생연합(UNL)으로 교사노조와 공립학교 학부모연합의 지원을 받았다. 시위

FRANCE

의 발단은 교육시설이 특별히 낙후된 프랑스 남부지방의 몇몇 실업계학교로부터였다.

프랑스 교육계 역시 교사부족, 낙후 교사시설 문제, 무거운 일과표, 다수학급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교사들의 오지근무 기피증과 지방자치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갈수록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 교사들의 병가 및 산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밀레니엄 기념 아이 날기 열풍까지 겹쳐 교사들의 수업결손이 부쩍 늘어난 상태로 적게는 15%에서 최고 30%까지의 결원이라고 교육청에서는 밝혔다.

특히 교원 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오지 학교는 휴직종원 강사확보가 어려워서 학생들은 교사 없는 자율학습을 빈번히 해야 했다. 이번에도 학생들을 거리로 내몬 요인을 살펴보면 선택 외국어교과의 정원초과로부터 보강되지 않은 수업결손, 교사청소원 부족, 학급당 인원이 37명씩이나 되는 다수학급, 실업학교의 나쁜 시간표와 구식 실험실습 기지재, 융통성 없이 비민주적인 학교행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연간 수업일수를 늘려 현재의 과중한 일과표를 줄여주며 학교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용 신기자재를 확보해 줄 것으로 요약된다. 학생들은 교육부의 단순한 개정약속보다는 구체적인 개정안과 실천방안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교육부의 태도가 미진할 경우 최후책으로 도시의 모든 입구를 차단하고 통신두절을 유발하여 "죽은도시만들기" 작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10월 7일자로 교육부장관이 상원국회에 교육개선방안을 제시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5천명에 달하는 신규교원 임용, 교내생활 안전지도원 1만 4천명 증원과 그에 따른 예산 4억 프랑(약 8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시위가 심각했던 남부의 지방도시 툴루즈에는 신규교원 200명을 임용 교원수를 즉각 증원하고 시위의 사발점이 되었던 기술 실업고교의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계 교육과정안 국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의 재평가와 수업 및 학습시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실업계 교사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업시수는 기업체

실습학생 방문 및 개인지도에 들어가는 시간을 빼고 정규 수업시간만 계산하더라도 주당 23시간에 이르고 있는데 18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개선책이다. 전국 기술실업계 학교 연합의 연구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안대로 실행하면 실업계 교원만 해도 약 8천명의 증원이 필요한데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개혁안이나 하는 의문의 소리도 높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또한 기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실업계 학생들이 기업체에서 하는 8주간의 실습에 대해 약정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00년도는 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처리를 우선으로 삼는 한해로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두어 차례의 고교생 시위가 항상 효과를 거두고 끝났듯이 이번 시위에서도 프랑스 고교생들은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다. 우리 나라 고등학생들로서야 죽어라고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국에 하라는 공부는 없고 거리로 뛰쳐나가 교육부장관을 두고 콩 보라 팔 나라 하고 요구사항을 내미는 것조차도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하여 학생들의 주장을 경청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프랑스 교육부의 태도도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민주주의 교육 행정이 아니겠는가. 고교생을 수동적인 어린 학습자로만 보고 무조건 옥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서 실제 교육환경에 직접 관련된 중요한 집단으로 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실천인 것이다.

또한 이곳 학생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신의 의견을 뚜렷



이 밝히도록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니만큼 고교생 나이쯤 되면 웬만한 어른 못지 않게 사회지각력과 판단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과 요구력도 강하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겠다.

하여간 전례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 고교생들의 시위현상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에 의하면 이 시위현상은 프랑스 교육부가 10여 년 전부터 실천해오고 있는 학생중심 교육행정의 결과로서 고교생들이 스스로를 사회의 주축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력이 강화된 데다가 학업의 성공과 완벽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교육현실에 의한 강박관념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와 실업에 대한 공포와 함께 어우러져 (현재 기술실업계 자격 소지자 중 53%가 직업을 못 구하고 있음) 학생들을 시위행동으로 몰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소비천국의 현대이념이 교육계에도 미쳐 교육의 소비화가 조장되면서 교육소비자인 고교생이 요구자가 되고 교육계 및 교사는 소비욕구의 충족자로 역할인식이 변화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교육에는 왕도가 없듯이 모두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정책도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교육행정자, 교육실행자, 교육소비자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으로 사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인간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제도와 모형을 함께 조금씩 찾아나가야 할 뿐이다.

이때 각자는 자신의 권리주장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의무수행을 먼저 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만 민주주의 교육 설립 목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가 추구하는 2000년대의 새 중학교상:

모두를 위한 중학교

지금 프랑스에서는 2000년이라는 새 천년 맛이를 기념하는 크고 작은 행사를 사회각계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얼마 전에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2000년대의 중학교'라는 주제로 전국적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초·중등학교 담당 총책임자인 세고렌느 로열 교육부 차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평등원리에 입각하여 1977년도부터 실시한 '유일 평등학교'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명목 아래 실제적으로는 학생개인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맹목적인 교육의 실시로 교육의 획일화라는 부정적인 결과

FRANCE

만 초래했을 뿐 원래의 목적에는 더 이상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교육부가 밝힌 중학교 개혁은 해마다 증가하는 낙제생과 심심찮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공동체 결성에 때를 맞추어 앞으로의 유럽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교육 설립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프랑스의 학교교육은 유일 평등학교 수립이라는 이념 아래 종래의 다양하고 천차만별이었던 중학교 교육과정을 계열 구분없이 획일화시켜 결과적으로 학습 수준과 능력이 서로 다른 학생들간의 개인차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학교들간의 서열까지 초래했다.

그래서 현 교육부는 "모든 것이 불평등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세금을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매기면 불공정한 처사가 되듯이 불평등 타파를 외치는 학교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육과정을 안겨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처사이다"라는 논지를 내세워 능력과 소질 및 기호면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고려하는 "모든 학생, 모든 능력을 수용하는 학교"로 전환하자는 개혁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프랑스 교육부는 중학교 교육개선책으로 학급 정원 감소에 주력하여 1980년도 학급정원 27.5명에서 1999년 현재 24.4명까지로 끌어내려 이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예전보다 높아진 청소년들의 자립심과 상대적으로 약해진 부모의 권위, 이혼과 재혼으로 인한 결손가정과 재구성 가정의 양산, 실업과 폭력 및 비시민성의 고조 등의 사회변이 요소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관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그 변화요인을 적극 수용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혁위원회는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식전달뿐 아니라 인성 및 관용을 기르는 교육도 함께 이루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개혁의 근간 목적인 학업낙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열 교육부 차관은 병은 뿌리부터 치료해야 한다는 신념을 보이면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정과 목적을 함께 개정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 읽기와 쓰기 아트리어를

FRANCE



운영하고 평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초등학교 개정의 사안이다. 특히 중학교로 넘어가기 전의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CM2)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CM2 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들과의 교육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년말에 CM2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별도로 측정하 뒤 두 학년 교사들이 만나 상호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중학교 1학년 담당교사가 새 학급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두 학년 교사간의 공동 연구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발표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교육부에서 개정내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실천방안을 간행하여 전국의 교사들에게 배부했다는 것이다. 현장교사들의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식적인 개정안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에 기인한다. 이번 개정에서 프랑스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초등과는 다른 중학교의 학급 및 학과목 운영을 소개하고 중학교가 목표로 하는 학습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힌 '나의 일지'라는 학교생활 안내서 겸 기록장을 나누어주어 새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는다.

둘째, 성적표 기록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현재 학습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내어 그 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새 성적표에는 전 학과목별로 개인의 취특점 뿐만 아니라 학과목의 최고점과 평균점을 기록하여 학생들 스스로 각 학과

목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과목 성취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상기 성적표 외에도 “능력표” 제도를 도입하여 중학교 전학년 동안 학생들의 개인적 자질과 능력의 발달을 기록한다. 기록방법은 2주일에 한시간씩 예정된 “학습생활 시간”을 통해 학생들 자신이 기록하도록 하여 자신의 행동 및 능력발달을 스스로 관찰 분석하고 교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학생대표단이 대표로서의 임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대표단교육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실제 학습 조직면에서는 실험학습이 필요한 일부과목들 사이의 연계학습지도와 초등의 CM2 학년 교사와 중1년 교사와의 만남과 합동연구를 촉진 활성화 시켜줄 자, 원봉사식의 ‘협력교사’ 제도 설치 등의 방안도 발표했다. 이 두 계획안은 현직교사들의 임무중가라는 이유로 교원노조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학업낙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약 5퍼센트에 이르는 학업성취수준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끌어올리기 작업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지원수업’으로 중학교 1학년생은 주당 6시간, 2학년생은 주당 3시간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학생들은 학과목 교사의 지도아래 자율학습 형식으로 혼자 학습하거나 여덟 명씩 나누어 동아리학습을 하게 되는데 국어와 수학과목의 기초 다지기에 중점을 두었다. 학습의 어려움이 아주 많은 학생들에게는 98년에 개설한 ‘새로운 응용 기술’ 수업을 받게 하여 신기술을 익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중학교 3학년의 성적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실업계고교 진학에 필요한 중요과목의 보충학습을 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체 또는 직업훈련학교에서 1주일에서 8주일간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점은 중학교 4학년생도 마찬가지다. 1주일 또는 2주일에 걸친 기업체연수를 앞선해서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의 교수법 동향인 “범교과적 수업”을 2000년도부터 중학교에도 적용 중학교 3학년생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고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여러 학과목 교사들이 공통의 학습 주제나 학습방법을 설정하여 연간 교수계획을 세워 학과별 수업을 하되 과목간의 학습연계성을 살려 학습자들이 단편

적이고 지엽적인 지식 쌓기가 아닌 통시적이고 범교과적인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과학작품창작, 작문교실, 환경보호 실천, 역사 문화 예술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이러한 수업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교실공간 확장 및 화장실 및 도서실 등의 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멀티미디어와 운동기구를 확충하기로 했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개인지도원(tuteur)” 제를 도입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중4년 선배가 1학년 후배를 지도하거나 또는 교외의 학교지원단체의 일원이 상담자가 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 방지책으로서는 폭력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전국적인 예방홍보와 긴급전화번호를 개설하고 학생수가



천명이 넘는 학교는 분산 소수화 시키기로 했다. 이상으로 2000년도를 앞두고 실시하는 프랑스 교육부의 중학교개혁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나리마다 사회문화 여건과 조직이 틀려 남의 방법을 제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지피지기라는 고금의 원리대로 남이 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분석 연구하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교육개선을 꾀하는 우리의 교육행정가나 현장교사들은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육동향을 살피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부련, 파리〉

GERMANY

다국적 사회 독일에서의 제문화 교육

독일에는 현재 대략 9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199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총 711만 7,740명이고, 그 중 887만 명이 독일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밝혀졌다(1970년도에는 16만 명의 외국학생, 1980년대는 64만 5천명).

오늘날 독일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 대략 14%가 외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 중의 한 분이 외국인이거나, 이주자 가족(여권은 독일 여권이지만 모국어는 독일어가 아닐 경우)까지 합하면 총 학생들 중 25%가 독일 출신이 아니다. 이처럼 외국인 학생수의 증가 현상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15%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계속 증가 중).

현재 독일 출신이 아닌 아이들이 많은 초·중·고등학교는 각기 다른 외국인 학생들의 서로 다른 의견, 규범, 문화적 차이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소보-알바니아인과 세르비아인, 근본주의인, 회교도인과 독실한 독일·소련침례교 교인, 독일 사회 중간층과 극동 지역의 곤궁이 충돌되고 있다.

독일 신문 Die Zeit에 담긴(1998년 8월 27일) 한 중학교 선생님 독자의 편지를 보면 이러한 학교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다.

“...유리라는 아이와 자샤는 노보시비르크(Nowosibirsk)에서 와서 독일어를 전혀 못합니다. 인테라는 아이는 카리간다(Karaganda)에서 왔는데 독일어도 못하는 판에 왜 영어를 배워야 하나면서 대꾸합니다. 발렌틴은 첼리아빈스크(Tscheljabinsk)에서 왔고 독일어를 조금 알아듣습니다. 파디마라는 소년은 코소보 알바니아인인데 끊임없이 유고 약도에 국경이 뻗어 있는 모양을 그립니다. 클리우스(독일)는 신경질적인 편이라 모든 말들을 본인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알베르트(독일)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전학왔기 때문에 더 나은 학습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키에는 터키에서 왔고 아버지가 금하는 이유로 수영이나 소풍갈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안(독일)은 주말에 어른들을 돕느라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머리를 책상 위에 대고 잠깐 눈을 붙입니다. 사라(독일)는 깨끗한 공책과 책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루씨(Ghana)는 피부색 때문에 따돌림당했다고 울고 있습니다.”

GERMANY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아이들의 문화적인 배경들을 모순되지 않게 잘 조화시킬 수 없는 원인은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그러므로 인해 개인의 효과적인 교육은 허용될 수가 없다.

독일학교에서 실행하는 교육은 아직까지 단일 문화적이고 단일 언어적으로 학교를 이끌고 있으며 다른 언어와 문화적 경험을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시대에 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부터 독일에는 외국인들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많은 숫자의 외국인들이 이주해 오게 된 것은 1955년부터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초청을 (모집계약) 시작으로 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등지에 이르기까지 외국 노동자들을 1970년대까지 대규모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부터 <외국인 문제>라는 의식이 생기고 그러한 관점에서 “외국인 교육학”(Ausländerpädagogik)과 “외국인을 위한 특수 교육학”이 발전되었다.

이 당시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귀국을 하거나 독일에 머물게 된다면 독일사회에 조건 없이 적응할 거라 믿었다. 그래서 외국인학생들에게 특히 모국어 수업을 받게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언제든지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으려는 제도였다.

1980년대부터는 외국으로 나가 있던 독일 이주민들의 귀국과 정치적 망명 희망자의 숫자가 갑작스럽게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독일교육자들은 “제문화 교육”(Interkulturelle Erziehung)의 요구를 제기하



GERMANY

고 있다.

제문화 간의 교육의 의미는 각 외국 아이들이 가지고 온 문화, 그리고 다른 삶의 배경에 대해 학급에서나 수업시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인데, 한마디로 각 문화의 전통과 언어를 중요하게 여기며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문화적인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이러한 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룩셈부르크,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에서 실행되어져 왔으며 여러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문화 교육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실험 중 하나가 자를 소개한다.

베를린에 있는 트리프트초등학교에서는 2개국어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2명의 선생님(독일 선생님, 터키 선생님)이 24명이 되는 반을 이끌어간다(그 중 절반은 모국어를 독일어로 하고 다른 절반은 터키어를 쓴다). 수업시간에 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독일어로, 그리고 한 그룹은 터키어로 같이 토론하여 결론을 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두 그룹을 다시 합쳐서 서로의 결론을 비교하고 이야기하며 의견을 나눈다.

이러한 실험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는데 모델실험으로서는 1993년에 끝났지만,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효력 있다고 평가되어 이러한 방법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은 많이 확산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까지 독일에 사는 외국인들은 독일사회에 무조건 동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에서 고용의 기회가 독일 아이들보다 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단일 독일 문화적이고 단일 독일어적인 교육제도가 여러 가정에게 불안함과 정신적 갈등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후손들에게는 독일시민권을 쉽게 부여하지도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독일교육에 관한 문제점들은 여러 관청에서의 정치적 해결을 통해 정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논의되고 있다.

그 여러 가지의 요청들 중 중요한 요구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민권, 자치단체의 선거권, 그리고 2중국적의 획득,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안정된 생활계획과 사회적 평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융화될 수 있다.

“제문화 교육” 또한 실현될 수 있다.

바로 Günter Frankenberg(Frankfurt am Main, 법학자)의 의견이 이러한 문제점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인들의 독일사회에서의 융화 위해서는 여기에 태어나서 자

GERMANY

라고, 사는 사람들이 정식 국민으로 인정받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독일 교육자들은 외국인들의 사회적 융화를 위한 교육, 곧 제문화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고골린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사회적 융화의 목적은 소수 사회아이들과 다수사회 아이들의 각 문화를 골고루 발달시키고, 아이들이 점차 다국화되어지는 문화적 환경에서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외국 이주자가 독일 사회에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않으려면 이주자들에게 이 사회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부모의 고향문화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앞으로 독일에서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이민 3세대를 위한 새로운 국민권이 그러한 제안이 아닐까 싶다.

(장은희, 베를린)

ENGLAND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시위

1999년초 ‘교육녹서(The Green Paper)’에서 제안되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제에 대해서 교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교사들의 시위가 11월말 런던에서 있었다. 이들은 교사성과급제, 전국학력평가시험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실패한 학교의 명단 공개, 질적 수준이 낮은 교사가 많다는 정부의 잘못된 주장’을 현 정부가 지행하고 있는 37억 거대한(?) 교육적 재난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교사성과급제는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이번 시위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 발표되었던 런던 경제대의 리처드슨 박사(Dr. Ray Richardson)의 ‘일반 공공기관과 사기업체에서의 성과급제에 대한 평가’와 학교에서의 성과급제에 대한 평가’ 연구를 그 기치로 내세우고 있어서 더 주목을 끌고 있다.

ENGLAND

이들이 인용하고 있는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해서 개인별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공공기관과 사기업체에서 10~20% 정도의 사람만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대다수가 성과급제는 일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과급제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수행 목표의 명료성 문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 팀워크의 파괴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업무를 고려한다면, 실제적이며 타당한 수행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학생들의 전국학력평가의 결과에 근거하여 교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면, 교사 고유의 학생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소홀히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교육의 본질과 그 기본 가치에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질 좋은 교사양성에 필요한 사기진작으로서의 성과급제라는 것은 정부의 표면적인 구호일 뿐, 다른 전문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교사의 임금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소수의(1% 이하) 교사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육녹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사 성과급제 필요성에 대한 3가지 주장, 즉 '현재 교사의 사기가 매우 낮다는 것', '교사로서의 수행능력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은 잘못된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수한 교사가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만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진단이며, 그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사 성과급제는 당연히 실패라는 것이다.

30년 만에 재상영된 영화 '케스(Kes)'

개별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영국 교육의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리 하인스(Barry Hines)의 '케스'를 읽으라는 말이 있다. 영국 북부 광산촌 출신인 작가 자신의 성장 경험과 체육교사로서의 학교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소설은 1968년에 '케스: 악동의 매 (Kes: A Kestrel for a Knave)'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이후, 1969년에 켄 로치(Ken Loach)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면서 더욱 유명해진 작품이다. 30년 전에 제작된 이 흑백영화가 최근 런던 시내의 한 개봉관에서 재상영되고 있다.

케스는 1944년의 교육법에 의거 만인을 위한 중등교육

ENGLAND



이 실현되어 15세(1972년 이후 16세)까지는 누구나 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당시, 1960년대의 종합중등학교 졸업반에 다니는 빌리의 이야기이다. 빌리는 반근초를 위한 공영주택에 살면서 광부인 바다른 형과 집안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 밑에서 신문배달을 통해 가족의 보살핌 없이 스스로 생존해 나가고 있는 15세 소년이다. 갈 곳도 말 상대도 없는 빌리는 가족과 학교에서 문제아이며 열등생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이런 빌리가 유일한 벗이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은 케스라는 매였다.

빌리는 집 근처의 폐허가 된 성벽에서 매 동지를 발견하고 그 매를 길들이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공공 도서관에서 매를 길들이는 법에 대한 책을 빌리려고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고 집안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사인이 있어야 책을 빌릴 수 있는 이곳에서 책을 빌리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근처 서점에서 책을 훔쳐 나온다. 그날 이후 빌리는 그 책을 독파해 서서히 자신의 매를 훈련시키게 된다.

개인의 흥미와 적성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학교 지식과 평가의 기준에서 본다면 당연히 열등생일 수밖에 없었던 빌리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케스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우정에 근거한 빌리와 케스의 관계나 그 훈련 과정이 아니라, 빌리의 케스에 대한 존중에 근거한 태도이다. 케스는 빌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그의 손에 의해 훈련되고 있지만 소위 길들여지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본래의 야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빌리의 또 다른 분신으로 그려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무성의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있는 학교나 사회가 빌리에게 바람직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ENGLAND

빌리 자신은 몰개성과 획일적인 학교교육의 피해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빌리는 케이스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매의 야성, 즉 상대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신뢰하고 또 자신과 대등하게 인정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빌리는 케이스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형처럼 광부가 되지는 않겠다는 빌리의 절규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빌리의 형은 결국 매를 죽이고 마는 당시 학교교육과 사회의 표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1960년대 탈학교화 경향과 함께 당시 상당한 화제가 되었던 케이스가 암시하고 있는 학교교육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현재 이 영화의 재상영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정부간섭에 대한 일종의 경종으로서 또 다른 화제가 되고 있다.

(안미숙, 런던)

JAPAN

일본에 학교 선택의 바람이!

최근 일본에서는 초·중학교 단계의 학교 선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동경도의 시나가와구(品川區)와 히노시(日野市)에서 내년 2000년도부터 소·중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선택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동경도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는 구립소학교 40교를 4개의 불력으로 나누어서 신입학아동의 보호자가 불력 내의 학교(8~12교) 중에서 입학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올 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10월중에 교육위원회가 내년 소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종래의 통학 구역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안내하고 희망 학교를 접수하여 1월에 취학 학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유선택제가 도입된 것은 최근에 문제화되고 있는 학급 붕괴나 이지메 등의 학교 병리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인해 공립 학교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으며, 구내나 주변에 사립 학교가 많이 있어 부모들의 사립 학교 지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등, 인파으로 실추된 공립 소학교에 대한 매력을 부상시키는 일이 급선무

JAPAN

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 수 감소에 따라 비어있는 교실도 많이 있어서 정원을 조정하지 않아도 모든 취학 희망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되었다.

한편, 동경도 히노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립 소·중학교를 불력화하여 불력 내 학교 중에서 입학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현재 시내의 시립 소학교는 20교, 시립 중학교는 8교이고, 이 중 소학교는 동일 중학교 구역 내의 2~4교에서 선택, 중학교는 2교씩 4불력으로 나누어 선택하도록 정했다. 히노시에서는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03년도에는 전학년이 단일 학급이 되는 소학교가 20교 중 4교에 이를 전망이며, 그 중 소규모 학교 3교를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번 학교 선택제의 도입은 부모의 학교 선택을 통해서 통폐합 학교를 정하려고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공립 소·중학교의 통학 구역을 학교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구(區)·시(市)·정(町)·촌(村) 교육위원회가 아동의 거주지에 따라 지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단지 교육위원회별로 정한 기준에 의해 보호자의 근무처에서 가까운 학교 등 사정에 따라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통학 구역의 탄력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나카소네(中曾根) 내각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인사교육심의회가 1987년에 제출한 제2차 답신에서 제안된 것이 시발점이었다. 그 당시 심의 과정에서 '부모에게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학교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학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답신에서는 학교 선택의 탄력화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학교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문부성과 일교조가 학교선택의 자유화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했다.

그 후 통학 구역을 보호자나 학생의 선택에 맡기는 자유화가 단번에 가속화된 것은 하시모토(橋本) 내각 당시에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가 1996년에 보호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시점에서 탄력적인 운용을 촉구하면서부터이다. 이 제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공립학교간의 '학교간 격차'를 용인한 사실이다. 문부성이나 교직원조합은 통학구역자유화를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자유화를 실시하면 학교의 서열화가 진행되어 학교간 격차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왔

JAPAN

다. 그러나 행정개혁위원회는 각 학교의 교육내용이 다양화하고 각각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염려는 불식될 수 있으며, 의무교육제도 내에서도 학교간의 다양성이라는 의미에서 학교간 격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지난 1998년 9월에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방교육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제출한 답신에서도 '소·중학교의 통학구역의 설정이나 취학하는 학교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보호자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에 유의하면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인 운용을 함꼐'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시나가와구나 히노시에서 학교선택제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중앙교육심의회의 노선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학교선택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우선 각종 답신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의 개성화·특색화를 위해서 통학구역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지금까지 무풍지대에 가까운 학교사회를 개혁하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조치로 주목되고 있다.

시나가와구에서도 '보다 많은 보호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학교간에 경쟁의식이 조장되며 이것이 무엇보다 큰 개혁 입력이 될 것이다. 보호자들도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선택한 학교이므로 입학 후에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공립 학교가 획일성이나 폐쇄성, 경직성으로 인해 아이들의 개성을 신장시켜 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으나, 이번 자유선택제의 도입은 보호자나 지역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공립 학교의 체질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의 교육 개혁이 될 수 있는 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줄이고 '종합학습'을 도입하는 등 학교의 개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유선택제는 이러한 교육 개혁의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자유선택제의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입장도 있다. 학교선택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학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현실은 진학실적이나 편차치라고 불리는 입시에 있어서의 각 학

JAPAN

교의 서열, 혹은 이지메나 등교거부 등 학교의 문제점을 기준으로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말미암아 특정 학교에 아이들이 집중하여 학교의 서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 교직원 조합에서도 '학교간 격차가 확대되고 희망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염려되는 문제점이 많다.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더욱 차별·선별의 방향으로 아이들을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다'라는 비판적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찬반여론이 무성한 것은 학교선택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효력이 강력한 반면,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선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시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학교측이 가능한 한 공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 항상 학교의 교육 내용을 보호자나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발산하는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또한 매력 있고 개성이 풍부한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나 예산 등에 대한 각 학교의 권한과 재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학교선택제가 어떻게 실시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이정미, 스쿠바)

CHINA

사회주의 중국의 사립학교

1999년 10월 18일, 중국교육의 최고연구기관인 북경사범대학에서는 중국 최초로 사립학교를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말레이시아 등의 사립학교 대표들이 참가하여, 각국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실태를 소개함으로써 중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자본주의 교육의 상징으로 인식돼 완전히 폐지되었던 사립학교가 중국정부와 학계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시사해준다.

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사립학교는 1997년, 5만여 개의 학교로 급성장하는 발전을 보였다. 다음은 중국 교육부 '성인교육사(成人教育司)'가 1998년 5월에 발

CHINA

표한 사립학교 점유율 통계이다.

학교유형	학교수	백분율(%)
유치원	2만 이상	13.5
소학교	1,806	0.28
일반 중·고등학교	1,702	2.1
직업 중·고등학교	689	6.8
고등교육기관	1,095	50
기타 교육기관(학원 등)	2만 이상	

〈1998년 중국 사립학교 점유율 통계〉

학교교육의 상당부분을 사립학교가 맡아 온 한국에서는 그리 대단한 수치가 아니지만, 교육전반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해 왔던 중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위의 수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치적 영향이 극심했던 초·중등교육 부문에도 적지 않은 사립학교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개혁개방 이후 변화된 중국교육의 추세를 잘 나타내 준다.

사립학교의 운영방식은 학교재단의 독립운영 형태, 기업체와 학교의 연합운영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사립학교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예산의 대부분은 학생들의 학비로 충당되고 있다. 학비는 학교의 위치와 지명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인민폐(人民幣) 1만원 이상(人民幣 100원은 약 1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상황과 국·공립학교의 학비를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액수이다. 특이한 점은, 명문사립 초·중등학교와 사립대학의 학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즉, 중국 국민들은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높은 교육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방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립 초·중등학교는 막대한 시설투자과 동시에 명문대학의 졸업생 임용, 국립학교 퇴직 교사 초빙 등의 방법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 왔다. 이는 장래에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사립학교의 성공사례로는 먼저 93년 인민폐 1천만원을 투자하여 세워진 광둥성(廣東省)의 영호(英豪)소학교를 들

CHINA

수 있다. 이 학교는 실내수영장,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영어교사를 초빙하였기 때문에 불과 4년만에 학생수가 3배나 늘어났다. 또한 94년 산서성(山西省)의 대원시에는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사립소학교가 건립되었는데, 이 학교 역시 5년 남짓한 기간 등



안 전국에 8개 분교를 세우는 성장을 보였다.

일명 "귀족학교"로도 불리는 사립초·중등학교에 비해 전국 대학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영향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고등교육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현재 중국은 대학의 학위수여권을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1천여 개의 사립대학 중 교육부로부터 학위수여를 인준받은 대학은 20여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의 대학들은 졸업장으로 학위증서를 대체하거나 국립대학에게 재단 주식을 판 후, 그 학교의 이름을 빌어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문호주식회사가 국립대학인 길림공업대학과 함께 건립한 길림공업대학 공상관리학원(工商管理學院)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즉 사립대학의 증가는 대학 진학률이 7%(1996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의 현실에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학습열을 해소해 주고 있는 것이다.

빠른 사립대학의 성장과 함께 거론되는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제정이다. 현재 중국의 관련 법령은 중국정부에서 공포한 "사회역량학교설립조례(社會力量學校設立條例)로서 관련 문건 형식으로 제출되어 있을 뿐 정식 법령은 아니다.

〈姜美敏, 북경〉

혼자 하는 과학 수업은 없다

과학수업에서의 협동학습

임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팀, limhj@ns.kedi.re.kr)

협동학습의 필요성

1) 협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

비야호로 경쟁의 시대는 가고 협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한다. 경쟁이 기본적인 생존법칙인 것처럼 생각되었던 기업간에도 최근에는 한쪽이 흥하고 한쪽은 쇠하는 win-loss 전략이 아니라 함께 도와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win-win 전략이 각광받고 있다. 대학에서도 협동의 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 교육의 메카인 MIT 공과대학 과정에서는 공학 전공과 경영학 전공 학습의 협동을 통하여 공학적 산출물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경영 전략까지 세우도록 함으로써 협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현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며, 경쟁이라는 것이 동기 부여나 질 높은 산출물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협동의 시대 도래라는 것은 그 동안 과다하게 부추겨진 경쟁에 의해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재고 및 도의시되었던 협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

조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2) 과학 연구에서의 협동

비단 최근에 점차 확산되는 협동의 추세를 차치하고라도 과학 활동은 본질적으로 그 특성상 동료 과학자들 사이의 협동을 기본으로 한다. 어느 과학 연구실을 보더라도 프로젝트를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는 없다. 거의 모든 연구실은 팀을 단위로 운영되며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는 구성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과제의 한 부분들을 수행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어떤 가설이나 이론을 타당화하는 과정에서는 동료 과학자들과의 논쟁과 토론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 가는 협동적인 활동이 보다 더 중요해진다.

3) 과학 수업에서의 협동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학교 과학 수업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자. 과학 수업은 주로 내용 학습과 실험실 활동을 두 축으로 하여 진행된다. 내용 학습 시간에는 교사는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학생들은 앉아서 교사의 설명을 듣고 받아 적는다.

어떤 과학 개념이나 현상에 관한 토론과 논쟁? 이런 것은 과학 수업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한편, 실험실 수업에서는 실험 과정상의 필요, 그리고 기구 및 설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조별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험실 수업을 보면 조 내의 한두 명이 실험을 주도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거나 다른 학생이 정리한 것을 그대로 베껴 쓰는 등의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입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과학 수업에 대한 반성에서 과학 수업이 더욱 의미 있는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활발한 토의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협동학습은 바로 그러한 요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업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협동학습의 근간이 되는 것은 서로의 학습에 대한 책임의 공유이다. '너는 너고 나나 나다. 따라서, 나는 내 공부만 잘 하면 된다' 라든가, 또는 '나는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 너를 도와줄 수는 없다' 라는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너와 내가 도와서 우리 둘 다 더 잘해 보자 라는 협동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또한 협동학습은 교사와의 상호작용보다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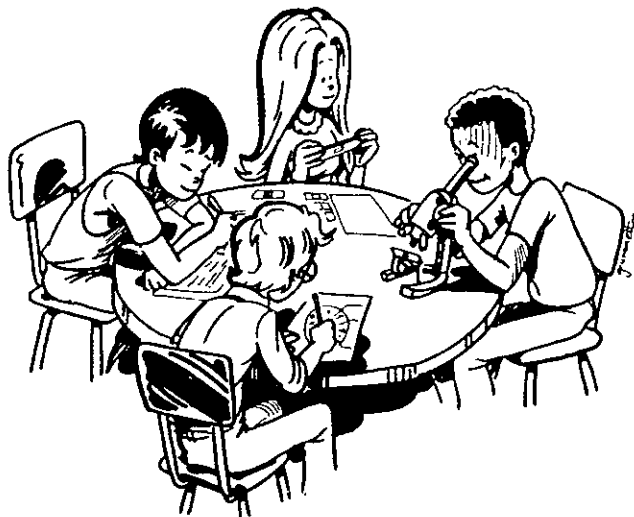
이러한 동료와의 상호작용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비하여 질문이나 의견 개진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감소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사소통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와 의견의 합일을 이루는 협동 과정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효과적인 협동학습의 조건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조직하고 함께 도와서 공부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협동해서 학습하는 것은 아니다. 소집단 활동은 무임승차나 활동 독점과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 따라서 소집단 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

족되어야 한다.

① 긍정적인 상호의존성: 다른 사람의 학습이 자신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자신의 학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



② 대면적 상호작용: 서로의 학습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구성원들이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하고 함께 토의하는 상호 작용

③ 개별적 책무성: 소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 개개인에게 부여된 책임

④ 사회적 기술의 사용: 협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로 대인 관계, 의사소통, 도움 주기, 도움 받기 기술 등

⑤ 집단 점점 과정: 소집단 활동에 대한 점점

과학 수업에서 협동학습: 특징과 방법

위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과학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수업의 특징과 방법들을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다음에 제시되는 특징들은 현재 일선 학교 과학 수업의 형태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협동학습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LT(Learning Together) 모형에 기초하여 제시한 것이다.

1) 학생 중심의 조별 활동 위주의 수업

협동학습은 일반 수업에 비하여 교사의 설명이 나 지시가 줄어들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다. 수업은 대부분 조별 활동으로 진행되어 조원들이 함께 과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과학의 내용과 방법을 습득하게 되고, 교사는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협동 학습을 위해서 소집단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이질적인 집단 구성, 동질적인 집단 구성, 선호도에 따른 집단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간에 소집단 구성은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실은 학습 능력이 다양한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

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권장되는 소집단 구성 방법은 이질적인 집단 구성 방법으로, 과학 성적과 성별 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집단을 구성했을 경우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사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동질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특히 상위 수준 학생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하위 수준 학생들만 소집단이 구성된 경우 학생들이 잘못된 과학 개념을 습득하기 쉽고 서로의 학습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수준별 심화나 보충 학습의 경우에는 동질적인 집단 구성을,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는 이질적인 집단 구성을 권하고 싶다. 이럴 경우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지를 바탕으로 한 수업

협동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로써 주로 활동지를 사용하며, 활동지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습이 진행된다. 활동지는 학생들이 함께 도와서 학습하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모으며, 조원 모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활동지의 내용 구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학 수업에서는 과학 개념의 이해와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실험을 계획하고 이를 수행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탐구 활동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이 활동지에 포함되는 것이 좋다. 활동지에 제시된 과제의 수준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의

다양한 과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수준의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다음은 초등학교 자연 수업 시간에 사용한 활동지의 예시이다.


이 활동지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 학습내용을 확인하고 관찰한 사실을 기록하는 등의 저급 사고 수준의 과제와 변인 통

자연과 협동학습지	5-1.	2. 용해와 용액	(1)용해
1997년 월 일 요일	5학년	반	조이름()

학습주제	물과 아세트산에 대한 소금의 용해 (1)	자연책 33쪽
역할분담	조장() 기록자() 자료관리자() 질문자()	
평가		


✂ 소금이 녹는지를 관찰합니다. 관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조장 ()
 • 소금이 어떤 액체에 녹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써보자.

✂ 소금이 녹는지를 관찰합니다. 관찰 전에 생각해 봅시다. —— 질문자 ()
 • 두 액체에 각각 소금이 녹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생각해 보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실험 기구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실험을 계획해 보자.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그려보자.
 (액체의 양, 넣는 위치 등도 자세하게 그리자. 그림에 설명을 적어도 좋다.)

 소금이 녹는지를 관찰합니다. 준비물을 챙깁시다. —— 자료관리자 ()

- 필요한 준비물을 써 보자.

- 가져온 준비물에 ○표 하자. 생각하지 못한 준비물은 다시 써넣어라.


 함께 실험하면서 기록합니다. ~~~~~ 기록자 ()

1. 소금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물과 아세톤에 각각 넣고 관찰하여 써 보자.

	물	아세톤
녹는 현상		
액체의 색깔		
주머니 모양		

2. 소금 주머니를 물과 아세톤에서 꺼낸 후, 형질 주머니 속의 소금의 양을 비교해 보자.

	물	아세톤
형질 주머니 속의 소금의 양		

 실험한 내용을 조원끼리 서로 토의하여 정리해 보자.

- 소금을 물과 아세톤에 넣었을 때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실험 전에 생 각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개념을 확인한다. • 이번 시간 실험의 결과를 예측한다. • 교과서를 참고하여 실험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운다.
실험하면서 기록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이나 측정 등을 통해 얻은 실험 결과를 기록한다. • 실험 결과를 해석한다.
토의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론을 도출한다. • 새로운 상황에 이를 확장하고 적용한다.

제, 실험 설계 및 새로운 상황에서의 적용 등의 고급 사고 수준의 과제가 끌고루 포함되어 있다.

3) 역할 분담

소집단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고 모든 조원들이 소집단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과학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실시할 때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과 같으며, 모든 조원들이 이 역할들을 끌고루 수행할 수 있도록 1주 단위로 역할을 교대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신의 역할을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역할표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4) 집단 과정의 점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자료관리자

- ♥ 자료를 찾아낸다.
- ♥ 실험 기구를 찾아낸다.
- ♥ 청결지를 관리한다.



정정자

- ♥ 조의 규칙을 잘 지켜는지 관찰한다.
- ♥ 정정표에 있는 내용을 주지시킨다.
- ♥ 정정표를 작성한다.

"우리 모두 도우며 하기로 했지?"
"정정표를 써보자."

역할	담당하는 일
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실험이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조원이 자리에 앉도록 하고, 교과서와 노트를 펴는 등 수업 준비를 점검한다. • 조 활동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 • 조원의 역할 수행을 점검한다.
질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이나 토론 중 조 내에서 해결되지 못한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교사에게 질문한다. • 질문모음표를 작성한다. • 질문을 하거나 이를 해결한다.
자료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에 필요한 기구, 재료, 실험 보고서 등을 받는다. • 실험이나 수업의 뒷정리를 담당한다. 좌석 정돈 및 사용한 실험 기구와 시료 등을 제자리에 정리한다. • 조원들의 학습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 주위를 정리하고 조원들을 보호한다.
점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원들의 참여와 이해 정도를 점검한다. • 조원들의 참여를 권장한다. • 조 활동 점검표를 작성한다.

조 활동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집단 과정의 점검은 소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협동 정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조원 전체가 모여서 함께 평가할 수도 있고 각자가 자신의 조 활동에 대해 평가할 수도 있다. 각각의 장점이 있으나 조원 전체가 모여서 평가하는 것이 함께 조 활동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보완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도 더 많은 장점이 있다.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마치고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검표를 만들어 제시하면 점검 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

며 협동 정도의 변화, 발전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집단 보상 및 평가

협동학습에서는 조원들끼리 협동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주로 소집단 단위로 평가한다. 이러한 소집단 단위의 평가는 학생들이 서로 돕도록 하는 외적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실험 결과와 해석의 정확성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조원들이

상호협력할 필요성이 별로 부여되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자신이 아는 것을 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동지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활동지를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 점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① 협동의 과정에 대한 교사의 관찰 평가, ② 각 조에서 무작위로 한 명씩을 발표시켜 그 학생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조 전체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③ 활동지에 여러 사람의 의견이 들어갔음을 어떻게든 표현한 조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 ④ 1~2주 단위로 한 번씩 간단한 퀴즈를 실시하여 조 점수의 평균과 개인 점수의 합으로 최종 개인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가능한 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돕고 또 서로가 르쳐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는 게시판이나 학급신문을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협동을 통한 조 활동을 보다 강조할 수 있다.

협동학습 수업의 실시

이상의 특징과 방법들을 적용하여 과학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실시해 보자.

1) 협동학습에 대한 예비 지도

학교 현장에도 근 1~2년 사이에 협동학습이 많이 확산되어 지금은 협동학습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협동'이라는

조 활동 점검표

조 이름 ()

우리 조의 활동을 솔직하게 평가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사항을 "매우 잘했으면 O", "보통이면 △" "잘 못했으면 X" 합시다.

	날짜			
1. 모두 함께 모여 토의했다.				
2.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했다.				
3.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었다.				
4. 서로 가르쳐주면서 도와서 공부했다.				
5. 서로 꾸짖기보다는 격려를 해주었다.				
6. 조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활동지를 썼다.				
7. 활동지의 내용을 모두가 이해하도록 서로 도왔다.				
8.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교사의 주문은 너무도 친숙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하나의 경구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협동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협동학습을 실시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협동학습에 대하여 간단하

게 예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예비 지도에서는 협동의 중요성, 수업 및 평가 방법, 역할 분담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먼저 과학 수업에서는 많은 활동이 소집단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집단별로 열심히 토론하고 조원들이 서로 도와서 모두가 실험 및 학습 내용을 잘 알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예비 지도를 시작한다. 그리고 협동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한 다음의 그림 등에 대하여 함께 토의함으로써 협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활동지 작성을 중심으로 소집단 활동이 진행되는 수업 방식에 대하여 설명한다. 소집단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토의해

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소집단 토론시 구성원들의 참여 정도, 활동지 내용에 대한 소집단별 발표, 그리고 소집단 평균 점수가 고려된 퀴즈 점수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집단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학습에 도움이 됨을 강조한다. 구성원들의 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자가 역할을 지니게 됨과 각 역할이 담당하는 일을 설명한다. 이러한 수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과학 수업 시간에 협동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별로 논의하게 하고, 각 조의 팀워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 이름, 조 규칙 등을 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자연 수업에서 협동학습을 잘하기 위한 조별 논의를 토대로 작성한 '우리 과학실에서 꼭 지켜야 할 일'의 목록이다. 자연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이 항목들을 항상 유념하도록 지도하였다.

■ 우리 과학실에서 꼭 지켜야 할 일

1. 모두 토의에 참여하기
2. 친구의 이야기 들어주기
3. 우리 조 떠나지 않기
4. 발표자에게 격려!
5.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6. 자기 역할을 충실히!
7. 남의 역할은 침범하지 않기!

2) 수업의 전개

이제 과학 수업에 들어가 보자. 내용

학습 수업과 실험 수업에서 협동학습 수업 전개 방식에는 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각 수업에서의 협동학습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내용 학습 수업에서의 협동학습

먼저 선수 학습 내용에 대하여 소집단 단위의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본 차시 수업 내용에 대한 활동지를 소집단마다 하나씩 배부하고 조원들의 역할을 확인한다. 교사가 본 차시에 학습할 내용과 활동지에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 조별로 활동지를 해결한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을 찾아가면서 가르쳐주고 질문하면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자신이 담당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 활동지를 해결하고 나면, 소집단별 발표를 통하여 교사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소집단별 발표 결과를 토대로 소집단 단위로 보상한다. 두 번째 활동지 해결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며, 수업이 끝난 후 소집단별로 조 활동 점검표를 작성하게 한다.

② 실험 수업에서의 협동학습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자료관리자가 나와서 활동지를 받아간다. 먼저 학생들은 선수 학습 상기와 실험 설계 등이 포함된 '실험 전에 생각해 봅시다' 과정을 함께 작성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각 조에서 토론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교사가 각 조의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실험시 주의사항을 지적한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가 소집단별로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에 학생들의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의 토의와 협동

을 통하여 활동지의 나머지 과제를 해결한다. 교사는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전체 활동이 끝난 후 교사는 다시 자리를 정돈하고 함께 내용을 정리한다. 초등학교 자연 수업의 경우에는 실험실에서의 산만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토론 시에는 러그 미팅과 같이 칠판 앞에 조별로 모여 앉게 한 후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3) 과학 수업에서의 학생들의 상호작용

학생들은 과학 수업시간에 협동학습을 전개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다음은 중학교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의 예이다. 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서로의 의견을 모아서 활동지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과학 수업에서의 협동학습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교사의 설명을 듣는 수업이나 일반적인 실험 수업에 비하여 학생들이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서로 돕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철수 B를 보자.

민영 유리막대를 깔때기에... 혼합물이, 혼합물이 유리막대를 따라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

철수 혼합물이, 혼합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한다인데?

민영 아, 그건 여기 이유가 그렇지.

희진 여기 있네!

민영 이유지, 그건... 혼합물이... 혼합물

아... 유리막대에 흐르게 한다. 이유... 용액이... 위로... 넘쳐흐르지,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희진 넘치지 않게 하려는 거야?

철수 거름을 사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의 예, 점감자...

민영 빨리 해, 빨리 빨리. 잠깐만. 정용식이 라고 쓰고(활동지에 용식이 이름을 쓰고 활동지를 용식에게 주며). 자, 여기...

철수 특징(책을 찾는다).

희진 용해되는 물질과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섞었을 때 아냐?

희진 하나는 섞어야 되고 하나는...

철수 흙탕물, 흙탕물 같은 것!

희진 혼합물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민영 혼합물의 특징이라고?

희진 하나는 용해되어야 하고 하나는 용해 안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걸러지지.

민영 (끄덕끄덕) 그니까 고체와 액체가 만나야지.

희진 그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는 용해된 것하고 하나는 용해되지 않는 것을 섞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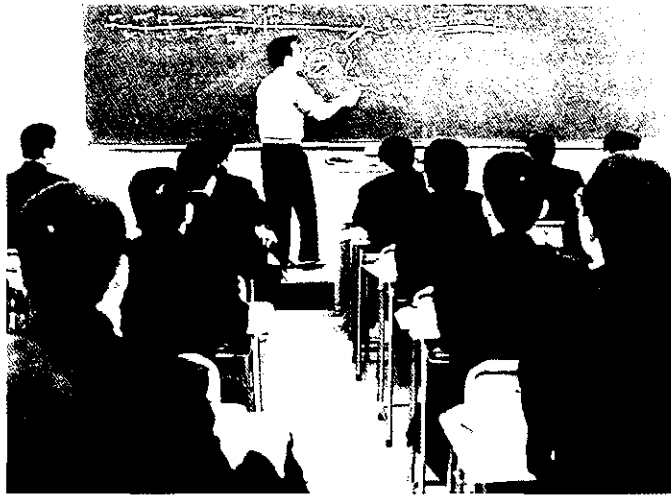
용식 (끄덕끄덕. 활동지에 쓴다)

본 글에서 설명한 과학 수업에서의 협동학습 방법은 앞서 밝혔듯이 현재 진행되는 일반 수업의 형태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한 것이다. 보다 더 탐구 중심적인 수업이나 개념 변화를 강조한 수업을 실시할 때에는 각 수업의 특성에 적절하게 변형되어 협동학습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8]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수행평가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홍정숙 (제주 대기고등학교 교사, hjs5218@unitel.co.kr)

현재의 청소년들이 이끌어 갈 미래 사회는 지식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 세계가 일원화되는 국제화 사회, 그리고 다양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화 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주역을 키우는 우리의 교육은 다가올 미래 사회의 엄청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인간 양성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열려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고등학교까지만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지식 습득에 소홀해 왔던 지금까지의 교육풍토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고등학교 교사나 학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단순 지식 습득에서 다양한 활동과 늘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학생, 그것을 그때그때 일일이 평가해 두어야 하는 교사, 오히려 수능이라는 것 하나만 바라보며 한 가지 방법으로 학습해 왔던 기존의 학생과 지필 평가라는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하던 교사가 더 수월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1993년 학력고사에서 수능능력 시험 — 단순 지식 암기 위주에서

다 주는 것 — 공부할 내용 선정, 계획, 준비, 수행, 평가, 반성, 학습과제까지 모두 다 학생들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들에서 교사는 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학생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중심 활동은 학생이 하지만, 전체적인 교육의 바른 방향은 교사가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수행평가는 학습모형 변화에 따른 평가의 자연스러운 변화

대학이 무시험 제도로 바뀐다는 것은

사고력·분석력·창의력·종합력이 중심이 되는—으로 입시제도의 변화를 경험했다.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의 흐름이 바뀌면 학습 활동도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전의 학생들과는 다른 평가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단순 지식 평가가 아니라 사고하고 있는가? 분석하고 있는가? 습득하였는가? 대학에 진학하고도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학습할

야 할 것들은 “어떤 식의 공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인가?”, “어떤 자료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어떤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인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통합 능력은 어떻게 키워 줄 것인가?”, “토론 수업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조별 학습시킬 것인가?”, “인성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각 모형에 가장 적합한 평가는 어떤 것일까?” 등이다.

수행평가, 100% 가능하다

현재 내가 담당한 한국지리 (공통사회 하)시간은 이미 100%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것은 수행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1994년 대입제도가 수학능력 시험으로 바뀔 때 창의력 신장을 위한 학습 방법의 개선이 요구되어졌고, 그때 개발한 수업 모형에는 지필고사가 맞지 않는 평가 방법이어서 달리 했던 것이 수행평가의 시작이었다. 수행평가라는 단어를 모르고 시작했으나, 나중에 교육부에서 수행평가라는 용어를 일선에 내려보냈을 때쯤에는 이미 우리 교실에서 그것은 충분히 익숙한 학습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6년간을 시행하다보니 이제는 제법 체계가 잡혀 아이들이 원하는 수행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1999년 대 기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설문지 조사 결과 100%의 수행평가를 원하는 학생이 응답자 325명 중 255명이었음).

****대기고등학교 공통사회 하(한국지리)는 100%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성실한가 불

성실한가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

2. 예습, 복습을 교실에서 수행평가용 도서(한국지리 열린학습지—교육과학사, 흥정숙 지음)를 이용하여 시키고 성실함을 반영한다.

- 도표·그래프를 스스로 분석하기, 논술, 문제풀기, 토론 등이며, 매 시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3. 지식습득의 정도는 단원정리를 쪽지 시험으로 반영한다.

- 쪽지시험 문제는 미리 모두에게 배부하고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주며, 1회 5점을 넘지 않는다.

4. 태도도 반영된다.

- 교과서, 열린학습지, 신문, 명찰, 명인 쓰기 등 학생이 갖춰야 할 기본을 본다. 매시간 확인하고 전체 배점은 3점을 넘지 않는다 (누적된 점수를 환산한다).

- 신문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매 시간 들고 다니도록 한다.

5. NIE 과제가 있다.

- NIE 과제는 신문을 읽고 다양한 사고와 분석을 해보는 게 주목적이고, 지리 교과서를 충실히 분석하여 아이들 수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거리들을 주제로 1년 제목을 미리 알려준 후 처리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

〈NIE과제 반영 기준〉

1) 주제 하나에 2점

- 자료 찾기 1점, 자료 정리 1점 (반점은 0.5점)

2) 총점의 소수점은 버림

3) 기일 엄수하지 못하면 감점 - 다음 날까지 받음, 2점 감점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평가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수능으로 입시제도가 바뀌고 6년이 지난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무엇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이제 와서 갑자기 평가 방법만 바뀐 것처럼 당황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 방법의 개선이 먼지가 아니라 학습 모형의 변화가 우선이었고, 학습모형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평가 방법이 달라졌을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다.

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 중심으로 수업 모형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때 학생 중심 수업을 하기에 앞서 교사가 고민해



■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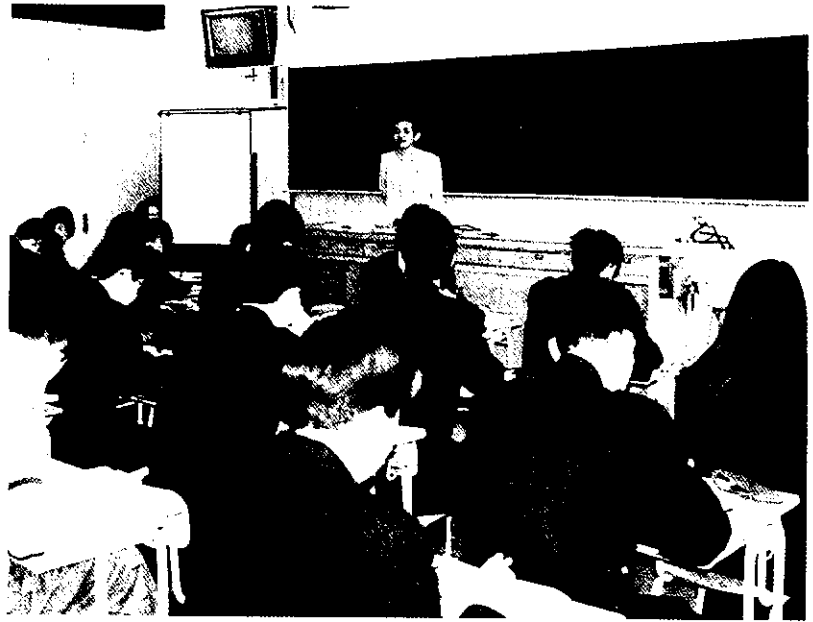
1. 학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교과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진도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진도를 나갈 수도 있다.
4. 교사 중심의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
5. 다양한 학습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6. 각 모형에 맞는 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7. 가능하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
(복사할 수 있는 과제를 내면 많은 학생이 요령을 파우므로).
8. 수행평가는 과제 평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9. 교사를 위한 우아한 과제를 지양해야 한다.
10. 객관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11.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매번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12. 기본 점수를 없애고 한두 번의 실지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
13. 1회 시험에 너무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14.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5. 학년초에 수행 평가에 대해 충분히 인식시키고 실시한다.
16. 매번 점수를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면서, 자주 반영해 준다
(가령비에 옷 젖는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한다).
17. 점수가 부여된 후 바로 확인시키고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
18. 검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한다.
19. 합산된 수행 평가 점수를 다시 확인시킨다.
20. 중간고사, 기말고사 후에는 바르게 옳졌는지 다시 확인한다.
21. 인성교육의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음을 알고 그 나이에 생각하고 행해보아야 할 것들을 제시해 준다.

4) 총점 기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수행평가가 아주 잘못된 평가인 것처럼 마스크에서 떠드는 것을 보면, 제대로 열심히 해보려 하시는 선생님들마저 난감해 하겠다는 생각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선생님들이 엉뚱(6년 전 시행착오를 하던 내 모습처럼)한 모습으로 나타나리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대기고등학교 학생들이 표현한 수행평가의 장점

- 자신이 직접 해보고 알 수 있다.
-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만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 암기보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늘 공부해야 한다.
- 자기 스스로 학습이 된다.
- 평소에 공부를 하므로 시험 기간에 부담을 덜 수 있다.
- 토론력이 향상된다.
- 부지런해진다.
- 평소 생활이 성실해질 수 있다.
- 논술과 신문 보는 눈을 높여 준다.
-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온다.
- 평소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다.
- 과제 처리를 하면서 익히는 것은 문제를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 지필고사는 벼락치기로 되지만 수행 평가는 평소 노력을 요구한다.
- 주입식으로 얻은 보통 지식보다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얻은 지식이 100배

- 가치가 있다.
- 학습효율성이 좋다.
- 남의 것을 보고 베끼는 것을 차단할 수만 있으면 최고의 평가이다.
(현장감시 위주여야 함)
-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 재미있다.
- 평소에 열심히 사는 올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매시간 충실할 수 있다.
-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 자필고사로는 만점을 받을 수 없었던 내가 수행평가로 100점을 맞음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수행평가는 매시간 조금씩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
- 학습에 대한 성실함을 기대할 수 있다.
- 편안하다.
- 평소에 신문 보는 습관을 갖게 됐다.
-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하고 약간의 노력만 하면 된다.
- 실력이 꾸준히 오른다.
- 평소에 공부를 하면 점수가 생기니까 시험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다.
- 꾸준히 공부할 수 있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 자신이 행한 결과를 그때그때 알 수 있어서 능률이 좋다.
- 급하게 외운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무엇이든 스스로 참여하는 습관이 생겼다.
-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 수업 시간마다 탄짓을 안하고 수업에



- 집중할 수 있다.
-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알게 해준다.
- 자기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이 많아 남의 것을 베끼는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
- 내가 한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딱딱하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좋다.
- 수업시간이 때분하지 않다.
- 다양한 수업 방법이 좋다.
- 논술 실력이 향상되었다.
-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었다.
- 수업시간에 공부가 된다.
- 게으름을 방지할 수 있다.
- 사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 사회·경제·과학 등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 그 시간, 그 시간 조금씩 내 힘으로 해 나가는 보람이 있다.
-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진다.
- 이해가 더 잘된다.
- 노력한 만큼 다른 사람과 공평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수업이 지루하지 않다.
- 틈틈이 공부한 것이 그대로 반영된다.

각급 학교, 교과 수준에 맞는 평가방법이 최고의 평가

수행평가가 어려운 이유는 교사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 때문인데, 6년을 시행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바꿀 방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해마다 그 어려움을 견디며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시간 투자가 우리 아이들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3월에 입학하고 5월이 다 갈 쯤이면 공부하기 싫어 조는 아이, 딴 짓 하는 아이가 생길 만도 한데 금년에 그런 아이가 없음을 체계적인 수행평가의 힘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생각해 본다는 것, 서로 의논하여 결론을 얻어내려 애쓰는 것, 질문이 없던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 자기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다는 것,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이런 변화 앞에서 힘이 들다고 수행평가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지필고사보다 평소의 성실함을 평가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이다.

21세기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는 지식 중심 사회가 될 것이라고 부르짖는 데는 아무런 이론(異論)도 없으면서 그러기 위해 달라져야 하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말

이 많은 것일까?

조금 나아가 학생 중심 수업 개발의 필요성까지는 인정하는데 달라진 수업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방법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수행평가는 대입제도 변화 때문에 새롭게 생긴 특별한 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교사 중심 수업으로는 스스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통합하고, 행동하는 아이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어 학생 중심 수업으로 바뀐 것에 대한 보충 평가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수행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고, 하란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계, 인문계 등 학교별로, 그리고 각 과목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에 교사마다 자기 아이들과 과목에 대한 학습방법이나 평가 방법, 내용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면서 각자의 교실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르쳐야 할 아이들의 수준이 무시되고, 과목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하라 하니 적당히 흉내내는 수행평가가 실시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설령 수행평가가 좋아 보여 누군가가 몰아가려 할 지라도 자신의 아

이들과 과목 특성상 수업에 수행평가가 맞지 않거나 필요 없다 싶으면 어떤 제도든 어떤 정책이든 그 교실에서는 행하지 말아야 옳은 것이다.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자율과 권리가 있다고 본다.

“가르치는 데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다. 내가 맡은 과목, 내가 맡은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고민하고 적용한 학습모형에 가장 알맞은 평가 방법이 수행평가였던 것이다.

만약 지금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고 있다면 최고의 평가 방법은 지필고사일 것이다. 윗도리는 양복인데 바지는 한복으로 입는다면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교사는 모두가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인이어야 한다

교육부의 입시제도 변화도, 어떤 교육정책의 변화도 교육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며, 21세기를 향한 인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교실 수업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 제도들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고 앞서 적용해 나가려는 교사들의 움직임보다 한 수 아래일 것이다.

수행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어떤 수업, 어떤 과제를 부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수행평가는 자연스럽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입시 앞에 온 국민이 무릎 꿇는 나라, 대한민국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도시의 주요 길목에 오토바이 3백여 대를 대기시켜 놓고는 수험생 수송에 나섰다.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에 자동차들은 시험장 주변에서 경적을 울리지 못한다. 공항 주변 시험장을 위해 비행기의 이·착륙 시간도 조정된다. 우리나라를 오가는 외국인들조차 영향을 받는 것이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오대영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dayyoung@joongang.co.kr)

입시제도, 크기는 13번 작게는 35번 바뀌었다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공무원과 기업체 근로자들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수험생을 실어나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택시·버스 등 모든 대중 교통수단이 동원된다.

어디 이뿐이나. 작년에는 오토바이 특송업체들도 전국 8개 도시의 주요 길목에 오토바이 3백여 대를 대기시켜 놓고는 수험생 수송에 나섰다.

듣기 평가가 실시되는 시간에는 자동차들은 시험장 주변에서 경적을 울리지 못한다. 이시간에는 공항 주변 시험장을 위해 비행기의 이·착륙 시간도 조정된다. 우리나라를 오가는 외국인들조차 영향을 받는 것이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다.



수능 때문에 비행기 시간조차 조정된다? 아마도 외국인이 이 사실을 알면 기가 찰 것이다.

수능의 흥역은 시험이 끝난 후에도 이어진다. 작년에는 수능이 끝난 후 시험 결과를 묻는 이동전화(휴대폰) 통화량이 폭주,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장애 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극심한

'입시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입시 왕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70년대 후반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 과외였다. 당시 '과외는 망국병'이라는 말까지 탄생시켰고 급기야 80년 무력으로 집권한 신군부는 '과외 전면 금지'라는 초극단적인 극약 처방까지 취했다. 그러나 과외는 여전히 살아남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건국 이후 우리 대학입시 제도는 크기는 13번, 세부적으로는 35번이나 바뀌었다. 우리 사회는 그 때마다 심한 몸살을 앓았다. 대입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이 변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전 정부는 95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개혁을 시작했다. 그 기본정신과 틀은 현 정부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교육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대입 개혁이었다. 과외된 대학

입시로 인해 왜곡되고 학원으로 변질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96년 내신성적 산출방식을 달리한 종합생활기록부를 처음 시행했다. 학생들을 교과목 총점 순으로 줄 세운 뒤 순위를 매긴 과거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탈피, 학생들이 받은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도입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인 현장은 달랐다. 96년 4월 중간고사가 실시된 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많은 고교에서 인위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쉽게 내는 등 '성적 부풀리기' 파동이 벌어졌다. 결국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까지 여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해 8월 상대평가를 가미하는 쪽으로 평가방식을 수정해야 했다. 종합생활기록부의 이름도 학교생활기록부로 변경됐다.

작년에도 이 같은 '성적 부풀리기' 파동이 다시 벌어졌다.

2002학년도 대입 개혁을 추진중인 교육부는 작년 고1부터 학생부 산정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99년 고2까지의 학생부 교과목 성적은 계열 석차와 학업성취도(수·우·미·양·가)의 두 가지 방식으로 매겨졌다. 문제는 학업성취도에서 비롯됐다. 99년 고2까지만 해도 학업성취도는 완전한 절대평가가 아니었다. 원래의 학업성취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수', 80~90점이면 '우', 70~80점이면 '미', 60~70점이면 '양', 60점 미만이면 '가'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99년 고2까지는 이 방식

을 약간 변경, 전체 학생 평균 성적에 따라 수·우·미·양·가의 기준 점수를 달리하는 환산표를 법으로 정해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받은 점수가 90점을 밑돌더라도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가 낮으면 '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99년 고1부터는 이 방식 대신 완전한 절대기준으로 학업성취도를 매기도록 한 것이 다시 '성적 부풀리기'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이수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교사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가르치고 평가한 후 성적 그대로 학업성취도를 매기는 것이 정상적이다. 엄밀하게 말해 환산표에 의해 학업성취도를 매기는 것은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게다가 일부 교사들은 적당히 교육하고 평가하는 등 폐해도 많아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을 왜곡시키는 현상도 있어 고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교육부의 '순수한 의도'를 배신한 것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작년 7월 전국 1900여 고교중 1100여 곳을 대상으로 쉽게 출제하기·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0.3%인 117 곳이 성적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성적 부풀리기로 물의를 일으킨 고교의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2학기에도 이 현상은 쉽게 잠재되지 않았다.

서울 H고교의 작년도 2학기 1학년 수학과목의 중간고사 평균 성적은 88점이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이 90점 이상인 학급도 여럿 있었다. 이 학교 2학년이 1학년이던 98년 받은 평균 점수가 70점

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 사이 이 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 성적이 무려 10점 이상 뛰어오른 것이다.

이 학교의 한 학생은 "교과서 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답만 암기하고도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성적 부풀리기'가 성행하자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한 고교가 곤욕을 치르는 이상현상이 발생했다. 경기도 비평준화고교인 A고의 경우 99년 2학기 고1 수학 평균이 60점대로 나타나자 일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 "다른 학교는 쉽게 내는데 우리 아이들 장래를 망치려고 어렵게 출제하느냐"며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런 웃지 못할 파동이 벌어진 것은 200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지고 학생부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대도 2002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을 단지 지원자격으로만 활용하고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같이 심각한 '점수병'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작년 중학교와 고1부터 처음 도입된 수행평가도 '점수병'으로 고역을 치렀다. 수행평가의 도입 배경에는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토론·실험·독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 창의성·특기를 살리는 교육을 도입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물론 아직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이르는 열악한 우리 교육여건에 비춰볼 때 처음부터 완벽한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수행평가에 미숙한 일부 교사들

이 과도한 숙제를 부과, 일부 학부모·학생들이 '고행평가'라고 비판하고 있듯이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도 예상됐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행평가용 숙제를 대신 해주는 보습학원까지 등장, 성업중인 것은 역시 우리 같은 '입시 왕국'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점수병'이 낳은 대표적인 사회문제는 97년 이후 매년 벌어지고 있는 '특수목적고 학생의 자퇴 파동' 일 것이다.

97학년도 대입부터 외국어고·과학고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비교내신제가 폐지됐다. 비교내신제란 특수목적고 학생의 학생부 교과성적을 수능 성적과 비례해서 매기는 것을 말한다. 특수목적고에는 체육고·예술고 등도 포함돼 있지만 비교내신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제가 된 곳은 우수학생들이 몰려 있는 외국어고·과학고였다. 같은 학교내 학생들끼리 상대평가하는 한 이들 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섞여 있는 일반고 우수 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목 성적을 내신성적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받은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매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내신은 학생이 3년간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중시하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모든 대학이 특수목적고 학생에 대해 비교내신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없애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교내신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가 비교내신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상 밖의 일이 터졌다. 외국어고 학부모들이 모임까지 결성, 교육부에 대해 비교내신을 환원할 것으로 요구하며 연일 시위까지 나섰다. 급기야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비교내신제 환원을 거부하고 서울대는 계속 비교내신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자 외국어고와 과학고에서 2학년생의 무더기 자퇴 파동이 벌어졌다.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면 수능 성적에 따라 내신성적을 받게 돼 서울대에 지원할 경우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고2 때 자퇴하는 것은 고교생의 경우 규정상 검정고시 공고일(통상 5월말)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자퇴를 해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수목적고생의 자퇴 파동은 98년까지 이어졌고 99년도 과학고와 일부 외국어고에서 벌어졌다. 서울과학고 등 전국 15개 과학고에서는 2학년 전체 재학생 1518명의 20%인 306명이 자퇴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 앞에 선 부모는 이성을 잃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떼거리처럼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한때는 태국에서 곰 밀살에 나선 한국인들이 적발되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떼거리 문화'는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대성학원·종로학원·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 대입전문기관들이 수능 응시자중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가채점을 해본 결과 언어(국어)·수리탐구 I (수학)·수리탐구 II (사회·과학)·외국어

(영어) 등 4개 시험 영역 중에서 유독 언어가 어려워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언어 영역 평균 성적이 98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렇게 되자 갑작스럽게 서울 강남 학원가의 유명한 언어 강사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고2 자녀를 둔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 S모씨는 "자녀의 학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일 전날 저녁 10시부터 학부모들이 학원에 몰려 다음날 아침까지 꼬박 밤을 새워 기다리는 일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녀를 사립 유치원에 넣기 위해 학부모가 밤을 새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자녀의 학원 수강 신청을 위해 학부모가 밤을 지새는 일은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S씨는 또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능 과목에서 유명하다는 학원 강사의 경우 대부분 2000년 3월까지 수강 신청 예약이 모두 끝난 상태"라고 전했다.

과거 대입에서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본고사가 실시됐을 때는 유명한 국어·영어·수학 강사들은 최고의 인기와 누렸고 상당한 돈도 벌었다. 그러다 수능에서 과학·사회탐구의 비중이 높아지자 사회·과학과목 담당 강사들의 인기도 올라갔다. 이렇게 어느 과목이 입시에서 중요하느냐에 따라 해당 과목 유명 강사의 주가가 하루 아침에 치솟는다.

수능 과목뿐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수능이 쉬워져 논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진다고 하니까 논술 과외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학생이 지원하려는 몇 개 상위권 대학의 과거 논술 출제 경향과 예상 문제를 짚어 답안 작성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다. 1주일에 3회 정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조건으로 금액은 몇백 만원을

오간다. 유명한 논술 강사의 경우 수능이 끝난 후 정시모집 전형이 실시되기까지 불과 40여 일 동안의 반짝 과외로 역대 이상 벌어들인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렇게 되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수도권 12개 대학이 '쪼잔계 식 고액과외'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유형과 전혀 다르게 논술을 출제하기로 하는 식의 '논술과의 무력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곳곳에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가 발표하기 전에 취재해서 '서울대가 작년에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반영방법을 변경하는데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 지역 고교가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전망'이란 기사를 쓴 적이 있었다. 우수학생이 많은 고교의 서울대 지원생일수록 일

반고 서울대 지원생보다 더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기 때문이었다.

이 기사가 보도되자 한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왔다. 요지는 서울대에 전화를 걸어보니 서울대 측으로부터 "학생부 반영 방식을 변경해도 특수목적고 학생이 크게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쓴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기사는 꼭 발표문만 쓰는 것이 아닌데다 발표 전에 먼저 취재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그 학부

모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학부모의 큰 자녀는 특수목적고에 다니다 내신 때문에 자퇴해 지금은 유명 대학에 다니고 있고 현재 둘째 자녀는 일반고에 다니고 있었다. 그 학부모는 "큰 애가 자퇴 소동을 겪었기 때문에 둘째에는 내신 불이익을 피해 일



반고에 입학시켰다"고 말했다. 그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 고교의 내신성적 반영방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 학부모에게는 서울대가 특수목적고 학생에게 불리하도록 학생부 반영방법을 바꾸면 유리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적한 보도가 나가자 불만을 가졌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필자는 "우리 학부모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신들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특수목적고 학부모님들과 일반고 학부모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항의 전화를 걸어옵니다"라는 말까지 꺼내게 됐다.

이 말은 필자만이 느끼는 생각이 아니다.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기자들에게는 '입시 앞에 선 부모는 이성을 잃는다'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평상시에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입시를 앞둔 학부모가 된다면 이기주의자로 변신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 봤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교육문화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울 강남의 K고 교장은 한 방송사의 입시제도 관련 시사토론에서 "우리 입시제도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란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수목적고 학부모들의 비교내신 요구 시위가 거세져 한때 교육부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경기도 등 일반고 학부모들이 반대 운동에 나선 적이 있었다. 특수목적고에 유리한 쪽으로 제도가 변경되면 일반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입시왕국에서는 우리 가정과 학교도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가고 있다.

입시왕국에서는 우리 가정과 학교도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져가고 있다. 고1 딸을 둔 대기업 부장인 J모(46)씨는 입시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99년 고1은 '전형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대학입시를 개혁, 고교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2002학년도 '무시험 대입 전형'이 적용되는 첫 대상자들이다.

99년 정부가 2002학년도 대입 개혁안을 내놓았을 때는 앞으로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무척 좋아했다. 수능이나 학교 교과목 성적 못지않게 다양한 특기·특성과 활동내용이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된다는 말을 듣고는 내 딸은 자원봉사를 잘하거나 심지어 집에서 청소를 잘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보니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이같이 말하는 J부장은 “속았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전국에서 대입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는 서울 강남도 아닌 경기도 한 도시에 사는 J양은 하루에 학교를 두 곳 다닌다. 학교에서 저녁 6시쯤 귀가, 저녁을 먹고 잠깐 눈을 붙인 뒤 오후 8시쯤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작은 학교’인 입시학원에 가서는 오후 11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J부장은 주중에는 깨어 있는 딸의 얼굴을 본 지 오래다.

J부장은 “아침에는 딸이 자고 있는 동안 내가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는 내가 잠이 든 이후에나 딸이 귀가하기 때문에 주말에야 겨우 눈을 마주칠 정도”라고 말했다. 부녀간의 주말상봉도 중간·기말고사 때가 되면 무산되기 일쑤다. 시험일이 가까워지면 J양은 주말에도 학원에서 하루를 보낸다.

“2002학년도에는 특기·특성·적성이 중요해진다지만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학업실력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또 솔직히 말해 대학입시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공부를 해두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예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

한 생각이예요. 그래서 학원을 떠날 수가 없어요. 놀아도 학원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속 편해요.” J양의 말이다.

그러나 J부장은 불만과 걱정이 많다. “벌써부터 애가 입시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우리 교육이 입시로 인해 허물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애는 바쁘다는 이유로 제 방 청소도 제대로 안 해요. 할머니나 친척들을 찾아가지도 않고요. 예절교육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렸어요. 우리 애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강남의 K고 교장은 아예 “2002년 대입이 돼도 학교현장은 큰 변함이 없고 오히려 내신 성적 반영 방법으로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현재도 자퇴를 하겠다는 2학년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다. 잘못하면 학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고3 수험생은 가정에서 왕’이란 말이 나돈 지 오래다. 고3 수험생을 둔 가정은 전 가족이 입시 전쟁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갈수록 ‘왕’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다.

서울 목동의 S고 1년생 자녀를 둔 40대 C모씨가 털어놓는 이야기다. “2002학년도 대입이 ‘무시험 전형’이라고 하지만 여차피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입시란 없다. 특히 2002학년도 대입의 선발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갈팡질팡한다. 수능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학생부가 매우 중요해진단니까 학부모들은 학생부 과목마다 신경을 써야 하고 부족한 과목은 과외·학원에 매달리게 된

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낮지만 완전히 내팽개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미 목동 지역의 학원들은 학교별로 수행평가·내신성적 전담반을 구성해놓고 성업중이다. 여기에다 아무리 수능 비중이 떨어진다고 해도 수능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래저래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명문대 출신인 C씨 부부는 틈만 나면 고1 자녀를 직접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자녀의 중간·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생일잔치 등 웬만한 가정행사도 뒷전으로 미룰 정도다.

사교육은 영원히 부도나지 않을 유망 직종

갈수록 앞당겨지는 ‘대입 전쟁’으로 학원·과외 등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사교육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는 우리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맞아 부도난 기업과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가장 어려웠던 때다. 그럼에도 과외·학원 등 사교육비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3~8월중 학생(취학전~대학생) 3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올 3월 밝힌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교생의 지난해 연간 사교육비 규모는 11조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교육재정 20조5천여 억원의 58%에 이른다. 이 규모는 불법 고액과외 문제로 검찰이 수사까지 나서는 등 사회가 시끄럽던 97년 소비자보호원(11조9천원)·교육개발원(9조6천억원)·한국교총(9조4천억원)이 조사했던 사교육비 규모와 비슷하거나 늘어

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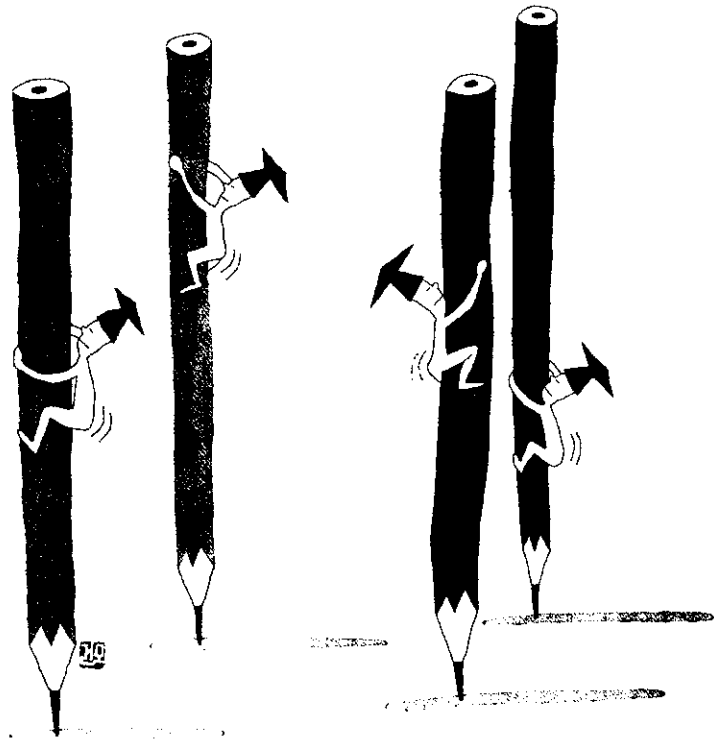
조사 결과 한달 평균 과외비는 초등학교생이 12만6천원, 중학생이 12만9천원, 고교생이 14만9천원이었지만 이것은 전체 평균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3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파출부를 한다. 몇 년 동안 부어온 적금을 판다는 가정도 적지 않지만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부모들은 허리가 휘다.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고교 1년생 자녀를 둔 중견기업 M모 부장은 "작년에 고1 자녀의 학원비·과외비로 월 평균 50만원을 썼다"며 "주변에는 100만원 이상 넘게 쓰는 가정도 많다"고 말했다. 올 고3 자녀를 둔 중견기업 P모 차장은 "영어·수학 과외비로만 월 평균 1백만원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들어 IMF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과외·학원 등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입시 위주 보습학원이 지난해말 3400여 개에서 올 9월말에는 3500여 개로 150개 증가했다. 서울S고 1학년 K모 담임교사는 "학급생 51명 중 33명은 보습·입시학원 다니고 있고 5명 이상은 과외를 받고 있다"며 "오후3시30분 수업이 끝난 후에는 보충수업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원·과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98년보다 과외·학원교육을 받는 학생이 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많은 고1 교사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교재를 판 후 대학생이 방문해 가르치는 방식을 활용, "수능 성적을 불과 한달 만에 50점 이상 올려주겠다"며 가입비만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불법 고액과외까지 등장했고 일부 수험생들은 이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다. 지난해 4~10월 이들로부터 과외를 받은 서울 Y고 3년생 L모군은 "강사 선생님의 '교재를 충분히 익히려면 여러번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과외 횟수를 늘려다 보니 7개월 동안 1500만원이 들어갔다"며 "다른 친구들도 3~4개월에 1000원씩은 쓴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과목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적성 활동이나 독서를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올 고1부터 보충수업을 폐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입시왕국에서 사교육은 영원히 부도나지 않은 유망업종인 것이다.

작년에 심각하게 대두된 '교실 붕괴'의 주요 원인도 입시병에서 비롯됐다. '학교에는 쉬러 가고 공부하는 학원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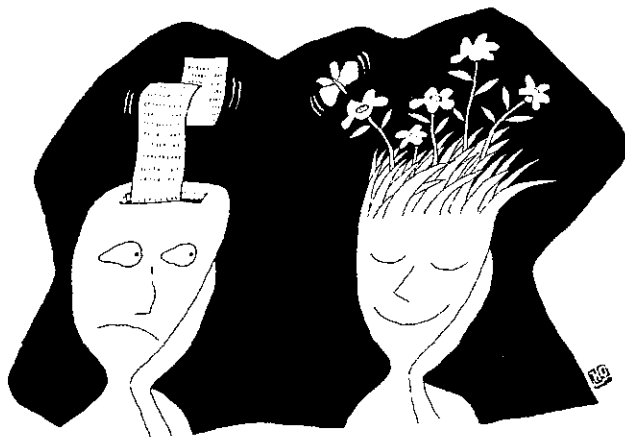
"수업시간에 교실 순회를 하다가 고1 교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수업교재를 가져오지 않아 수업시간에 교실 뒤나 복도로 쫓겨나서 있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을 때도 있고,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는 몇십 명씩 발견되기도 한다." 서울 H고 C모 교장이 생생하게 전하는 고1 교실의 모습이다.

비교적 중산층이 많고 학교 명성도 괜찮은 서울의 B고에서 1학년을 맡고 있는 한 교사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는 아이들은 학급생 50명 중 5명도 채 되지 않

는다. 때로는 교과서가 없는 학생이 10~20명이나 되고 숙제는 안 해오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아 숙제를 검사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털어놨다. 우리 고교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수준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평준화 정책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중간 수준으로 가르쳐야 하는 여건에서는 당연히 학교교육을 못 따라오거나 이미 앞서있는 학생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교육이 왜곡된 것은 사회진체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교육관, 즉 '점수병'의 책임이 크다.

97년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방과후 영재교육 센터인 '헬레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여서 사교육이 많고 영재교육도 발달돼 있다. 헬레드는 72년 학부모들에 의해 설립돼 당시는 이스라엘 정부와 예루살렘 시·히브리대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운영은 예루살렘 대학 교수·대학원생과 인근 학교 교사 등이 하는 민간 기관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 장면을 참관할 수 있었는데 흥미있는 것은 기초 이론만 가르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울 뿐 학교 교과서 내용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헬레드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미세 마이어(히브리대 생물학과 교수)씨는 "학교에서 배울 것을 미리 가르쳐주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충실

히 받지 않고 수업 도중 딴 짓을 하는 등 학생이 오히려 빗나가고 학교 교육도 엉망이 된다"고 말했던 것이 인상에 깊게 남았었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학원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낫다"는 말이 나돈다. 입시왕국에서는 학생의 수준·입맛에 맞춰 쪽집개 식으로 점수를 잘 따는 시험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학



원·과외가 학생에게는 더 호응을 받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서울 B고의 2학년 여학생은 "한 반 50명 중 최소한 40명 이상은 학원에 다닌다"며 "학교수업은 재미도 없고 따분한데 다른 애들도 수업에 소홀하니 공부할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학원은 훨씬 낫다"고 말했다.

학교, 학부모, 언론 모두 점수병에 걸려 있다

점수병에 걸린 일부 학부모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도 문제다.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야단쳤다.

그랬더니 다음날 그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애가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피곤해서 수업 도중 잠을 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면서 말이다. 정말 우리 학교가 어디로 가는지... 교육에 회의가 든다." 어느 고교 교사가 침통하게 전한 말이다.

서울 C고 K모 교장은 "아무리 인성교육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의 대학 입학 성적이 나쁘면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해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가 좋은 학교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학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교에서 외부 입시전문기관에서 사다가 실시하는 모의고사 실시 횟수를 연 4회로 제한했다.

당시만 해도 고3의 경우 대부분 고교가 연 6회 이상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때였다. 교육부가 이같이 결정하자 일부 고교는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문제지만 사다가 시험을 치르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특히 입시 경쟁이 치열한 대구·광주 등 일부 지방 대도시에서 이같은 현상이 심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들 고교에 문제지를 제공했던 한 대입전문기관 관계자는 "고교에서 '입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성화가 심해 어쩔 수 없다'며 하소연을 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의 '점수 부풀리기' 등 비교육적인 행동도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리

는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어느 고1 학생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성적 인플레이가 심해 시험 전날 계입방에서 밤을 지새는 학생이 과반수 이상이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볍게 본다”는 내용의 글을 실어 경종을 울렸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있어 교육은 학교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다. 학교 못지않게 가정교육도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교육은 입시에 밀려난 지 오래다.

26년 동안 한국에서 살아온 이케하라 마모루씨는 작년에 주목을 끌었던 그의 저서 ‘맞이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에서 이렇게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교육열로 이어진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자식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의 지상 과제다. 고교생들은 밤 12시가 넘어서 귀가한다. 그러나 집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가정 교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람이 한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부모님한테서 받는 가르침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한국사회에는 가정교육은 없고 오로지 입시교육만 존재한다. 한국사회가 무질서하고 몰염치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위층에서 하도 쿵쾅거리 불만이 많던 차에 위층에 사는 중고생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조용히 걸어다녀야 아래층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그 아이를 꾸짖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시 후 위층 아주머니

한테서 인터폰이 왔다. 처음에는 사과하려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가 언제 뛰어다녔냐면서 따지는 것이었다. 망나니로 키우는 가정교육이다.”

이같은 점수 맹목주의 아래선 적성은 완전히 무시되고 득점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이 난무하게 된다.

작년에 수능에서 교차지원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이 부쩍 늘어난 것은 그 일례다. 교차지원이란 수능 응시계열이 다른 계열에 지원하는 것을 대학이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문과생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는 이런 대학이 140곳이었으나 작년에는 170곳으로 부쩍 늘었다. 이렇게 되자 출제범위가 좁고 난이도가 평이한 예·체능계열로 수능에 응시하는 고3 수험생이 부쩍 늘었다. 부산의 경우 전체 수능 응시생 중 예체능계 지원자가 29%로 지난해보다 6.9% 포인트나 많아졌다. 예체능계열은 출제범위가 인문계(9개 과목)보다는 2개, 자연계(10개)보다는 3개 적은 등 득점을 올리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산 K고 L교 교사는 “예체능 계열로 시험을 친 학생들이 자연계로 진학해 제대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입시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비교육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목적주의는 대학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대의 ‘고시학원화 현상이 대표적이다. 적성에 관계없이 그저 서울대 간판을 따기 위해 입학한 학생들, 그리고 입학하자마자 전공은 내팽개쳐 사법고시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언론도 ‘점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몇년 전만 해도 대학입시에 관한 내용은 무조건 크게 비중있게 보도됐다. 다행히 3년 전부터 언론들도 반성, 경쟁을 부추기는 수능 및 서울대 수석을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입시는 매우 중요한 기사이며 때로는 기사의 본질을 다르게 하기도 한다.

최근 교육부가 2000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지침을 발표했다. 그 속에는 대학이 학부 정원 1명을 줄이면 대학원생 2명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런데 모든 언론에 보도된 핵심 내용은 “올 고2가 대학에 들어가는 2001학년도 대입에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상위권 대학의 입학정원이 줄어든다” 것이었다.

정부가 추진중인 법학·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서도 법대·의대의 입학제도의 변화가 주요 관심사였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밝힌 설문조사는 우리의 ‘입시병’이 얼마나 암적 존재인지를 명확히 밝혀준다. 이 의원이 서울·부산 등 6개 도시의 초·중·고 교사 1,2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의 85.7%가 “교실붕괴 현상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교권붕괴(31.9%), 대입제도 등 잘못된 교육정책(30%), 가정교육 부재(20%) 등을 꼽았다.

이같은 점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같이 물어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세주의가 치유되지 않는 한 어렵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변 이외에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좁은 땅덩어리에 한정된 자원, 학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온 우리의 역사적 배경, 명문대를 나와 고시에 합격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사회, 논과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만큼은 꼭 교육시켜야 한다는 뿌리깊은 교육 열...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정답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열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열은 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데 교육열은 과거 방식에 집착하고 있어 국가적인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숙제는 교육열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로 집중 투자되는 쪽으로 우리 교육문화를 바꾸는데 있다.

결국 '교육정책 부실'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이를 위해선 우선 우리 교육정책이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단기적인데다 대중요법에 치우쳐 있어 오히려 입시병을 부추긴다는 비판마저 나올 정도로 불신을 받고 있다. 일이 터지면 땀방식 처방에 급급한데다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교육정책이 달라진다. 건국 이후 1년2개월마다 입시제도가 달라졌다. 이렇다 보니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은 공염불이 된 지 오래다.

96년의 '종합생활기록부 파동'도 결국은 교육부가 치밀한 준비없이 학생부를 만들어놓고는 성급히 그해 곧바로 도

입했다가 벌어졌다.

비평준화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의 K고 1년생 자녀를 둔 40대 학부모 K모씨는 "교육공무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제도를 바꾸는지 의문이다. 초·중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고1 학생들에게 올들어 갑자기 수행평가를 실시하면 당연히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교육정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무리 2002학년도 입시개혁을 강조해도 많은 학부모·학생들이 "입시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불안하니까 학원에 보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들도 좀더 적극적으로 입시문화 개혁에 나서야 한다.

"입시풍토가 달라지기 위해선 대학이 달라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는 교육과정에 맞춰 교육시키고 대학이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현재는 고교가 대학에 맞춰 교육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 보니 대학의 신입생 선발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고교 교육이 변한다. 아직도 많은 대학은 고교 교육과정과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고교에서 아무리 자원봉사 등 비교과영역을 강조해도 대학에 들어가는 데 소용이 없다면 학생들은 외면하게 된다."

30년 넘게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을 해 온 장학관인 이수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의 지적이다.

우리 대학들은 그 동안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데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저 수능 성적이 좋

은 학생이면 우수하다는 생각에 젖어있는 대학이 여전히 많다. 신입생의 학업성취도를 수능 평균 성적으로 따질 정도다. 서강대의 한 교수는 "대학이 1만명 넘게 지원하는 학생들의 질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라고 털어놓았다.

지난 5월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방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던 서울대가 입시를 코앞에 놔두고 반영방법을 확정 한 것은 우리 대학이 얼마나 대입 개혁에 무관심한지를 가늠케 한다.

우리와 같이 입시병이 심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연중 수시모집을 하는 명문대학이 등장하는 등 대학들이 입시 개혁에 열심인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문화가 획일적인 한 줄 세우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우대하는 쪽으로 변화돼야 입시왕국은 무너질 것이다.

이현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아직도 대학입시는 학부모·학생·교사들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이제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가, 일류 대학·인기학과를 택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전문 기술자가 되기 위해 조리·자동차·공예 등 특성화 고교를 찾는 우수한 꿈나무들이 늘고 있고 대입에서 특기·적성·환경 등을 중시하는 다양한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21세기를 기대해 본다. [20]

당신이 KEDI 도서회원이라면

한국교육을 연구하는 KEDI의 첫 연구결과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KEDI 도서회원 가입 안내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 교육의 종합적인 연구 산실로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 교재 및 학습 자료 등의 간행물을 계속하여 발간해오며, 한국교육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본원의 연구 산출물에 관심이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교육 관계자 및 기관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87년도부터 'KEDI 도서회원제'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각종 간행물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회원에 대한 특전

- (1) 본원에서 계간으로 발간하는 11 『교육개발』 (연 4회), 『한국교육』 (연 2회) 우송
- (2) 당해연도 연구보고서, 15종 이내(익년도 3월 중 우송)

2. 회원 자격

회원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주어지며, 가입연도에 본원이 수행한 정규 연구보고서(매년 3월 중 발송)와 정기간행물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짐.

3. 가입 방법

가입 신청서와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됨.

4. 연 회비 : 1구좌당 70,000원

5. 회비 납부 방법

「우체국」(온라인 계좌번호) : 011916 - 0006202

「국민은행」(온라인 계좌번호) : 070 - 01 - 0379 - 171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입금

6. 문의처 : 우편번호 137-79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조정실 홍보·출판팀 TEL. 02-3460-0408, 0411

FAX. 02-577-5117

우리의 교육환경

백영실(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통계팀, yspaek@ns.kedi.re.kr)

교육환경 하나. 학교현장의 학생수

얼마 전 업무관계로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간 적이 있다. 운동장에 들어서니 노란색 체육복을 입고 선생님의 지도하에 체육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모두들 조카애들처럼 여겨져 미소가 저절로 나오려는데 순간 약간 어리둥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끼리,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끼리 두 줄로 서는데 웬 줄이 그리도 짧던지...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조화나 체육시간에 섰던 줄에 비하면 그날 목격한 아이들의 줄은 절반도 안 되는 길이였다. 그만큼 한 학급의 학생수가 현격히 줄어든 탓에 마치 아이들이 서다 만 것처럼 그렇게도 줄이 짧게 느껴졌던 것이다. 요즘은 한 반 학생수가 몇 명이 되는지 궁금해서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에게 "애, 너희 반 아이들이 모두 몇 명이니?" 하고 물었다. "음, 남자 20명, 여자 17명 해서 모두 37명이에요." "37명? 어머,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이 보통이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되었으니 그만큼 변화야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왠지 적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이와의 대화를 계기로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가 어떻게 감소해 왔는가를 알고 싶어 그에 관한 자

료를 살펴계 되었다(〈표 1〉 참조). 필자가 초등학교에 재학 하던 시기인 1970년대 초반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당 학생수가 62.1명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근 3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는 35.4명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표1〉

한 반의 학생수는 이렇게 감소해 왔지만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다. 바로 한 반의 담임선생님은 단 한 분이라는 사실이다.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 교사수의 증가 등에 따라 연도별로 감소해 오고 있다.

필자가 학교에 재학할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한 반에 7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에게는 너무나도 벅찼을 것이고 교육을 행함에 있어 현재보다 포기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짐작이 든다. 선생님들이 포기하는 부분들이 결코 포기해도 괜찮은 것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 아이들의 소질과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지도, 아이들과의 돈독한 관계 등 우리 교육에 있어 진정으로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버려져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현격히 감소한 오늘

〈표 1〉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1970	34.1	62.1	62.1	60.1	56.1
1975	36.5	56.7	64.5	59.8	57.0
1980	38.4	51.5	62.1	59.9	59.6
1985	34.5	44.7	61.7	58.0	55.5
1990	28.6	41.4	50.2	53.6	51.5
1995	28.5	36.4	48.2	48.0	47.9
1999	26.8	35.4	38.9	47.2	44.6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교육통계연람」

〈표 2〉 우리 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70	56.9	42.3	29.7
1975	51.8	43.2	31.4
1980	47.5	45.1	33.3
1985	38.3	40.0	31.0
1990	35.6	25.4	24.6
1995	28.2	24.8	21.8
1999	28.6	20.3	21.4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교육통계연람」

날의 교육현장은 어떨까?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가? <표2>

교육의 선진성을 논할 때에는 외국의 경우와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 힘겨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주요 선진국가에 비해 교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아직도 많으며, 그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학습능력 수준이 중간정도인 학습자에게 눈높이를 맞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교사들의 교수-학습지도 이외의 업무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지 않은 데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해 보려는 도전심보다는 이제까지 익숙한 방법을 고수하려는 데서도 원인의 일부를 찾아볼 수 있다. 학생수가 적어지면 모든 것들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새로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탓에 희망 그 자체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

<표 3> 학생 대 교원 비율의 국제비교(1997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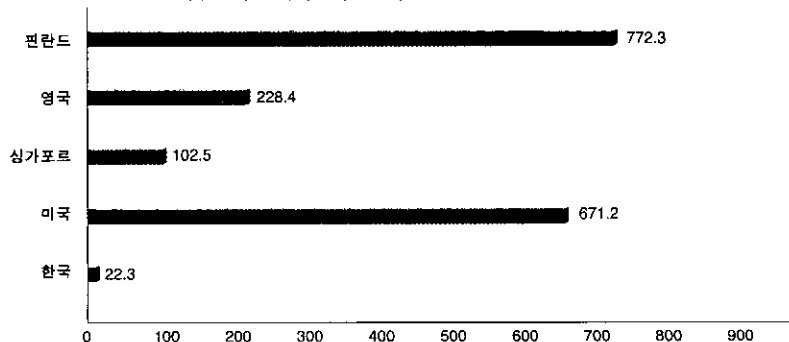
구분	유치원교육	초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캐나다	21.5	17.0	20.0	19.5
독일	23.7	20.9	16.0	13.1
일본	17.8	19.7	16.2	15.6
한국	24.9	31.2	25.5	23.1
영국	19.1	21.3	16.0	15.3
미국	21.9	16.9	17.5	14.7
국가평균	17.6	18.3	14.8	13.7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OECD 교육지표」

교육환경 들. 학교현장의 컴퓨터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사회과 시험문제 중 단골로 등장했던 문제가 불현듯 떠오른다. “경부고속도로의 완공으로 이제 우리 나라는 ()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문제로 괄호 안의 정답은 ‘일일 생활권’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만에 이동이 가능하고 물리적인 거리는 그대로이지만 시간상의 거리가 대폭 축소된 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일이었나 보다. 그런데 요즘은 국내의 일일생활권 시대 도래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세계가 일일생활권에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계의 일일생활권화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 외국 통계기관에 있는 담당자와 전자

<그림 1> 주요국의 인구 1만명당 인터넷 사용자수(1994년) (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8),「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교육」

메일로 연락할 기회가 많은데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는 데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외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회신을 받는 데는 약 20일의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등 각종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 온 세계인들이 실시간 생활권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통신 매체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 1만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를 살펴보면 (1994년 기준) 22.3명으로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1>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들의 꿈나무가 자라나고 있는 학교현장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어떠한가? <표 4>에 의하면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연도별로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실제로 학교현장의 컴퓨터는 그 기종에 있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컴퓨터 기종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이 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탓할 것도 못되겠지만 아직도 16비트 기종이 학교현장에 남아있고 이들이 학교현장 컴퓨터 보유현황에 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낙후성 언급에 대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4>

우리 나라의 컴퓨터 1대당 학생수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러한 실정은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 다른 국가에 비해 별로 유리하지 못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작은 학교, 그러나 커다란 세상

1995년 가을, 필자는 강원도 산골의 어느 초등학교 분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학교를 방문할 때 까지 필자는 '분교'라는 소리를 들으면 다른 학교에 비해 어딘지 모르게 손해보는 환경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하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필자의 이런 생각은 산골 분교를 방문한 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분교에는 총 14명의 학생과 교장선생님을 합해 교사는 총 5명이었다. 말씀을 들어보니 선생님 1분당 2개학년씩을 담당하고 계셨다. 실제로 1.2학년 수업시간을 참관할 기회도 갖게 되었는데,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 또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수업장면과는 너무나도 차이나 났다.

선생님은 마치 가정에서 짬짬이 자녀의 공부를 도와주는 엄마와 같이 총 4명인 1학년생들 개개인들을 지도하고 계셨다. 아이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하고 도움을 청했고 다른 아이의 공부를 봐주

<표 4> 우리나라의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1991	54.8	65.7	103.5	27.5
1992	44.8	55.1	74.9	21.0
1993	39.3	47.9	60.8	19.2
1994	31.8	43.1	47.3	18.3
1995	27.0	34.4	41.3	13.6
1999	13.4	10.8	13.8	4.1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 「교육통계연람」

시던 선생님은 “응, 잠깐만... 이거 다 봐주고 갈게” 하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1학년 아이들의 학습을 지도하시는 동안 2학년 아이들은 교실 벽면 쪽으로 마련된 책상 앞에 앉아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공부책상은 교실 한 가운데의 수업을 위한 책상과는 별도로 마련된 것으로 마치 도서관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자신의 공부책상은 아이들 스스로가 장식한 것이라고 했다.

교탁을 사이에 두고 학생과 교사가 정해진 틀에 의해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수업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일찍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붙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의 강요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일어서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수업장면뿐만 아니라 필자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교실에 갖추어진 온갖 교육시설이었다.

각 교실마다 수업에 필요한 기본도구 및 시설들이 부족함 없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대학 강의 때 한 번 사용할라치면 빌리는 절차부터 까다로운 OHP가 각 교실마다 1대씩 있었고, 각종 참고도서, 오디오 및 비디오 시설, 악기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또한 컴퓨터도 학생수에 맞추어 구비되어 있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이곳 아이들은 학교수업이 끝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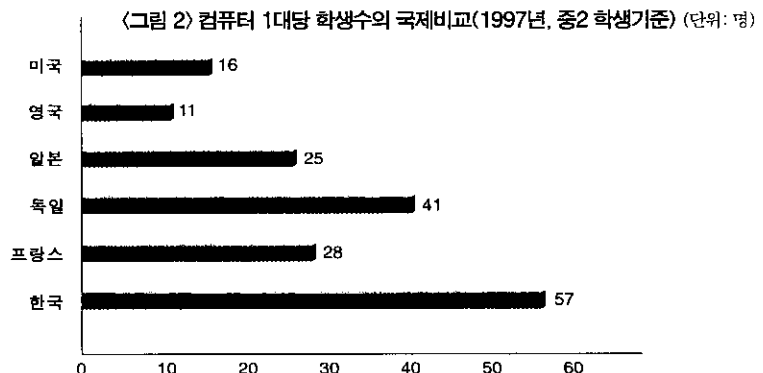
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집에 가면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야 하는데 그건 하기 싫고 대신 온갖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학교에 다 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학교는 그들의 학습장소이자 놀이터였던 것이다. 방과 후의 시간은 더 자유로워서 비디오를 보고 싶은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비디오를 보고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컴퓨터에 매달려 있고 저희들끼리 노래를 부르며 놀고 싶은 아이들은 학교 음악실에 비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기를 틀어놓고 목청 높여 노래를 부른다고 했다.

그 학교를 방문 후 필자는 우리가 진정 바라는 교육의 모습과 교육환경의 모습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 중 학교를 놀이동산만큼이나 가고 싶어하는 장소로 꼽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자녀가 수업을 다 마친 후 집에 돌아오면 우리의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재미있게 놀았니?” 하고 물음으로써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이 조만간 도래하기를 희망해 본다.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9), 「OECD 교육지표」

QA

학 · 점 · 은 · 행 · 정 · 보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의 문의 사항 중 학습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하여 신는다.

학점은행과 여타 제도와의 연계 및 활용

Q 학점은행으로 학위 취득 후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대학으로의 편입 및 대학원 진학은 각 학교에서 규정하는 지원 요건이 상이하므로, 학습자가 진학하고자 하는 기관에 지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Q 학점은행으로 학위 취득하면 전공과 관련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한가?

A 학점은행으로는 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나, 자격증 발급 기관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특정 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도 일반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침을 정한다면 학위취득과 동시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Q 독학사 시험 합격으로 학점을 인정받았다. 반대로 학점을 인정받아 독학사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

A 학점은행으로 일정학점을 취득한 학습자는 국가기술자격취득 시험과 독학에의한학위취득 시험에 대하여 해당하는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세부적인 기준은 각 시험 주관 기관(국가기술자격취득-한국산업인력공단, 독학에의한학위취득-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Q 여러 기관에서 학점 이수하기가 어렵다. 한 기관에서 모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가?

A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로 학점을 취득할 경우,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학사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과정은 60학점이므로 최소 2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 혹은 1개 교육훈련기관과 자격증 및 독학사 시험 합격 학점 등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모든 학점을 이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위 취득 요건

Q 140학점을 취득했다. 학위 취득이 가능한가?

A 140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에도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전공필수과목 이수를 포함하여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학위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학점은행을 통해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는?

A 학사 학위 소지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수여 받고 싶은 경우, 영 제16조제3항, 교육법 제115조 및 제12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공과목(필수과목 포함)을 3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의 전공 학점을 자격증 및 시험 합격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전공의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전공 3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Q 특정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학점은행 학위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장이 수여할 수 있다. 특정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려면 당해 대학 학칙에 학위 수여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며, 당해 대학의 학점을 학사과정은 140학점 중 85학점, 전문학사 과정은 80학점 중 5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역시 학교 학칙으로 규정되는 사항이므로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학점인정은 한국교육개발원으로 학점인정 신청하여 받고, 인정받은 학점에 대해 학위 취득을 위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당해 대학 학칙에 따른다.

학습과목 이수

Q 학습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학습자는 원하는 학습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 상담실 / 16개 시·도교육청 상담실 /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http://edubank.kedi.re.kr>)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Q 교양과목 학점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A 교양과목의 이수 방법은 ① 학점은행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중 교양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② 대학(교)에서 시간제 등록으로 교양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③ 독학사 1단계 과정(교양과정)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이다. ④ 학점인정 대상학교(대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것은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의 교양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양학점으로 인정된다.

Q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려고 했으나, 아직 개설한 기관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전공필수과목 등과 같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 교육훈련기관에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우선적으로 대학(교)의 시간제등록을 이용하여 수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전공의 경우는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 합격으로 취득한 전공필수 학점으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가인정 관련 유의사항

Q 학점은행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A 학점은행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①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②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학교,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사회(평생)교육원·전산원, ④ 학원, ⑤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대중매체, ⑥ 한국생산기술연구원·민간생산기술연구소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 및 시설, ⑦ 기타 사내대학 또는 사내직업훈련원 등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⑧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공개강좌 및 전공심화과정을 둔 대학 등이다.

Q 학점은행 교육기관이다. 이전으로 인해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된 사항에 대해 변경하고자 할 때, 교육훈련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과 교육부에 변경 승인 신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지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습과목폐지신고이며, 교육부에 변경 승인 신청해야 하는 사항은 학습과목의 내용, 학습과목의 이수기간, 주당시수, 학점 수, 관련과정명, 담당 교강사명 또는 교강사 수, 학급 수 및 학급당 정원, 평가인정의 기준이 된 시설 및 설비 등이며 변경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개강 2주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해야 한다.

Q 학점은행 학습과목의 교·강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조건이 있는가?

A 학점은행 교·강사 자격은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는 연구실적 혹은 교육경력 연수 2년 이상, 전문대졸업자·동등 자격자는 연구실적 연수 2년 이상, 교육경력 연수 1년 이상 계 3년 이상의 경력 연수가 있어야 한다. 연구실적 연수는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또는 사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경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을 말한다. 연구경력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경력 환산을 산출 기준은 '교수자격 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를 참조하면 된다.

Q 학점은행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A 평가인정 필요 경비는 기관에서 심사받는 학습과목 평가인정 수수료는 5개 과목 이하 기준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 수수료가 7만원이며, 1개 학습과목 추가시 수수료는 10만원씩 증액된다. 서면평가 후 탈락시는 30만원을 반환한다.

독학사 관련

Q 몇 년 전,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독학사 면제자 과정을 이수했는데, 이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한가?

A 독학사 시험의 단계별 면제과정 이수자는 학점인정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①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이 학점을 줄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가인정을 거쳐야 하고, ② 면제과정 이수자에게도 학점을 인정할 경우, 해당 사회교육원에 소급해서 평가인정한 효력이 부여되어 '소급효금지'라는 일반법원칙에도 어긋나고, ③ 법령에서 학점화할 수 있는 시험의 예로서 독학사시험을 들고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시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험합격으로 간주되는 다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④ 면제과정을 인정할 경우 국가공무원시험이나 자격시험 등도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Q 학점은행 교육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36학점을 이수했는데, 그 전에 독학사 시험으로 합격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가?

A 독학사 시험 합격은 취득 연한에 제한이 없으며, 연간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독학사 시험 합격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한다. 자세한 문의는?


A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대한 안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02)3668-4114, <http://www.knou.ac.kr>

그밖에

Q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하려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A 시간제등록은 그 총괄적인 사항만 교육부 대학제도과에서 담당하고 시행은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되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 대학으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Q 학점은행을 이용하여 학점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A 학점은행 이용경비는 학습과목의 수강료의 경우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업료 및 제반 경비는 어느 기관에서 어느 학습과목을 이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학점은행으로 학위취득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등록에 대한 수수료는 4,000원, 학점당 인정신청 수수료 1학점 당 1,000원이다. 



한국항공기술학원

한국항공기술학원은 1990년 6월 29일 설립 이래 "창의적 직업인, 긍정적 지성인, 봉사적 지도자"를 원훈으로 열린교육과 쓸모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항공분야에 적성과 소질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창의적 기술과 원만한 인격,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가진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기술파급 및 산업 연관 효과가 매우 크고 경제구조가 고도화·선진화될수록 시장규모가 커지고

이에 수반하여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항공분야 종사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은 국내에 몇 개에 지나지 않아 교육수요자의 학습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항공기술학원은 이러한 중급 기술인력시장의 수급불균형에 착안하여 일찍부터 2년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다. 특히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2·9교육개혁안에 따라 학점은 행제의 입법화가 논의되던 때부터 학점은행제의 취지에 비추어 기술학원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로 판단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학점은행제 출범 이후 학원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주변 대학 사회 교육원에서 교양 학점을 취득하여('99년말에는 80학점을 취득하여), 40여명의 공업전문학사를 배출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학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약 57개소의 항공기술학원이 산재하여 연간 1만 4천 명 가량의 이수자를 배출하였으나, 공급과잉과 학원 특유의 치열한 품질경쟁을 통해 현재 6개 기관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항공기술학원은 '95년 경기도 용인시에 임직원 전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항공장비 제조업체를 설립, 관련 산업계와의 활발한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해 학원에서의 직업기술교육이 현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항공기술학원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배경에는 고객중심의 품질경영(TQM)철학이 있다. 설립 초기부터 경쟁학원보다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학습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자격 취득률, 취업률 등 경쟁학원에 비해 월등한 학습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20% 이상을 시설·설비 및 연구개발분야에 투자하는 한편, 매년 40여명의 학생들에게 2,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학원 내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끊임없는 고객만족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항공정비과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완성된 '99년 하반기부터는 항공운항과 12개 교과목을 인정받아 2000학년도부터 고졸학력의 여성을 대상으로 항공기 객실승무원(stewardess)을 양성하는 2년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항공기술학원은 전문화·국제화·정보화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99. 5

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컴퓨터 운용 및 관광통역과정 인가를 받아 인터넷 실습실을 설치하고 모든 재학생에 대한 정보기기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0학년도부터는 외국 인강사를 초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의 무영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5% 미만에 머물고 있는 사이버 교육시장이 향후 5년 이내에 30%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이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석사학위를 소 지한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함과 아울러 학원 자체의 인터넷 서버와 BBS 구축을 완료하고 일부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CBT 교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아 미래형 교육 훈련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한국항공기술학원은 다른 유형의 교육훈련기관이 정부의 지원이나, 학습자 초과수요 등에 안주하는 동안 우리 나라 순수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금석이 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줄기차게 경주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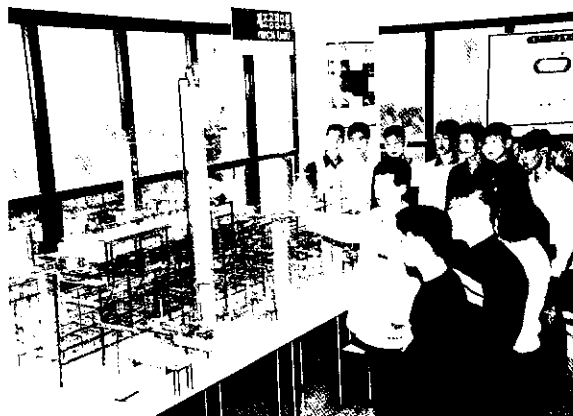
호남직업전문학교

호남직업전문학교는 1993년 호남 전산직업훈련원으로 개원하여 1994년 3월 지금의 교명으로 개칭하였으며, 1998년 9월 지하 2층, 지상 11층의 현재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 학교는

정보처리과, 인터넷과, 자동차정비과, 관광통역과, 한식조리과, 전기내선공사과, 도배과, 고압가스기계과, 건설기계정비과 등 9개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93명이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다.

또한, 현재 24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424명이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다. 호남직업전문학교는 별도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전체 수료생 1,174명 중 1,0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약 87%의 높은 자격증 취득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교사진과 수강생들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수강생들의 교육 이외에도 무료 도배, 전기 안전점검, 광주천 주변 환경정리, 무등산 쓰레기 줍기, 농어촌 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강생들의 자기진작을 위해 매년 10월초에 축제를 열고 있고, 중간·학기말 교사 상위점수자, 가장 환경 불우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과별·반별로 1명을 선정하여 10만원 정도



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성실장학생을 선발하여 실습조교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학교는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달 평균 3~4회 연구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들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과 시작 전에 새벽반을 편성하여 외국어과정과 컴퓨터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원하는 수강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 지역은 정부 국책 사업 중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광(光)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학교에서는 광섬유와 광케이블 관련 첨단 산업의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호남직업전문학교는 명실공히 지역사회 기능인 양성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K]

1999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추가 임용 생물·물리·일반사회과 시험의 출제 방향

'99년 5월 23일에 중등학교 교사 추가 임용고사가 실시되었다. 「교육개발」에서는 임용고사의 발전을 위하여 시험과목별 출제 방향과 시험문제지를 연재하고 있으며, 출제 방향은 출제진이 작성한 것이다.

■ 생물과 시험의 출제 방향

임용고사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교육학 일반에 대한 이해와 과학과 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능력, 생물학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의 이해 및 적용 능력을 측정한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했다. 임용고사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묻는 문항은 되도록 다루지 않았으며, 중등 생물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출제했다. 특히 생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료 해석 능력, 종합적 추론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능력 등을 측정·평가하고자 했다.

현행 6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시행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핵심 개념과 원리를 그저 암기하는 교수-학습 활동보다는 그것을 활용해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사범 대학의 교육 내용도 종래의 이론 중심,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 예비 교사들이 배출되었을 때 교사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탐구 중심, 사고 교육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교육 형태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이번 임용 고사는 바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출제 영역

1999년도 중등교사 추가임용 시험에서 과학과는 1998년도에 교과 교육학에서 25%, 교과 내용학에서 75%를 출제 한 데에 비해, 교과 교육학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강조해 교과 교육학에서 30%, 교과 내용학에서 70%를 출제하였다.

그리고 교과 교육 문항에 21점, 교과 내용 문항에 49점을 배당했다. 교과 내용 문항에서 각과 공통 영역의 경우 4개 교과에 각 6점씩 24점을 배당했으며, 전공 영역에 대한 점수 비율은 총 70점 중에서 25점만을 배당했다.

교과 교육 공통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과정, 교육 철학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는 문항을 다루기로 했다. 교육과정의 경우 예비 교사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할 교과 내용은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내용이 될 것이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체제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를 출제했다. 교수-학습 분야는 구체적인 실험 과정을 제시하고 탐구의 과정과 탐구 요소를 확인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이것은 수업 혹은 실험 내용에 대한 분석의 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이다. 다음으로 과학 철학의 내용은 과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과학의 발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이론의 특성과 문제점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문제를 출제했다.

생물 교육 영역에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행 평가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평가 방법과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의 상황을 주고 그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이라든가,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항을 제시했다. 이 문항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상황을 설정한 것이며, 예비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실제 상황에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제이다.

공통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과학 교사로서 과학의 일반적인 원리나 현상을 이해하고 추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항들을 출제했으며, 각 과목에서는 자연 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 사용 능력, 간단한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계산 능력, 과학 탐구 과정에서 기본적인 분석 및 적용 능력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전공 영역의 문제는 분자와 세포, 유전과 진화, 동물 생리, 식물 생리, 생태학 분야에서 각각 문항을 추출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생물학에 대한 지식의 범위와 깊이를 묻고 있다. 각 문항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것으로, 문제 자체는 까다롭지 않으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술해야만 정답으로 처리하며, 정답 이외의 틀리는 내용을 부가적으로 기술했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질문의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표현 혹은 주변적인 내용을 기술했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되도록 하여 수험자에게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 배점은 현행 6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

의 비중을 참고하였다. 다만 발생 및 분류 분야에 대한 문항은 다음 기회에 다루기 위해 유보했다.

주요하게 평가하고자 한 능력·기능·지식

현대 사회는 너무나 방대한 지식의 양, 무서운 속도로 개발되는 수많은 연구물, 각 분야의 엄청난 정보량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우리의 두뇌에 이 모든 지식을 저장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또 그럴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일과 정보 저장을 쉽게 돌아가는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의 저장이 아니라 저장된 자료를 분석·정리·활용할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고도의 상상력·논리력·추리력과 같은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추세를 심분 고려해, 많은 과학적 이론이나 원리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과 원리의 이해,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가장 중요하게 설정한 것 중의 하나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적용 능력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1차적으로 생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단지 되풀이하여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임용 시험에서는 이러한 지식 및 상황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능력의 평가를 주된 목표로 설정했다.

평가 문항의 성격

이번 임용 고사에 출제된 문항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

다. 첫 번째는 생물학에 대한 이해이며, 두 번째는 그것의 적용 능력의 측정이다. 우선 생물학에 대한 전공 영역의 문항을 보면, 중등 교사로서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고등학교 생물Ⅱ의 내용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생물Ⅱ에서 다루는 영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각 문항에서 질문 내용은 대부분 손쉽게 답할 수 있도록 꾸렸다. 그러나 질문에 맞는 정확한 내용을 기술하지 못하거나 틀린 내용을 추가하여 기술했을 경우 감점 요인이 되도록 하였다. 즉, 생물학의 각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되 정

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불명료한 표현이나 잘못된 표현을 한 경우는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문항은 쉽게 이해되지 모르겠지만 기술하는 내용은 문제의 핵심을 요구하므로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 교육 분야의 문항에서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없는 내용보다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루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그것을 활용할 경우에 대비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즉, 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교수-학습 상황에 대한 적용 능력 차원에서 평가하는 문제를 낸 것이다.

〈표1〉 생물과 출제 영역 및 내용

하위 내용 영역 구분			배점	문항 수	문항 번호	답변예상시간(분)
대영역	세부영역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				
교과 교육학	공동	과학 교육과정	4	1	1	6
		과학적 탐구능력	4	1	2	8
		과학적 방법 및 과학 발달의 핵심	3	1	3	8
	생물 교육	생물 교육평가	3	1	4	6
		생물학습 지도(개념도)	3	1	5	7
		생물학습지도(모의 실험)	4	1	6	7
교과 내용학	공동	물리	6	1	7	12
		화학	6	1	8	12
		생물	6	1	9	12
	지구과학	일기와 기후	6	1	10	12
	분자와 세포	세포내 화학 반응	3	1	11	6
	유전과 진화	유전자의 발현	3	1	12	6
	분자와 세포	물질 대사	3	1	13	6
	유전과 진화	집단 유전	3	1	14	6
	동물 생리학	순환, 반응과 조절	3	1	15	6
	동물 생리학	반응과 조절	3	1	16	6
식물 생리학	물질 수송	3	1	17	6	
생태학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4	1	18	8	
	계	70	18		140	

■ 물리과 시험의 출제 방향

물리과 임용 시험은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는 중요한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그리고 임용고사를 통해 물리와 통합 과학을 모두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 내용과 통합과학 내용을 적절히 배분하여 출제하였다. 또한 그 동안의 임용고사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미 출제된 문항은 되도록 배제하였다. 교과별로 출제해야 할 영역을 선정해 놓고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의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 조금 낮추었으나 세부 문항 속에서 난이도를 달리해 변별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세부 문항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항은 기본적인 능력만 있으면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난이도가 높은 문항은 기본적인 능력과 좀더 고차적인 능력을 소유한 경우에만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고차적인

능력을 소유한 물리교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과 임용시험의 공통 영역은 각 전공 출제 위원이 각각 대표 문항을 만들어 전체 회의에서 수정·보완하였다. 전공 영역과 공통 영역 모두 출제 위원의 합의하에 문항을 개발하였다.

출제 영역

출제 영역은 크게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으로 구분하였다.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모두 과학과 공통 문제를 50% 출제하였다. 이것은 물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통합 과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이다.

교과교육학 중에서 공통 영역은 과학 교사 전체가 알아야 할 내용을 출제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과학 철학, 과학과 교육 과정, 과학과 교수학습 이론 등을 선정하였다. 물리 교육 영역에서는 물리 교수학습 지도론에 중점을 두었다.

〈표 2〉 물리과 영역별 출제 내용 및 배점

대영역	하위 내용 영역 구분		배점	비율(%)	문항수	문항 번호	답변예상시간(분)
	세부 영역	출제 내용					
교과 교육학	공통	과학교육 과정, 과학 학습지도, 과학 학습평가	11	15.7	3	1,2,3	22
	물리 교육	오개념	5	14.3	1	4	10
		물리교육 학습지도론	5		1	5	10
교과 내용학	공통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24	34.3	4	6,7,8,9	48
	역학	관성모멘트	5	7.1	1	10	9
	전자기학	쿨롱법칙, 가우스법칙	5	7.1	1	11	9
	현대물리	프랑크헤르츠 실험	5	7.1	1	12	10
	광학	기하광학	3	4.3	1	13	7
	양자역학	운동량 기대치	4	5.7	1	14	8
	열 및 통계물리	에너지 보존 법칙	3	4.3	1	15	7
	계		70	100	15		140

공통 영역과 물리 영역에서 실험 지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특히, 시범 실험을 교수학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지필 시험으로 실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통 영역과 물리 교육 영역에서 실험과 관련된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것은 지필 고사만으로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실험 실습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물리과 내용 영역에서도 공통 문항과 전공 문항으로 나누어 출제하였다. 공통 문항은 과학 교사가 알아야 할 과학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물리 전공은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 광학, 양자역학, 열 및 통계물리 등의 영역 중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참고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또한 중요하면서도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 중에서 출제하려고 하였으나, 기출 문제의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다.

영역별 출제 내용과 배점 및 문항 수는 <표2>와 같다.

주요하게 평가하고자 한 능력 · 기능 · 지식

학습지도 방법에 대한 문항으로 빛에 관한 오개념 문항과 시범자료의 제작, 원리,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 관련 학습지도론 등에 관한 내용을 출제하였다.

통합문항은 전공 영역의 50%를 차지하며 모든 과학교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소재로 개발하였다. 통합문항은 크게 교과교육 영역과 교과내용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교과교육 영역은 과학교육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였고, 교과내용 영역은 대학의 일반물리 · 일반화학 · 일반생물 · 일반지구과학 내용을 소재로 하되 중 ·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통합문항 중 물리영역의 문항은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실험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통합문항 중 교과교육 영역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물음

으로 심화 ·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적용 대상 학년, 과학의 지도 방법, 평가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일반사회과 시험의 출제 방향

일반사회과 시험은 교과 교육학과 통합교과 영역의 출제 비율을 50% 정도 유지하고 문항수를 10~15개 범위내에서 출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사회관련 교과목인 일반사회, 역사, 지리 등 3과가 협의하여 영역별 배점비율을 결정하였다. 예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과 교육학 15점과 통합교과 내용학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3과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교과 교육학 12점과 통합교과 내용학 18점으로 합의하였다. 전공교과 70점 중에서 30점에 대한 영역과 배점을 확정하였다. 일반사회과에서는 나머지 40점에 대한 배점을 일반사회의 교과 교육학 4점, 정치 12점, 경제 12점, 사회 · 문화 · 법 12점 등으로 결정하였다. 영역별 배점이 결정된 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과 능력의 평가,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소양을 측정하는 문항의 출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기본적인 지식과 다양한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제하였다.

출제 방향과 문항의 성격

1. 통합문항의 출제

일반사회과의 교과 교육학 통합문제는 “교육목표-내용-방법-평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습목표를 진술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학습 주제의 선정과 평가방법에 대한 문항을 출제하였다. 학습내용으로 제시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종합 분석하여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출제한 것이다. 평가방법은 구체적으로 수업 진행 중에 학습결손자를 파악하여 보충학습을 하고자 할 때 적합한 평가의 종류를 묻는 문제였다.

통합교과 내용학으로는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불리는 프랑스혁명”과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시민혁명과정에 형성된 경제체제의 특징을 묻는 문항이었다.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뿌리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출제한 것이다.

역사과에서 출제한 통합교과 내용학은 “실학자 박지원의 글”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일반사회과에서는 그 글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당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 문항의 출제는 당시의 상황을 현대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 지리과에서는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과제”라는 지문을 제시하였는데 일반사회에서는 세계화 과정에 국제정치的主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의 역할과 위상의 변화를 묻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는 중등학교 사회과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분야의 출제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출제한 것이며 또한 국제정치的主要 행위자들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세계화의 특징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제한 것이다.

2. 전공교과의 출제

(1) 기본지식과 적용능력의 평가

수험생들이 어떤 현상을 분석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와 기초이론 및 주요 접근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보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한 문항을 출제하였다. 지식을 묻는 문항도 단순하게 암기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정치적 관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표로 나타내 주고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평균을 산출하고 정치적 관심이 가장 높고 낮은 국가를 가려내는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을 라스웰(Harold D. Lasswell)의 주장을 중심으로 쓰도록 하였다. 정치체제나 정

당제와 관련된 문제도 선거가 치러진 연도, 집권당, 행정수반 등의 변화에 대한 가상상황을 제시하고 정치권력의 기능적 배분에 따른 정부형태와 정당제의 유형을 발견하고 그 장단점을 쓰도록 하여 지식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의 변동도 문화의 수입, 문화의 개방, 문화의 세계화 등과 관련된 지문을 제시하고 문화내용의 변동이론에 대하여 물었으며, 문화의 세계화 현상은 문화변동의 어떤 이론과 적실성이 있는지 기본 이론의 적용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였다.

경제분야는 기본적인 이론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였다.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소득탄력성, 수요곡선, 자연실업률, 인플레이션, 필립스 곡선 등의 기본개념과 관련하여 식을 구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는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론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출제한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그것을 적용하여 한국의 최근 경제정책과 관련지어 답할 수 있는 문항이며,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하는 문제도 “5분위 분배율”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적용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 사고력 측정

다양한 사고력인 추론력, 종합력, 분석력, 응용력, 평가력, 창의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통계자료, 가상자료, 지문의 제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사고력의 측정문제는 출제도 어려웠지만 채점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추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결과인 W형의 분포모형이 특정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하여 여론과 정책결정과의 관계를 연계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정치적 관심에 대한 설문조사의 분포도를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 모형과 연관시켜야 하

며, 여론분포의 W모형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야 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종합력, 분석력, 평가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치러진 총선결과를 나타낸 가상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정치상황 5가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정치체제의 유형, 정당체제의 특성, 연립정부 구성, 정치안정,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분석력과 평가력 측정의 또 다른 예는 도시근로자의 계층별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996년, 1997년, 1998년도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 이전의 자료와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한 역전 현상을 분석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3) 사회문제의 해결능력

사회과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의 여러 분야의 지식과 탐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학습목표가 있다.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다양하지만 시사성과 관련 있는 몇 문항을 출제하였다. 문명사적 커다란 변화로 일컬어지는 “정보화 세계화” 문제를 출제하였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토플러(Alvin Toffler)의 제 1, 2, 3의 물결의 의미와 변화를 주도한 자원, 정보화 사회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 불법복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문화시장의 개방과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지구촌 곳곳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비슷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등 문화의 동화와 문화의 세계화 현상에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묻는 문항이었다.

한국사회의 변화상과 관련하여 최근 ‘20대 80의 사회’로 재편되는 현상과 도시근로자의 계층별 소득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통계자료를 출제기간 동안 일간지에 보도

된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토록 하였다.

일반사회과의 출제 방향과 영역, 평가하고자 했던 능력, 기능, 지식, 평가문항의 성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차후 출제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험생들은 4년 동안 그리고 재수 삼수까지 하면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데 총 14개 문항으로 전공교과에 대한 교사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전공분야의 출제에 있어서 종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출제 방향이 사범대학의 교육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사범대학의 교육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출제자의 성향과 전공분야에 따라서 출제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경제분야는 개론 수준의 문제를 출제했지만 그 동안의 경향과 달라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출제의 수준을 대학교육에 맞추느냐 아니면 중등학교의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수준에 맞추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등학교 교사 후보를 선발하는 시험이라고 중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보다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개념, 원리, 이론, 접근법 등에 대한 차원 높은 문제가 출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과 통합교과의 내용학은 3개과가 자기 분야의 정체성이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통합교과가 지향하는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정과에서 출제된 문제를 다른 2개과 전공자들이 너무 어렵게 느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

'99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수험 번호() 성 명:()

○ ○ ○ ○

교과명	생 물	총 문항수 (18) 문항	감독관인	인
-----	-----	-----------------	------	---

(관리번호 :)

(수험생은 문항수와 문제지 번호를 확인하시오.)

Examination

1. 다음은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에 가장 적절한 말을 써 넣으시오. (총 4점)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적용 대상 학년은 ()학년부터 ()학년까지이다. (1점)

(2) 제 7차 교육과정 중 과학 교과에서 심화·보충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상 학년은 ()학년부터 ()학년까지이다. (1점)

(3)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학습은 저학년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자연에 친숙하게 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과학의 ()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1점)

(4)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은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과정은 평가하지 않는다. (1점)

2. 다음은 단진자 운동을 탐구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보기에 제시된 활동에 가장 알맞은 탐구단계와 탐구기능을 하나씩 골라 빈 칸에 그 기호와 번호를 각각 기입하시오. (총 4점)

탐구활동의 보기	탐구단계	탐구기능
철수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보고 시계추의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단진자의 길이에 따른 주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길이 이외의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하기로 하였다.		
단진자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주기의 변화를 조사했다.		
단진자 길이에 따른 주기 변화를 그래프를 그려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단진자의 주기는 단진자의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함을 알았다.		

〈탐구단계〉	
가. 결과 종합	나. 문제 인식
다. 실험 설계	라. 자료 수집과 정리
마. 자료 해석 및 분석	

〈탐구기능〉		
1. 가설 세우기	2. 측정하기	3. 문제 발상하기
4. 변인 통제하기	5. 분류하기	6. 예상하기
7. 결론 도출하기	8. 상관관계 구하기	

3. 과학적 방법 혹은 과학의 발달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귀납주의, 반증주의, 과학혁명 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나름대로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발달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한계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 물음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총 3점)

(1) 귀납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점)

(2) 포퍼의 반증주의에서 관찰 및 실험의 역할은 무엇인가? (1점)

(3) 토마스 쿤이 제시한 혁명과학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점)

4. 다음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 문항의 예이다. 아래 평가 문항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평가 문항 A】
자동차의 배기 가스 중에서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 탄화수소 ② 일산화탄소 ③ 이산화탄소 ④ 이산화황
〈채점 방법〉 정답 선택 여부로 판단

【평가 문항 B】

'자동차의 배기 가스가 가로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설계한 후,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채점 방법)

- 1) 학생의 실험 진행 과정을 관찰하여 평가
- 2) 학생의 실험 보고서를 분석하여 평가

(1) 「평가 문항 A」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은 객관식 지필검사이며, 「평가 문항 B」에서 사용된 평가 방법은 실험실습법, 관찰법, 실험 보고서법 등이다. 「평가 문항 B」에서처럼 학생의 능력이 행위로 나타나는 정도를 관찰하거나 산출물을 평가하는 방법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평가 문항 A」의 방법과 대비하여 쓰는 용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점)

()

(2) 위의 (1)에서 답한 평가 방법의 특징을 3 가지 기술하시오. (2점)

- ①
- ②
- ③

5. 다음과 같이 사람의 유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모의 유전 실험을 하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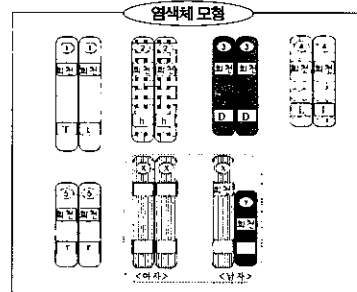
- 가. <표>에 제시된 5 가지 서로 다른 유전 형질에 대한 자신의 유전자형을 결정한다. 자신의 성염색체형도 결정한다.
- 나. 5 개의 서로 다른 염색체쌍과 성염색체쌍 모형의 위쪽 빈칸에 자기 이름을 쓴다.
- 다. 각 염색체의 아래쪽 빈칸에는 자신의 유전 형질에 해당하는 기호를 영어 철자로 기록한다.
- 라. 5개의 염색체쌍과 성염색체쌍 모형을 오려낸 다음 중심을 따라 잡고, 염색체쌍(가상적인 상동 염색체)을 뒷면 끼리 풀로 붙인다
- 마. 부부가 된 사람은 각자 책상 위에 자신의 염색체를 떨어뜨린다. (이때, 염색체쌍의 한 면만 위로 향하게 되는데 위로 향한 면만 자식의 염색체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바. 새로 만들어진 염색체 쌍을 근거로 하여 자식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기록한다.
- 사. 염색체를 떨어뜨리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여 나타나는 자식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비교한다.

<표> 사용할 형질들

염색체 번호	표현형	유전자형	표현형	유전자형
1	말리는 허	TT 또는 Tt	말리지 않는 허	tt
2	곱슬머리	HH 또는 Hh	곧은 머리	hh
3	쌍꺼풀	DD 또는 Dd	외꺼풀	dd
4	주근깨 있음	LL 또는 Ll	없음	ll
5	매부리코	RR 또는 Rr	곧은 코	rr

* 성염색체 : 남자(XY), 여자(XX)

예) 회친 : 말리는 허(Tt), 곧은 머리(hh), 쌍꺼풀(DD), 주근깨 있음(Ll), 곧은코(rr)인 남자(XY)



(1) 이 모의 실험이 멘델의 법칙에 부합하려면 무엇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3 가지 적으시오. (2점)

- ①
- ②
- ③

(2) <라~마>는 사람의 생식과정 중 어떤 과정을 흉내낸 것인지 2 가지를 쓰시오. (1점)

- ①
- ②

(3) 이와 같은 모의 실험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쓰시오. (1점)

- ① 장점 :
- ② 단점 :

6. Novak의 개념도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1) 과학 교육에서 개념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영역을 3 가지 기술하시오. (1점)

- ①
- ②
- ③

(2) 다음의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개념도를 그리시오. (2점)

절지 동물, 포유류, 두족류, 어류, 동물, 곤충류, 척추 동물, 거미류, 파충류, 무척추 동물, 갑각류, 연체 동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시키시오.) (2점)

수레의 질량, 수레의 속력, 나무 도막의 이동거리

- ①
- ②

(2) (1)에서 답한 두 가지 실험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시오. (x축과 y축을 (1)번 보기에서 선택하여 표시하시오.)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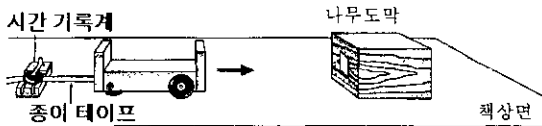


(3) 수레가 나무도막과 충돌하고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밀면서 어느 정도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이때 수레는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동안에 어떤 운동을 하였는가? 또,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점)

운동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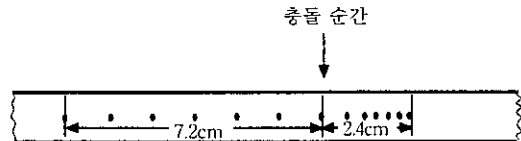
이유:

7. 운동에너지와 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험장치를 꾸렸다. 수레와 나무도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접착테이프를 붙여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이동하도록 하였다. 수레 위에는 추를 올려 놓아 수레의 질량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험자가 손으로 밀어 수레의 속력을 바꿀 수 있게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1) 수레가 나무도막에 충돌하면서 나무도막에 하는 일은 수레가 가진 운동에너지와 같다. 이때 어떤 변인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해야 할 실험 두 가지를 아래의 보기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여 쓰시오. (일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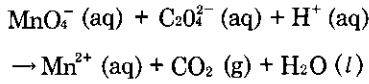
(4) 이 실험에서 수레의 속력을 재기 위하여 시간 기록계를 사용한다. 종이테이프의 기록이 아래와 같을 경우 충돌하려는 수레의 속력을 구하시오. (실험에 사용한 시간 기록계는 1초에 60타점을 찍는다.) (1점)



문제지 번호 (7 - 3)

8. 산성 용액에서 과망간산 이온(MnO_4^-)과 옥살산 이온($C_2O_4^{2-}$)은 다음과 같은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총 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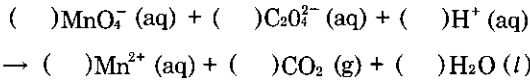
위 반응과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위 반응에서 산화된 원자와 환원된 원자를 찾아 반응 전의 산화수를 각각 쓰시오. (2점)

산화된 원자와 산화수 :

환원된 원자와 산화수 :

(2) 위 반응의 반응식을 완결하시오. (2점)



(3) 위 반응을 이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과망간산칼륨 용액의 농도를 0.1 M 옥살산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정하려고 한다. 0.1 M 옥살산나트륨 용액 500mL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옥살산나트륨의 질량을 구하시오. (단, Na₂C₂O₄의 화학식량은 134.0이다.) (2점)

(\quad) g

9. 다음 그림은 모세혈관이 소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다음 소정맥으로 합해지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모세혈관벽을 통한 물질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사했다. 혈액은 주변의 조직액에 비해 고장액이고 삼투압 차이는 25 mmHg이다. 모세혈관의 혈압은 소동맥 쪽에서 35 mmHg으로 소정맥 쪽의 16 mmHg에 비해 높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소동맥 쪽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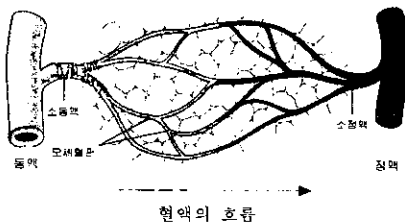
혈압 35mmHg

삼투압 25mmHg

〈소정맥 쪽 끝〉

혈압 16mmHg

삼투압 25mmHg



(1) 소동맥과 소정맥 쪽의 모세혈관에서는 각각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한 압력이 가해지는가?

① 소동맥 쪽의 모세혈관 (1점) :

② 소정맥 쪽의 모세혈관 (1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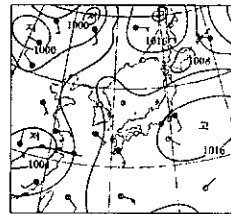
(2) 혈압과 삼투압 때문에 모세혈관과 조직액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① 소동맥 쪽의 모세혈관 (1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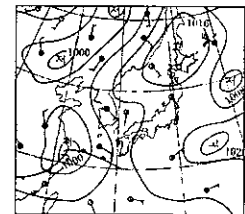
② 소정맥 쪽의 모세혈관 (1점) :

(3)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서 삼투압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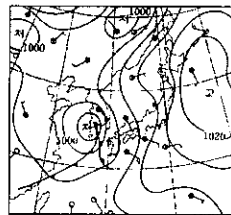
10. 아래 그림들은 1일 21시부터 3일 09시까지 12시간 간격으로 그린 일기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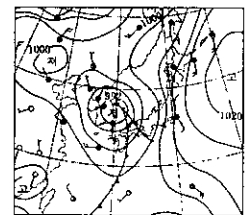
1일 21시



2일 09시



2일 21시



3일 09시

(1) 위 일기도에 나타난 기상요소를 세 가지만 쓰시오. (1점)

(2) 위 일기도에는 온대 저기압이 하나 있다. 이 저기압의 이

로 하여 미맹 조사를 했다. PTC 용액에 대해 쓴 맛을 느끼는 미각자에 대해 쓴 맛을 느끼지 못하는 미맹은 열성이다. 조사한 결과, 남자 중에서 미각자가 970명, 미맹자가 30명이었고, 여자 중에서 미각자가 950명, 미맹자가 50명이었다. 이 집단을 멘델 집단이라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미각 유전자는 A, 미맹 유전자는 a로 표시한다.) (총 3점)

(1) 미각자 중에 AA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몇 명인가? (값을 구하는 과정도 제시하시오.) (1점)

(2) 이러한 유전자 빈도는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1점)

① A의 빈도 :

② a의 빈도 :

(3) 멘델 집단이 되기 위한 조건을 3 가지 제시하시오. (1점)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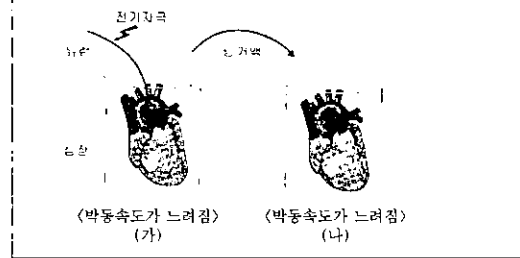
15. 개구리의 심장에서 연수로 연결된 뉴런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는 사실이 19세기 초에 관찰되었다. 독일의 생리학자인 레비는 뉴런이 어떻게 심장 근육을 자극하는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 뉴런은 전기적 자극을 그대로 근육에 전달할 것이다.

가설 2 : 뉴런은 화학 물질을 전달하여 근육을 자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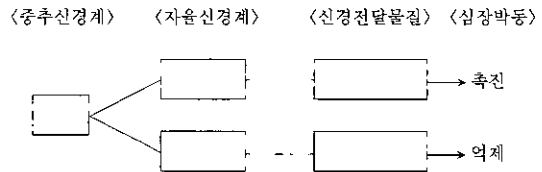
레비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1. 개구리에서 뉴런이 달린 채로 심장을 떼어내어 링거액에 담은 다음 뉴런에 전기적 자극을 가한다.
2. 이 심장이 들어 있는 링거액을 또 다른 심장이 들어 있는 링거액에 넣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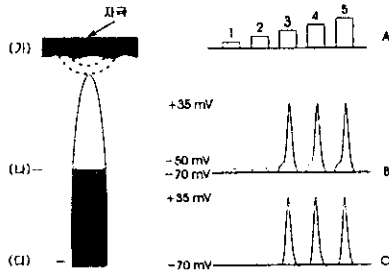


(1) 레비는 실험과정 2에서 (가)의 심장이 담겨 있던 링거액에 무엇이 들어 있으리라 가정했는가? (1점)

(2) 다음은 신경계에 의한 심장박동 속도의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 관여하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신경전달물질의 종류를 빈 칸에 써 넣으시오. (2점)



16. 다음 그림은 피부에 기계적인 자극을 세기를 달리하여 주었을 때 신경의 각 부위에서 나타나는 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피부 수용기, (나)는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부위, (다)는 흥분 전도가 일어나는 부위이다. A는 (가)에 주어진 자극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B와 C는 (나)와 (다)에서 각각 측정한 전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1) 신경 세포에서 역치 전위가 생겨나는 자극 세기(R)는 그림 A에서 어느 범위에 있는가? (1점)

(2)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신경 세포막에서 이루어지는 이온의 출입을 막전위와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2점)

17. 아래의 표는 식물체와 그 주변의 토양 및 대기에서의 수분 이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위 치	수분퍼텐셜과 구성 요소(단위 : MPa)			
	수분퍼텐셜	압력퍼텐셜	삼투퍼텐셜	중력
가 대기	-95.1	+	+	0.1
나 뿌리에 인접한 토양	+	-0.4	-0.1	0.0
다 뿌리에서 10mm 떨어진 토양	+	-0.2	-0.1	0.0
라 엽육세포벽(10m 높이)	+	-0.7	-0.3	0.1
마 잎의 물관	+	-0.8	-0.1	0.1
바 뿌리의 물관	+	-0.5	-0.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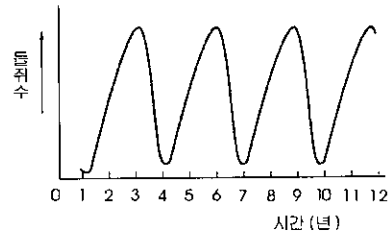
- (1) 각 부위의 수분퍼텐셜 값을 구하시오. (1점)
- ① 뿌리에 인접한 토양 : ()MPa
 - ② 뿌리에서 10mm 떨어진 토양 : ()MPa
 - ③ 엽육세포벽(10m 높이) : ()MPa
 - ④ 잎의 물관 : ()MPa
 - ⑤ 뿌리의 물관 : ()MPa

(2) 물의 이동 경로를 표에 있는 기호(가~바)로 답하시오. 이러한 수송 방향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1점)

- ① 물의 수송 경로 :
- ② 근거 :

(3) 잎과 뿌리의 물관에서 음의 압력퍼텐셜이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1점)

18. 툰드라 지역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서 생물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초본류와 야생화, 무릎 높이로 낮게 자란 나무들과 더불어 몇몇 동물 종이 살고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 북극 여우의 먹이가 되는 작은 들쥐(초식성 포유동물)를 비교적 많이 볼 수 있다. 이 들쥐들은 아래 그림과 같은 특징적인 개체군 크기 변화를 보인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1) 들쥐 개체군 밀도의 변화주기를 설명하시오. (1점)

(2) 초본류의 생물량과 토양 속의 무기염류량도 들쥐 개체군과 거의 비슷한 주기로 변화한다. 들쥐 개체군의 변화를 토양 속의 무기 염류량, 초본류의 생물량과 연관지어 설명하시오. (1점)

(3) 토양 속의 무기염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증가시키는 요인을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점)

- ① 감소 요인 :
- ② 증가 요인 :

(4) 개체군의 변화 주기가 비교적 긴 이유는 무엇일까? (1점)

문제지 번호 (7 - 7)

'99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문제지

수험 번호() 성 명 : ()

○ ○ ○ ○

교과명	물 리	총 문항수 (15)문항	감독관인	인
-----	-----	--------------	------	---

(관리번호 :)

(수험생은 문항수와 문제지 번호를 확인하시오.)

1. 다음은 제 7차 과학교육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에 가장 적절한 말을 써 넣시오. (총 4점)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적용 대상 학년은 ()학년부터 ()학년까지이다. (1점)

(2) 제 7차 교육과정 중 과학 교과에서 심화·보충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상 학년은 ()학년부터 ()학년까지이다. (1점)

(3)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학습은 저학년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하여 자연에 친숙하게 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과학의 ()에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1점)

(4)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과학'은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과정은 평가하지 않는다. (1점)

〈탐구단계〉	
가. 결과 종합	나. 문제 인식
다. 실험 설계	라. 자료 수집과 정리
마. 자료 해석 및 분석	

〈탐구기능〉		
1. 가설 세우기	2. 측정하기	3. 문제 발상하기
4. 변인 통제하기	5. 분류하기	6. 예상하기
7. 결론 도출하기	8. 상관관계 구하기	

2. 다음은 단진자 운동을 탐구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보기에 제시된 활동에 가장 알맞은 탐구단계와 탐구기능을 하나씩 골라 빈 칸에 그 기호와 번호를 각각 기입하시오. (총 4점)

탐구활동의 보기	탐구단계	탐구기능
철수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보고 시계 추의 주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단진자의 길이에 따른 주기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길이 이외의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하기로 하였다.		
단진자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주기의 변화를 조사했다.		
단진자 길이에 따른 주기 변화를 그래프를 그려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단진자의 주기는 단진자의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함을 알았다.		

3. 과학적 방법 혹은 과학의 발달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귀납주의, 반증주의, 과학혁명 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나름대로 과학적 방법이나 과학발달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한계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에 물음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 내용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총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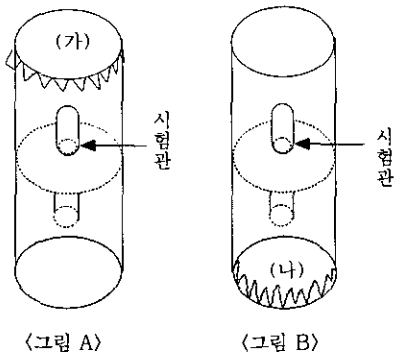
(1) 귀납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점)

(2) 포퍼의 반증주의에서 관찰 및 실험의 역할은 무엇인가? (1점)

(3) 토마스 쿤이 제시한 혁명과학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점)

문제지 번호 (7 - 1)

4. 그림과 같이 시험관에 물을 적당히 넣어 물이 든 표본병 속에 거꾸로 세웠을 때 시험관이 물에 겨우 떠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본병의 위 부분을 고무조각으로 막았다. (총 5점)



(1) 고무조각의 (가)부분을 손으로 눌렀을 때 시험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2점)

· 결과 :

· 이유 :

(2) 그림 B와 같이 표본병을 거꾸로 하고 (1)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관을 넣은 후, 표본병을 고무조각으로 막고 고무조각의 (나)부분을 손으로 누르면 시험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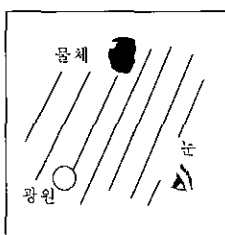
· 결과 :

· 이유 :

(3) 대기압에 관한 개념을 가르칠 때 순환학습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느 단계에서 이러한 시범 실험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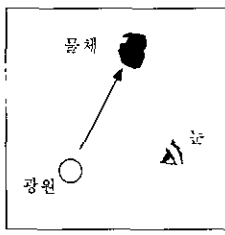
5. 학생들이 빛과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들 중의 하나는 어떻게 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1)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학생들이 흔히 갖는 잘못된 개념의 유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각 그림을 보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3점)
(그림에서 빛금과 화살표는 빛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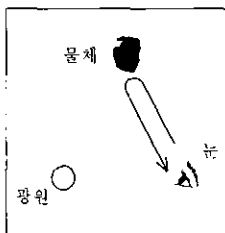
· 그림1 설명 :

<그림1>



· 그림2 설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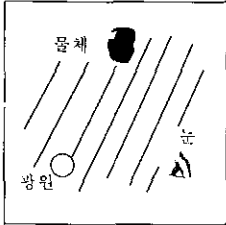
<그림2>



· 그림3 설명 :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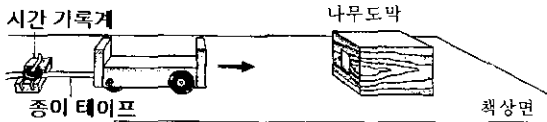
(2) 학생들은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결국 올바른 개념을 갖게 된다.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를 아래 주어진 그림에 경로로 나타내고, 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1점)



· 설명 :

(3) 위와 같이 아동들은 빛에 대한 오개념을 갖고 있다. 빛에 대한 아동들의 오개념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 중 아동들의 지각 특성에 관련된 것을 한 가지 골라 간단히 기술하시오. (1점)

6. 운동에너지와 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험장치를 꾸렸다. 수레와 나무도막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에 접착테이프를 붙여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이동하도록 하였다. 수레 위에는 추를 올려놓아 수레의 질량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실험자가 손으로 밀어 수레의 속력을 바꿀 수 있게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1) 수레가 나무도막에 충돌하면서 나무도막에 하는 일은 수레가 가진 운동에너지와 같다. 이때 어떤 변인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해야 할 실험 두 가지를 아래의 보기에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여 쓰시오.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시키시오.) (2점)

〈보기〉

수레의 질량, 수레의 속력,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 ①
- ②

(2) (1)에서 답한 두 가지 실험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시오. (x축과 y축을 (1)번 보기에서 선택하여 표시하시오.)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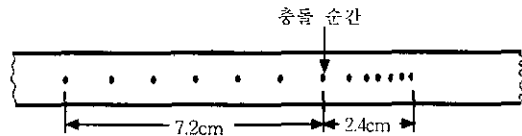


(3) 수레가 나무도막과 충돌하고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밀면서 어느 정도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이때 수레는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동안에 어떤 운동을 하였는가? 또,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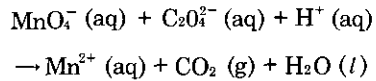
운동 상태 :

이유 :

(4) 이 실험에서 수레의 속력을 재기 위하여 시간 기록계를 사용한다. 종이테이프의 기록이 아래와 같을 경우 충돌하려는 수레의 속력을 구하시오. (실험에 사용한 시간 기록계는 1초에 60타점을 찍는다.) (1점)



7. 산성 용액에서 과망간산 이온(MnO_4^-)과 옥살산 이온($C_2O_4^{2-}$)은 다음과 같은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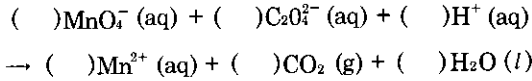
위 반응과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1) 위 반응에서 산화된 원자와 환원된 원자를 찾아 반응 전의 산화수를 각각 쓰시오. (2점)

산화된 원자와 산화수 :

환원된 원자와 산화수 :

(2) 위 반응의 반응식을 완결하시오.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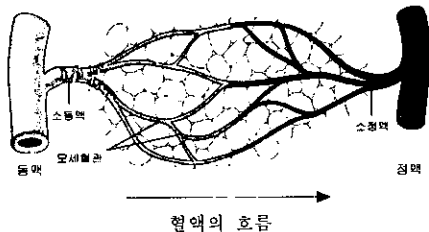
(3) 위 반응을 이용하여 농도를 모르는 과망간산칼륨 용액의 농도를 0.1 M 옥살산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정하려고 한다. 0.1 M 옥살산나트륨 용액 500mL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옥살산나트륨의 질량을 구하시오. (단, Na₂C₂O₄의 화학식량은 134.0이다.) (2점)

() g

8. 다음 그림은 모세 혈관이 소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다음 소정맥으로 합해지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모세혈관 벽을 통한 물질 이동을 알아보기 위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사했다. 혈액은 주변의 조직액에 비해 고장액이고 삼투압 차이는 25 mmHg이다. 모세혈관의 혈압은 소동맥 쪽에서 35 mmHg으로 소정맥 쪽의 16 mmHg에 비해 높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소동맥 쪽 끝〉
혈압 35mmHg
삼투압 25mmHg

〈소정맥 쪽 끝〉
혈압 16mmHg
삼투압 25mmHg



(1) 소동맥과 소정맥 쪽의 모세혈관에서는 각각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한 압력이 가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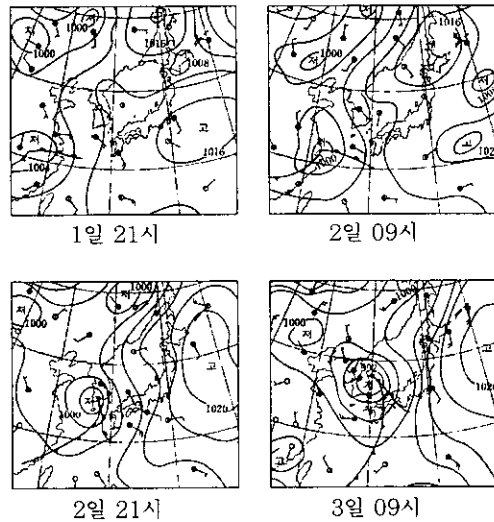
- ① 소동맥 쪽의 모세혈관 (1점) :
- ② 소정맥 쪽의 모세혈관 (1점) :

(2) 혈압과 삼투압 때문에 모세혈관과 조직액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① 소동맥 쪽의 모세혈관 (1점) :
- ② 소정맥 쪽의 모세혈관 (1점) :

(3) 혈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서 삼투압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점)

9. 아래 그림들은 1일 21시부터 3일 09시까지 12시간 간격으로 그린 일기도이다. (총 6점)



- (1) 위 일기도에 나타난 기상요소들 중 3 가지만 쓰시오. (1점)
- (2) 위 일기도에는 온대 저기압이 하나 있다. 이 저기압의 이동방향을 쓰시오. (1점)

문제지 번호 (7 - 4)

(3) 위 일기도를 보고 다음 시간의 서울 지역 날씨를 쓰시오. (2점)

· 1일 21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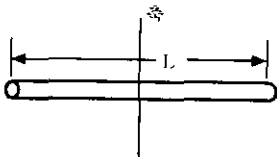
· 2일 21시 :

(4) 우리 나라 주변을 통과하는 온대 저기압의 특징을 3 가지 만 기술하시오. (2점)

10. 회전축에 대한 물체의 관성모멘트(혹은 회전관성)는 선형운동에서의 질량과 비슷하다. 그러나 물체의 질량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으나 관성모멘트는 회전축과 거리에 따라 변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1) 관성모멘트의 차원(dimension)을 쓰시오.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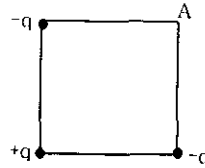
(2) 그림과 같이 질량 M , 길이가 L 인 고른 막대의 중심을 지나고 이 막대에 수직인 회전축 둘레를 돌 때 관성모멘트를 구하시오. (3점)



(3) (2)에서 구한 결과 및 평행축 이동정리를 이용하여 위 막대의 한 끝을 축으로 하여 회전시킬 때 관성모멘트를 구하시오.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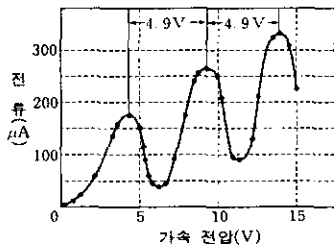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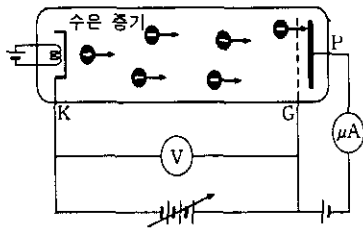
11. 아래의 문제들에 대하여 전개과정과 답을 함께 제시하시오. (총 5점)

(1) 그림과 같이 각 변의 길이가 r 인 정사각형의 모서리에 3개의 전하가 놓여 있다. 전하 $+q$ 를 무한대로부터 4번째 모서리 A로 가져오는 데 드는 일은 얼마인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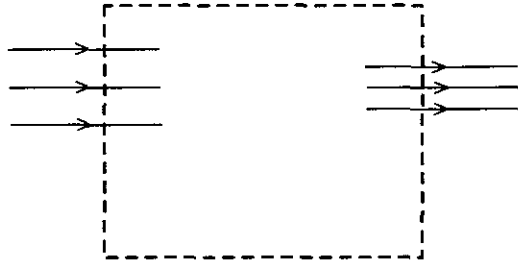


(2) 선전하분포밀도가 λ 로 균일하게 대전된 무한히 긴 선으로부터 x 만큼 떨어진 곳의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2점)

12. 다음 그림은 Franck-Hertz 실험장치와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장치 속에는 초점거리와 크기가 다른 2개의 렌즈가 있다. 이들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 아래 네모상자 안에 그리고 빛이 지나가는 길을 표시하시오. (각 렌즈의 초점거리를 표시할 것)



(1) 이 실험으로 원자의 어떤 사실이 증명되었는가? (2점)

(2) 이 실험에서 그림과 같은 실험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서술하시오. (3점)

13. 평행 광선을 어떤 장치에 통과시켰더니 그림과 같이 나왔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점)



14. 포텐셜(potential)이 $V(x) = 0 : 0 \leq x \leq L$
 ∞ ; 그외의 영역
 와 같이 주어질 때 일차원 상자 안에 있는 입자에 대한 규격화된 파동 함수는

$$\psi_n = \sqrt{\frac{2}{L}} \sin \frac{n\pi x}{L} \text{ 이다.}$$

이 입자에 대한 운동량의 기대치를 연산자를 사용해서 구하시오. (풀이 과정을 제시하시오.) (총 4점)

문제지 번호 (7 - 6)

15. 2원자 분자로 된 1몰의 이상기체가 상자에 들어 있다.
정압비열 C_p , 정적비열을 C_v , R 을 기체상수라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점)

(1) $C_p = C_v + R$ 임을 증명하시오.(2점)

(2) 이 기체의 내부에너지 $U = \frac{5RT}{2}$ 임을 설명하시오.(1점)

4. 다음 글은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과제'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보기〉

① 초고속 항공기와 컴퓨터의 등장 등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개인적·사회적 접촉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상호의존성이 확대되었으며,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근대 사회의 발달 이후 지리적지식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② 경제 시장이나 정치적영향력도 점차 세계적 범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이러한 국제화 경향에 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③ 세계화 과정은 훨씬 급속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④ 인류 공동체의 새로운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4-1. 1) 밑줄 친 ①을 참조하여 세계화 시대의 지리적 특징을 제시하고(1점),

2) 밑줄 친 ④의 '인류 공동체의 새로운 과제'를 지리적 측면에서 2가지 쓰시오. (1점)

4-2. 유럽 세계가 확대된 것은 신항로의 개척을 통해서였다. 밑줄친 ②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16-17세기 유럽 각국의 일반적인 대외 정책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2점)

4-3. 밑줄 친 ③과 같은 현상으로 국제정치的主要 행위자인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의 역할이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1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2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보기〉

(가) 독립생산자 가운데서 나온 자본가 세력이 절대주의와 전기적(前期的) 상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거꾸로 그것을 장애물로 느껴 타도한 것이 시민혁명이다. 혁명의 시기와 형태와 결과는 각기 자국의 신구 세력간 대항관계와 국제정세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차를 가진다. 보통 가장 전형적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프랑스 혁명인데, 강력한 절대왕정의 체제 속에서 성장해 온 부르주아적 요소가 무력을 사용하여 일거에 그 체제를 파괴했던 것이다. ① 영국에서는 그보다도 100년은 일찍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독일에서는 반대로 프랑스보다 반세기 이상 늦었다.

(나) 유럽의 오랜 역사적 도시들은 성곽 밖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자원 개발과 산업 발달에 따라 상공업 도시로 전환되어 갔다. 이같은 ② 근대적 상공업 도시의 발달은 전통적 농촌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도시 노동자와 중산 계층의 형성을 촉진하고 시민정신을 고취시켜 근대 산업 도시로서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다. 특히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전환하면서, 도시내 인적·물적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중 교통수단도 발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공간은 외곽으로 급속히 팽창하게 되었으며, ③ 내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5-1. (가)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경제체제의 일반적인 특징 3가지를 기술하시오. (2점)

5-2. (가)의 밑줄 친 ①과 관련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 이때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은 무엇인가? (1점)

2) 그 결과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기술하시오. (1점)

5-3. (나)의 글에 근거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 밑줄 친 ②와 같이, 전통적 농촌사회의 해체와 더불어 근대적 상공업 도시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은 어떻게 공급되었는가를 쓰시오. (1점)

2) 밑줄 친 ③에서, 이 시기의 도시 공간이 내적으로 경험한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쓰시오. (1점)

6. 다음은 실학자 박지원의 견해이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보기〉

영남 어린이들은 백하젓을 모르고, 관동 백성들은 아가위쌀 절여서 장 대신 쓰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감자(柑子)의 맛을 분간하지 못하며, 바닷가 사람들은 새우나 정어리를 거름으로 밭에 내건만 서울에서는 한 움큼에 한 푼을 하니 이렇게 귀함은 무슨 까닭일까? 이제 육진(六鎊)의 마포(麻布), 관서의 명주, 양남의 닥종이, 해서의 송과 쇠, 내포의 생선과 소금 등은 인민들의 살림살이에서 어느 하나 없지 못할 물건들이며, 청산과 보은의 천 그루 대추, 황주와 봉산의 천 그루 배, 홍양과 남해의 천 그루 굴, 임천과 한산의 천 이랑 모시, 관동의 천 통 벌꿀 등은 모두 일상 생활에서 서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어늘, 이제 이곳에서 천한 물건이 저 곳에서는 귀할 뿐더러 그 이름은 들어도 실지로 보지 못한은 어찌된 까닭인가?

6-1. 위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아 박지원이 속하는 실학파가 주로 주장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2점)

6-2. 위 글에서 각 지방별로 독특한 지역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산물들이 산출되는 자연지리적 조건과 인문지리적 조건을 쓰시오. (2점)

6-3. 오늘날의 관점에서 위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는가? (2점)

7. 다음은 A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4점) (단, 수업상황은 예시문에 나타난 사실적 내용만을 근거로 하며, 주관적인 상상이나 추측은 배제한다)

〈보기〉

교과 : 10학년 공통사회(상)

단원 : 1. 개인생활과 사회문제 (3) 가족과 사회

(학습과정)

① 학습목표 설정 : 교과서와 분필을 들고 교실에 들어온 A교사는 칠판에 학습단원과 학습목표를 쓴다.

② 전시 내용 확인 : 전시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기 위하여 2명의 학생에게 질문하여 답하게 한다.

③ 본시 내용 확인 : 학생 1명을 지명하여 본시 단원 내용을 읽게 한다.

④ 교수·학습전개 : A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칠판에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판서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공책에 판서 내용을 기록한다.

• A교사는 가끔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학생들은 질문에 일제히 간단하게 대답한다.

⑤ 학습내용 정리 : A교사가 본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⑥ 평 가 : A교사는 동일한 내용의 객관식 평가지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은 평가 문항에 답한다.

• 옆 학생과 상호교환하여 채점하고 점수별로 서열을 정한 후 하위 15명의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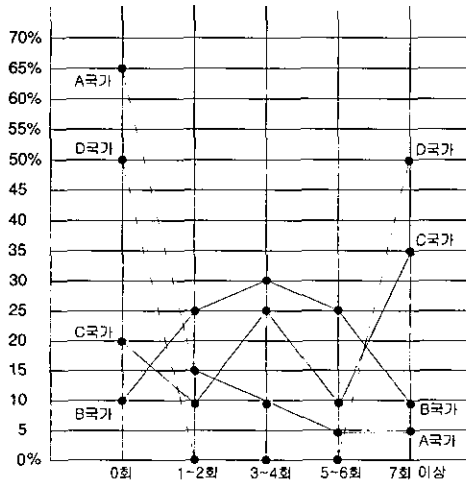
⑦ 차 시 예 고 : 다음 시간에 학습할 단원을 간단히 소개하고 예습을 하도록 한다.

7-1.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에 비추어 A교사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점 3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2점)

7-2.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 평가'에 비추어 A교사의 평가방법의 개선점 2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2점)

문제지 번호 (5 - 3)

8. A, B, C, D라는 네 국가 시민의 정치적 관심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보통 몇 번씩 정치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은 분포도로 나타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한 것은 네 나라 각각 1000매씩이었다. 도표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 8-1. 응답자의 반응을 0회=1점, 1~2회=2점, 3~4회=3점, 5~6회=4점, 7회 이상=5점 등의 평정척도로 전환시켜 정치적 관심이 1) 가장 높은 국가와 평균(mean), 2) 가장 낮은 국가와 평균(mean)을 각각 쓰시오. (2점)
- 8-2. 정치적 관심이 낮은 원인을 라스웰(Harold D. Lasswell)의 주장을 중심으로 2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3점)
- 8-3. C국가의 설문조사 분포결과가 특정 정책쟁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했을 때 여론이 C국가의 공공정책결정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50자 내외로 쓰시오. (1점)
9. 다음은 어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치러진 총선 결과를 나타낸 가상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선거 실시년도	집권당	행정수반	선거 실시년도	집권당	행정수반
1960	갑	a	1980	을·병	e
1964	갑	a	1982	갑	f
1966	을	b	1986	갑·병	g
1969	을	c	1990	을	h
1973	갑·정	d	1993	갑	i
1977	을	e	1997	을	j

주 1) "갑" 등은 정당 이름을, "a" 등은 행정수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임.
2) 의원의 임기는 4년임.

- 9-1. 위의 자료에 나타난 정치권력의 기능적 배분에 따른 정부형태는 어떤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가? (1점)
- 9-2. 위의 자료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정치상황 5가지를 설명하시오. (3점)
- 9-3. 위의 자료에 나타난 정당제는 어떤 유형이며, 그 단점 3가지를 지적하시오. (2점)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 보기 〉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사회가 발전해 온 단계를 (가)1의 물결(The First Wave), (나)2의 물결(The Second Wave), (다)3의 물결(The Third Wave) 등으로 분류하였다.

- 10-1. 밑줄 친 (가), (나), (다)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가), (나), (다)의 변화를 주도한 주요자원은 무엇인지 각각 설명하시오. (2점)
- 10-2. 최근 우리 정부는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있다. 이는 밑줄 친 (가), (나), (다)의 어느 단계와 관련성이 가장 높으며, 무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2점)
- 10-3. 밑줄 친 (가)와 비교하여 (다)의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1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2점)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6점)

〈 보기 〉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화가 발전인 듯 착각하여 많은 국가들은 서구 선진사회의 문화를 수입하고, 문화시장을 개방하였다. 그 결과 지구촌 곳곳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비슷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등 세계 문화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11-1. 1) 문화 내용이 바뀌는 현상인 문화 변동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1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2점)
 2) 위의 〈보기〉와 같은 문화 변동은 두 가지 시각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밝히시오. (1점)
- 11-2. 밑줄 친 (가)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250자 이내로 쓰시오. (3점)
12. 어떤 소비자의 상품 X에 대한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이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D_x = f(R, P_y, I) = 100 - \frac{1}{2}R + \frac{1}{3}P_y + \frac{1}{4}I$$

(단, 상품 D_x 에 대한 수요량, R = 상품 X의 가격, P_y = 상품 Y의 가격, I = 소비자의 소득임.)

- 12-1. $R = 100$, $P_y = 60$, $I = 200$ 일 때, 가격탄력성, 교차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을 구하시오. (단, 풀이 과정은 생략해도 무방함) (3점)
- 12-2. 상품 X와 상품 Y의 관계는? (1점)
- 12-3. $P_y = 90$, $I = 100$ 일 때, 상품 X에 대한 수요곡선을 그리시오. (1점)
13. 한 나라의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시된다고 가정하자. 이 방정식을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점)

$$\pi = 6.0 - 2u + \pi^e$$

(단, π =인플레이션율, u =실제 실업률, π^e =가대인플레이션율임)

- 13-1. 이 경제의 자연실업률을 구하시오. (1점)
- 13-2. 사람들이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때 실업률을 3%로 낮추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하는가? (1점)
- 13-3. 사람들이 물가가 3% 오를 것으로 예상할 때 실업률을 2%로 낮추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플레이션을 감수해야 하는가? (1점)
- 13-4. 이 경제의 장기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는 식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시오. (2점)
14. 다음 글은 어떤 경제학자가 최근의 경제정책의 성격과 그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상을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점)

〈 보기 〉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의 추진으로 갈사는 20%와 나머지 80%로 나뉘어지는 이른바 (나) '20 대 80의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 14-1. 밑줄 친 (가)의 예를 하나 들어 보시오. (1점)
- 14-2. 밑줄 친 (나)를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해 보시오. (1점)

<자료> 도시근로자의 계층별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연 도 계 층	1996	1997	1998
5분위(상)	37.9	37.2	39.8
4분위(중상)	23.1	23.2	22.9
3분위(중)	17.5	17.7	17.1
2분위(중하)	13.3	13.6	12.8
1분위(하)	8.2	8.3	7.4

문제지 번호 (5 - 5)

'98~'99 외국 학위논문(교육학) 리스트

이번 호에는 주제를 'school evaluation' 와 'school assessment' 로, 출판년도는 1998~1999년까지로 제한하여 Dissertation Abstract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논문 리스트를 실는다.

Dissertation Abstracts이란?

Dissertation Abstracts 데이터베이스는 총 140만 건의 박사학위논문과 석사학위논문의 서지사항과 초록을 담고 있다. 미국의 UMI사가 제공하는 DA는 1861년부터 미국내에서 산출된 박사학위논문의 서지사항을 담다가, 1980년부터는 350자 정도의 초록까지 실고 있고, 1988년부터는 석사학위논문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의 논문들은 미국과 유럽의 1,000개 대학원에서 산출된 논문으로 매년 55,000건의 박사학위 논문과 7,000건의 석사학위논문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있다. URL "http://www.umi.com"에서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며 express delivery를 이용하는 경우 5일에서 7일, 일반 우편의 경우는 2주 내지 3주 후면 주문한 논문이 도착한다.

공통사항

- DEGREE : 학위(박사 및 일부 석사학위 포함)
- YEAR : 학위수여 연도
- TITLE : 논문제목
- AUTHOR : 저자
- INSTITUTION : 학위수여 대학

<Year 1998>

■ TITLE: A ROLE FOR SCHOOL PSYCHOLOGISTS IN HEALTH PROMOTION: EVALUATION AND MODIFICATION OF A HEALTH EDUCATION CURRICULUM IN A PUBLIC SCHOOL

AUTHOR: STEIGER, CYNTHIA C.

DEGREE: PSY.D

INSTITU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ADVISER: MAURICE J. ELIAS

■ TITLE: A CASE STUDY OF ASSESSMENT IN A HIGH SCHOOL CLASSROOM: THE IMPACT OF CHANGES IN ASSESSMENT ON CURRICULUM, INSTRUCTION, TEACHERS, AND STUDENTS

AUTHOR: BRADY, DEBORAH ANN

DEGREE: PH.D

INSTITUTION: LESLEY COLLEGE

■ TITLE: ASSESS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PORTFOLIO ASSESSMENT IN K-8 SCHOOL DISTRICTS IN NEW JERSEY

AUTHOR: GUSSIE, WILLIAM F.

DEGREE: ED.D

INSTITUTION: WIDENER UNIVERSITY ADVISER: ROBERT WRIGHT

■ TITLE: AUTHENTIC ASSESSMENT AND ITS RESULTS IN A MIDDLE SCHOOL CLASSROOM

AUTHOR: PRICE, JON WILLIAM

DEGREE: M.A

INSTITUTION: PACIFIC LUTHERAN UNIVERSITY ADVISER:
LOUETTE MCGRAW

■ **TITLE:** COMPARATIVE EVALUATION OF ALABAMA
ELECTED AND APPOINTED PUBLIC SCHOOL
BOARDS (PUBLIC EDUCATION, BOARD OF
EDUCATION)

AUTHOR: CARTER, WILLIAM LEE

DEGREE: D.P.A.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ALABAMA ADVISER: R.
E. LOCKWOOD; WILLIAM H. STEWART

■ **TITLE:** A CORRELATION STUDY OF THE WEST
CHESTER AREA SCHOOL DISTRICT' S WRITING
ASSESSMENT AND STANDARDIZED TEST
SCORES OF SOPHOMORES (PENNSYLVANIA)

AUTHOR: BORGESE, JOLENE ANN

DEGREE: ED.D

INSTITUTION: WIDENER UNIVERSITY ADVISER: ROBERT
WRIGHT

■ **TITLE:** THE DEVELOPMENT OF A KNOWLEDGE
ASSESSMENT INSTRUMENT REGARDING THE
ABUSE OF SELECTED ERGOGENIC AIDS
(ATHLETES, HIGH SCHOOL ATHLETICS,
DECISION-MAKING, NUTRITION SUPPLEMENTS,
ERGOGENIC AID ABUSE)

AUTHOR: SCHAEFFER, STRATTON CHARLES, JR.

DEGREE: PH.D

INSTITUTION: TEXAS A&M UNIVERSITY ADVISER: JERRY
R. ELLEDGE

■ **TITLE:** AN EVALUATION OF AN INSTRUCTIONAL
INTERVENTION PROGRAM BASED ON CLAY' S

READING RECOVERY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RIE M.
CLAY)

AUTHOR: SWAIN, AUDREY MARY

DEGREE: M.ED

INSTITUTION: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CANADA) ADVISER: Adviser:
MARC GLASSMAN

■ **TITLE:** MANCHESTER REVISITED: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VALUATION OF COMMERCIAL
LIBERALISM (MANCHESTER SCHOOL, WAR,
ECONOMIC INTERDEPENDENCE)

AUTHOR: WAY, CHRISTOPHER ROBERT

DEGREE: PH.D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ADVISER:
STEPHEN KRASNER

■ **TITLE:** EVALUATION OF AN INCLUSIVE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PECIAL
EDUCATION STUDENTS

AUTHOR: ELDRED, JANET RUTH

DEGREE: PH.D

INSTITUTION: CENTRAL MICHIGAN UNIVERSITY ADVISER:
SHARON BRADLEY-JOHNSON

■ **TITLE:** AN EVALUATION STUDY OF SITE-BASED
MANAGED BEHAVIORS IN A RURAL UTAH
SCHOOL

AUTHOR: SORIANO, BARBARA RUTH S.

DEGREE: M.S

INSTITUTION: UTAH STATE UNIVERSITY ADVISER: LANI M.
VAN DUSEN

■ **TITLE:** THE EFFECTS OF THE 1995 JTPA SUMMER TAAS

PROGRAM ON READING, MATH, AND WRITING
 SCORES OF C.H.O.E.T. HIGH SCHOOL
 STUDENTS IN HIDALGO COUNTY, TEXAS (TEXAS
 ASSESSMENT OF ACADEMIC SKILLS)

AUTHOR: GUERRA, YVETTE RODRIGUEZ

DEGREE: ED.D

INSTITUTION: TEXAS A&M UNIVERSITY-KINGSVILLE

ADVISER: GUADALUPE OCHOA THOMPSON

■ **TITLE:** AN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CHOOL-
 BASED MANAGEMENT ON PERCEIVED
 PRINCIPAL AND SCHOOL EFFECTIVENESS AT A
 PUBLIC MIDDLE SCHOOL

AUTHOR: BROWN, JOHNNIE ANTHONY

DEGREE: ED.D

INSTITUTION: MORGAN STATE UNIVERSITY ADVISER:

PAUL D. MCELROY

■ **TITLE:** THE EFFECTS OF CURRICULUM ALIGNMENT ON
 THE TEXAS ASSESSMENT OF ACADEMIC SKILLS
 SCORES OF SELECTED EVENTH GRADE
 STUDENTS IN PEET JUNIOR HIGH SCHOOL IN
 THE CONRO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TEXAS, SEVENTH-GRADE)

AUTHOR: KATTNER, CHRIS LEE

DEGREE: ED.D

INSTITUTION: TEXAS A&M UNIVERSITY ADVISER: JOHN

R. HOYLE

■ **TITLE:** THE EFFECTIVENESS OF ARTICLE 24A OF THE
 ILLINOIS SCHOOL CODE AS PERCEIVED BY
 SUPERINTENDENTS AND BUILDING PRINCIPALS
 IN ST. CLAIR AND MONROE COUNTIES (ST.
 CLAIRE COUNTY, MONROE COUNTY, TEACHER
 EVALUATION)

AUTHOR: KOEBEL, MICHAEL DAVID

DEGREE: ED.D

INSTITUTION: SAINT LOUIS UNIVERSITY ADVISER:

RONALD W. REBORE

■ **TITLE:** AN EVALUATION OF SELECT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JUNIOR CLASS OF
 THE ALLIANCE, NEBRASKA HIGH SCHOOL

AUTHOR: CULLEN, PATRICK W.

DEGREE: ED.D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NEBRASKA - LINCOLN

ADVISER: WARD SYBOUTS

■ **TITLE:** EVALUATION CRITERIA OF ILLINOIS
 ELEMENTARY-SCHOOL PRINCIPALS AS
 COMPARED TO THE INTERSTATE SCHOOL
 LEADERS LICENSURE CONSORTIUM N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AUTHOR: ROONEY, JOANNE N.

DEGREE: ED.D

INSTITU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ADVISER: THOMAS GLASS

■ **TITLE:** FUNCTIONAL BEHAVIORAL ASSESSMENT: AN
 EVALUATION OF CONTINUING EDUCATION
 VARIABLES RELATED TO SUPPORT STAFF USE
 IN SCHOOL SETTINGS (BEHAVIOR PROBLEMS)

AUTHOR: WARD, SUSAN MARIE

DEGREE: PH.D

INSTITUTION: IOWA STATE UNIVERSITY ADVISER:

DANIEL J. RESCHLY; CARLA A. PETERSON

■ **TITLE:** AN EVALUATION OF THE GETZ-ROANOKE
 COUNTY SCHOOL DIVISION'S SCHOOL
 COUNSELOR PEER GROUP CLINICAL

- SUPERVISION PROGRAM
AUTHOR: AGNEW, DAVID THOMPSON
DEGREE: PH.D
INSTITU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ADVISER: CLAIRE COLE VAUGHT
- **TITLE:** HOW A PROFESSIONAL PERFORMANCE APPRAISAL PLAN FOR TEACHERS WAS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 SUBURBAN SCHOOL DISTRICT (TEACHER EVALUATION)
AUTHOR: HARRINGTON, KATHLEEN KOLSON
DEGREE: ED.D
INSTITU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ADVISER: JOSEPH S. WERLINICH
- **TITLE:** THE IMPACT OF THE PENNSYLVANIA SYSTEM OF SCHOOL ASSESSMENT ON INSTRUCTIONAL PRACTICES (SCHOOL REFORM, OUTCOMES BASED EDUCATION)
AUTHOR: HOOVER, JAMES PATRICK
DEGREE: ED.D
INSTITU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ADVISER: NICHOLAS F. DEFIGIO
- **TITLE:** THE IMPLEMENTATION OF AN ELECTRONIC PERFORMANCE SUPPORT SYSTEM FOR TEACHERS: AN EXAMINATION OF USAGE, PERFORMANCE, AND ATTITUDES (MIDDLE SCHOOL TEACHERS, PLANNING, ASSESSMENT, STUDENT PROGRESS REPORTS)
AUTHOR: MOORE, JOI LA VELLE
DEGREE: PH.D
INSTITUTION: UNIVERSITY OF GEORGIA ADVISER: MICHAEL A. OREY
- **TITLE:** AN INVESTIGATION OF PRESERVICE TEACHERS' INTERACTIVE ASSESSMENT OF STUDENT UNDERSTANDING IN A TRADITIONAL PROGRAM AND A 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
AUTHOR: HEUWINKEL, MARY KATHRYN
DEGREE: ED.D
INSTITU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ADVISER: GARY R. GALLUZZO
- **TITLE:** INVOLVING SCHOOL PROFESSIONALS IN PLANNING FOR SPECIAL EDUCATION PROGRAM EVALUATION: A CASE STUDY
AUTHOR: MAHER, BRIAN C.
DEGREE: PSY.D
INSTITU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ADVISER: KENNETH SCHNEIDER
- **TITLE:** THE KNOWLEDGE LEVEL OF PENNSYLVANIA PUBLIC SCHOOL PRINCIPALS REGARDING THE LEGAL REQUIREMENTS FOR SUMMATIVE TEACHER EVALUATION
AUTHOR: MATA, WARREN FRANCIS
DEGREE: ED.D
INSTITUTION: LEHIGH UNIVERSITY ADVISER: PERRY A. ZIRKEL
- **TITLE:** MANCHESTER REVISITED: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VALUATION OF COMMERCIAL LIBERALISM (MANCHESTER SCHOOL, WAR, ECONOMIC INTERDEPENDENCE)
AUTHOR: WAY, CHRISTOPHER ROBERT
DEGREE: PH.D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ADVISER: STEPHEN KRASNER

■ **TITLE:** MIDDLE SCHOOL ASSESSMENT AND THE NATURE OF SCIENCE AS RELATED TO THE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AUTHOR: ESKRIDGE, ROSEMARY HORN

DEGREE: ED.D

INSTITUTION: OKLAHOMA STATE UNIVERSITY ADVISER: STEVEN MARKS

■ **TITLE:** A NATIONAL ASSESSMENT OF SECONDARY AGRICULTURE TEACHERS' PERCEPTIONS OF AND USE OF THE INTERNET (HIGH SCHOOL TEACHERS)

AUTHOR: LAYFIELD, KEVIN DALE

DEGREE: PH.D

INSTITU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DVISER: DENNIS C. SCANLON

■ **TITLE:** OBSTACLES TO COMPLIANCE FOR TEXAS PUBLIC SCHOOL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IN THE ASSESSMENT OF STUDENTS WHO ARE BILINGUAL

AUTHOR: GONZALEZ, DOREEN DAVIS

DEGREE: PH.D

INSTITUTION: TEXAS A&M UNIVERSITY ADVISER: Chair: HECTOR SALVADOR OCHOA

■ **TITLE:** PROFESSIONALISM AND GROWTH-ORIENTED TEACHER EVALUATION: A CROSS-CASE STUDY OF TWO SCHOOL DISTRICTS

AUTHOR: REAULT, JUDY ANN

DEGREE: ED.D

INSTITU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ADVISER: GAIL C. FURMAN

■ **TITLE:** A QUALITATIVE ASSESSMENT OF COMPUTER IN-

SERVICE TRAINING IN ONE MEDIUM SIZED SCHOOL DISTRICT (PROFESSIONAL DEVELOPMENT)

AUTHOR: SCHOPPMAYER, MARTIN WILLIAM, JR.

DEGREE: ED.D

INSTITUTION: UNIVERSITY OF ARKANSAS ADVISER: JAMES D. SWARTZ

■ **TITLE:** A RATIONALE AND MODEL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ACCREDITATION SITE VISITATION TEAMS (SCHOOL EVALUATION)

AUTHOR: SKIPPER, CHARLES HENRY JUSTUS

DEGREE: PH.D

INSTITUTION: GEORGE MASON UNIVERSITY ADVISER: DENNIS R. DUNKLEE

■ **TITLE:**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OF A GLOBAL LEARNING-STYLE ASSESSME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ES 2-5) (SECOND-GRADE, FIFTH-GRADE)

AUTHOR: GUASTELLO, E. FRANCINE

DEGREE: ED.D

INSTITUTION: ST. JOHN' S UNIVERSITY (NEW YORK) ADVISER: RITA DUNN

■ **TITLE:** A RETROSPECTIVE IMMUNIZATION ASSESSMENT OF KINDERGARTNERS IN A SELECT TARRANT COUNTY SCHOOL DISTRICT POPULATION (TEXAS)

AUTHOR: SCOTT, GAIL ANN JOHNSON

DEGREE: M.S.

INSTITUTION: TEXAS WOMAN' S UNIVERSITY

■ **TITLE:** SCHOOL GARDENING: A MULTIFACETED LEARNING TOOL. AN EVALUATION OF THE

- PITTSBURGH CIVIC GARDEN CENTER'S
'NEIGHBORS AND SCHOOLS GARDENING
TOGETHER' (PENNSYLVANIA)
- AUTHOR:** BRUNOTTS, CHRISTA M.
DEGREE: M.A.
INSTITUTION: DUQUESNE UNIVERSITY ADVISER: MARY
FRANCIS ANTOLINI
- **TITLE:** A SYSTEMS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A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EMOTIONALLY DISTURB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 PRIVATE
SPECIAL EDUCATION FACILITY
- AUTHOR:** THURSTON, CYNTHIA J.
DEGREE: PSY.D
INSTITU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ADVISER: CHARLES A. MAHER
- **TITLE:** TEACHER IMPLEMENTATION OF A
PRETREATMENT ASSESSMENT PROCEDURE IN
A PUBLIC MIDDLE SCHOOL (PUBLIC EDUCATION)
- AUTHOR:** ALCALA, ANGELO LEE
DEGREE: PH.D.
INSTITU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 **TITLE:** TRADITIONAL SUMMATIVE EVALUATION, PEER
COACHING, AND COLLEGIAL EVALUATION: AN
HISTORICAL PERSPECTIVE AND A CASE STUDY
OF HOW EACH AFFECTS TEACHER AND
ADMINISTRATOR PERCEPTIONS OF ADULT
PROFESSIONAL DEVELOPMENT IN ILLINOIS
BREMEN HIGH SCHOOL DISTRICT NO. 228
- AUTHOR:** MEYER, VITA JEAN
DEGREE: ED.D
INSTITUTION: LOYOLA COLLEGE IN MARYLAND ADVISER:

PHILIP CARLIN

- **TITLE:** USING FUNCTIONAL ASSESSMENT STRATEGIES
IN REGULAR CLASSROOM SETTINGS WITH
STUDENTS AT-RISK FOR SCHOOL FAILURE (AT
RISK)

AUTHOR: LEWIS-PALMER, TERI LYNN**DEGREE:** PH.D**INSTITUTION:** UNIVERSITY OF OREGON ADVISER:
GEORGE SUGAI

- **TITLE:** THE USE OF FUNCTIONAL ASSESSMENT AND
ANALYSIS TO ACCELERATE THE SOCIAL
COMMUNICATION TARGETS OF CHILDREN WITH
SEVERE MULTIPLE DISABILITIES AT HOME AND
SCHOOL

AUTHOR: LARSON, MARK JAMES**DEGREE:** PH.D**INSTITU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ADVISER:
FELIX F. BILLINGSLEY

- **TITLE:** USING PERFORMANCE ASSESSMENT AS A TOOL
FOR REFORM IN AN URBAN SCHOOL DISTRICT
(URBAN EDUCATION, FISCAL DECISION- MAKING,
PROFESSIONAL DEVELOPMENT)

AUTHOR: LEVINE, EDWARD JOSEPH**DEGREE:** ED.D.**INSTITUTION:** FORDHAM UNIVERSITY ADVISER: BARBARA
L. JACKSON

〈Year 1999〉 _____

- **TITLE:** ELEMENTARY CHILDRENS' SCHOOL
FRIENDSHIP: A COMPARISON OF PEER
ASSESSMENT METHODOLOGIES (ELEMENTARY
SCHOOL CHILDREN)

AUTHOR: YUGAR, JEANNE MARIE

DEGREE: PH.D

INSTITUTION: LEHIGH UNIVERSITY ADVISER: EDWARD S. SHAPIRO

■ **TITLE:** ASSESSMENT OF FACTORS INFLUENCING STUDENT MOTIVATION FOR HIGHER ACADEMIC ACHIEVEMENT AT CANEY CREEK HIGH SCHOOL IN THE CONRO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TEXAS, COGNITIVE LEARNING)

AUTHOR: POOLE, GREGORY SCOTT

DEGREE: ED.D

INSTITUTION: TEXAS A&M UNIVERSITY ADVISER: JOHN R. HOYLE

■ **TITLE:** ASSESSMENT AND ANALYSIS OF PER PUPIL EXPENDITURES: A STUDY TESTING A MICRO-FINANCIAL MODEL IN EQUITY AND STUDENT OUTCOME DETERMINATION (TEXAS ASSESSMENT OF ACADEMIC SKILLS, SCHOOL FINANCE, ACHIEVEMENT)

AUTHOR: HOLSOMBACK, JAMES RICHARD, JR.

DEGREE: ED.D

INSTITU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ADVISER: HOYT WATSON

■ **TITLE:** COMPARING TEACHER SELF-EFFICACY AND EXPERIENCE WITH PREFERRED TEACHER SUPERVISION MODELS FOR KINDERGARTEN THROUGH FIFTH-GRADE ILLINOIS PUBLIC SCHOOL TEACHERS (TEACHER EVALUATION)

AUTHOR: WAGNER, NANCY LYN

DEGREE: ED.D

INSTITU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ADVISER: CHRISTINE SORENSEN

■ **TITLE:** A DESCRIPTIVE STUDY OF ASSESSMENT PROCEDURES, ASSESSMENT ATTITUDES, AND GRADING POLICIES IN SELECTED PUBLIC HIGH SCHOOL BAND PERFORMANCE CLASSROOMS IN MISSISSIPPI (PUBLIC EDUCATION, MISSISSIPPI BANDMASTERS ASSOCIATION)

AUTHOR: HILL, KYLE WAYNE

DEGREE: MUS.ED.D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0211 ADVISER: SHERMAN HONG

■ **TITLE:** THE DEVELOPMENT OF AN INDIVIDUAL VOCAL SIGHT-READING INVENTORY (SIGHT READING, CHORAL MUSIC DIRECTORS, ASSESSMENT, HIGH SCHOOL TEACHERS, PITCH)

AUTHOR: HENRY, MICHELE LEN

DEGREE: PH.D

INSTITUTION: UNIVERSITY OF MINNESOTA ADVISER: CLAIRE W. MCCOY

■ **TITLE:** AN EVALUATION OF A PROFESSIONAL DEVELOPMENT TECHNOLOGY TRAINING PROGRAM AS REPORTED BY SELECTED SCHOOL ADMINISTRATORS

AUTHOR: NEWMAN, JONI M.

DEGREE: ED.D

INSTITUTION: UNIVERSITY OF SARASOTA ADVISER: MARY GOURLEY

■ **TITLE:** THE EFFECTS OF A BALANCED, ACCELERATED, AND RESPONSIVE LITERACY PROGRAM ON THE READING GROWTH OF ELEMENTARY SCHOOL STRUGGLING READERS (PROGRAM EVALUATION, REMEDIAL READING)

AUTHOR: DUFFY-HESTER, ANN MARIE

DEGREE: PH.D

INSTITUTION: UNIVERSITY OF GEORGIA ADVISER: JAMES
F. BAUMANN

- **TITLE:** AN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QUALITY ENHANCEMENT ACCREDITATION
INITIATIVE TO IMPROVE THE QUALITY OF
SCHOOL-AGE CHILD CARE IN NORTH CAROLINA
(NATIONAL SCHOOL AGE CARE ALLIANCE)

AUTHOR: HALL, ALICE HENDERSON

DEGREE: PH.D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ADVISER: DEBORAH J. CASSIDY

- **TITLE:** EFFECTIVENESS OF EXPERIENTIAL EDUCATION
PROGRAMS IN PROMOTING ENVIRONMENTAL
AWARENESS OF YOUTH (TEXAS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4-H WILDLIFE AND
FISHERIES SCHOOL ENRICHMENT PROGRAMS,
PROGRAM EVALUATION)

AUTHOR: WHITT, STACY DEAN

DEGREE: PH.D

INSTITUTION: TEXAS A&M UNIVERSITY ADVISER:
HOWARD LADEWIG

- **TITLE:** ELEMENTARY GENERAL EDUCATORS' BELIEFS,
ATTITUDES, AND PRACTICES OF PORTFOLIO
ASSESSMENT (ELEMENTARY SCHOOL
TEACHERS)

AUTHOR: SONNIER, CHARLOTTE ANNE

DEGREE: PH.D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ALABAMA ADVISER:
MARY BEIRNE-SMITH

- **TITLE:**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WISCONSIN GEOGRAPHIC ALLIANCE
EDUCATION PROGRAM (MIDDLE SCHOOL,
GEOGRAPHY INSTRUCTION)

AUTHOR: ALEXSON, RANDY GABRYS

DEGREE: PH.D

INSTITUTION: THE UNION INSTITUTE ADVISER: MICHAEL
QUINN PATTON

- **TITLE:** AN EVALUATION OF THE PSYCHOSOCIAL AND
EDUCATIONAL OUTCOMES IN AN ALTERNATIVE
EDUCATIONAL PROGRAM (PROGRAM
EVALUATION, SCHOOL SOCIAL WORK)

AUTHOR: CARPENTER-AEBY, TRACY

DEGREE: PH.D

INSTITUTION: UNIVERSITY OF GEORGIA ADVISER:
BONNIE YEGIDIS

- **TITLE:** AN EVALUATION OF SCHOOL BOARD HEARING
PROCEDURES AND THE TRIAL DE NOVO APPEAL
IN CAREER TEACHER EMPLOYMENT
TERMINATION PROCEEDINGS IN OKLAHOMA
PUBLIC SCHOOLS (DISMISSAL, TEACHER DUE
PROCESS ACT)

AUTHOR: TATE, JAMES OLIVER

DEGREE: PH.D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OKLAHOMA ADVISER:
LAWRENCE ROSSOW

- **TITLE:**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ARVER MIDDLE SCHOOL READING
INTERVENTION PROGRAM (READING
INTERVENTION, AT RISK, INTERVENTION)

AUTHOR: HEWITT, PATRICIA BRADLEY

DEGREE: PH.D

INSTITUTION: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ADVISER:

GLORIA CORRERO

■ **TITLE:** AN EVALUATION OF TEACHERS' , STUDENTS' AND PARENTS' PERCEP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A MIDDLE SCHOOL MODEL PROGRAM

AUTHOR: PADASAK, JOSEPH OLIVER, JR.

DEGREE: ED.D

INSTITUTION: WIDENER UNIVERSITY

■ **TITLE:** AN EVALUATION OF WIND BAND COMPOSITIONS IN THE TEXAS PUBLIC SCHOOL SETTING ACCORDING TO SPECIFIC CRITERIA OF ARTISTIC MERIT

AUTHOR: RHEA, TIMOTHY BRETT

DEGREE: D.M.A

INSTITUTION: UNIVERSITY OF HOUSTON ADVISER: STEVE F. WERPY

■ **TITLE:** INFORMATION TECHNOLOGY AND EDUCATION: AN EVALUATION OF A SCHOOL LAPTOP COMPUTER PROGRAM (CONSTRUCTIVISM)

AUTHOR: SCHIEBER, CRAIG EVAN

DEGREE: ED.D

INSTITUTION: SEATTLE PACIFIC UNIVERSITY ADVISER: JEFFREY T. FOUTS

■ **TITLE:** IMPROVING MATH ACHIEVEMENT SCORES ON THE ILLINOIS GOALS ASSESSMENT PROGRAM USING THE "COUNTDOWN" VIDEO TAPE SERIES (TEXTBOOKS, SCHOOL PSYCHOLOGISTS, CHICAGO PUBLIC SCHOOLS)

AUTHOR: PETROPOULOS, WILLIAM Z.

DEGREE: PH.D

INSTITUTION: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ADVISER: RONALD MORGAN

■ **TITLE:** THE 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OF TECHNOLOGY STANDARDS FOR INSTRUCTIONAL PERSONNEL: A CASE STUDY OF THE PROCESS USED BY ONE VIRGINIA SCHOOL DISTRICT (INNOVATION DIFFUSION, TEACHER TRAINING)

AUTHOR: HEATON, LISA A.

DEGREE: PH.D

INSTITUTION: UNIVERSITY OF VIRGINIA ADVISER: HAROLD J. BURBACH

■ **TITLE:** MARION COUNTY SCHOOL SYSTEM TEACHERS' PERCEPTIONS OF THE PROFESSIONAL EDUCATION PERSONNEL EVALUATION PROGRAM OF ALABAMA (PEPE) (GENDER DIFFERENCES)

AUTHOR: ARMSTRONG, SHERRY PICKARD

DEGREE: ED.D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ALABAMA ADVISER: JULIE C. LAIBLE

■ **TITLE:** THE PENNSYLVANIA SYSTEM OF SCHOOL ASSESSMENT: SOCIOECONOMICS AND READING COMPREHENSION (EIGHTH-GRADE)

AUTHOR: CANDELORO, LUCILLE FRANCESCA

DEGREE: ED.D

INSTITUTION: LEHIGH UNIVERSITY ADVISER: JOSEPH P. KENDER

■ **TITLE:** PERCEPTIONS OF FIRST-YEAR PUBLIC SCHOOL TEACHERS IN THE BROWNSVILL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APPRAISAL SYSTEM
(TEXAS, TEACHER EVALU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AUTHOR: ATKINSON, SYLVIA PEREZ

DEGREE: ED.D

INSTITUTION: UNIVERSITY OF HOUSTON ADVISER:
RICHARD L. HOOKER

- **TITLE:** PROCESSING DISORDERS AND THE NEED TO
EXAMINE AND STANDARDIZE CURRENT
ASSESSMENT AND IDENTIFICATION
PROCEDURES (LEARNING DISABILITIES,
SCHOOL PSYCHOLOGISTS)

AUTHOR: CARLSON, CELESTE MARIA

DEGREE: ED.D

INSTITUTION: UNIVERSITY OF THE PACIFIC ADVISER:
STEPHEN E. TROTTER

- **TITLE:** THE ROLE OF ASSESSMENT INFRASTRUCTURES
IN CRAFTING PROJECT-BASED SCIENCE
CLASSROOMS (SCHOOL REFORM)

AUTHOR: D' AMICO, LAURA MARIE

DEGREE: PH.D

INSTITUTION: NORTHWESTERN UNIVERSITY ADVISER:
LOUIS M. GOMEZ

- **TITLE:** SPIRITUAL EDUCATION: AN ASSESSMENT OF
JEWISH ADOLESCENTS (HEBREW SCHOOL,
HIGH SCHOOLS, GENDER DIFFERENCES)

AUTHOR: SHAPIRO, SUSAN

DEGREE: PH.D

INSTITUTION: TEMPLE UNIVERSITY ADVISER: MEL
SILBERMAN

- **TITLE:** A STUDY OF POSSIBL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NSTRUCTION OF TEACHER-
MADE PROBLEMS THAT ASSESS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ASSESSMENT,
MATHEMATICS TEACHERS, HIGH SCHOOL
TEACHERS)

AUTHOR: HARPSTER, DAVID LYNN

DEGREE: ED.D

INSTITUTION: MONTANA STATE UNIVERSITY ADVISER:
WILLIAM HALL; MAURICE BURKE

- **TITLE:** TECHNOLOGY INVESTMENT, USE AND
EVALU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THE
PRACTICES IN ILLINOIS SCHOOL DISTRICTS
(COMPUTER USE, CONSTRUCTIVISM)

AUTHOR: SCHLICHTING, GLENN THEODORE


DEGREE: PH.D

INSTITUTION: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ADVISER: STEVEN I. MILLER; MAX BAILEY

- **TITLE:** UTILITY OF THE DAS-NAGLIERI: COGNITIVE
ASSESSMENT SYSTEM IN THE DISCRIMINA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ND SPEECH
IMPAIRMENTS

AUTHOR: BRAMS, ANDREW GLENN

DEGREE: PH.D

INSTITU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ADVISER: ACHILLES N. BARDOS 

외진 곳, 조그마한 학교에 기쁨을 주자!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에게 「교육개발」을 보냅니다

-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자녀들의 담임 교사, 외진 곳의 조그마한 학교에 「교육개발」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개발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신청자의 이름으로 각급 학교에 기증됩니다.
- 기증구좌 종류는 1구좌 이상으로 자유로우며 1구좌(1년 정기구독료)는 1만 8천원입니다.
- 서점에서 납권 구입가격은 5,500원입니다.
- 기증하신 분의 이름이 교육개발에 올라지는 약간의 효뭇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회비 납부처(예금주: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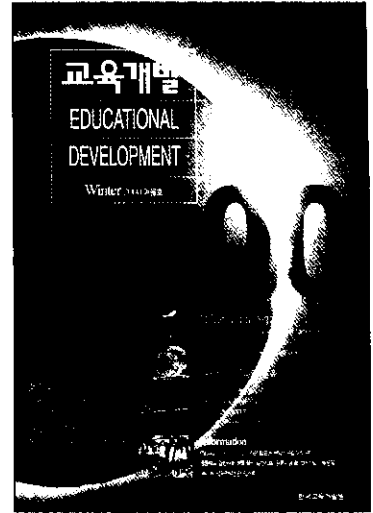
- 농협 369-01-010147
- 국민은행 070-25-0037-637
- 한빛은행 843-04-101220
- 외환은행 296-22-00296-3

■ 문의처

137-791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홍보출판팀
 Tel. (02) 3460-0234, 0235, 0408, 0411
 Fax. (02) 577-5117, 579-0746
 E-mail. keditor@ns.kedi.re.kr
 천리안 ID : coms · 하이텔 ID : kedicoms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 가입신청서"는 엽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입후 팩스나 우편, 통신으로 우송 요망)

■ 교육개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곽병선(7)·구자익(5)·강숙희(5)·고민훈(2)·고 전(2)·권재현(1)·권처순(1)
 김동석(10)·김명숙(2)·김양분(2)·김우종(2)·김이경(5)·김정자(1)·김태현(3)
 김혜숙(4)·김홍원(7)·남미영(5)·류경숙(1)·박미화(2)·박영숙(3)·박인숙(3)
 박찬숙(1)·박효정(2)·서종문(1)·손용택(3)·송관중(2)·신석기(1)·신차균(1)
 심용기(1)·안혜원(1)·오병진(1)·오승근(3)·이강철(1)·이규형(1)·이상락(3)
 이서복(1)·이시찬(1)·이용철(2)·이정순(1)·이중섭(2)·이진희(1)·이찬희(5)
 이태근(1)·이현주(1)·이화수(2)·임소현(1)·임연기(2)·임종수(2)·장인식(1)
 전지영(1)·정경아(2)·정광희(5)·정영순(6)·정완철(2)·정태호(1)·조석희(8)
 조윤경(1)·최돈형(2)·하혜영(5)·한미라(2)·한유경(2)·홍영란(1)·김유태(1)
 이만희(1)·이화춘(1)·이강희(1)·최상근(1)·박선환(2)·이동철(2)·현 주(3)
 김성근(1)·최은남(2)·송병화(1)·황용화(1)·김인경(1)·강영혜(2)·류방환(3)
 김은주(1)·김희진(1)·김정원(2)·이인호(8)·김무철(1)·추선영(1)·윤종혁(5)
 이종태(2)·장영숙(2)·조정우(3)·김현식(3)·한민길(3)·노정화(1)·유현숙(2)
 김병관(1)·김혜영(5)·배호순(3)·류숙희(2)·홍정숙(3)·서혜애(3)·조광원(3)
 이경중(1)·이동수(1)(1)안은 부수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곽병선

출판심의위원

정택희(위원장)·구자익·김정자
 김무철·김홍원·김홍주·김혜숙·유균상
 유현숙·최돈민·한유경

홍보·출판팀장
구자익

편집
정경아·정재기·이경희

행정
송관중·하혜영

해외통신원

김영주(미국)·안미숙(영국)
 이부련(프랑스)·장은희(독일)
 이정미(일본)·姜英敏(중국)

디자인
디자인리서치(517-4834)

교열·교정
윤혜숙

일러스트
김의숙

사진
데자부(511-4595)

인쇄
코리아 해럴드

E-mail keditor@ns.kedi.re.kr
 Home-Page www.kedi.re.kr
 천리안 ID coms 하이텔 ID kedicoms
 ISSN 1228-291X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우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교육개발 / 2000년 겨울호 / 통권 121호
 2000년 1월15일 발행 / 계간 / 등록번호
 문화바 02773 등록변경 / 1999년 6월 30일
 값 5,500원